

THE MISSILE

1962年 7月 20日 印刷
1962年 7月 25日 發行

月刊 **미사일**

1962

8

人和와 團結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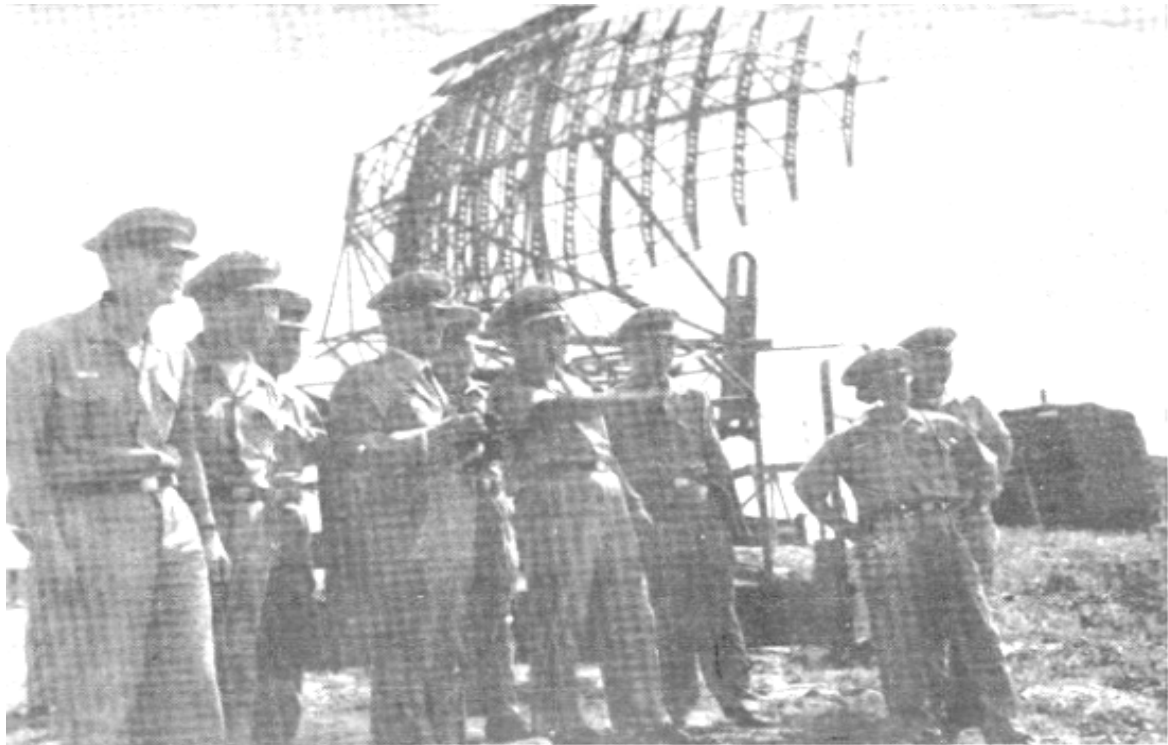
特輯

미사일의 民主主義의 바탕에
대한 民主主義가 디디고 서야 할 것

美國民主主義의 바탕 · 프랑스民主主義의 바탕



第16號



김총장(金總長) 각부대(各部隊) 순방(巡訪)

김신(金信) 참모총장은 7월 5일부터 25일까지 각 기지를 방문하고, 묵묵히 주어진 임무에 불철주야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무 격려하였다. (사진은 K-53 기지에서)



월간 미사일 16호 차례

표지(表紙) 그림 : 문학진
 표지(表紙) 구성(構成) : 유기영
 목차(目次) 컷 : 우경희
 내용(內容) 컷 : 이희세, 이순재, 백영수

△
 화
 보
 ▽

- ◇ 김총장(金總長) 각부대(各部隊) 순방(巡訪)
- ◇ 10전비(十戰飛)서 무사고비행(無事故飛行) 만시간(萬時間)을 돌파(突破) (표지 3면)
- ◇ K4기지사 위령비 제막식 (표지 3면)
- ◇ K-2기지 횡단 군민합동 수로 개척 작업 (표지 4면)

인화(人和)라는 것	이희승(李熙昇) (2)
단결(團結)이라는 것	김윤경(金允經) (5)

올바른 민주주의의 바탕을 기르자

주인(主人)노릇 해야지	〈자주정신(自主精神)〉	차기벽(車基璧) (8)
책임(責任)과 제도(制度)와 생활(生活)과	〈책임관념(責任觀念)〉	권순영(權純永) (10)
누구나 통할 수 있다	〈이해심(理解心)〉	김재준(金在俊) (11)
바쁘면 돌아가라	〈창의심(創意心)〉	김옥길(金玉吉) (13)
먼저 깨우쳐야겠다	〈자각심(自覺心)〉	이상은(李相殷) (15)
과학(科學)하는 마음	〈창의정신(創意精神)〉	최태호(崔台鎬) (17)
한국 민주주의가 디디고 서야할 것		신일철(申一澈) (18)
시련(試鍊)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한국화(韓國化)를 위한 기초적(基礎的) 자세(姿勢)는 무엇인가?		
미국 민주주의의 바탕		임영신(任永信) (22)
프랑스 민주주의의 바탕		김향안(金香岸) (21)

- △ 중공(中共)의 내중(內腫) <대(對) 파키스탄 도발(挑發) · 식량(食糧)과 인구고민(人口苦悶) · 반혁명사건(反革命事件)> 김사천(金史泉) (24)
- △ 잉카족의 수도(首都) <세계(世界) 경이순례(驚異巡禮)> 김영주 (49)
- △ 속담춘추(俗談春秋) 고객자(孤客子) (45)
- △ 만화(漫畫) 고두현 (66)
- 한 여름밤의 꿈 이상호(李相昊) (67)
- 미사일 인생안내(人生案内)

세계(世界)에의 창(窓)	런던의 한국관(韓國觀) · 베를린(伯林)의 인정미(人情味) · 김대수(金大洙) (35)
	미국을 바르게 알자 · 양윤세(梁潤世) (36)

한국의 부흥(復興)과 농촌(農村)의 역할(役割)	홍기창(洪基昶) (32)
군축(軍縮)을 위한 현실적(現實的)인 길	부라켓트 (28)
☆ 도양(渡洋) 항공시대(航空時代) 來到(내도) <항공발달사(航空發達史) ⑤>	K·나이트 (76)

현대의 방향

교육(教育) <우리나라의 실정(實情)을 중심으로>	왕학수(王學洙) (40)
영화(映畵) <한국 영화(映畵)의 현재성(現在性)>	유두연(劉斗演) (42)

☆ 정치(政治)와 경제(經濟)에 미치는 매스컴의 영향(影響)	김기점(金基漸) (52)
☆ 허위(虛偽)의 예술(藝術) 공산주의(共產主義) 작가(作家)인 필자(筆者)는 공산주의(共產主義) 예술(藝術)의 허위성(虛偽性)을 후르시초프에 대해 공박(攻駁)하고 체포(逮捕)되었다 나루이토프 (25)	

북한정찰비행(北韓偵察飛行) 한국동란(韓國動亂) 때의 실기(實記)

- 캐나다의 육군소령(陸軍少領)과 미국 조종사의 이야기 J·트럼브레이 (62)
- ☆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 안수길(安壽吉) (46)
- ☆ 하늘을 누비는 오빠들께 <공군장병(空軍將兵)에의 위문편지> 유민이(劉敏伊) (64)
- 경제5개년(經濟五個年) 계획(計劃) 첫 돌맞이
- <군내 현상논문(懸賞論文) 가작입선(佳作入選)> 김성칠(金星七) (56)

일기쉬운 회화(繪畵) · 음악(音樂) · 영화(映畵) 감상법 · 제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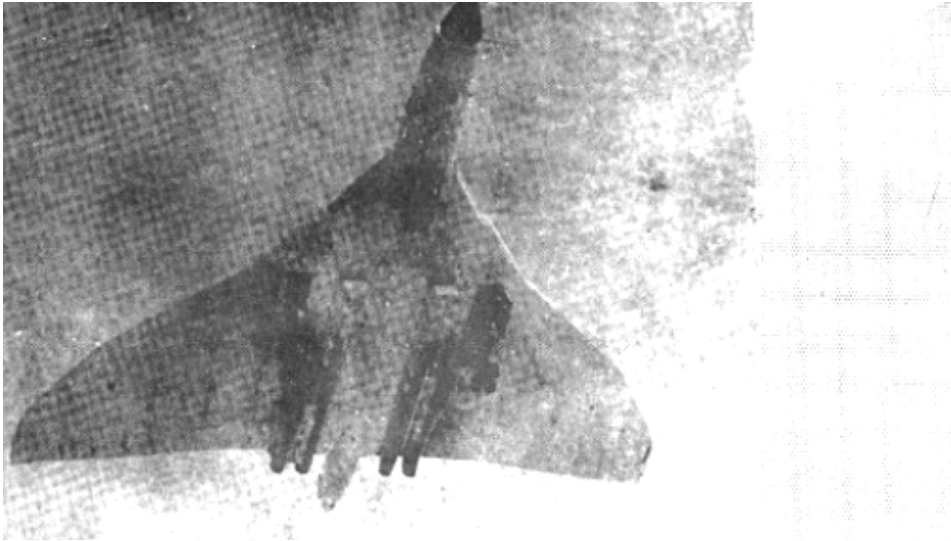
◇ 회화(繪畵) · 송병돈(宋秉敦)	◇ 음악(音樂) · 이성삼(李成三)	◇ 영화(映畵) 김규동(金奎東) (68)
---------------------	---------------------	------------------------

장병 페이지	제7항로보안단편(第七航路保安團篇) (94)
--------	-------------------------

미사일 교실(教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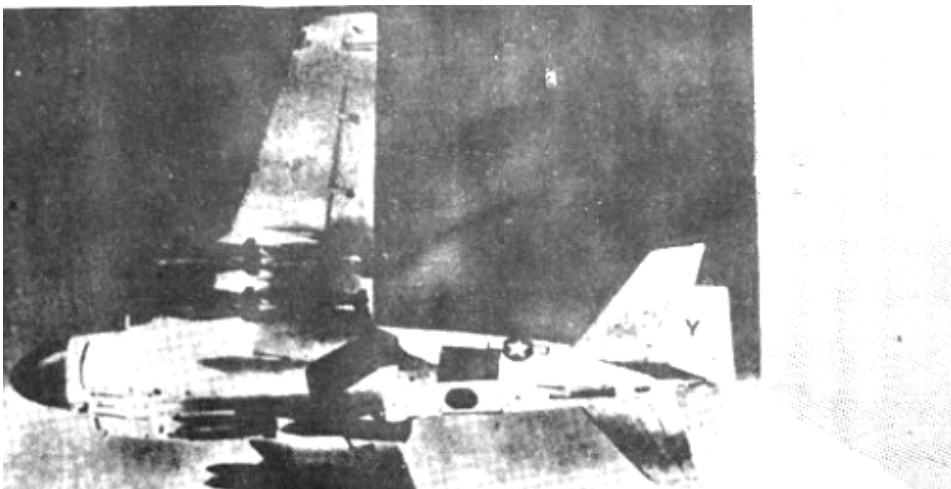
민주주의 원리(原理) 세미나	<민주주의>	김낙봉 (79)
공산주의(共產主義) 세미나	<공산주의(共產主義)>	이동현(李東賢) (82)
생활경제(生活經濟) A · B · C	<경제(經濟)>	최호진(崔虎鎭) (85)
고분자화합물(高分子化合物)	<과학(科學)>	이종진(李種珍) (83)

- ★ 혈액순환(血液循環)의 원리(原理) <세계(世界)를 움직인 책들> 오병수 (55)
- 창작(創作) 과란 창(窓)과 아이의 행복(幸福) 김요섭(金耀燮) (91)
- 번역 소설(小說) 조용한 살인(殺人) · 로이 · 카로울, 유기(柳起) 영역(英譯) (87)
- 그는 살인(殺人)을 하였다. 누구를 위한 살인(殺人)인가?
- 아니 그는 살인죄(殺人罪)의 처형(處刑)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가? 작자(作者)는 독자(讀者)에게 묻는다



Avro vulcan (영) — 1957년 5월 최초(最初)로 취역(就役)한 이래(以來) 영국공군(英國空軍) 공격(攻擊)의 핵심적(核心的)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하고 있는 동기(同機)는 재래식(在來式) 무장(武裝)에 추가(追加)하여 두 개의 '스카이볼트'탄도탄을 장비할 수 있으며 6만 피트 고공(高空)에서 음속(音速)의 0.95 배(倍)로 비행한다.

Grumman A 2F Intruder (미) — 1960년 4월 최초(最初)로 비행한 동기(同機)는 미 해군(海軍)이 한국전(韓國戰)의 경험(經驗)을 토대(土臺)로 국지전(局地戰)에 사용(使用)토록 제작(製作)한 것이다. 현재(現在) 생산중(生産中)이며, 탐색 및 추적 '레이더'를 장비(裝備)한 복좌(複座)의 동기(同機)는 해발고도(海拔高度)에서 음속의 0.9 배(倍)로 비행한다.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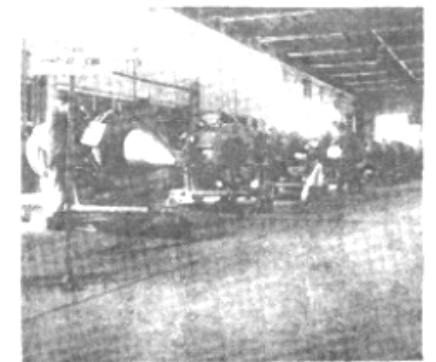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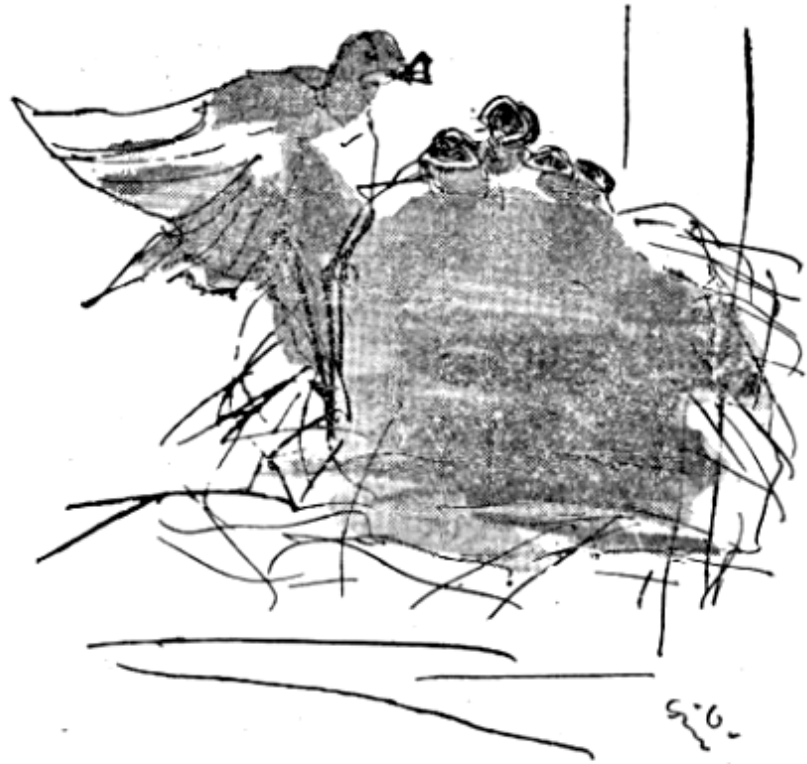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컷…… 우경희(禹慶熙)

인화(人和)라는 것

-서로 믿어야 한다-



이희승(李熙昇)

<서울 문리대(文理大) 명예교수(名譽教授)>

동양(東洋)에서 공자(孔子)에 다음가는 성인(聖人)이라고 불리는 맹자(孟子)의 말씀에 “천시(天時)가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가 인화(人和)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 — 「孟子」公孫丑章 下)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천시(天時)라는 것은 시일(時日)·간지(干支)·주야(晝夜)·한서(寒暑)·청우(晴雨)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무슨 일을 실행에 옮길 적에(혹은 적에 대하여 공격(攻擊)을 가할 때에), 날씨가 명암(明暗=밝은 때, 어두운 때)이나 또는 일진(日辰)이 좋은 날 즉 길(吉)한 날을 택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좋은 때를 고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리(地利)만 못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지리(地利)라는 것은 전략상(戰略上) 좋은 지형(地形)을 이르는 것이니, 즉 훌륭한 요새지대(要塞地帶)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이러한 훌륭한 요새를 금성탕지(金城湯池)라 일러 왔으니, 금성은 쇠로 쌓은 성이요, 탕지는 끓는 물이 고인 못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무리 공격하여도 도저히 두려울 수 없는 훌륭한 요새지대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요새라도 또한 인화(人和)만 못하다는 것이니, 무슨 일을 해내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인화가 제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인화(人和)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집단(集團)이나 기관(機關)에 있어서 그 단체를 이룬 각 사람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화기애애(和氣霽霽)한 가운데 일치단결하는 정신(精神)을 이르는 말이니, 이와 같은 정신으로 무슨 일을 행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못 이루어낼 일이 없다는 뜻이다.

인화는 이와 같이 훌륭하고 필요한 것이다. 모든 일에 대한 성공(成功)의 요체(要諦)는 실로 이 인화에 달렸다 할 것이다.

행정기관(行政機關)이나 기업체(企業體)나 학원(學園) 등 모든 단체에 있어서, 그 수행하는 업무(業務)를 성공적(成功的)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이 인화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군대(軍隊)의 가장 중요한 전투행동(戰鬥行動)에 있어서도 이 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적(敵)을 격퇴(擊退)하거나 궤멸(潰滅)시킬 승산(勝算)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뿐만 아니라 한 가정(家庭)에 있어서도, 또는 비록 가족이 없는 어떤 개인이라 할지라도, 활동을 하고 생활을 영위(營爲)하려면,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과 접촉(接觸)을 하여야 할 것이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대인관계(對人關係)에 있어서는 이 인화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인화가 조금도 없다면 그 가정이나 사회에 아무런 안정(安定)이고 질서고 평화라는 것은 전연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그 가정이나 그 사회는 곧 쇠망(衰亡)의 비운(悲運)에 빠지게 될 것이요, 동시에 그 개인 자신도 필경 파멸(破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고 보면 인화라는 것이 인간 생활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좌우(左右)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우리는 이 인화라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인화를 조성(造成)하고 또 유지(維持)할 수 있을까?

첫째는 참는 일이다. 어렵고 곤란한 일이다. 비위에 틀리고 분통이

미 사 일

제 16호

1962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 겸 편집인·공군대령 주정호
 인쇄처·공군교재창 김석환
 인쇄인·공군대령

터지는 경우에 당면(當面)하였을 적에라도, 그저 꺾죽 참아야 하겠다.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곧 탄하고, 조금만 눈꼴에 틀리는 일을 보아도 곧 대들어서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리겠다고 나서게 되면, 거기서 벌써 인화는 깨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란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살 수 있으며, 보기 싫은 꼴을 죄 탄해서, 나의 떳떳하고 정당한 것을 이루 다 밝히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속담에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어.”는 것도 있지만 이 반면(反面)에, “입 다물기를 병마개와 같이 하여라.”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재앙(災殃)은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다.

좁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봉건적(封建的)인 잔재(殘滓)라고 비난을 받을 이야기 일지는 모르나, 그 전날 우리 가정에서 무던한 새 며느리가 되려면, “귀머거리로 3년, 소경으로 3년, 병어리로 3년, 석 3년을 병신구실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전하여 오고 있으니, 이것은 갓 시집은 새 며느리로서는, 무엇을 들어도 못 들은 체, 보아도 못 본 체, 하고 싶은 말도 병어리인 체,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하여 너무도 가혹(苛酷)한 제재(制裁)라고 하겠지만, 만일 이와 같이 실행하고, 말 없이 탈 없이 구순하게 지내 가는 며느리가 있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人格者)며, 그 얼마나 화기에애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 이런 며느리가 자라서 시어머니가 되고 가정 주부(主婦)가 된다면 그 가정은 물을 것 없이 화기가 가득 차서 있을 것 아닌가. 그러므로 옛날부터 “백 번 참는 가정에는 큰 평화가 있다.”(百忍堂中有太和)라는 금언(金言)이 전하여 오는 것이다. 그리고 “참으면 덕이 된다.”(忍之爲德)는 말도 있다. 덕은 곧 참는 데서 생기는 것이요, 화기를 지어내는 상징(象徴)이 되는 말이니, 그러므로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훌륭한 이웃이 생기게 된다.”(德不孤必有隣)는 말도 인생 생활의 진리(眞理)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병신 생활을 3년씩 세 번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타박을 한다면, 문제는 그만이다. 인화는 곧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될 것이 불을 보느니 보다 더 분명한 일이다. 웬만한 일은 누구나 다 참을 수 있다. 요는 사람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야 참는 보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떤 외국 속담에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진정 참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다. 또 중국사람 여본중(呂本中)이 이도(吏道)의 좌우명(座右銘)이 될 만한 「관잠(官箴)」이란 것을 만들었으니, “참을 인(忍)자 한 자가 온갖 묘리의 문(門)이 되나니, 관리가 되어서 사무를 처리할 적에 더욱 이것을 먼저 힘써야 한다. 만일 청렴하고 조심성스럽고 부지런한 외에, 참는 것 한 가지만 더한다면, 무슨 일을 해내지 못하겠는가.”(忍之一字衆妙之門, 當官處事尤是先務, 若能清慎動之外, 更行一忍, 何事不辦)라는 것이다. 그리고 송(宋)나라 때 부필(富弼)이란 사람은 어려서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짐짓 못들은 척 하는 것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핑계 주면, 그는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이겠지.”하고 만다. 그 사람이 “아니오, 분명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욕을 합니다.”하면, 부필은 “여보 세상에는 같은 이름도 있을 것 아니오”하고 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를 욕하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몹시 부끄러워했다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며 얼마나 부필의 참는 마음이 깨끗하였던가.

인화를 지어내는데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 믿는 일이다. 가정이나 사회 혼란의 원인의 태반은 불신(不信=믿지 못하는 일)에서 생기는 것이다. 원인의 태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믿지 못하는 일에서 생기게 된다. 세상에는, “믿는 나무에 곰이 핀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믿는 정도가 지나친 데서 생긴

말이요, 그것이 곧 세상에 신(信)이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다. 사람은 서로 믿어야 하겠군, 그러므로 믿는 일이 다반사(茶飯事)와 같이 흔해빠지며, 너무 많은지라 그 중에서는 믿는 일로 하여 낭패도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무지 서로 믿지 않고 살아 본다고 하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믿을 수 없으니 재산을 서로 도둑질해 내는 것만 같고, 심지어는 저것이 과연 나의 자식인가, 저이가 진정 나의 부모인가 하는 것까지도 의심스러워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내외간에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처증(疑妻症)이란 신경쇠약에 걸려서,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비극이 이 세상에 무더기로 쏟아져 생기게 될 것이다.

면도로 목줄띠를 찌를까봐 이발사 턱밑에서 눈을 감고 얼굴을 치받칠 수가 없을 것이요, 안방 아랫목에 앉자니 들보가 부러져 내려올 염려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문 밖엘 나서자니 땅이 꺼질까 겁이 날 것이요, 심지어는 하늘이 무너져서 노루가 창애에 치듯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까봐 애가 마르게 될 것이다.

「열자(列子)」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기(杞)라는 나라에 한 사람이 있으니, 하늘이 무너져서 떨어지면, 몸 둘 곳이 없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침식(寢食)까지 전폐해버렸다고. 이런 까닭에 ‘기우(杞憂)라는 속어(熟語)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이 말은 ‘지나친 걱정’·‘쓸데없는 염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은 ‘기우’와 정반대로, 모든 것을 믿고 살라는 것을 강조(強調)한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사람끼리만은 서로 믿고 살아야 하겠다. 또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萬里城)을 쌓는다.”는 속담이 있다.

옛날 진시황(秦始皇) 시절에, 북방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성을 쌓기 위하여 온 나라 안의 장정들을 징집하여 들였다. 워낙 거창한 공사인지라 수많은 장정이 모여서 여러 해를 계속하여 공사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각 사람의 본집들에서는 전장(戰場)에 나간 아들이나 남편처럼 눈이 까맣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좀처럼 돌아오지를 않았다.

어떤 지방에, 장성 쌓는데 부역(賦役)을 나간 남편을 몇 해째 기다리고 있는 미모의 젊은 여자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미모의 여자를 은근히 사모하는 이웃 동리의 남자가 있어서, 사모하고 사모하면 나머지 하룻밤에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그 여자의 집에 뛰어 들어갔다. 그리하여 평생의 소원을 호소하며 간절히 애원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한 가지 조건을 내놓는 것이었다. 조건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만일 자기 남편을 대신하여, 만리장성 쌓는데 가서 부역을 하고 자기 남편을 돌려보내 준다면 꼭 하룻밤 몸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쾌히 허락하고 이를 굳게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하룻밤을 동침한 후, 그 약속대로 수 천 리 길을 머다 않고 장성 쌓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 자기가 그 부역을 대신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라는 속담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웃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하여 약속을 틀림없이 지켰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신의(信義)가 끔찍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미담(美談)이 아닐 수가 없다.

어쨌든 저만한 정도로 인내(忍耐)를 하고, 이만한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세상이 된다면, 그 사회는 인화가 가득한 평화향(平和鄉)이 되고, 안락경(安樂境)이 될 것이니, 이것이 곧 ‘유토피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낙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영하는 일은, 만사 ‘오케이’요, 얼마다 소원대로 성취(成就)되지 않을 리가 없다.

— 1962. 6. 24 —

☆ 남에게 신뢰감을 주게 하는 것은 인간 본능인 이상스러운 작용이다. 당신이 진실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며, 자기의 원칙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점을 알아준다. 당신이 만일 성실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한 점도 곧 알게 된다.
신뢰가 없는 지도자는 정말 무능력한 것이다. 그리고 신뢰받는 유일한 길은 <정직은 한때 써 먹고 마는 편리주의 보다 나은 것이라>고 믿는 일이다.

단결(團結)이라는 것

-서로 아껴야 한다-



김윤경 <한글학자>

편집자의 이러한 제목을 준 내용은 인화 단결의 요체인 '아끼는 마음'이라 하였다.

사람은 왜 인화(人和)와 단결(團結)을 요구하는가? 이는 인생의 목적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면 과거의 어진 사람, 밝은 사람, 거룩한 사람들은 사람의 삶이 어떠하여야 되겠다고 보았는가? 공자는 인(仁) 또는 지(知), 인(仁), 용(勇)을 말하였는데 '지'는 속지 않는 것(지자불혹(知者不惑))이요, '인'은 근심하지 않는 것(인자불우(仁者不憂))이요, '용'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용자불신(勇者不懼))이라 하였다. 맹자는 인(仁)과 의(義)와 예(禮)와 지(智)를 말하였고 한(漢)의 동중서는 맹자의 말에 신(信)을 하나 더하여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말하였고 맹자는 또 오륜(五倫)을 말하였는데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부자유친(父子有親)),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옳음이 있고(군신유의(君臣有義))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함이 있고(부부유별(夫婦有別)),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고(장유유서(長幼有序)),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직함이 있어야 한다(朋友有信) 함이 그것이다. 또 유교에서는 세 가지 버리(삼강(三綱))와 세 가지 좇음(삼종(三從))을 말하였는데 임금은 신하의 버리(군위신강(君爲臣綱))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버리가 되고(부위자강(父爲子綱)) 남편은 아내의 버리가 됨(부위부강(夫爲婦綱))을 세 버리라 하였고 또 여자가 집에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좇고 시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좇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에게 좇음을 세 가지 좇음이라 하였다. 또 유교에서는 여자의 일곱 가지 버릴 죄악(七去之惡)을 말하였는데 첫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고, 둘째 자식을 못 낳으면 버리고, 셋째 음란하면 버리고, 넷째 질투하면 버리고, 다섯째 고질병이 있으면 버리고, 여섯째 말이 많으면(=수다하면) 버리고, 일곱째 도적질하면 버린다 함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덕들을 지키면 '인화'가 될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기에는 봉건적(封建的) 계급주의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불평등 사상이 그 속에 쌓여 있어서 오늘날 같은 평등, 자유의 사상이 발달된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맹종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또 장자(莊子)는 상대적(相對的) 유한계(有限界)를 떠나 절대적(絕對的) 무한계(無限界)에 거니는(소요(逍遙)하는) 신인(神人(神人)), 지인(至人), 진인(真人)) 됨이 인생 최종의 목적이라 하였고, 양주(楊朱)는 백년을 살아도(이는 천 사람에 한 사람도 있기 드물지만) 아픈 병(통질)과 슬픈 괴로움(애고)과 실망(失望)과 근심되는 무서움으로 즐거움(쾌(快)한) 때가 없다가 죽으면 어진(현)나 어리석은 이(우)나 귀한 이(귀)나 천한 이(천)가 다 같은 한 움큼의 흙에 지나지 않으니 인생은 빈탕이다. 그러므로 즐길 뿐이라 하여 극단의 쾌락설 이기주의를 주창하였다. 묵자(墨子)는 하느님(神)은 상(상)과 벌(벌)을 주창하며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기를 원하며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겸애설 평화론(비전론)을 주창하여 공자의 허례주의를 배척하였다. 예수교의 박애주의와 비슷한 점이 있다. 석가모니는 고통·노쇠를 겪다가 사람은 꼭 죽고야 말게 되어 살 가치가 없으니 살 기회를 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여 '해탈(解脫)과 열반(涅槃, Nirvana)에 이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로 하였다. 예수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 박애주의를 주창하고 하느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도 완전하여야 함을 인생 최종의 목표로 교훈하였다. 공자나 석가모니는 어느 정도 소극적이라 하겠고 예수는 적극적이라 하겠다. 공자는 “나는 하늘의 도를 말하지 않는다.”(我不言天道) 하면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벌 곳이 없다.”(獲罪於天無所禱)함에 대하여 예수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같이 완전해지기를 힘쓰라 하였다. 공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己所不欲勿施於人) 함과 같이 소극적이나 예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함과 같이 적극적이다. 유교는 삼종의 도나 칠거지악을 말함 같이 계급적 불평등주

하겠으나 예수의 교훈은 세계 인류를 다 한 동포, 형제로 보는 평등주의요 자유주의라 하겠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은 곧 '인화'의 필요 불가결할 요건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흠(缺)이 있다. 흠이 있다고 하여 자유를 빼앗고 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한 사람도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혜택을 누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사회의 질서와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어길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됨이 마땅하겠지만 이 공동의 규정(곧 법)의 제재에 걸릴만한 행동의 흠이 아니라면 서로 아끼고 아끼어 사랑하기를 힘써야 마땅한 일이다. 예수는 “왼 뺨을 치거든 바른 뺨을 돌려 대라.”하였고, 또 “5 리를 가자고 하거든 10 리까지 동행하여 주고 길옷을 달라 하거든 속 옷까지 벗어 주라.”하였다. 이는 보통 사람으로는 행하기 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으나 우리는 힘닿는 대로 이러한 정신으로 남을 대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인화'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인화'가 되지 못한다면 단결 더구나 굳은 단결은 이를 수 없음이 확실하고 굳은 단결이 아니고는 변명과 행복은 누리게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우리가 단결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되었고 남의 종도 되었었고 가장 불행한 민족이 된 것임은 우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과거의 선조들은 극단으로 사대사상(큰 나라를 섬기어 종으로 자처하는 생각)에 중독되어 극단으로 자이를 잃어 버려 '한 무제 토벌지(漢武帝討滅之) 하시고……'하는 따위 문구(文句)를 넣은 한문을 가르칠 뿐 아니라 중국의 한나라 무제가 우리를 쳐 멸함이 그렇게도 고맙든지 극존칭의 '하시고'란 말을 어린이 머릿속에 비관도, 반성도 없이 그 썩은 사상을 불어 넣어 주어 왔다. 그 결과 자기의 고요한 역사, 문화, 풍속, 습관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중국 사람으로 화하여 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작은 중국 사람이라 불렀다(華人, 稱之曰, 小中華). 이러한 모욕도 깨닫지 못하고 특하면 이를 큰 보배나 지닌 듯이 자랑으로 내세웠다. 이는 나 자신도 어릴 때 사숙에서 이러한 교과서인 「동몽선습(童蒙先習)을 배웠다. 그리고 중국의 황하, 양자강이나 태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잘 설명하여 주는 선생이 백두산, 금강산이나 금강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 순제 “내가 아니?”하고 통명과 역정과 책망을 퍼부음에 불평을 품고 반항하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리하여 한문 배우는 사숙을 버리고 서ولو 와서 학교에 입학하여 우리의 국어와 역사, 지리, 산술, 대수, 이과 …… 따위의 새 학문을 배울 때 자아 망각의 사대사상의 한문 교육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를 알게 되는 동시에 새 교육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과거의 노예사상, 사대주의 중독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썩은 머리를 씻어 버리고 자유와 평등과 사랑으로 인화를 얻고 따라서 단결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남 같이 변명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웃에서 입을 벌리고 삼키기를 노리는 적에게 멸망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라면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다. 흔히 무조건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토마스 힐 그린은 말함과 같이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함과 같은 남의 자유를 방해함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을 이룸이다.” 또 평등이라 함도 오해하기 쉽다. 각 사람의 능력(학술이나 기술)까지를 무시하고 평등이라 함은 아니다. 인격의 자유나 권리가 누구나 다 같이 봄이 평등의 뜻이다. 인격이 끼치는 은택의 범위로 본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남에게 손해만 끼치는 '마이너스(-)의 인격도 있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도 손해도 끼침이 없는 '제로(0)의 인격도 있고 자기 이웃으로부터 전 민족, 전 국가 내지 전 인류에게 영원히 은택을 끼치는 '플러스(+)'의 인격, 곧 무한대의 인격도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인격은 천차만별이라 할 것이다. 사랑도 세계 인류를 똑같이 사랑한다면 이는 참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널리 무제한으로 미치게 할 수는 없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에 미치어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의 교훈 중에도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함은 거짓말하는 자라.” 하였다. 가까운 부모와 처자를 굶어죽게 내버려두고 빈민이나 고아를 구제한다 함은 외식하는 자라 할 것이며 거짓 착한 체하는 자라 할 것이다. 이같이 적극적 사랑은 힘의 한도가 있으므로 최선의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미치기를 힘써서 박애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 사랑은 무한히 넓힐 수가 있겠다. 이는 곧 어떠한 사람에게나 해가 미칠 행동을 엄금하고 삼가는 것이 그것이다.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의 대부분은 6·25 공산군 침입으로 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김과 같이 외적을 막기 위하여 많은 군비로 바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적이 남을 아끼는 마음을 가졌다면 군비 때문에 생기는 손실은 안 당할 것이다. 또 교도소, 경찰서, 재판소들로 인한 모든 비용을 위한 전 국민의 부담은 이러한 기관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인 즉 이러한 범죄자들이 남에게 해를 안 입히겠다는 소극적 사랑이라도 한다면 전 국민에게 그러한 손해는 안 끼칠 것이다. 그러므로 소극적 사랑은 적극적 사랑보다 그 미쳐가는 범위가 더 넓고 크다고 하겠다. 남에게 해를 안 입히겠다는 소극적 사랑은 누구나 저마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인화는 이러한 적극적 소극적 사랑 곧 ‘아끼는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젊었을 때에 읽고 감격이 컸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하루는 손과 발, 눈, 귀, 코……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손이 말하기를 나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집어오면 배만 좋게 하지 나에게서는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발이 말하기를 나는 맛있는 음식을 얻으러 걸어가느라고 죽도록 애를 써야 역시 배만 좋게 만들어 주고 나에게서는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눈이 또 말하기를 나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먼저 발견하지만 배만 불러주지 나에게서는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 귀가 또 말하기를 어디에 좋은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제일 먼저 듣지만 배만 좋게 했지 나에게서는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 코가 또 말하기를 나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먼저 판단하여 놓으면 배만 좋게 했지 나에게서는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 손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남만 위하여 일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다 소득이 없으니 일제히 이제부터 동맹 파업을 시작하자 하매 일동은 일제히 재청이요 삼청이요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곧 동맹 파업을 시작하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되니까 배만 고파 죽게 될 뿐 아니라 손, 발은 움직일 기운이 없게 되고 눈은 볼 기운이 없어 앞이 캄캄하게 되고 귀는 땅막하여 들을 수가 없게 되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다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제야 일동은 동맹 파업을 중지하고 다 같이 전처럼 자기의 맡은 직분대로 일하기로 하여 죽기를 면하고 다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도 서로 사랑하여 아끼는 마음으로 학자는 진리를 발견하기에, 경찰과 군인은 내란과 외적을 막기에, 실업가는 남의 물건을 쓰지 않고도 전 민족이 쓸 수 있을 물건을 만들어 내기에, 정치를 잡은 이는 전 민족이 번영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기에, 이 밖에 누구나 자기가 민족에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이바지하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심 단결한다면 우리도 남이 부러워 할 행복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또 남의 나라까지도 도울 힘이 생기게 될 것을 확신하여 의심하지 않는다.

(1962. 6. 15 자정이 넘어서 끝냄)

◆복장과 우정

룩펠러의 청년시대의 일이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결코 값비싼 고급 양복을 입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가 연회를 베풀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눈부실 만큼 좋은 옷들을 입고 의기양양해서 참석하였다.

그러나 룩펠러만은 언제나 입던 누추한 옷을 입고 참석하였다. 친구들은 이것을 보자 모두를 예의가 아님을 힐난하였다. 이 말을 들은 룩펠러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듯이 “내 복장 말인가?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닌데 단지 자네들의 옷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보게. 다소는 장수도 생각하게. 초대된 주인 측에 대해서 실례가 아닌가?”그러자 룩펠러는 투박스럽게 말하였다. “아냐. 내 친구는 복장의 여하에 따라서 호의의 유무나 후박을 운운할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아는데……”이 한마디에 과연 친구들도 깊이 부끄러움을 느껴 그 후는 좋은 옷을 입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8·15

다시맛아

올바른 민주주의의 특 집



바탕을 기르자

일찍이 그 스스로의 바탕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하지 못했던 우리는 그 빛나는 전통과 역사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민주주의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이제 태극기와 함께 이 땅에 민주주의의 첫 기쁨이 울려지던 감격의 날, 8·15 해방 17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정신적 자세를 그 밑바닥으로부터 분석, 검토함으로써 혁명과정의 지상 목표인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행동의 기준을 잡아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인(主人) 노릇 해야지……

-자주정신(自主精神)에 관하여-

차기벽(車基璧)
 <성대(成代) 부교수(副教授)>

민주정치가 제대로 운용(運用)되기 위해서는 갖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거니와 칼 베커는 그의 「현대민주정치론(現代民主政治論)」에서 이를 필요한 조건과 충분한 조건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교통의 발달이나 경제적 안정과 같은 물질적 요인과 덕성(德性)이나 능력과 같은 정신적 요인은 다 같이 민주정치 성립을 위한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의 조건이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민주정치에 대한 철저한 신앙(信仰), 다시 말하면 민주정치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견해낸 최선의 정치제도임을 굳게 믿는 철두철미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네 민주정치가 진통(陳痛)을 거듭하고 있는 까닭(所以)은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더구나 민주정치의 원리나 정신을 옳게 체득하지 못한 채, 회의니 선거니 하는 민주정치의 제도만을 ‘직수입’한 데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기에 민주정치의 기틀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인간개조’나 ‘민주적 자각’이니 하여 정신적 요인이 크게 강조되고 있거니와 민주 재건을 염원하는 우리는 민주정치성립의 필요조건인 하나인 정신적 요인 이를테면 자주정신이나 공공의식 그리고 애국심이나 관용(寬容) 등과 같은 민주적 품성 전반에 걸쳐 일일이 검토해야 할 것이니 여기서는 편집자의 요청에 따라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정신에 치중(重置)해서 간단히 고찰해보기로 한다.

민주정치란 요컨대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는, 즉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정치제도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일반국민이 보통 평등의 참정권(參政權)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다수의 의사(意思)로서 국사(國事)를 처리해 나가는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민주정치 하에서는 국민이 공공연한 논쟁과 비판을 통하여 순리로서 서로 설득하며 만사를 공론으로 결정짓게 되므로, 국민 각자는 정당한 의견과 그렇지 못한 의견과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과 옳다고 믿는 바에 과감히 편들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무자각적(無自覺的) 무비판적으로 남의 의견에 맹종(盲從)하거나 연고(緣故)나 정실(情實)에 따라 처신하는, 또는 세상 풍조에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든가 무책임한 사람들한테 선동당하는 우매한 국민에게 민주정치의 진정한 운용을 기대함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는 지식과 도덕을 몸에 지니고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지는 자주적인 국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주적인 국민이란 다름 아닌 자아가 확립되어 주체적인 입장에서 만사를 판단하는 국민을 말하거나 사실 서구(西歐)의 민주정치는 자아의 발견을 계기로 해서 싹트기 시작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서양 중세의 타율적인 교권(敎權) 만능 사상을 물리치고 새로 자아를 발견한 개인들이 문예부흥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문예부흥의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는 줄곧 서구 민주정치의 정신적 지주로 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장구한 세월에 걸친 전제정치와 특히 이조(李朝) 이래로 우리 민족이 걸은 기구(崎嶇)한 역정(歷程)은 국민 각자가 개아(個我)로서 자각하지 못하게 한 반면에 사대사상, 지배자에 대한 맹종, 아부 근성 등과 아울러 권위주의, 족벌주의, 정실주의(情實主義) 등과 같은 온갖 우리 민족성의 병폐(病弊)를 낳게 하였는데 이러한 역사적 및 사회적인 악(惡) 유산은 여태껏 청산되어 있지 못하다.

때문에 국민 각자가 아직껏 개아를 확립해 있지 못하니 민족적 자주성이 형성될 리 만무하여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남의 것을 형식적으로 모방하는 데 정신을 잃어 그만 제 것은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비근(卑近)한 예를 몇 가지 들어봐도 외래풍(外來風)이 이 땅을 휩쓸었기에 남자 대학생이라면 스타킹 신사복에 넥타이를 매고 등교하는 걸로 알았고 여자 대학생은 또 그들대로 타이트 스커트에 나일론 스타킹 차림으로 겨울 한철 냉방장치도 없는 교실에서 오돌 오돌 떨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한글 맞춤법을 모르는 것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는 듯한 교수가 없지 않고 또 삼강오륜을 임버릇처럼 배격(排擊)하면 서도 기실 삼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대학생이 수도룩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자아가 확립되어있지 못하니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없어 결국 우리 민족은 ‘부재자(不在者)’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 가령 “엽전들이라 할 수 없지”할 때, 자기 자신은 엽전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 각자의 사고방식이 이러한지라 나라의 일은 ‘대안(對岸)의 화재시(火災視)하게 마련이어서 민주재건운동도 내핍생활(耐乏生活)도 모두 좋지만 그러나 “나만은 빼놓고”이다. 이렇듯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양시비즘’이 국민 각자의 가슴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으니 말하자면 이 나라에는 주인이 없는 셈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국민만의 책임은 아니다. 지난날의 정부가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상실케 하고 국민이 된 의무를 망각케 한 점이 많기에 말이다.

사태가 이러한지라 정부는 철저한 계몽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 간에 공공의식을 양양(昂揚)시켜야 할 각별한 필요 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원래 민주정치는 공공의식을 불가결의 조건으로 한다. 민주정치는 자주성 있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함은 서상(叙上)한 바이나, 그러한 개인이 사회공동생활에 참가하여 자발적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치와 연대와 협동 위에 조화와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실현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민주정치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공공의식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만 사실 사리(私利)와 사심(私心)은 말할 것도 없고, 독선, 고고(孤高), 방관, 도피도 민주정치의 적(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은 어쨌든, 그러한 공공의식 위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애국심이 생겨나게 되는데 진정한 애국심 없이는 참된 민주정치는 행해질 수 없으며 반면 참된 민주정치 없이는 진정한 애국심은 성립되지 못한다. 아닌 게 아니라 민주정치가 없는 애국심은 전체주의적 독재로 되고 애국심이 없는 민주정치는 방종과 무정부주의로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민주정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용도 불가결의 품성이다. 불관용, 편협, 편견, 지배욕, 당파심(黨派心) 등은 민주정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술(前述)한 공공의식, 애국심 및 관용 등은 결국 개인의 자주성을 확립시킴으로써 육성될 수 있는 줄로 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격을 귀히 여기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의 인격도 그리고 그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게 되겠기 때문이요, 또한 자기의 확립이 있고 나면 민족의 일원이라는 확고한 자각이 생겨 자연히 민족애와 애국심을 가지게 되겠기에 말이다.

그러면 개인의 확립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몽을 필요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개혁을 단행하여 봉건적 내지 전제적인 사회구조를 청산하고 그리함으로써 그것에 의거하는 습속을 일소(一掃)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구조 속에 전제적, 봉건적인 잔재가 남아 있는 한 그로 인하여 배양된 습속은 좀처럼 청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주의적 전통 하에서 전제권력의 대상으로 되어온 국민은 이른바 ‘피치자(被治者)’의 성격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갖기가 어려운데다가 주종적인 봉건적 신분관계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편협한 파벌의식에 사로잡혀 지방감정과 비굴한 예종(隸從) 근성 그리고 이기적 가족주의가 근절되지 못하여 따라서 자주적이고 대등한 개인의식이 싹트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경제적 요인이 각별히 중대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다.”는 맹자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의·식·주의 기초적 조건조차 갖추어져 있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개인의 자주성을 바랄 수 있으랴. 기아(飢餓)에 허덕이는 개인에게 제아무리 인격의 존엄성을 역설하고 개인의 확립을 고취한 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가 없는 곳에서 공공의식이나 관용의 미덕을 강조한 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볼 때 개인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을 위하여 자신을 금력(金力)과 권력에 팔 필요가 없는 경제적 조건이 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원래 민주정치란 남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면 남도 자기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해 주리라는 안심과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만 비로소 순조롭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자주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기아선상에서 해매는 사회에서는 민주정치는 건정하게 행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민주정치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단지 법률적 형식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민주정치의 기반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오늘날 단지 ‘인간혁명’이나 ‘민주적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정신적 요인을 역설할 뿐 아니라 사회개혁과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까닭(所以)이다.



책임(責任)과 제도(制度)와……

-책임관념(責任觀念)에 대하여-

권순영(權純永)
(서울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장)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마누라가 꼴이 잔뜩 나있었다. 오늘 통화개혁(通貨改革)으로 새 돈을 ○○은행으로 바꾸러 갔다가 은행원과 싸웠다는 것이다.

여자 은행원이 돈을 세는 동안에 남자 은행원이 말을 걸어서 네 번이나 돈을 세다가 중지하고, 우리 돈을 딴 그릇(돈 담은 그릇)에 넣고서 7백 환(圓) (주화)이 모자란다고 하였다. “다시 좀 잘 세어 보세요” 하니가 여 은행원이 “우리 은행에서는 돈이 남으면 돌려드립니다. 손님이 돈을 덜 내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은행원만 정직하고, 돈 바꾸러 온 사람은 전부 정직하지 않다는 말이오?” “대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왔는지 누가 압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에 세 사람의 남자 은행원이 가세하여 마누라는 돈을 못 바꾸고 집으로 억울하게 돌아왔다. 백 환짜리 돈 중에서 식모와 딸들의 돈이 있다니까 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딸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증인을 데리고 은행에 가려고 하는 것이다. “여자들만 가아 또 창피만 당할테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며 내가 따라 나섰다.

은행에 가보니 우리 돈을 맡았던 여 은행원은 우리 일행을 보자마자 행방을 감추고 남자 은행원 둘이 나타나서 자기 은행에는 조금도 착오가 없다 하며 데리고 간 증인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왜 해결을 못하고 지금 왔느냐 또는 당신이 얼마의 돈을 냈는지 알게 무엇이냐는 등 개 몰아대듯이 도둑 취급을 한다. 나의 속마음으로는 은행원이 사과를 하면 내가 모자라는 돈 6백 환을 포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러 은행원과 헌병(憲兵), 경관(警官)들 앞에서 그것은 또 참을만한 일인데, 남편과 딸들 앞에서 은행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일은 원만히 해결되기는 틀렸다고 느꼈다.

그래서 은행에 경비 차 파견 나와 있는 경관에게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나의 억울한 사정과 은행원의 행패를 이야기했다. 경관은 나의 말을 들은 후 은행원에게 가서 “이 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니까 다시 조사를 좀 해보아 주시오” 그러니까 “이 분만 믿을 만하고 우리 은행원은 못 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착오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때 지점장 대리가 나에게 와서 “무슨 말씀인지 저에게 하십시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경관에게 흑백(黑白)을 가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까지 두 남자 은행원은 핏대를 올려가며 나의 아내를 모욕함으로써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경관은 보기에 딱하였던지 은행 속으로 들어가서 책임자들에게 귓속말을 한다. 그 사람이 창구로 나와서 떠들고 있는 은행원에게 귓속말을 하니가 은행 안은 갑자기 ‘고요한 밤’이 되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핏대를 올리던 은행원들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 간부급 은행원이 직접 창구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서 돈을 바꿔줘 가지고 돌아왔다.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법치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모토(motto)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가장 실천되고 있는 미국도 이것이 실천하기가 곤란한지 미연방 대법원의 정면에서 라틴말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것 같았다.

돈만 있으면, 흑인도 백인하고 백주에 팔짱을 끼고, 브로드웨이나, 상제리제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건 돈을 내고 호텔이나 식당에 들어가면, ‘씨[sir], 맴[maam]’의 경칭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은 고사하고 돈 앞에도 평등하지 않다. ○○은행원들이 아침 10시에 가난한 사람들 속에 끼어 웃도 안 갈아입은 여자가 돈을 바꾸러오니까 깔보고 인간을 인간대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손님에게 전가하였다.

그러다가 그 여인의 남편이 판사(判事)라고 하니가 비로소 그 여인을 은행의 손님 대우를 하고 인간 대우를 한다.

돈을 바꾸러 온 여인의 옷차림이 어떻게 또 그 여인의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었던 은행원으로서는 알 필요도 없으며 그런 것 따위로 하여 손님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은행에 어떠한 비행(非行)이 있어도 돈을 속이는 비행이 있어서는 은행의 존립 가치는 없는 것이다. 은행의 돈을 못 믿는다면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8.15 해방 전에 만주국에서 만주인 순경을 모집하면 그 경쟁률이 40배나 되었다 한다. 당시의 일본인의 월급은 2백 원 인데 만주인은 18 원이었다. 단순한 일본인은 만주인의 생활정도가 알아서 18 원이라도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응모자가 그렇게 많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만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순경이 그 지방에서 하나 나오면 18 리 밖에 사는 사람까지 그의 덕을 본다든 것이다. 그래서 순경 지원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다.

비(非)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권력이나 안면(顔面)이 있어야 살기가 편리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책임제도가 아니다. 현 은행제도는 출납에서 돈을 세는 사람은 돈이 모자라면 자기가 변상하여야 하며 남으면 그것은 은행에 바쳐야 한다. 이것은 비단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전을 취급하는 사회나 관청이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과 같이 현금을 다루는 사람에게 특별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란 착오가 있는 법이다. 어떤 출납계 은행원이 정직하다면 아마 월급은 받아보지 못할 것이다. 또 은행의 책임자는 돈의 계산이 안 맞는 은행원을 해임하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인사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행제도 아래서는 어떤 은행원이 금전에 착오가 있더라도 자기의 과오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과오를 시인하면 자기의 모가지가 달아나니까 생존본능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은행원에게 책임 관념을 가지라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 따라서 ‘책임 없는 사람은 돈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은행 손님이 평등하지 못하면 이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사상이 이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아들딸이 각 관청이나 은행 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각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책임 관념이 없을 때 이에 특별(特別) 관계가 생기며 부패와 사회악이 생기게 되니까 인간이 평등해지지 않는다. 은행의 출납 계원은 자기의 착오에서 부족한 금전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신세지는 거래 손님의 돈동치에서 조금 실례(失禮)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의 출찰(出札) 계원은 발차 시간 가까이 급히 차표 사러온 사람에게서 실례하게 된다.

1960년에 런던에서 들은 이야기다. S 의대(醫大)의 K 박사가 비행장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직행하였는데 방에 들어와 보니 자동차 속에 카메라를 놓고 내려온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으로 단념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운전수가 카메라를 가지고 호텔로 찾아 왔다는 것이다. “어떻게 나를 찾았소?”하고 물었더니, 호텔에 와서 어제 든 동양인을 찾아서 알아냈다는 것이다.

나는 ○○은행에서 60 원을 잃어버린 지 4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 ○○은행원은 영국의 택시 운전수만도 신용이 없으니 슬픈 일이다. 이는 돈 문제가 아니고 은행원이 책임 관념을 가질 수 없는 현 은행의 조직과 제도이다.

영국의 귀족들이 다니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관(大館)에는 대리석에 그 학교 출신으로서 전사(戰死)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 천여 명 씩이나 된다. 런던 지방법원의 판사가 전사하여 그의 초상화 앞에 꽃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출정(出征)하는 것을 애국심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책임 관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결국 그들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도 국민의 안전, 자유, 복지가 잘 보장되어 만족할만한 상태이니까 이러한 국가를 수호하여야겠다는 책임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국가가 민주화되고 기본 좋게 살 수 있는 분위기로 되었을 때 봉사의 정신과 책임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통(通)할 수 있다.

-이해(理解)하는 정신-

김재준(金在俊)

<전(前) 한국신학대학장>



서로 마음이 통한다. 생리가 맞는다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작심(作心)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일진대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되잡을 수도 있어야 말이 될 것이다. 사람이란 아무리 악하대도 악마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리 선하대도 천사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어서 피차 툭 터놓고 보면 인간이라 결국 비슷한 화상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마음이 통한다느니 안 통한다느니, 생리가 맞는다느니 안 맞는다느니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툭 터놓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자체 내 악순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걸려있는 것이다. ‘자기진실’이란 것은 결국 ‘자기개방’의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계계’는 ‘자기폐색’을 가져온다.

“사람을 보거든 도적놈으로 알라.”는 속담이 있다지만 그래야 사람끼리 통할 수 있겠는가? 하긴 그럴듯하게 조작을 해서 속여 먹으려고, 있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을 다 부리는 친구들을 종종 대면한다. 이 사람이 ‘의심스럽다’하는 첫인상을 기억하면서도, 그리 벽간 요청이 아닌 한, 들어준다.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다. 불안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는 의식적인 모험이기도 하다. 그 사람은 아마도 “이 쪽이 고소하게 속는구나!”하고 오히려 깔보며 나갈지도 모른다. 다음 며칠 후에 또 탄 계교를 꾸며 갖고 온다. 또 어느 정도 응해준다. 세 번째에는 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엄청난 사기 계획을 그럴듯하게 늘어놓는다. 물론 백퍼센트 진실을 꾸미는 것이다. “이 사람아, 내가 그동안에 자네 낫을 봐서 알면서 속아준거야! 사람이 밤낮 그래 살아선 못쓰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인데 인제 그런 마음 본새는 청산하게!”하고 똑바로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좀 당황해지면서 “그건 선생님 오해입니다.”하긴 해놓고서도 더 오래앉아 있질 못하고 가버린다. ‘이해’를 악용하는 사람이 하도 많기에 실제로는 개별 케이스로 다룰 밖에 없을 것이다.

“형제란 남 되는 첫 시작이지요”하고 말한다. 하긴 그렇잖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 놓고 보면, 벌써 남인 것 같이 느껴져서 더 빨리 남이 되고 만다. 차라리 “남도 형제에서 시작한 것이지요”해놓고 보면 오히려 남도 형제같이 느껴져서 친근감이 생긴다. 말이란 서로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매직(마술)’을 부리는 것이다. 여럿이 잡담할 때에도 화제를 잘못 택하면 공연히 사이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평안도 분들과 경상도 분들이 한 방에 모였다. “내래 남도 강산을 다 돌아 봤지만 우리 폐양 모란봉, 대동강, 능라도 같이 경티 도은텐 없었어! 거저 우리 폐양이 탄하테일 강산이라네! 어드렸오? 폐양 더러 가 봤오?”하고 떠든다. 평안도 분들은 신이 나서 그 회화에 동참한다. 그러나 평양엘 가보지도 못하고 대동강 울밀대를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분들은 마치 이방사람 같이 스스로를 그들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래서 소위 ‘지방근성’이 조장되는 수도 있다.

그게야, 이쪽에서도, “저분들이 피난생활에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랴! 저것이 다 간절한 향수의 발작이지.” 이렇게 앞질러 생각하고 그들의 회화에 동정과 호기심으로 동참해 줄 수만 있다면 진실로 다행한 일이겠지 만 어디 그만치 교양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다함께 애깃 거리가 될 수 있는 공동 화제를 택한다는 것도 P-R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 중 하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음식점에 들어간 때, 상 심부름하는 여자(남자도 있지만)에게 반드시 ‘플리즈’‘뎡큐’를 말한다. 무얼 청하면서 ‘플리즈’를 붙이지 않거나, 무얼 갖다 주는 때 ‘뎡큐’를 말하지 않으면 교양 없는 무뢰한으로 치부된다. 개망나니 사업이 아닌 한, 모든 직업은 동등으로 신성하다는 민주주의적 직업관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직업인은 다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그러므로 서로 인격적 존경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방이나 음식점엘 가보면 심부름하는 분들에 대하여, 마치 그들이 자기의 ‘중’인양 천시하는 기색이 그 분위기를 채우고 있다. 가져오나 가져가나 간에 ‘뎡큐’는커녕,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버스 차장과의 경우에는 으레 ‘애!’고 ‘해라!’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으레 욕설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이는 요금을 덜 내고 트집을 부리기도 한다. 그러면 차장도 발악한다. “차장은 사람 아닌가 뭐!”하고 분에 겨워 문턱에서 운다. 그게 내 딸이라면, 하고 생각해보면 가여워서 울분이 치민다. 그것이 여대생이건, 고등학생이건, 회사원이건, 차장이건 그런 직장관계로 인간 대우에 차별을 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다. 그런데 ‘차장’이라서 으레 천대받아서야 될 말인가? 봉건 시대에는 직위로 인간에 차등을 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봉건시대’를 살고 있다.

시골 분들이 서울구경을 온다. 물론 옷차림이고 표정이고 간에 당장 티가 난다. 시민들이 대개는 친절하게 서둘러주는 것 같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민망한 일도 있었다. 혜화동에서 버스를 타고 청계천 사가까지 간다는데 명륜동에서부터 조바심을 낸다. 다들 킁킁대고 웃는다. 하도 조바심을 내니깐 차장도 핀잔주다시피 불손한 어조다. 목적지에 오자, 허둥지둥 담벼머 내린다. 그도 그럴것이 십 년 가야 말없는 산하(山河)를 벗삼아 흠과 씨름하던 분들이 그 뽕뽕거리는 수라장에 쉬었으니 신경이 온전한 리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런 이를 믿음성 있게 도와 드릴까하고 침착하게 진정으로 일러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분들도 노상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개는 ‘킁’대는 조롱조 였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다.

시장엘 가야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서로 신뢰를 못한다. “이거 얼마요?”“삼천 원입니다.”그런데 그게 진짜 삼천 원짜린지 이천 원짜린지 자신 있게 감정해 낼 재간이 없다. 이 사람은 으레 나를 떠보는 걸 꺼라! 하고 마음부터 불안하다. 파는 사람은 또 어디 걸러들 ‘썩’일지도 모르지! 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공세를 취한다. 그러나 불안한 손님은 어디 탄 데 돌아다니며 알아봐야지! 하고 온 시장을 모조리 뒤진다. 결국 한나절 지나서야 이천 원에 샀다. 그래도 또 더 깎을 수 있는 걸 괜스레 더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여전히 불안하면서 그리 유쾌하지도 못한 발걸음을 집으로 옮긴다. 어쨌든 허술한 물건 몇 개 사려해도 하루는 너끈히 걸린다. 어떤 때 ‘단골집’이라서 마음 놓고 부르는 대로 주고 산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호의가 역용되는 수도 있다. 거리에서

의 매매가 서로 믿고 행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민주사회 상호 이해의 기본조건인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모양이 아닐까? ‘정찰제도가 무슨 수로든지 강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표규격의 문제도 상호 이해 증진에 실제적인 중요 과제다. 꿀을 한통, 그 꺾는 사람의 말마따나 진짜라고 해서 내 댄에는 큰 돈 쓰고 샀었는데 후에 알아보니 절반은 가짜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이 일정한 규격을 갖춰가지고 나와야 할 것인데 숟가락, 젓가락을 여기저기서 사보면 열개가 다 다르다. 모양도 크기도 각양각색이다. 그게 민주주의 개성일지는 몰라도, 통용이 안 된다. 젓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에 대신해 널 같은 놈이 없기 때문이다. 서로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민주정신’인가? 나라가 급하면 학자가 총 메고 줄병으로 자원하기도 하고, 정치가가 공장 노동자로 자원하기도 한다. 물론 질서 문란을 가져올 정도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죄인을 대신한다는 놀라운 통용성도 있는 터이므로 일용품쯤 서로 통용될 수 있게 규격을 통일하고, 불은 랫테르 그대로 신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상호이해 정신’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 아닐 것이다.

서로 대립된 개인이나 단체가 많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려든다. 그대로 두면 옛날 봉건 성주들처럼 자기 자기 성채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끊임없는 복수전이나 꿈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이가 나서서 두 편을 다 어떤 간담회에 초청하여 마음껏 자기주장도 시키고, 좀 김이 빠진 때 자기반성과 접촉면도 찾게끔 해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서로 이해하려면, 직접 서로 만나 이야기해 보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인 것은 없다. 국제적으로도 그러기에 ‘국제연합’이 존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바쁘면 돌아가라.....

-양보하는 정신에 관하여-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

레닌그라드가 아직도 페트로그라드라고 불리던 옛날 일이라는 합니만, 어떤 건장하게 생긴 부인 한 사람이 무엇인가 잔뜩 들어 있는 큰 바구니를 들고 신작로 한 가운데를 활보하고 있는데, 위험하기도 하였거니와 그것으로 인하여 교통이 상당한 혼란에 빠졌더라고 합니다. 그 때 어떤 사람이 이 늙은 부인에게 타이르기를, 보행자를 위하여 인도(人道)가 마련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차도(車道)를 걸어갈 필요가 무엇이겠느냐고 하였더니, “아무 데를 걸어가건 내 자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하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자유로이 차도를 갈 수 있다면 차(車)는 또한 마음대로 인도를 달려도 좋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혼란과 피해는 막대하리라고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갑이 그의 뺨을 때리면서 “내 자유지”라고 하니깐 다시 을이 갑의 뺨을 때리면서, “이것도 내 자유지”라고 하였다는 것처럼, 피차 그런 식으로 자유를 해석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한다면 사회는 무질서를 면치 못하고 불가불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가장 쉽고도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만 좋아하고 거기에 따르는 의무는 이행할 생각조차 안 하는 혼란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서 민주주의의 구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성적만 노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원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도야(基本陶冶)는 도외시한다면 언제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었습니까? 여성에 관한 문제도 그렇지요. 민주사회 건설은 남녀의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하건만 여성을 업신여기고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하등의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이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으니 딱한 형편입니다.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여자는 놀러야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고 피차의 호양정신으로 서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사회 건설의 기본적 요소는 역시 피차에 양보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권리가 소중할 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자기감정의 불쾌한 경험을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러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평하여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 작은 일에도 피차 잘 싸우는 까닭은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은 아주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무슨 기회에 눈이 마주치면 ‘헬로’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눈이 마주치면 서로 노려보다가 급기야는 왜 자세히 보느냐 하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의 버스 속에서 누가 실수로 발을 밟았기로서니

그렇게 화를 낼 것까지야 없지요. 그러나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대관 싸움이 벌어집니다. 생활에 쪼들리고 만사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적 교양이 모자라는 탓입니다. 근자에는 학생들 가운데 버스나 전차 속에서 부녀자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의젓한 청년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수가 부족합니다. 노인이 들어와도 모르는 척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산다는 일이 괴롭게 생각이 되고, 선선히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주는 광경을 보면 어쩐지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리 하나가 나면 거기 앉겠다고 두 서너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드는 그 흉악한 꼴 지옥을 눈앞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이 다윈의 진화론 이후 현대인의 생활 태도를 크게 지배하고 있지만, 그 말보다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相互扶助)라는 말이 보다 더 이상적이지요 민주주의적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이 이 양보정신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마음 자리가 없는 겸양은 허례와 허식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서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다가 아무도 못 먹고 마는 경우도 있고 문 앞에 서서 피차 먼저 들어가라고 겸손을 부리다가 아무도 못 들어가고 한참씩 지체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겸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좀 맡아서 봐 달라고 하면,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두 번 세 번 간청을 해야 겨우 응낙을 하는데 아무래도 맡을 것이면 첫 마디에 맡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것은 쓸데없는 헛된 양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보 속에서의 엄청난 큰 교만이 들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어렵고 참된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허영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밥이 한 그릇 뿐인데 이것을 먹고 못 먹는 것으로 생사가 갈라진다 할 때에 그 밥 한 그릇을 양보할 수 있는 힘, 배는 만경창과에 파선되어 시간을 다룰 때, 하나밖에 없는 구명대를 양보할 수 있는 용기 그러한 참된 양보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쟁과 스피드를 모토로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양보의 미덕을 찬양하는 것은 뒤떨어진 생활태도 같지만,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반면 자기 자신의 일정한 회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치, 양보의 정신없이는 실현 불가능의 정치 이념이기도 합니다. 결국 양보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톨스토이는 참으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 설명하여 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둘이 다 바쁜 처지인데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A는 B를 향해 물러서라고 야단하고, B는 A를 향해 물러서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장시간 승강이를 해도 끝이 안 나고 두 사람은 다리 위에 마주 선 채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지나가다가 소리쳐 타일렀습니다. 바쁘면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이 속에는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양보라는 것이 피차에 유익한 것임을 알려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끝으로, 민주사회는 후배가 선배를 공경하고, 선배가 후배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배가 선배를 공언히 헐거나 선배가 후배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회는 민주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계급적 의식에서가 아니라, 진실로 동지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후배(先後輩)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앞서 광야에서 복음을 외침으로써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先知者)였는데, 예수는 요한이 사양하는 것도 무릅쓰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에 대한 후배로서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의 명성이 사방에 떨치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많이 간다고 탄식하는 어조로 말하였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저는(예수) 흥(興)하여야 하겠고, 나는(요한) 쇠(衰) 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여 후배를 대하는 선배의 양보의 정신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선·후배 사이에 서뿐 아니라 동료 간에도 이러한 호양(互讓)의 정신없이는 명량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나 후배들의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고, 또한 그러한 정신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족사회의 실현은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무리 이러한 이상에서 멀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부터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데모크라시의 구현을 위해 분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신용대차(信用貸借)

찰스 제임스 폭스는 영국의 자유당원이며 유명한 웅변가였는데 어느 상인으로부터 증서를 쓰고 30 파운드의 돈을 빌렸다. 기일이 되어 채무를 받자, “본전은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하고 폭스는 옆에 쌓아놓은 4 50 파운드의 금화 중에서 이자만을 지불하려고 하였다. 보고 있던 상인은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 왜 완불해주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하고 힐난하였다. 그러자 폭스는 “잠깐만 이것은 친구 세리단에게 주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증서가 있었지만 세리단한테서는 신용으로 얻은 빚이니깐…….” 이 말을 들은 상인은 크게 감동하여 “실례했습니다. 저도 신용으로 빌려드리지요.”하고 말하기를 무섭게 차용증서를 찢어버렸다. “난처하군요.”하고 폭스는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 돈은 당신에게 드릴 수밖에 없군요. 세리단보다 당신이 먼저니까요.”



먼저 깨우쳐야겠다……

-자각(自覺)하는 정신에 관하여-

이상은(李相殷) <고대(高大) 교수>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실행할 조건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자격이 없다.” “한국의 실정에는 민주주의보다 좀 더 강력한 능률적인 정치방식이 필요하다.”

— 4·19, 5·16을 연거푸 겪고 난 다음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 비판의 논조가 더러 떠도는 것 같다.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면 이러한 실망·비판도 일리는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공산독재와 싸우고 있다. 민주주의를 포기한다는 것은 공산독재와 싸우는 이유를 자기(自己)로서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 우리는 공산당과 싸울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성공 없이 공산독재를 이길 수 없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로써 인류의 장구한 경험이 가르쳐 준 지금까지의 최선의 방식이다. 초기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만을 강조하고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등한시 하여 자본민주주의로 편향한 폐단도 없지 않았으나 현대에 이르러 경제적 자유와 평등까지 동시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일찍이 무계급사회를 지향한다고 자칭하다가 도리어 노동귀족, 독재계급의 사회를 조성한 공산주의에 비하여 민주주의는 이론 면에 있어서나 실제 면에 있어서나 인간본성의 요구에 순응하는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월한 정치방식임을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그 사실이란 무엇인가? 소련에 있어서 독재 왕(王)인 스탈린 격하(格下) 운동 이래로 언론자유·사상자유·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현상과 미국에 있어서 노동자의 투자자본이 날로 불어가는 현상이 그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도 이러한 현대적인 민주주의요 넓은 정치적 민주주의만은 아니다. 우리 역시 정치적 자유·평등과 동시에 경제적 자유·평등을 동시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민주주의의 혼련과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와 차질(蹉跌)을 보았던 것이니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실패경험을 철저히 반성하여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각성을 가지고 민주대도(民主大道)를 향하여 용왕매진(勇往邁進) 할 뿐이요 준순·주저(躊躇)하거나 회의(懷疑)·실망할 필요는 없다.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회의·실망은 도리어 공산(共産) 침투의 틈새를 초래할 뿐이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오래지 않아 민정복귀도 될 차제(此際)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실패경험을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앞날의 단단한 결심과 각오를 속 깊이 간직해 두는 것이 급무이다. 이 결심과 각오는 군·관·민은 물론, 국민은 누구나 다 가져야 할 것이지만 특히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는 정치가·관공리(官公吏) 및 각계 지도층에 있어서 먼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진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래로부터 위로 상승하여 발전되었지만 후진 국가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하강(下降)하여 발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19가 왜 일어났던가? 그것은 이(李) 박사의 일인 독재정치에 항거하여, 자유당의 부정·부패에 분노하여 일어났다. 먼저 이 박사의 일인독재가 왜 생겼나를 생각해보자. 이 박사를 일인 독재자로 만든 것은 결코 이 박사 개인의 성격과 그의 무절제한 권력욕 때문만이 아니다. 그를 업고 그의 비위를 맞춰서 권력(權力)을 부리고 부귀를 누리려고 한 소위 ‘지당대신(至當大臣)’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이건만 이 지당대신들은 법보다 이 대통령의 유시(諭示), 명령을 더 중히 여기고 더 무시위했다. 유시·명령이 법에 합치될 때는 말할 것 없지만 법에 위반되거나 합치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를 거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당대신들은 거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도리어 ‘선의승지(先意承旨)’하여 그런 위법적인 명령·유시 등을 조작해나갔다.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나, 정치파동(政治波動)이나 부정선거의 지령 따위가 모두 이런 선의승지의 봉건 잔재적 사고방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민주주의의 관리(官吏)는 백성을 섬기는 관리요 상관을 섬기는 관리가 아니다.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백성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는 것이요, 상관을 섬긴다는 것은 인사행정권을 가진 상관의 비위를 맞추고 그 상관 개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李) 정권 시대의 관리들은 모두 상관 섬길 줄만 알았고 백성 섬길 줄을 몰랐다. 부정선거의 원흉인 최인규(崔仁圭)는 사형을 선고받으면서까지 자기는 이 박사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자기를 ‘저스티파이(justify, 정당화시키다)’하였지만 이것은 그가 끝까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군주시대 같으면 최인규는 확실히 이 박사의 ‘충신(忠臣)’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는 가장 불충실한 관리였음을 면치 못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충실한 관리란 국민의 대표들이 판정한 법을 잘 지키어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해주고 국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입안·수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회에 대하여 헌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은 행정부의 총 책임자로 선언하는 것이니 그것은 모든 관리가 다 그 서약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과거 10여년간 우리나라 관리들은 위의 대통령으로부터 아래의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 서약을 과연 얼마나 충실히 지켜 왔던가?

이도쇄신(吏道刷新)이니 준법정신(遵法精神) 양양(昂揚)이니 하는 구호가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왔건만 이도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상관 섬기는 이도였고 준법정신은 양양될수록 ‘준명정신(遵命精神)’밖에 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우리의 고유한 관공리(官公吏) 사상은 좀처럼 존속될 줄 모른다. 우리사회 도처에서 발로(發露)되는 특권 의식도 다름 아닌 이 관공리 사상의 연장인 것이다. 특권의식은 권력과 법질서와의 대비에 있어서 권력을 우위로 하는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인 만큼 그것은 권력에의 아부와 동시에 권력의 자의적 사용 및 그 독점의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장 비(非)민주적인 요소를 띤 의식이다. 특권의식이 사라져야 민주주의가 자라난다. 영·미국의 교통순경이 교통법칙을 위반하는 장관(將官) 차를 스톱시켜 벌을 준다는 해의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듣거니와 이것이 참말로 민주경찰이며 진정한 이도이다. 이것은 첫째로 자기직무의 완수, 둘째로 법의 준엄성의 인식, 셋째로 특권불인(特權不認)의 정신을 보여주는 비근(卑近)한 일레이지만 민주국가의 관리는 최소한도(最小限度) 이 세 가지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

다음 부패와 무능을 고려해 보자.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부패·무능 때문에 무너졌다. 부패는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부패가 드러나기는 관리가 수뢰(受賂)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부패의 결과적인 현상이요 원인은 아니다. 부패의 원인은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경제적인 원인은 일반 군·관 공리(公吏)의 생활의 불안에 있다. 이 문제는 국민경제의 발전, 국민소득의 증고(增高)로서만 해결되는 것이니 이것은 객관(客觀) 정세(情勢)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는 단순한 주관적 정신, 도의만을 운운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정신문제, 도의문제로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정치적 원인의 부패는 주로 선거와 관련된다. 선거 임후보자가 선거 경쟁에 있어서 자기의 실력과 인격과 신망(信望)과 포부로써 정정당당하게 정적(政敵)과 싸우는 것이 민주선거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거의 선거는 치르면 치를수록 정도의 선거 경쟁은 형식에 불과하고 배후에서 유권자를 금전으로 매수하고 이런, ‘감투’로 교환하는 따위의 비열한 방식이 거의 공공연하게 행사(行使)되어 왔다. 그리하여 선거 결과는 인물 본위나 정강정책(政綱政策) 본위로서가 아니라 금전 사용의 다과(多寡)나 교환 이권의 대소(大小)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유능한 인물이 전혀 당선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전과 이권과 감투의 교환으로 선량(選良) 아닌 선량이 당선되는 율(率)이 높아져 소위 ‘거수기(擧手機)’, ‘병어리’ 의원도 나온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뒤에는 그 ‘투자한 밀천’을 뽑아야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란 그 지위를 백 퍼센트로 이용하여 이권획득, 중간취리(中間取利), 감투 매매, 의원횡령(外援橫領), 국고남용, 밀수 조장(助長)…… 등 험잡 모리(謀利)에 정신이 팔려 국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등류(等類)의 자기 본분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 여유도 없고 성의, 의욕도 없다. 이리하여 국회출석률은 불량하고 의안(議案) 처리는 지지부진(遲遲不進)한다. 게다가 상호 사적 이해와 관련될 때는 파벌형성, 내분, 갈등이 생겨 의안 처리에 고의적인 방해공작까지 일으키는 수도 없지 않다. 국회의 무능, 정부의 무능도 대개 이러한 이유로서 생기는 것이다.

원래 정치가란 경국제민(經國濟民)의 포부와 재능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국가, 국민에 봉사할 각오를 가지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을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회뢰(賄賂, 뇌물) 암거래로 당선되는 사람들은 출마동기부터 불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어제는 야당, 오늘은 여당으로 아무런 정견(政見)도 지조도 없이 ‘이(利)’의 소제로만 따라다니며 권력자와 결탁하여 권모술수를 농단하는 부류(類)가 태반이다. 이리하여 정상모리매(政商謀利輩)가 자취를 그칠 날이 없다. 선진국가라고 이런 정상모리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수의 다과(多寡)에 있다. 한 국회, 한 정부기관 내에 이러한 정상모리매가 반수(半數)만 되어도 정의의 노력이 여론의 뒷받침을 얻어 승리할 수 있지만 60 퍼센트, 70 퍼센트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면 정의는 사악(邪惡)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이 된다. 구(舊)정치인, 관리 가운데 정의를 대표하는 양심적인 정치가, 공무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한 정당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정당에 모여든 분자(分子)가 7, 80 퍼센트를 정상모리매로 차 있다면 그 정당은 별 도리 없이 부패정당이 되고 만다.

민주정치를 하려면 정당정치를 아니할 수 없고 정당정치를 하려면 자유선거를 아니할 수 없고 자유선거를 하려면 선거경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고 선거경쟁이 벌어지면 돈을 뿌리게 되고 돈을 뿌리게 되면 자연 부패가 생기게 마련이니 결국 정당정치와 부패를 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부패를 제거하려면 정당정치를 취소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론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후폐식(因啞廢食)’구역질 때문에 밥을 안먹는다는 논리이다. 선거를 깨끗이 공정하게 하는 방도는 따로 강구할 수 있는 것이요 - 선거공영제(選舉公營制) 같은 것으로 - 그것 때문에 정당정치를 폐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설령 부패가 일시 성행했다 하더라도 민주정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권당은 다음 선거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 자연 몰려서게 될 것이요 새로 집권하는 정당은 비록 완전무결할 수는 없지만 전철을 귀감 삼아 그 전 정권보다 좀 더 나은 실적을 내려고 노력함으로써 공명정치는 일보 일보 실행되어 가기 마련인 것이다. 다만 국민의 정치적 자각의 여하에 따라 그 보조에 지속(遲速)이 있을 뿐이다. 국민

의 심판을 받는 공명선거의 방법으로 정권교체가 스무스[smooth]하게 되어가는 나라에서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다. 우리는 집권자들이 국민심판을 받아 스무스하게 정권을 교체할 것을 생각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집권연장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란 비상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었다. 5·16은 마지막 혁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의 정권교체는 반드시 민주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독재방법 외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정치향상의 길은 민주방식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학(科學)하는 마음
-창의정신(創意精神)에 관하여-

최태호(崔台鎬) <국립도서관장>

야담(野談)이나 민화(民話)를 보면 위인이나 열사가 초(超) 인간적인 기적을 낳는 것이 일쑤다. 범인(凡人)이 엄두도 못할 일을 척척 해치운다. 현대에 모셔왔으면 싶은 그런 선망(羨望)을 갖게끔 과장된 사실에는 그들이 초인간이라는 너울로서 비합리성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충무공은 누가 보아도 우리 민족의 영웅이요 사표(師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처음 충무공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의 인간면(人間面) 보다도 거북선이라는 희한한 전쟁 용구(用具)를 발명한 사람이라는 것과 백전백승한 장수라는 정도의 지식이었다. 그 후 역사에서 노량이나 한산대첩의 사실(史實)을 읽고는 과연 신인(神人)이로다 생각하는 반면에 과장이 아닐까 일면 의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살펴본 즉 그때의 승전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였으니 하나는 충무공의 인격으로 인한 인화와 사기의 앙양(昂揚)이요 또 하나는 실로 그분의 과학적인 승산이 아니었던가 싶다. 즉, 지세(地勢)와 조류(潮流)·기상(氣象) 까지도 포함한 자연의 연구와 피아의 군력(軍力) 등 실로 세심한 검토 끝에 이루어진 전투이고 보배 후인(後人)이 추측하는 관념적 신인이 아니라 철두철미·합리성을 신봉하는 과학자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위인에 대해서 무조건 초인으로서만 숭배하는 습관이 있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분석을 하지 않고 범인은 따르지 못할 무엇만을 관념(觀念)하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이전 일본인은 특하면 신국(神國) 일본이니 야마토 다마시[大和魂]이니 하여 국민에게 그것을 믿도록 교육하여 왔었다. 전문(傳聞)하는 바에 의하면 그 때의 모 사령관은 “그러나 16 촌(吋) 대포 앞에서도 야마토 다마시의 위력이 나타날 것인가?” 하고 심중(沈重)한 고백을 했다 하니 그의 심중은 합리성을 무시하는 관념론자들을 딱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과학은 인과(因果)를 믿는 것이다. 사람은 예로부터 많은 꿈을 가졌고 또 그것을 많이 실현하였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 사람도 그와 같이 창공을 날을 것을 꿈꾸다가 이제는 새는커녕 지구 위에 어느 곳이든지 비상(非常)한 속도로 교통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면이 많다. 단 순히 날고 싶다는 마음은 관념 면에서 도술이라는 초인적인 가상(假想)을 세워서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닌 다거나 아라비안나이트의 담요를 타는 설화 등을 만들어 내었고 현실 면에서는 새의 날개 모양을 본 따서 실험을 해보는 등 가까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설계도 같은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글라이더나 라이트의 프로펠러 식 항공기에서 제트 식 추진기로 발전되어 왔다. 요즈음은 달나라 여행의 가능성이 농후해졌지만 이것도 달나라에 가고 싶다는 꿈은 인간의 ‘생각’이 있을 때부터 생겼었겠으나 역시 그 실현은 냉정한 합리성에서 오늘날 치밀한 과학적 계산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류의 발달은 어떠한 관념적 사고방식에서 보다도 현실적으로 꿈을 이룩해보려는 의욕과 그것을 해결하는 합리성 추구에서만 이룩되었다고 볼 수 없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혁명공약을 뜻깊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방공태세를 재정비·강화하고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하여 새로운 국민 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아 기근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는 데 있어 일찍이 관념적으로 이를 근심하지 않았다 할 사람은 없건만 현실 면에서 합리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도는 이 공약에서 비로소 합리적인 시도와 실천이 있어온 것이다. 여기에 혁명정책의 커다란 과제로 인간개조를 내세우는 진의가 과학 하는 사람을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일찍부터 농촌의 진흥은 식자 간의 끊임없는 염원이 되었고 또한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민생의 안정을 얻으려면 전 인구의 6, 70할을 점하는 농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하면 트랙타를 사용하는 외국의 대륙 식 영농이나 세계를 상대로 하는 덴마크의 협동조합 그리고 수세식 변소와 냉동기를 갖추고 사는 먼 나라들의 농촌만을 바라보고 호미와 괭이를 사용하고 손으로 김을 매는 구태의연한 생활양식을 어떻게 이끌어 올리나 하는 현실적 타계에 손을 댄 사람은 극히 적었다. 실업자(實業者) 층을 중시한다 하면서 현실적인 영농법을 교수(教授) 해온지 이미 오래건만 그들의 손으로 농촌이 진흥되었다기

(P. 34로 계속)

한국 민주주의가 디디고 서야할 것

-‘민주주의의 한국화’를 위한 정신적 자세-



신일철(申一澈)
<고대 문리대 강사>

—

민주주의란 주머니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 돈이 들어가면 돈주머니요 담배가 들어가면 담배쌈지요 쌀이 들어가면 쌀주머니다. 민주주의도 역시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르나 형식은 동일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다의적인 개념도 없을 것이다. 독재자도 공산주의자도 민주주의의 탈을 한사코 쓰고 싶어 하는걸 보면 데모크라시아말로 매력 있는 물건인가? 너무 불려서 매력을 상실한 구호처럼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맥 빠지고 진부한 말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격이 되고 말았다.

이미 볼테르는 민주주의 불신론을 내세우고 그것은 바보와 같은 민중을 지배자로 하는 우중정치(愚衆政治)라고 야유한 바 있다. 오늘날에 와서도 민주주의의 제반 약점을 지적하면서 파시즘을 내세운 반민주주의가 많았다. 현대는 확실히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인류최고의 이상인 민주주의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후진사회에서는 민주정치가 왕왕 부패하고 부정한 집권자의 가면이 되기도 하고 무질서와 빈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영국과 같은 의회 민주정치의 표본을 그대로 수입한 신생(新生) 파키스탄도 인구의 80%의 문맹과 빈곤을 가지고 국회를 만들고 작대기 선거보다 더 못한 그림으로 소·말·자전거 등을 그려 입후보자의 기호표로 삼으면서 소위 민주주의 국가의 체면을 세워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은커녕 빈곤도만 증가시키고 국회의 원 등의 특권층의 횡포만 증가시켰을 따름이다.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이런 후진국의 민주주의 실패를 보고 ‘돼지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후진국들은 전후(戰後)에 서구민주주의를 직수입했다. 그것도 전혀 관세도 부과하지 않고 구호물자의 조건부처럼 오퍼[offer]되어 왔다. 우리 후진국 측에서도 보면 서구형민주주의의 직접적 무반성적인 채용을 강요당한 셈이다. 현명치 못한 선생은 선생의 생각과 꼭 같은 답안을 쓰는 학생을 좋아하고 제 생각으로 쓰는 창의력을 가진 학생을 도리어 꺼린다. 미국은 호남형(好男型) 시골사람처럼 스노비쉬[snobbish] 해서 주고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욕을 먹는다. 민주주의 수출의 태도 역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고급 넥타이와 화장품을 보내는 비현명(非賢明)을 연상케 하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노릇이다. 미국의 국무차관을 잠깐 지내고 물러난 체스터 보울스 씨는 케네디 행정부의 대(對) 후진국정책으로 “미국의 생각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성명했는데 이 각성은 만사지탄이 있으나 아직도 미국 지성의 무딘 품으로 보면 해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후진사회는 1960년을 계기로 해서 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다. 나세르의 이집트 7월 혁명,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 장군이 영도한 10월 혁명, 터키 장교들의 혁명,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 그리고 우리 한국의 4월 학생혁명과 5·16 군사혁명이 그것이다. 후진지역 도처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2백년전의 독립전쟁을 이미 망각하고 위크엔드[weekend]를 즐기기에 골몰한 미국인들을 몹시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들에게서는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수가 없다고 곧 실망을 표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민주주의-의회정치는

평화로운 정권교체에만이 가능한 것이고 민주주의란 국민의 지배요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길은 미국적인 길 하나만이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길은 목표는 하나일지라도 방도는 여러 갈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구세계가 수백 년 간에 걸친 피어린 전쟁의 결과로 쟁취하고 확립한 민주주의를 후진국들은 불과 1, 20년이란 단기간에 달성하려는데 약간의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데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진국의 발전이 일인체제에 의해서 더욱 잘 발전한다고 해서 민주정치는 포기해야겠다고 성급하게 추론함도 역시 몹시 위험한 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의 민주주의의 길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7년간의 고된 시행착오를 겪은 한국 민주주의도 이제는 민주주의의 한국화라는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 체질에 알맞은 민주주의, 한국현실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二

한국은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있다. 썩은 민주정부 대신에 소금에 절인 만년불패의 산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그 첫 발자국을 다짐했다. 과거 한국의 민주정치는 부패한 특권층·국회의원·장관들의 노력에 감이오 ‘부정축제의 자유’, ‘밀수의 자유’, ‘특권자의 무법·불법의 자유’를 보호하고 부패한 과두(寡頭) 지배에 불과했다. 과거 우리의 민주주의는 구제품 보타이를 맨 시골 할아버지의 희극이요 그것은 곧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다.

자유당 시대의 민주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한 콜론 보고(Colon report)는 그 즈음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해준다. 동 보고는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외피(外皮)만도 남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약간의 진보는 보이거나 지난 10년 간 민주주의의 외피만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최근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동 보고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①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양당(兩黨) 제도가 있으나 야당은 곤란한 위치에 있다는 것 ② 정부는 절대적 지배 아래 있고 한국의 정치제도는 중앙집권 체제에 있다는 것 ③ 커다란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지방주의(지방자치)가 약화되었고 ④ 언론의 자유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것 ⑤ 여당이 선거에서 우세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보고의 집필자는 스칼라피노 교수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 보고 속에서 한국의 군사혁명을 예언했다고 하는 세평(世評)이 있다. 그러나 이 보고는 현상의 분석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역시 서구적 견지에서 단지 서구의 민주정치와의 차이점만을 보았고 후진국의 처지에서 그 역사적 발전단계에 대한 고려가 적으며 본질과악에 접근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했는가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때문인가? 이는 현상이지 원인은 아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품인 것은 사실이다. 이 역시 민주주의가 실패한 결과로 언론도 강권(強權) 하에 탄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피상적이요 외재적인 뷰포인트(view point)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게 했다.

“한국에서는 인자(仁慈)한 전제정치가보다 타당할는지 모른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바와 같은 내외외환 밑에서는 민주주의가 불합당할는지 모른다. 최소한도로 그 초기 단계에서는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제약이 필요하고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할는지 모른다. 이 점에서 한국은 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는 후진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민주정치보다는 독재정치나 할 민도(民度)의 국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다. 서구적 견지에서는 후진사회가 이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서구자유주의라는 내용의 민주주의를 직수입해야 후진사회의 체질에는 때로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가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보면 서구자유주의 직수입에 실패했다는 말이지 민주주의의 실패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재필(徐載弼) 씨가 영도한 독립협회 이래 우리나라에 수입된 자유주의가 일제 침략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해방 후에도 건전하게 개화(開花)하지 못하고 말았다.

주의(主義)나 사상(思想)은 그것이 뿌리를 내릴 현실과 그것을 담당할 지도세력과 긴밀한 함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당과 같은 반봉건적 토지귀족계열과 신흥 상공업자를 대표하는 자유주의의 계층적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변질 내지는 변혁을 그 근본 면에서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기성세대의 민주주의는 갔다. 앞으로 올 것은 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민주주의·새 세대의 민주주의의 재건이 남아있다. 그와 아울러 민주주의를 아예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과의 가혹한 투쟁도 앞날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4·19와 5·16을 계기로 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디딜 초석이 갈아들었다는 말이다.

A·A블럭에 속하는 내셔널리즘의 선풍은 1960년에 한반도에도 상륙하여 우리도 후진국형 민주주의의 길과 거의 같은 도정(道程)을 걸어가리라고 전망된다. 서구가 민주주의로 넘어가기 위해 절대주의적 전제정치의 시대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도정을 단축시키는 일이 남아 있다. 이번에도 제 체질에 맞게 제 길을 택하지 못하고 피상적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을 강요당해도 안 된다. 우리는 민족사의 뿌리에 접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재출발시켜야 한다.

三

그러면 한국화 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남의 장단에 춤추다가 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자빠진 꼴을 17년 사(史)의 거울에서 보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육성되지 못하고 거친 한국 땅에서 병들고 만 그 병인(病因)을 올바르게 진단한다는 것은 곧 치료라고 볼 수 있다. 외래사조(外來思潮) 소화·불량증에 걸려 자기의 분수와 전통에 적합한 토대를 구축치 못하고 부자집 담 넘어 보고 황금몽(黃金夢)만 꾸다가 끼니도 놓치는 우둔을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포함한 후진국 형 민주주의의 기초는 빈곤과 무지를 하루 속히 추방하는 일이다. A·A블럭의 내셔널리즘을 ‘위대한 각성’(Great Awakening)이라고 한 영국의 정치평론가 스트레치는 다음과 같은 함축 있는 말을 했다. “우리들의 지역, 즉 고도의 발달을 한 서구자본주의 제국(諸國)에서는 민주주의는 불경기와 대량실업을 방지할 힘을 갖지 못한다.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수정해 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개발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그 국가를 전진적 방향으로 지도하는 능력, 그 나라를 공업화하고 일반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공업화의 임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산주의 독재정치처럼 급속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고 훌륭하고 또한 철저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이점은 긴 눈으로 보아 저개발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다.”

“싱가포르에 가서 당신들의 자랑으로 하는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세계 각처에서 모인 배들을 보라. 당신들은 그 배들의 선복(船腹)에 그어진 한 줄기 선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재화한수선(載貨限水線)’이 그어져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원시적인 극단의 빈곤과 문맹 - 일반적인 저개발 - 의 중압(重壓)이 너무 무거운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성립을 기대할 수는 도저히 없다.”

이상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스트레치의 권위를 빌려 대행시켜 보았다. 한국 민주주의가 디딜 초석은 바로 이 빈곤과 무지를 추방할 수 있는 결의와 지도력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경제적 민주화가 한국적 현실에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에르하르트가 서독(西獨)에서 라인 강변에 기적을 일으킨 모토(motto)인 “빵과 물 한 컵은 최저로 보장한다.”는 전례를 따라 한국 사람은 누구나 김치와 밥 한 그릇은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경제정책을 상징하여 “김치와 밥 한 그릇의 한국경제.”라고 불러본다.

◇약속

윌리엄 나피일은 유명한 역사가였다. 어느 날 산책하는 도중에 깨어진 도자기병의 조각들을 들고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났다.

들어보니까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드릴 우유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도중, 심술궂은 집 주인한테서 빌린 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다는 이야기였다.

나피일은 가엾게 생각하여 변상해 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으나 불행히도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었다. “내일 이맘때 여기에 오너라. 내가 병 값을 치러 줄 테니까.” 이렇게 위로해 주고 헤어졌다. 이튿날 친구의 편지로써 나피일의 연구를 보조해 주어도 좋다고 하던 귀족이 그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난한 나피일에게는 자기의 연구에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나 그 귀족을 만나러 가면 소녀와 만날 시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용건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갈 수 없다. 실례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리겠네.”하고 친구에게 회답을 냈다.

그 회답을 받은 귀족은 나피일을 건방진 놈이라고 욕을 하였으나 후에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인격을 높이 존경하여 자진해서 후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김치와 밥 한 그릇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서구적 기준에서 본 중산계급 내지는 자유주의의 모체가 된 제3급(부르주아 계급)은 아니다. 60%의 농민과 노동자, 샐러리맨, 교육자, 도시 세공민이 바로 한 끼의 밥을 구하는 제3 계급이라는 서구적 안목으로 보아 가지고는 들어맞지 않는 한국의 민중이다. 이 험벗고 굶주린 민중을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계층적 기반으로 삼을 때 특권화 된 자본주의의 횡포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복지국가 재건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이 “김치와 밥 한 그릇”의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으로부터의 혁명을 하고 그러한 정부를 세우는가에 따라서 한국 민주정치의 성패가 가로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독립협회 이후의 낡은 자유주의는 노쇠하여 사망신고를 냈다.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인가? “독재정치인가 아니면 공산 독재정치(스트레치의 동(同) 논문)인가? 이 양자택일을 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한국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조속히 민중이 민주체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화한수선(載貨限水線)’위에까지 꾸준히 올려놓는 일 밖에 민주주의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는 토론의 자유와 대립하는 정당의 자유, 선거제라는 고귀한 서구적 가치를 한국 땅에서 개화(開花) 시키기 위한 민중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한국적 민중과 그들의 “김치와 밥 한 그릇”을 위한 경제의 자립이 곧 우리 민주주의의 디디고 설 초석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랑스 민주주의의 바탕



김향안(金鄕岸) <수필가>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 여행을 하게 되었고 파리에서 몇 해를 머무르게 되었다. 나는 내가 파리에 여장(旅裝)을 풀었던 날부터 다시 오르리 비행장을 떠던 시각까지 거기의 모든 제도와 시설과 사람들이 그렇게 도 마음에 들었던 것을 지금 기억한다. 낯모르는 사람끼리 시선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 짓고 십년의 지기처럼 이야기를 주고받던 상냥한 파리 사람들. 어떠한 경우라도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확실히 경우가 서던 정직한 파리 사람들을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은 알지에의 O·A·S가 프랑스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지만 프랑스 본토의 사람들은 O·A·S의 만행을 우리와 같이 분개하고 있을 것이다.

프랑스에 가면 도시나 지방의 낡은 건물 정문 위에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세 문구가 새겨져 있음을 본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 때 혁명군이 걸고 나섰던 슬로건이었다. 낡은 왕족주의를 부수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평등을 주장하고 또 우애로서 뭉쳐서 공화국을 이루었던 거다.

프랑스는 구라파의 늙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오랜 카톨릭 전통의 나라였다. 여러 개의 소왕국 위에 교황이 있어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중세기에는 종교전쟁을 겪었고 루이 왕조가 절정으로 번영했다가 1789년에 저 유명한 대혁명이 일어나 왕정을 무너뜨렸다.

파리에 지금 있는 바스티유 광장은 혁명군에 의해서 거기 있던 감옥이 파괴된 기념의 광장이다. 광장 중앙에는 높은 탑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자유의 여신상이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있다. 프랑스의 국경일이 7월 14일인 것은 1789년 이날에 바스티유 감옥이 민중의 손으로 파괴됨을 기념해서이다.

그 이후 제1 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1793년이었으며 그 후 오늘에 이르는 제5 공화국의 탄생까지 그 기간 동안에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자라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프랑스인들은 거의가 카톨릭 교도들이고 프로테스탄트는 극소수이다. 아기를 낳으면 교회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고 명명을 받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교회에 가서 한다. 동리마다 성당이 있는 것은 물론인데 이 성당들이 신자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것들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 어느 성자(聖者)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남을 해서 그 성자를 모신 성당이라는 것이 특이하며 그러한 성당이 도시와 지방에 부지기수인 것을 볼 때 놀라우며 강력한 종교의 힘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은 결코 어떠한 종교 형식에 젖어있지 않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를테면 그들은 반드시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성당은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어서 누구나 아무 때고 신을 찾고 싶을 때 들어가서 기도하고 신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일요일에도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었다. 공휴일은 거의가 종교적인 축제일이었다. 부활제를 비롯해서 사육제(謝肉祭)와 성령강림제와 성모승천제 등등, 또 지방으로 가면 이름 모를 성령의 제일들이 한층 더 빈번한 것에 놀란다.

또 파리가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에 이르면서 세계미술의 중심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예술품은 종교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오늘 미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로서 남아 있는 옛 사원들은 그 당시의 종교의 힘으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신앙의 힘과 정신으로서 성자들의 모습을 조각하고 초상을 그리고 했던 그 솜씨와 전통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드라크루와[Delacroix], 밀레[Millet]를 비롯해서 세잔느[Sezane], 고갱[Gauguin], 마티스[Matisse], 브라크[Braque], 루오[Rouault] 같은 화가들과 로댕[Rodin], 부르델[Bourdelle] 같은 조각가를 낳게 하였다고 본다.

문학적으로는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루소[Rousseau]가 나왔고 빅토르 위고[Victor Hugo], 발자크[Balzac], 모파상[Maupassant], 보들레르[Baudelaire], 지이드[Gide] 그리고 오늘 역시 그 사상이 추대되고 있는 사르트르[Sartre], 카뮈[Camus] 등이 나와서 프랑스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사상이 실천에 옮겨지는 과정에 박차를 가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가 세계적으로 '인권의 옹호'를 절규한 밀발침의 사상이 이들에 의해서 여기 프랑스에서 성장했던 것이다.

프랑스를 여행하는 사람은 우선 파리라는 도시에 애착을 느낀다. 그것은 파리가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서이고 파리 사람들이 다정하게 여행자를 대해줌으로 해서이고 어딘지 모르게 파리가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해줌으로 해서일거다. 파리의 거리에는 유머 섞인 윙크를 보내면서 순경들이 길 안내를 해주며 여행자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 준다. 센[Seine] 강은 말없이 아름답게 출렁이며 여정(旅情)을 자아내고 강가의 여인들은 언제나 정답게 비친다. 생 미셸 거리의 학생가가 아니라도 감동이 흰둥이의 대조적인 피부색을 거리낌 없이 노출시키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누구의 마음에도 들 것이다. 거기에 여성들은 한층 더 아름다우며 상냥하다. 남성은 여성을 존경하고 위해주고 예의에 어긋남이 없으나 여성들은 남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섬기는 풍속도 마음에 든다.

사회제도가 절대적인 우선권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어 자녀를 갖는 모성을 우대하고 직장을 갖는 여성을 특대하고 또 소국민과 여성은 국가가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다. 노인 경애의 사상이 의무처럼 자각 실시되어 있는 것은 미풍이었다.

아기와 노인이 길을 건널 때는 순경이 아니라도 옆에 지나면 누구나 그들을 보호해서 건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승용물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쯤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고 여성이 짐을 들고 가는 경우는 지나가던 남성은 누구나 여성의 짐을 들어준다. 이러한 습관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되어 있는 모양으로 벌써 국민교생이면 사내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여성에게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우리 눈에 신기롭고 기특했다.

또 프랑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 절대로 무리와 허식이 없어서 좋았다. 흔히 후진국에서 보는 허영이라는 게 없고 그 인상은 소박한 것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게 했다. 학교교육은 국가의 의무교육이요 대학은 자비로 가지만 국립대학의 등록금이라는 것은 무료로 가까운 염가인데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꼭 소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되 대학에 입학하면 실력으로 얻는 아르바이트로서 충분히 대학과정을 졸업할 수 있어 대학의 학비는 부모의 부담이 아닌 것이 우리와 달랐다. 또 대학은 남녀 공학이요 결혼 여부에는 지장이 없고 졸업 연한은 무제한이며 따라서 학문하는데 연령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기의 실력으로 한번 획득한 사회적 지위는 죽을 때까지 확보되는 것이다.

한동안 정치적으로 변동이 심했을 때도 내각이 조석으로 바뀌다시피 하는데 국민의 일상생활에는 별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것은 위의 책임자가 아무리 갈려도 그 아래 직원들이 변동없이 맡은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파리에 몇 해 머무른 동안 보니까 그저 특하면 파리 사람들은 파업하기를 좋아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피(被)고용주는 고용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서이다. 지하철의 종업원이 봉급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할 때는 종업원 없이도 간선의 메트로는 달려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시민들은 표 받는 종업원이 없으니가 공짜로 메트로를 탈 수 있었다. 버스의 경우는 거저 탈 수는 없지만 주요 간선은 언제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상례였다. 우리는 파업을 하되 어디까지나 고용주, 즉 국영인 경우는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았다.

가끔가다 학생들이 곧잘 파업을 하는데 그것은 대개 학생식당의 음식이 나쁘다는 트집일 때가 많았다. 정부는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되도록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었다. 그런데 한번은 어느 단과대학에서 교실이 좁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 경우는 국가재정예산 문제가 따르므로 쉽사리 응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때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귀찮으니가 학생들을 트럭에 실어서 먼 교외에 내다 풀어버리는 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때 학생들은 교통비가 없다고 떼를 쓰면 순경들이 교통비까지 대주어 돌려보내기도 했다.

(1962. 6. 19)



미국 민주주의의 바탕

임영신(任永信)
 <중대(中大) 이학장(理學長)>

미합중국 하면 제일 먼저 민주주의 국가라는 관념과 인류가 공존하는 오늘날 20세기에서 가장 부유한 자유진영의 우방국가라는 것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 평화, 행복의 수호진(守護陣)을 치고 최대 강국으로서 소(蘇) 제국주의·독재주의의 위협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현재는 1776년 독립선언을 전후해서 신천지를 개척하여, 황무지를 옥토(沃土)로 만들고 복지(福祉)를 창립하는 진취의 기상, 이상(理想)·꿈을 현실화시키려는 미 대륙 개척의 선구자(先驅者)의 설움, 피땀 흘린 노력이라는 과거를 반석으로 하여 융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호화로운 문명시대를 가져오고 1억 8천 5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평균 2명 중 1명 씩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 시작은 1492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후, 어떠한 정신으로 개척했느냐 하면 청교도의 신앙자유와 정신, 인류 박애의 정신, 인도주의, 민주주의를 인간 지상지고(地上地高)의 이념으로 이것을 마치 운동 경기자가 결승점을 향하여 달음질치듯이 싸우고 싸워서 완성을 기하여 진려했던 것이다.

이 개척사야말로 이들은 그 무슨 이론보다 실천을 주로 생활 속에 진리를 찾고 단순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세운 것이다.

이 건국정신을 세운 미국의 위인(偉人)들의 생활신조를 열거한다면 조지 워싱턴(G. Washington)이 미국 초대 대통령에 제임 시 각료나 부하들이 각하(your excellency)하고 부르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절대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미스터(Mr)로 족하다고 시달렸던 것이다. 이것이 곧 인간의 평등을 확설로 부르짖는 것보다, 그것을 관료주의나 계급주의 또는 당시 구라파의 귀족사회에 던지는 도전(挑戰)이고 구시대를 박차는

혁명적 언사였던 것이다. 16대 대통령으로 남북전쟁을 겪고 흑노(黑奴)를 해방시킨 유명한 링컨(A·Lincoln) 대통령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했던 것이다. “나는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고 또한 상전(Master)이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것이 곧 나의 민주주의의 이념이다”라고.

이런 점이 그들을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의 한 상징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는 나는 버지니아(Virginia) 사람이 아니고 미국인이라고 말하며 미국이 단합해서 독립하기를 부르짖었으니,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나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로서 편협한 지방색(地方色)을 타파하고 넓게 대의를 생각하라는 말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독립의 종(鍾)이 울렸고, 그 종의 영구히 보존되어 있는 이 시의 시정에는 미국의 정치학자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737~1809)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세계는 나의 조국이고, 인류는 나의 형제요, 적선(積善)이 나의 종교요, 나는 유일신(唯一神)을 믿노라.”고. 다시 말하면 헨리나 페인은 세계 동포주의(世界同胞主義), 인류 박애주의의 선봉으로 미국 건국의 창도자가 된 것이다.

인간의 불가양(不可讓)의 권리, 즉 인간의 생명·자유·행복의 추구를 부르짖고 미국독립선언의 제일위의 공헌자 서명자(署名者)가 된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영국 식민정책에 반기를 들고 과거의 유대(紐帶)를 박차고 신세대를 창립하는 그 선언문 중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법칙에 반하여 인권의 존엄성을 무시할 적에는 반드시 혁명이 필요하다.”는 혁명정신을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상술(上述)한 건국정신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운 사실이다. 인간이 짝어질 물질, 변화무쌍한 그 무슨 학설을 토대로 세운 나라가 아니고 최고도를 위시해서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기독교 정신에 토대를 두고 세운 것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느낄 것이지만, 그들 동전 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봉한다.”(In God we trust)는 미국의 경제·사회생활, 모든 윤리 도덕에 스며있는 근본정신인 것이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적에 성서에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이 정신이 곧 미국의 전성시대를 가져오게 한 그 저류(底流)에 흐르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역대 대통령이 세운 전통이겠으나, 오늘날 전 세계 영도자가 되는 미국 대통령이 구약 잠언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구(聖句)에 엄숙히 손을 올려놓고 맹서한 것을 보아도 국가원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만민 앞에 선포한 것이다. 이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이 미국국민의 국민성을 양성하는 힘이 되고, 온 사회기관에 혈관 동맥을 이루는 윤리·도덕·질서를 가져온 것이다.

희랍 신화에 보면 “성공이라는 피안(彼岸)에 가는 교량을 피땀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미국의 과학자요 정치가였던 프랭클린(B·Franklin)은 ‘시간이 돈’이라는 말로서 시간의 긴요성, 근면성을 역설했고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T·Edison)도 천재를 정의하기를 99%가 땀이고 1%가 재능이라고 노력의 대가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에 오늘날 대규모의 공업을 발전시키고 기계문명·과학문명을 이룩하는 근면의 결정(結晶)으로서 완수시킨 것이다. 이 정신을 토대로, 하루에 8시간 노동, 일주일에 40시간 노동을 규율 적으로 시계와 같이 기계생활을 하며, 또한 이 시간을 그저 태만히 소일하는 것이 아니고 농물을 울리고 생산고(生産高)를 울리며 맡은 바 책임을 깨끗이 완수하는 것이다. 물론 개중(個中)에는 타태(惰怠)한 사람도 있으나, 대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일하는 백성이다.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성구를 이들은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 성서에 준행하는 정신이 투철하게 국민에게 박혀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구주(歐洲)에서 신천지를 향하여 타향에 온 이들 이민들은 이웃이라든지 친척을 의뢰할 수도 없고 다만 미개척지를 개발함으로 땅을 벗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립 자존하는 정신으로 각기 생활의 기반을 닦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인은 의협심이 있는 백성, 정직한 인격을 생활신조로 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글자 그대로 옆집에 불이 나면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에게는 허다한데, 미국인은 옆집에 불이 나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불을 꺼주는 협동심과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한 예로서 죽어가는 고대생(高大生)에게 자기들의 피를 나누어 주겠다고 쇄도(殺到)했던 사실은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미국인은 한 인격자로서 정직을 온 사회생활·인간관계의 제일 요소로 여긴다. 상대방을 모욕하는 가장 큰 욕설은 “당신 말이 거짓이요.”하는 언사이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경제정책, 사회정책, 인권정책 등 부지기수의 정책을 세우는 정치가였으나, 그의 말은 “정직은 나의 유일무이한 최상지고(最上地高)의 정책.”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직·근면·의협심을 둘러싸고 기독교 정신, 인류 박애정신 이것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고층 건물이 세워져 공업화한 대도시를 건설하고 과학문명의 첨단을 견고 있으며 민주주의 이념을 높이 들어 나날이 발전시키고 불완전한 인간사회에서 향상된 민주사회로 발전,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中共)의 대(對) 파키스탄 도발

서장(西藏) 이하 티베트와 인도(印度)의 변경 분규해결의 대목이 서광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중공(中共)은 계속 인도의 배후나 파키스탄에 대해 영토문제를 제기하여 3자 간의 갈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의 정세에 새로운 긴장을 조작(造作)하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거조(舉措)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의 초보적 관측을 해보기로 한다.

이 파키스탄에 대한 중공의 영토 요구는 1월 9일 라사방송이 북경방송을 중계한 것으로 파키스탄 지배하의 칸빌 서북 길기트 지구 1천 평방리(平方哩)를 인도(引渡)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 지구의 경계선은 목하(目下; 현재, 지금) 확인하지 않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 분규의 초점이며 인도의 무력에 의한 고아 진공의 숙원을 달성한 후 칸빌 전역의 무력에 의한 수복 및 중공을 히말라야 산맥 지구에서 구축(驅逐)할 것을 성명(聲明)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공이 이때를 기회삼아 길기트 지구의 주권문제를 끄집어내어 칸빌에 손을 뻗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규를 한층 복잡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파키스탄을 위협하며 간접적으로는 인도의 칸빌 향(向) 진격을 저지하려는 목표에서라고 보겠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중공이 개입을 기도(企圖)하는 칸빌은 인더스 강 상류에 위치한 서 아프가니스탄과 소련에 접해있으며 남으로는 아랍 해로 나온다. 이 지구를 지배하에 두면 일보(一步) 나아가서 소련과의 지리적 연계가 강해지

중 공 의 내 중



중공은 최근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동남아에 대해 긴장을 조작(造作)하고 있다. 그들의 긴장조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배후를 뚫어 본다.

고 남아시아 및 중동에 대한 대(大) 포위권을 형성하는 한편 남진(南進)의 신 통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것은 소련이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여 인도네시아의 군사기지를 이용하여 남태평양에 위협을 주려고 하는 목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공의 기도는 소련의 남진태세에 호응한 전략행동이다.

길기트는 티베트와 신장 사이의 중요한 교통 거점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1천만 평방리를 점령하면 양지(兩地)의 연결(連接)이 가능하고 중공과 인도 사이에서 다투고 있는 액사이킹 지구는 공산당의 내륙(內陸)으로 되어 인도 측의 지리적 논거가 소실(消失)된다. 이 점으로도 중공의 신(新) 도발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중공이 이 요구를 낸 후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또 강경한 저항에 조우할 것인가 아닌가는 먼저 파키스탄의 민족성, 종교성, 국방력 및 동남아조약기구 가맹국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키스탄의 민족구성은 비교적 복잡하여 (주 종족이 5개 족) 5분의 4 이상의 인구는 회교(回教) 신자로 신앙을 통한 동국(同國)의 독립에 있어 일치된 강고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인도와 대규모 유혈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칸빌의 주민은 80%가 회교도이고 인도에 대한 반대운동이 격렬하며 이 때문에 동 지구 주민투표실시에는 인도도 소극적이다. 인도가 동 지구 40만 평방리의 점령을 희망하지만 용이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중공의 기도는 난관에 직면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병력은 크지도 약하

소련인과 소련말

언어학적으로 말해서 소련어라는 것은 없으나 소련의 공용어 즉, 현대의 러시아어를 혁명 전의 말과 구별하자니 소련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소련의 언어와 국민성 특히 내외의 정세와 대응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 보기로 한다.

① 즉시(卽時)는 1시간을 의미

무슨 일이든지 부탁(付託)을 하면 그야말로 즉답으로 ‘세이час’(곧 빨리라는 뜻)라고 대답한다. 이것이 소련인이다. 곧 해준다든지 하겠다고 대답했으나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사실 이 말을 민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말은 중국의 만만적(慢慢的)과 통한다고 할까.

빨리 빨리 이렇게 독촉을 하면 ‘췌췌’ 연신 대답하는 중국인이 있다면 소련인은 ‘세이час 세이час’를 되풀이 할 뿐 그들을 행동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 말의 정확한 새로운 해석은 즉시가 아니라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말로 알아야 한다. 이만치 소련인은 다른 사람에 관계된 일에는 신경이 둔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유장(悠長)한 소련인도

지도 않다. 즉 정규군이 큰 30만 육군의 보병 6개 사(師), 장갑(裝甲) 1개 사(師), 독립 6개 여단과 공군 400여 기, 해군은 함정 20여 척으로 꽤 충실한 국방력이다. 또 미국과 공동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직접 미군의 지원 및 동남아조약기구 제국(諸國)의 성원(聲援)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중공의 무력에 의한 위협은 실제 효과가 적다.



허위(虛僞)의 예술

나릿자 나루이포프

소련작가 나릿자 나루이포프는 자신이 쓴 소설 「불리어지지 않는 노래」(내스패타야 패스냐)를 여행자의 손을 통해서 파리의 러시아신문 「그라니」지(紙)에 인도(引渡)했기 때문에 작년 10월 13일 레닌그라드 박물관 내에서 체포된 사실은 이미 지상(紙上)을 통해 전해졌거니와 그의 소설은 라 개리(수용소) 생활을 중심으로 소련사회의 암흑면 자유억압의 비인간성을 그린 작품이다.

유명한 「의사(醫師) 지바고」의 작가 파스테르나크는 소련의 탄압을 받아 모처럼의 노벨상도 사퇴(辭退)하고 모스크바 교외 숲에서 적적(寂寂)하게 죽어갔는데 나릿자 나루이포프는 그러한 소극적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연(敢然)히 흐루시초프에 도전(挑戰)하여 자신의 소설이 확실히 파리의 「그라니」지에 수교(手交)된 것을 알자 그는 그 소설의 사본에다 편지를 써서 소포 우편으로 흐루시초프에게 보냈다. 그 편지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니키타 세르게예비치 씨[Nikita Khrushchov](흐루시초프의 이름) 나는 레닌그라드 박물관에서 국가비밀 공작원에 의해서 구류되었습니다. 내가 쓴 소설 「불리어지지 않는 노래」는 프랑스인의 손을 통해서 잘 파리의 「그라니」지에 인도된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그 소설 배긴 것을 편지와 함께 귀하께 보냅니다. 귀하는 나를 국가를 중상(中傷)하는 자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련의 실정을 꽤 품위 있게 썼기 때문입니다. 나는 육체의 고민(苦悶)보다 정신적 괴로움, 혼(魂)의 비극

이 밖의 일반 정세로 보아 중공과 파키스탄 간에 국교가 있는 이상 많은 복잡한 인소(因素;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이며 즉시결렬로 인한 전쟁상태 함입(陷入)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륙의 여러 종류의 난제에서 국내외에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新)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여기 수개월 내 중공의 적극적인 라오스 공산군 지원이나 조맹(趙盟)에의 군사대표단 파견 등 모두 국내외의 결의를 가볍게 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에 대해 세인(世人)은 면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홍콩시보[香港時報] 자료에 의함)

식량과 인구 고민(苦悶)

홍콩은 중공의 폭정에 견디지 못하여 탈출하는 난민으로 소란(騷亂)하며 대륙의 근황을 아는 데 부자유(不自由)하지 않다. 최근 도착한 상하이 간호학교 학생들의 화제는 이색(異色)이며 그들이 기자단에게 말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대정리(大整理)가 감행된 뒤의 상하이 시는 그때까지 미친 듯 날뛰었던 “12년으로 영국을 추월하자”, “도시 공사화(公社化)를 철저히 하자” 등의 슬로건은 거의 소실되고 여기에 대체해서 절약운동·신고분투(辛苦奮鬥)·재해구조 등의 슬로건이 나붙고 그 중에는 ‘소향락(小享樂) 사상의 철저한 소멸’을 강력히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시민이 포식하고 있는데 그 위에 한 그릇의 죽이나 한 개의 만두를 구해서는 안된다는 주지(主旨)이나 실재는 포식을 할 수 있는

자신에 관계된 일에는 그야말로 성급하기 비할 데 없으며 또 과장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에 따라서는 약 10분 사람을 기다리고는 사람을 한 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다고 기색이 변하여 손끝이 조금 아픈 정도로도 전신이 아파 죽겠다고 호소하는 침소봉대(針小棒大) 형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चे스처는 그들이 외교무대에서도 상투적으로 쓰는 것이며 중용(中庸)이라는 말과는 그야말로 무연(無緣)의 모순 덩어리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새이차스’라는 말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말도 ‘스코오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영어의 SOON 정도라고 할까 이제 곧 정도의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말의 ‘이제 곧’이란 사실과 대응할 때 위의 ‘새이차스’가 1 시간을 의미한다면 이 말은 1년 후 정도로 보면 틀림이 없다는 이언(俚諺)이 있다고 한다. “언제 우리들을 돌려보내 줄 것인가”하고 애원을 하면 소련인은 ‘스코오로’라고 대답한다. ‘스코오로’는 1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틀림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스코오로’가 5년·10년의 결과를 빚대고 있거나 소련인의 꿈꿨던 수작과 말에는 호흡이 통한다고 할까.

② ‘니제보’와 ‘따와이’

위에 말한 1시간 1년을 즉시로 말하는 소련인의 사고방식은 그 근원이 ‘니제보’정신에 있다고 본다. ‘니제보’란 말은 중국의

인류를 파멸시키는 비열한 것을 쓰기로 했습니다.

국가를 부패시키는 사상이나 세계를 무의미한 최종 전쟁으로 떠밀어내는 이해관계의 허무함을 예시(例示)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나는 부패된 체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귀하가 주창하는 사회주의도 겉보기가 다를 뿐이니 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본주의 세계의 보스(boss)들도 나의 이 소설에 대해서 기꺼이 덤벼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적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예술가는 자신이 사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제(官製)의 공식을 쓰는 것 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막히는 단조로움 위장(偽裝)·공언(空言)·표면적 르포르타주[reportage] 뿐입니다.

귀하는 저 유명한 작가가 쓴 「처녀지(處女地)」를 본 일이 있겠지요. 그 소설에는 한 사람의 지적 인물이나 한 사람의 자기 사상이 없고 그냥 싸구려 연극의 어리석음으로 꽂 차있지 않습니다. 귀하는 소련을 자유의 나라라고 부르고 당을 현대적 지혜자로 하고 양심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자는 다른 지혜자와의 교제를 겁내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고 흥금을 털어놓고 논쟁하며 다른 견해 중에서 건전한 요소와 공개적 상호협력이라는 분위기 안에서만 선진적 사상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참 양심은 사상의 자유로운 상호협력을 무기나 공갈로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진정 자신을 지혜 있는 자이며 양심을 가진 자라고 자부한다면 같은 문제로서 공개적 논쟁과 다른 문제로 정직한 협력에 대해서 나의 도전을 받아 주십시오. 바라건대 나를 스파이나 비밀공작원으로 돌려썩지 말고 자유로이 해 주십시오. 귀하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적어도 나와 나의 가족을 어디든지 보내어 해방시켜 주십시오.

1961년 월
서명(署名)

자가 없으니 이것은 한 그릇의 죽을 먹었으면 다음 한 그릇을 먹지 말라는 것이 된다.

시 당국에서는 식량의 핍박과 실업자(失業者)의 증대를 이유로 총명다오(崇明島)에 집단이주계획을 세우고 제 1단계로 시구(市區) 인구의 10분의 1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까지 3만 명을 이주시킨 후 계획은 돌연 중단되었다. 현지에서 탈출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총명다오는 해방 후 불모지로 화(化)하여 주민 거리가 이병(罹病), 병에 걸릴했거나 또는 영양실조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 시에 전해지자 그 후 이주희망자는 전무(全無)로 당국도 계획중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폐한 당국에서는 다음 수단으로 전 시민에게 농촌의 수리(水利) 건설을 담당시키려고 하였다. 이것은 일용(一鷹) 지원제로 하여 약 20만 명을 근교 각 현(縣)에 보내어 제방공사 준설, 수해로 파괴된 댐의 재건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원제라고 하여도 상하이의 암흑세계 즉 시외에서의 유망자(流亡者), 농촌공사가 생긴 후 도시로 흘러 들어온 농민(약 8만 명) 등은 강제적으로 이 계획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곧 추방인 것이다. 당국도 이것을 인정하여 “상하이의 인구는 급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상하이는 대륙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은 각종 계층이 생겨 행정관도 속수무책인 것이다”라고 변명(辯明)하고 있다.

암시장 즉, 자유시장은 암흑의 상하이에 가냘픈 활기를 주고 있다. 인민로(구(舊) 국민로)의 양측에는 조조(早朝)부터 닭·오리·해산물·육류·야채 등 노점이 개업하는데 돈육은 1근 7위안(元), 어류는 근당 4위안, 닭 동(同) 6위안, 오리 동 5위안, 소맥분 동 5위안 5자오(角), 쌀 동 2위안, 낙화생유(落花生油) 동 14위안. 1근 500와(瓦) (1위안은 한국의 50원~60원 정도)이니 이것은 공정가격의 20배에 해당하는 고가이고 일반시민은 화중지병(畫中之餅; 그림의 떡)이다.

沒語字(메이파스)와 일맥상통한다고 할까. 그것으로 그 뜻이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그 적용범위가 넓다. ‘할 수 없다’, ‘별 것 아니다’, ‘보통이다’, ‘꽤’, ‘그런 정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소련인은 괴로울 때도 ‘니제보’로 체념하고 만족스러울 때도 ‘니제보’로 표현. 그야말로 망양(茫茫, 넓어서 갈피를 잡기 힘들)하여 견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니제보’정신이란 대륙적인 것이라고 할까 능글맞다고 할까 그러한 말의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 겨레가 잘 알고 있는 ‘따와이’라는 말을 들어보자. ‘따와이’의 의미는 ‘자……해보자’, ‘자 그러면’, ‘그것 그것’ 식으로 사람을 독촉해서 한 가지 행동화 한다든지 또는 더 급하게 하려는 말의 재촉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따와이’는 슬쩍하는 것 즉, 남의 것을 마구 훔치는 뜻으로 쓰이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러한 행동에 쓰이기도 했다. 이 말에 ‘부이스트로’란 말(빨리라는 뜻)이 붙으면 재촉하는 데 쓰이는 말이 된다. “따와이 따와이 구미(歐美)를 추월하자”이것은 소련이 경제계획 5개년동안 되풀이 한 말인데 구미를 능가하기 위해서 해보자고 하는 소련인의 이 말은 구미인보다 앞장 서야 되겠다는 뜻보다 오히려 남의 나라 특히 구미 제국의 비밀을 많이 훔치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앞장서자고 하는 침략성의 구호로 들리니, 말이란 그 국민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중공의 꾸우양 부대-세계 적화(赤化)야욕에 눈이 어두워진 중공은 아직 철부지한 이 같은 어린 소녀들까지 동원하여 총 쏘는 훈련에 만방(奔忙)하다

상하이와 그 근교의 이러한 현상은 상하이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고 그 밖의 홍콩에 물려드는 난민이 말에 의하면 전국도처가 비슷한 실정인 것이다.

작년도(昨年度) 반(反)혁명사건

대륙에서의 소식에 의하면 1월 14일부터 중공 공안부 주취 '공안성적(公安成績) 전람회'가 베이징 지안먼(地安門) 공안빌딩에서 개최되어 개최기간 14일 간 14만 명의 참관인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 전시된 공안사건은 작년 1년 간 발생·검거된 것으로 그 지역 별 자치구를 포함한 대륙 전토(全土)를 말한다.

여기에 의하면 작년의 소위 반혁명 사건은 통계 24만 8천 건으로 그 주요한 것은 창고의 습격 14만 6852건, 간부 자살(刺殺) 1235건, 무장폭동 3738건, 방화 1만 4531건, 해안지대를 배를 타고 도망친 사건 391건, 중공 정권을 전복시키고 반공정부수립을 기도한 사건 28건, 중화민국 정부의 원조물자 공중투하에 호응한 사건 2237건으로 되어 있다.

작년 내 중공정규군 공안군 및 민병(民兵)이 공안 게릴라와 교전한 사건은 2만 9697회이며 게릴라 병 19만 8475명이 전사하고 6만 3242명이 포로가 되었다. 이 교전에서 압수한 무기는 자동소총 4212정, 다른 보병총 4만 3360정, 수류탄 2만 4851발, 박격포 69문, 야전포 11문, 군기 132면(面)으로 그 밖에 위조 인민폐(人民幣) 1,392만 위안, 의약품 120상자가 발견되었다.

지구별 통계로 보면 동북지구 9성(省)이 반공력(反共力)이 최강이며 화북·화중·화남·서북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압수된 무기는 대부분 동북 9성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 전람회의 의도는 물론 중공 공안군의 위력을 과시하여 인민의 반항을 미연에 방지할 뜻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중공을 적으로 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니 아찔니한 사실이다.

공안전람회의 제3일 제 각 진열장에는 반공의 뼈대가 살포되어 중공의 경비원들은 당황하여 그 범인을 잡기 위해 회장(會場)의 출입구가 폐쇄되었다.

표어는 마오쩌둥(毛澤東) 등 중공의 수뇌가 진정한 애국자를 살해했다. 왜 공안부는 이것을 방임하고 있는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범죄의 원흉 마오쩌둥 등을 체포해서 전람(展覽)시키라!! 등의 내용이였다.

그런데 이 일부 뼈대의 발행자 이름에 베이징대학 학생연맹 부주석 척가요(戚家堯)라고 쓰여 있어 때마침 이 전람회를 참관하던 그의 부친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졸도한 일막극(一幕劇)이 연출되어 이 사실이 순식간에 전국에 선전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부친의 이야기에 의하면 척가요는 베이징대학 공학원(工學院) 전기계(電機系)에 재학 중이며 1년 이전에 상하이에서 학생연맹 간부 여러 명과 더불어 행방불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련(學聯)'의 엄호(掩護) 아래 반공활동에 분주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중공 당국은 사건을 처리한 후 동 학련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했으나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많은 경비원이 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장(會場) 내에서 뼈대를 살포한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며 이러한 사건은 매일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어 공산독재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김사천(金史泉))

군축(軍縮)을 위한 현실적인 길

-제네바 회담의 군사적 배경-

P·M·S 블라켓



목차(目次)

- 一. 군축 교섭자의 본질
- 二. 군축을 위한 미·소의 군사적 제 요소
 1. 미국의 핵(核) 비축량
 2. 소련의 핵 비축량
- 三. 소련의 핵무기 성장과정
 1. 미 핵능력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반응
 2. 'ROLL BACK' 정책의 종말
- 四. 핵전략의 본질적 성격
 1. 최소한 저지력의 이론
 2. 소련의 최소한 저지 정책
- 五. 미·소의 군사적 체제 및 정책과정
 1. 소련이 핵실험을 재개한 이유
 2. U-2형기의 중요성 (이하(以下) 차호(次號))
 3. 아이크가 지적한 미국 내 사정
 4. 50메가톤의 경고
 5. 선제공격론자의 기선제압
- 六. 군축을 위한 길

一.군축 교섭자의본질

군사지휘관들은 전투나 전략을 계획할 경우에 반드시 적측에 존재할 제반 정보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것은 첫째로 적의 군사적 전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탐지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적이 작전할 가능성 있는 작전 기도를 추정하는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축 교섭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의무가 있다. 즉, 그 성공을 위해서는 군축 이면에 어떠한 사실들이 숨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군축이라는 복잡한 정치·군사적 제 양상에 관한 정세 판단은 순 군사적인 전투에 관해서 행해지는 판단보다도 훨씬 어려운 장애가 있다.

고도로 발달된 군사과학은 오늘날에 있어서 로켓 트 미사일 인공위성으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군축이라는 것 그 자체도 군사무기의 발전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세계적인 주요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952년 군축위원회가 조직된 이래 미·소를 중심으로 하여 단속적(斷續的)으로 진행되어 오던 군축회담은 쌍방간의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재개된 18개 국 군축회담은 '국제사찰(國際査察)'을 둘러싸고 미·소 양국의 기본적 입장의 대립으로 난관에 처하고 있다. 소련은 왜 자국영토의 출입사찰을 거부하는가? 소련 핵전략의 본질적 성격 그리고 군축을 달성하는 제 요건은 무엇인가 - 영국 간행지 뉴스 스테이츠맨 3월 2일호에 게재된 P·M·S 블라켓(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4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교수의 논문 「군축(軍縮)을 위한 현실적인 길」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러한 의문점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 것으로 주목되는 바 이하 동 논문의 요약을 게재한다.

작전을 계획하는 자는 작전상 계획수립에 요구되는 적의 군사적 사고과정에 관하여 판단하면 되지만 정치가는 적의 군사적 사고과정과 동시에 정치적 사고과정에 대하여도 아울러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에 있어서 더욱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쌍방의 군사 정치 지도자가 이러한 정세를 판단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제 소련의 군사정세 및 군축에 대한 태도를 서방측 군사정세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二.군축을위한미·소의군사적제요소

1 미국의 핵(核) 비축량

1961년 11월 12일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 타격력의 중핵은 대륙 간 폭격기 一. 700대(B-52 / 530, B-58 / 55, B-47 / 1,000) 실전용 ICBM 60~70기 원자력잠수함 用용 IRBM(폴라리스) 약 80기, 메가톤 급의 핵폭탄을 적제한 핵무장 합계가 약 300대 핵무장 초음속 육상기지전투기 1,00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명(言明)하였다. 또 1961년 10월 22일 길 패트릭 국방차관은 “우리들의 전술·전략 핵 운반 수단의 총수(總數)는 수만에 달하고 각 운동수단에 대하여 1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소련이 초격(初擊) 시에 발사할 같은 정도의 제2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능력으로 보아 소련이 대규모적인 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핵무기 총 비축량은 3만 메가톤 전후라고 추정되며 이것은 소련 전토(全土)의 남녀 어린이 1인 당 TNT 환산 150톤에 상당하다.

2 소련의 핵 비축량

소련의 군사력에 관하여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61년 1월 20일과 금년 1월 6일 부 뉴욕 타임스 지는 미국 측 추정이라는 보도에서 소련의 핵 군사력은 ICBM 50기, 대륙 간 폭격기 약 150대, IRBM 40기 이내라고 하였다. 워싱턴 당국의 동·서 쌍방의 핵전력에 관한 숫자가 비슷한 정확성을 띤 것이라고 가정하여도 소련이 서방측의 핵 운반조직에 대하여 합리적인 계획으로 기습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현재나 또한 장래에 없을 것이다. 물론 소련의 핵전략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평가는 너무 경솔한 것 같이 보이나, 미 국방총성도 이 평가를 대체로 정확하게 믿고 있음은 확실시된다.

그러한 이유로서는 오늘날 미국 정세 하에서 만일 정부가 오산하여 소련의 핵전략을 낮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치명상으로 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당국의 현저한 전면적 핵 우위의 주장과 소련이 미국 내 주요 산업·행정·정치상의 중심지 및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제국을 격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 최근 마리노프스키 소련 국방상 성명 가운데는 일견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마리노프스키가 말한 정도의 파괴(破壞)를 하려면 1,000 메가톤 이내로 충분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주요 목표 100개소에 각각 5메가톤 또는 서구와 미 해외기지에 포함 500 메가톤 이면 가능하다. 1 메가톤 당 약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치더라도 이 공격으로 포함 2억이라는 인명이 사살될 것이다. 그러나 3만 메가톤이라고 견적하는 미국의 핵 비축량은 마리노프스키가 말한 바와 같은 보복 공격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련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30배나 강한 것이다.

三.소련의핵무기성장과정

1 미 핵능력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반응

소련 국방정책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성장 과정을 미국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1947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간은 미국으로서는 원폭 독점과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한 시기였다.

당시 미 전략 공군의 역할은 전쟁발생 시 소련 도시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 도시 우선 공격 정책은 전통적인 군사이론과 동일한 공격, 방어의 양면을 지닌 적극정책이었다. 이 7년간 소련은 대체로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보복을 받지 않고도 소련 도시에 대규모적인 파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왔다. 그리하여 소련은 미국의 핵능력에 대한 대책을 급속하게 강구하게 되었다. 즉 소련은 첫째로 자신으로서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돌관(突貫)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을 집중시켰다. 소련의 실전용 전투기 수는 1953년 경 제1 시기에 있어서 약 1만대에 달하였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소련은 서방측 핵 무력의 성장에 수반하여 미국이 핵공격을 한 이후에도 구주(歐州)를 침공할 수 있도록 그 지상군을 서서히 증대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서방측 핵 타격력에 대하는 소련의 유일한 군사적 반응이었다. 셋째로 미 전략 공군에게 공격 목표로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소련 전토에 엄중한 지리상의 비밀관제를 하였다.

넷째로 소련은 정치면에 있어서 1948년 체코의 정치 쿠데타에 의하여 그 군사 제1선을 더욱 견고히 하고 또한 다른 위성제국을 소련의 방위조직 내에 더욱 밀접하게 조직화하였다. 그리고 당시 소련에 대한 주요한 위협물로 되어 있는 유인 폭격기 때문에 소련은 방공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 ‘ROLL BACK’ 정책의 종말

1950년부터 1954에 이르는 기간은 서방측의 사실상 핵무기 독점

기간이었다. 이 말기는 서방측 핵전력의 공격적 - 방지력에 대처하는 것으로서의 - 가치는 더욱 현저하였다. 이 기간은 서방측의 대량보복(大量報復) 이론의 시대였고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서클 간에서 ‘ROLL BACK’ 해방 결의의 해라고 한 정치 구상이 있는 시대였다. 그 구상에 의하면 결의의 해는 서방측이 구라파에 보복공격을 하려고 하는 소련을 격퇴하고도 남을 정도의 지상군을 확충하였을 때 이른다는 것이었다, 소방측은 이 적당한 지상군 병력을 획득한 뒤에 그 핵전력을 이용하여 소련에 서방측의 조건을 수락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폭격을 한다든지 강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방측의 조건으로서는 위성제국의 자유화와 서방측 군사조직 범주 내에서의 독일의 재통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인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능성은 소련의 핵 비축량이 점차로 증대해감에 따라 그와 대응하게 현실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반대로 소련의 수폭 개발과 이 수폭을 운반하는 장거리 폭격기대의 건설에 의하여 미국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구상이었던 도시에 대한 우선 공격 전략을 실행에 옮겼을 경우 소련의 핵 보복 공격에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머리를 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포의 균형에 대한 어떤 종류의 핵 장애(障害)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핵무기와의 미사일관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ICBM에 의한 수 메가톤급 수폭 운반이 가능하게 된 1957년경에는 심해졌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장거리 핵미사일의 출현으로 공포의 균형이 더욱 안정화된 셈이다. 그와 같은 이유로서는 이 장거리 미사일이 출현함으로써 유인 폭격기로 어느 정도 가능했던 비행중 항공기의 격추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핵 침략자는 그 주요도시의 어느 하나라도 보복공격에 의하여 말살되지 않도록 피하기 위하여 적 미사일을 하나 남김없이 격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四.핵전략의본질적성격

1 최소한 저지력의 이론

최소한 저지력의 이론에 대응하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가설적 정책이 있는데 첫째는 비교적 안정된 군사적 균형 즉, 동·서 쌍방이 모두 자신의 확실한 파괴 내지는 전략 핵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군사적 균형이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쌍방 간에 실제 핵전력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균형은 쌍방 모두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쓰는 전문어로 말하면 최소한 저지력 정책 즉 적 핵 운반 조직에 대하여 성공적인 공격을 가할 수 없지만 적의 제 도시에 보복공격을 가할 목적에는 충분한 핵 무력을 보유하는 정책이다.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적 안정은 군축의 구체적 조치를 교섭하려고 하는 진실한 시련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의 균형은 오로지 책임 있는 정부의 이성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해서만이 안정하다는 이유에서 보면 극히 유망한 것이나 개인 또는 의견을 달리하는 그룹의 무책임한 행위 또는 기술적 사고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코 안정하지 않다. 적당한 위치에 있는 소수의 개인,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비행하고 있는 핵폭격기의 승무원이나 미사일 요원은 자신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로서 적 도시의 주민을 수백만 명 사살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적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쌍방의 핵무기를 철저히 소멸함에 있다.

두 번째의 서로 다른 이론으로서는 공포의 균형은 책임 있는 정부의 이성적인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안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핵보유국이 일단 결의하면 적의 핵 운반 조직에 대하여 적으로 하여금 보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기습을 가한다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침략자는 자신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적의 사명(死命)을 제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 말한 두 가지 이론의 실제 결론은 핵무기 수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우월해야 하고 핵무기 운반 조직 면에서는 최대한도로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강화하며 적의 핵 조직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도로 수집하는 등등 제 부문에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적이 이러한 성격의 핵공격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의 핵미사일 및 항공기지 전부에 관한 제1급의 작전정보와 각 목표에 적어도 한 개의 핵무기가 명중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목표에 대하여 동시에 수개의 핵무기를 발사할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군사목표 우선공격 전략에는 적에 대하여 몇 배 해당되는 총합적 핵 우위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격에서 성공하려면 적에 대한 완전한 기습 즉 제1격으로서 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최소한의 저지태세 또는 군사목표 우선 제1격 능력 등 각종의 이명(異名)으로 표현되는데 명백히 말해서 핵 침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이성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 균형이 안정된 정책으로서는 스스로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적에 공격을 당했을 경우 적의 제 도시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계획도 필요하다.

큰 도시에 대항 수폭 하나를 투하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사살시키는 이상, 최소한 저지를 위해서는 극히 작은 규모의 운반 조직으로서 충분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적은 규모의 핵 운반 조직은 고도로 발전된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군사목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소한 저지 정책의 경우에는 위치가 명백해진 도시에 대한 보복을 대상으로 하고 핵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은 그 대상으로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없고 역시 작전정보도 필요 없는 것이다.

2. 소련의 최소한 저지 정책

만일 워싱턴 당국이 확실한 근거를 두고 소련의 핵전력을 평가하고 있다면 핵무기의 역할을 순수한 보복력으로 계획하고 미국의 핵 운반 조직에 대한 기습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련은 1956년 당시에 월당 25대의 장거리 폭격기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은 150대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소련은 비군사 우주계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현저한 발전 상태로 미루어 보아 ICBM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추측될 50기 전후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련은 전해진 수량 이상의 양은 가능한 한 소재를 음폐한 비밀 기지에 두고 있을 것이며 안전보장의 기초를 이러한 음폐 기지로부터 발사하는 소수의 장거리 미사일과 항공기에 두고 있는 것이 된다.

소련은 의식적으로 시작되는 전면전쟁의 위험이 수폭의 출현으로 감소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 징조로는 소련이 총병력을 55-56년의 580만 명으로부터 59년에는 360만 명으로 삭감한 사실, 또 1960년 1월 병력삭감의 제1단계로 61년 말까지 240만 명으로 삭감한다고 성명한 사실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편 소련이 55년에 포괄적 전면군축이라는 철저한 조치를 강력하게 지지한 이유의 하나는 예상하건대 소련이 사조, 무책임 또는 국지전으로부터 발전하는 대전발생의 위험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1961년에 이르러 소련의 군사정책에 어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즉 61년으로 계획된 240만으로의 병력 삭감은 중지되고 군사 예산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베를린[柏林]의 지위를 변동시켰고 독일의 분할 상태를 인정시키기 위하여 서방측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핵실험을 재개하는 최초국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후르시초프의 60년 1월의 공약에 반하여 핵실험을 재개하였다.

소련의 이와 같은 근본적 변화의 배후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잠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 잠재력이란 서방측과의 평화공존 정책에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던 중공과 그리고 소련 국내의 반대파들이 후르시초프에게 평화공존 정책을 방기(放棄)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지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공 및 국내 반대파의 반대를 도외시키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감행한 후르시초프는 강력한 군사적 이유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 당돌한 정책 전환의 군사적 이유의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폭이 출현한 54년부터 61년에 이르는 동서 양 블록의 군사체제 및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五.미·소의 군사적체제 및 정책과정

1. 소련이 핵실험을 재개한 이유

우선 최초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련 국방상 마리노프스키의 62년 초 언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그는 자기의 언명에서 소련은 미사일 전력을 증대할 필요는 없고 오늘날 과제는 핵 비축이 아니라 핵무기의 갱신 및 완성이고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핵 비축량은 적을 격파함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소련의 군비확장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상술한 마리노프스키의 언명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소련의 핵 군비계획은 순수한 보복적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며 이것은 또 순수한 도시 우선 보복 공격 전략에 합치하는 것이다. 군사목표 우선공격 전략은 이와 대조적으로 미사일 기술 진보의 결과로서 적의 핵무기 운반수단의 취약성(脆弱性)이 점차 극복되어감에 대하여 끊임없이 핵전력을 증강해야 하며 그것은 꼭 필요하다.

내(耐) 파괴성을 가진다든지 또는 순수한 보복용 전력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상태는 적이 효과적인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개발했다거나 또는 적의 제 도시가 적절하게 방어 가능 태세로 갖추게 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현재로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머지않은 장래에도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복력을 약간 증가할 뿐으로 충족될 것이다.

이 기간 중 미 국방정책의 경과를 살펴본다면, 미국의 전 병력 수는 55년의 290만 명으로부터 60년의 260만 명까지 완만하게 감소되어 왔다. 개량된 핵무기, 미사일, 항공기의 개발은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57년 소련이 처음 스프트니크를 발사한 후 미사일 능력을 상당히 과시한 당시에 있어서도 그다지 진척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위 미사일 GAP을 메우기 위하여 돌관계획(突貫計畫)에 착수하라는 약간의 사회적 압력을 받았으나 그 자신은 현행 계획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수년 전의 폭격기 GAP은 전혀 허구였다고 말하고 미사일 GAP도 역시 그것과 동일하다는 모든 징조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인생은 서비스이다. 뛰어난 자는 더 많이 더 좋은 서비스를 주는 자이다.
- E·M 스탈러 -

한국의 부흥과 농촌의 역할

-특히 농촌부흥 문제를 중심으로-



현하(現下)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로 되어있는 부흥문제는 정상적으로 경제적 발전을 성취하는 데에서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홍기창(洪基淸) <고대 농대학장>

(-)

한국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근대적인 공업화를 이룩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방금 추진 중에 있는 5개년 계획은 공업화 과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즉, 첫째로 공업화의 기간(基幹)이 될 전력을 위시해서 석회(石灰) 기타 동력자원 개발, 둘째 농업생산력을 증강함으로써 농기수입의 증대와 국민경제의 조직적 균형을 꾀하고, 셋째로 기간산업의 시설 확장과 사회 간접자본의 증축을 도모하고, 넷째로 유휴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높은 고용수준을 보장토록 하며 또한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만전을 기한다. 다섯째로 수출증가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 여섯째로 기술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시책에 따라 경제발전의 지주(支柱)를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업소득의 증진에서 오는 농촌부흥에 두고 여기에서 이룩되는 소비시장과 자본축적에 의해서 경제의 자립적 성장과 공업화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국에서는 산업구조면으로나 인구구성면으로 보아서 농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대하므로 경제부흥의 문제는 언제나 의당 농업부흥의 발전 문제와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원래 공업부흥을 비겨볼 때 전자는 후자보다 자본의 한계 효용이 클 뿐 아니라 이의 회전속도가 빠르며 자본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개발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공업화에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가는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업 발전에 중점적인 자본투자가 집중되어 이른바 제2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한다고 해서 제1차 산업인 농업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추호라도 경감된다거나 또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국에서 농업발전이라는 배경이 없이 공업발전이 단독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일 공업에만 편중적 중점을 둔다고 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불균형현상을 초래케 될 것이고 이것이 국가부흥에 대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은 물론이고, 또한 농업생산물의 부족 특히 식량의 부족은 이를 수입에 의해서 충당해야 하므로 국제수지(國際收支) 면에 있어서도 역조(逆調)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여튼 경제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업을 주로 한 제2차 산업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인구의 6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 부흥되어, 공업생산품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이른바 소비시장으로서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공업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의 선행조건으로서 마땅히 농촌의 부흥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한다. 따라서 금반(今般)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있어서는 위정(爲政) 당국이 농업부문에 높은 비중을 두고서 다기(多岐)로운 중농정책을 대립하여 실천을 강행하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二)

정부가 수립한 농업정책의 중요방침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주곡(主穀) 증산을 위시해서 다각적인 농업 경영의 장려, 부업(副業)의 권장, 농업의 유부화(有富化), 농지개발사업의 추진, 조림(造林)과 산림보호 등 효율적 산림사업의 수행, 농촌계몽사업의 전개, 농업협동조합의 발전 등 실로 다면적인 것임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5·16 직후 농촌의 말할 수 없는 빈곤성(貧困性)을 타파하여 이의 부흥을 꾀하고 농업발전과 생산 공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단행한 농어촌고리체 정리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뒤이어서 중농정책의 일환으로 몇 가지 주요한 농립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을 여행(勵行) 중에 있거니와, 그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맛을 감득(感得)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첫째로 농산물가격유지법은 종래 저조일로(低調一路)를 걸어온 농민의 생산의욕을 양양(仰揚)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로써 농업생산에 대한 최저한의 생산비 보장을 해주게 되었다. 금년도부터는 대맥(大麥)을 위시한 벼, 고구마, 박하, 비마자(薊麻子) 아마(亞麻) 등 중요농작물에 대해서 예시가격을 제시해 줌으로써 농업증산의욕을 고무하고 생산물의 판로를 보장해 주게 되었다. 한편 작년 10월 하순부터 실시를 보게 된 미곡담보용자는 정부매상고 200만 석(石)과 더불어 100만 석으로 책정하여 미곡가격을 대폭 인상해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이익에 기여하는 한편, 미가(米價)의 연중 평준화와 더불어 곡가(穀價) 안정을 기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상품가격의 안정과 농업시장의 확장 등도 농민에게 좋은 자극을 줄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둘째로 농업경영면으로나, 수입 면으로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영세성(零細性)의 타파를 위해 안정 농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생각건대, 장차 농촌고리체에 의한 농촌의 궁핍을 완전히 불식하기 위해서 당면한 정책으로 영농자금을 증액·방출한다든지 농가의 소비절약 및 저축을 여행(勵行) 한다든지 그리고 농가부업을 장려함으로써 농촌수입을 올리는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지만 항구책(恒久策)으로써는 무엇보다도 농업경영의 영세성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농촌으로부터 빈곤을 씻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前記)한 안정농가 조성문제는 우리나라 농촌의 부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농가란 농업경영의 적정규모를 기함으로써 영세 농가를 없애자는 것인데, 우선 5년 보(段步)미만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총소득에 비해서 지출과다로 인한 적자가 대략 평균 1,300원(구화(舊貨)로 13,000환)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약 백만 호에 해당하는 영세농을 중농(中農)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적정규모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치중한 영농방식의 개량지도, 지역사회 개발의 촉진, 경지면적 확장을 위한 개간이나 간척사업의 활발(活潑)한 전개, 농촌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구의 제2차 산업으로의 수입 및 단위면적 당 생산고를 올리기 위한 농업경영의 집약화와 부업의 장려 등 여러 가지 조절방법이 강구되어야 마땅할 줄로 안다.

셋째로는 경작지 면적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임야지(林野地)나 황무지를 개간한다든지 간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국토 총 면적의 불과 24%만이 경작지로 되어 있고 그 외는 대부분 임야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임야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냐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 남해안과 서해안은 리아스 식 해안이 발달하여 장차 간척지로서 얻을 수 있는 면적이 수십만 정보(町步)에 달할 것이므로 묘액대(繻額大)의 경작지와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서는 이 방면에 힘을 기울여서 활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지면적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입지조건에 수반해서 새로운 재배체계를 수립하고 적지적작(適地適作) 원리에 따라 농가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금(換金) 작물의 재배를 촉진·장려하려 하고 있다.

넷째로는 다각적인 농업경영의 실천을 지도·장려하고 이의 중요한 방책으로서 한편으로는 특용작물의 증산, 유축농업(有蓄農業)의 장려, 양잠업의 발달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품종분화의 고도화를 위한 육종사업의 확장을 위시해서 합리적인 시비법(施肥法), 농지개발, 심경(深耕), 밀식(密植)에서 오는 단위면적 당 생산고의 증가, 육묘(育苗) 기술 향상이 그 일환으로 되고 있는 생력(省力) 농법의 연구와 이의 실천 등, 실로 각 방면을 통한 영농재배기술의 개량을 적극적으로 보급시킴으로써 획기적인 증산을 꾀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로는 농업협동조합의 육성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작년 8월 15일을 기해서 단행한 농업은행과 농협과의 합동은 과단적(果斷的)인 처사로서 협동조합 금융체제의 출현을 보게 된 셈인데 이것은 곧 종래 소농(小農)을 위주로 삼아왔던 우리나라 농촌의 고유한 신용기관으로서 조합금융체제가 필요한 데 대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체제는 소농이 지배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흥건(興件) 하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이 바라마지 않은 신용기관으로서의 협동조합금융이 필요한 데서 맺어지게 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과감히 영농자금방출을 해서 농가의 이익과 농업생활에 기여를 해 온 농협은 향차(向次) 농업경제의 '센터'적인 역할을 할 이동조합(里洞組合) 육성에 중점을 두고서 이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디까지나 생산과 소비 양면에 다 비중을 두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농협에서는 합리적인 비료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의 적기(適期) 배급을 기하는 동시에 농민이 적정가격으로 비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수(官需) 비료체제가 구현되었고, 또한 각종 부업의 장려와 농촌보협제도로서의 화재보상제도 등을 확립시키게 되었다는 것은 농촌 부흥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앞으로도 협동조합운동이 자주적이며 생산증강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개개 조합으로서 신임을 받고, 또한 조합체제는 각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여섯째로는 조림(造林)과 육림(育林)을 위주로 한 산림정책에 있어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여 치산치수(治山治水)의 만전을 기하고 이로써 국토보존 및 지방보존, 수리자원의 확보

임산개발(林山開發) 등의 실효를 발휘토록 되어있고 이에 수반하여 연료림(燃料林) 조성을 적극 여행(勵行)함으로써 지방보존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일곱째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부업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개발운동의 하나로써 그 지방에 특산물 생산을 증강케 함으로써 농촌노동의 자본화와 농촌노동력의 균등한 분배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역시 농촌경제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는 정권기구로서 농촌진흥청을 새로 설립해서 농업경영과 기술에 대한 지도체계를 일원화하고 따라서 종합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지도를 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아직도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과 민도(民度)가 얕은 다수 농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三)

이제야말로 우리나라의 농업이 감연(敢然) 전환해야 할 때는 도래하였다. 위에서 말한 중농정책이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농업의 열악한 특질인 영세성이라든가 농촌의 빈곤성이라든가 농업생산의 저위생산성(低位生産性)을 타파하고 전반적인 개선을 할 때가 도래하였다는 말이다. 즉 이제 바야흐로 후진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종래의 경험농업으로부터 과학농업으로 단일농업법(單一農法)으로부터 다각농법(多角農法)으로 저위생산농업으로부터 고위생산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우리나라 농업은 다기(多歧)로운 농업정책이 제시한 바에 의해서 급속한 발전을 해야 하겠는데 요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실천에 옮겨짐으로써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가 금후에 남아있는 중요한 숙제거리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정(爲政) 당국에서 꾸준히 영세소농을 적의(適宜), 보호 육성하여 농촌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경주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농민 각자도 스스로 각성해서 부단한 생산의욕과 창의력의 발현으로써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전도(前途)를 개척해서 나가려는 기풍을 진작해야 마땅할 줄로 안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을 기르고 경제수준을 향상시켜 부흥을 이룩하는 일은 절실한 당면 문제이거니와 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는 필연적으로 농촌이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도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국가부흥에 대한 농촌의 구실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며 이에 대한 관건점(關鍵點)을 쥐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강하게 인식해야 할 줄로 안다.

<끝>

(17P에서 계속)

보다는 이농(離農)을 촉진하고 농촌을 경제적으로 피폐시켰다는 아픈 결과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상이 곧 천국을 가져온다는 미신과 학문과 지식이 곧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관념이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낳아서 원시시대에 자연을 상대로 인간생활을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개척해 나온 찬의를 죽여 버린 결과이다. 즉 선인(先人)이 무엇을 이룩해 놓았는가 하는 조박(糟粕)에 만 눈에 이끌려 어떻게 그것이 이룩되었는가 또 어떻게 보다 높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과학적 정신과 태도의 결여에 인한 것이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것을 더듬어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인데 이야말로 학문의 태도요 과학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과학이 인과를 믿는다는 것도 그 필연성을 찾아서 있어야 할 것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사이 과학이라고 하면 곧 물질주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기계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도상(途上; 과정)에 있는 만큼 과학의 가치가 물질로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계와 물질은 사람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또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회나 그 국가의 필연적인 요구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의 생활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참된 과학적 정신이요 나와 우리에서 새로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과학적 소산보다도 과학 하는 마음에 더욱 치중할 필요가 있다.

언필칭(言必稱, 말을 할 때 반드시) 낙후된 우리 문화라거나 후진국가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거의 외국의 물질문화를 지칭하는 것인데 나는 차라리 낙후된 것이 있다면 과학 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출발하고 재건하는 의욕에서라면 선의에서 그러한 발언을 용허(容許)할 수 있을지언정 물질문화 즉 결과만 보고 대비하는 태도에는 반발조차 느끼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낙후된 면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에 나타난 것을 추종하여서는 같은 수준에 오를 수는 없다.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의욕과 이것을 해결하려는 창조만이 첩경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실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문제라 하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협동이라는 마음가짐이다. 협동으로 이룩된 집단의 능력이 개개의 총화(總和)보다 높다는 것은 과학적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건국의 이념이기도 할진대 나는 과학정신은 먼저 여기서부터 발로되어야 할 것을 믿는다.

근자에 무사안일주의의 타파가 공무원 생활의 한 지표로 되어 있음에 즈음하여 무엇보다도 과학하는 마음이 이쉽고 또 충무공과 같은 민족적 사표의 고사(故事)도 생각되기에 소감의 일단(一端)을 펴는 것이다.

(끝)

런던의 한국관(韓國觀)·베를린[伯林]의 인정(人情)



김대수 <한국일보 기자>

런던의 거리에선 날씨가 덥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사귀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전연 모르는 사람끼리도 “날씨가 덥군요.” 하는 인사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곤 한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술집 같은 데서는 실내장치나 술맛에 대해서 “그것 참 좋군요.” 하는 말 한마디로 교제가 시작된다.

보통 술집을 펍(pub)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퍼블릭 바(public bar)를 줄인 말이다. 펍엔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 하층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중류시민들이 가는 곳도 있고 또 어떤 펍은 칸이 막혀서 이 칸 저 칸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의 신분이 다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표시는 없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들어간다. 대개의 경우 떠들썩하지만 때로는 진지한 분위기를 갖춘 품위 있는 장소도 있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각양각색이지만 때로는 강의실에서 듣기 어려운 토론도 벌어지곤 한다.

잔을 들고 마시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약간 숙이든지 가벼운 미소를 교환하기가 보통이고 그로써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서로 이름을 알리고 사귀다. 기자도 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사귀었고 그것은 즐거운 교제였다.

그러나 늘 귀찮았던 일은 국적이야기와 거기에 따른 민족성의 이야기였다.

흔히 “일본인이요?” 또는 “중국인이요?”하고 묻지만 “한국인이요?”하고 대답하면 곧 이어 정작 귀찮은 질문이 나온다. “한국 사람들은 잔인하다지요?” 대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2차 대전 당시 동남아에서 일본군과 전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 친척들로서 일본군에게 상당한 고통을 당했고 그때 일본인보단 한국인이 더 지독했다고 흔히 주장한다.

처음 몇 번은 한국인이 결코 그렇게 잔인하진 않다고 기를 쓰며 설득시키곤 했다.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거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중엔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펍에서 한 영국인이 슬슬 다가왔다. “일본인이요?” “아니 한국인이요.” 잠시 후 그는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기자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저 이런 걸 여쭙봐서 실례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기자는 대답해야 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잔인합니다. 단, 전쟁 때만 그런 겁니다.” 잇달아 기자는 반문했다. “전장에서 적군에게 잔인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1961년 8월 13일은 동독의 울브리히트[Ulbricht]가 동·서에 베를린을 막는 성벽을 쌓은 날이다. 세계는 긴장되었고 구주(歐洲) 북판에는 전운이 낮게 감돌고 있었다. 8월 말의 어느 날 갑자기 본 사로부터 지급전보(至急電報)가 날아들었다. 곧 런던을 떠나 베를린으로 가라는 지시였다.

기자는 즉시 백[bag]을 꾸러가지고 런던을 떠났다. 서독의 본[Bonn]에서 잠시 내려 우리 대사관에 들려 좀 더 새로운 일이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본 다음 하루를 그곳에서 쉬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독일 사람들은 근면하다고 많이 들었다. 다감(多感)한 국민이라곤 생각될 수 없었지만 막상 라인강가에는 오색의 꽃밭이 가지런히 가꾸어져 있었다. 생기 도는 꽃밭 속에서 비치 엄브렐라[beach umbrella] 밑에 앉아 맥주로 가슴을 식히면서 기자는 상상해보았다. “이럴 때 소낙비가 한바탕 쏟아지면 얼마나 장쾌(壯快)할까?” 바로 그 순간 기자는 스스로 놀라 몸서리쳤다. 바로 이 이 일대에 전기(戰機)가 떨어지고 있는 때 소낙비 생각은



(상) 런던의 주택가 (하) 옥스퍼드 거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독일 사람들은 근면하다고 많이 들었다. 다감(多感)한 국민이라곤 생각될 수 없었지만 막상 라인강가에는 오색의 꽃밭이 가지런히 가꾸어져 있었다. 생기 도는 꽃밭 속에서 비치 엄브렐라[beach umbrella] 밑에 앉아 맥주로 가슴을 식히면서 기자는 상상해보았다. “이럴 때 소낙비가 한바탕 쏟아지면 얼마나 장쾌(壯快)할까?” 바로 그 순간 기자는 스스로 놀라 몸서리쳤다. 바로 이 이 일대에 전기(戰機)가 떨어지고 있는 때 소낙비 생각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독일 사람들은 근면하다고 많이 들었다. 다감(多感)한 국민이라곤 생각될 수 없었지만 막상 라인강가에는 오색의 꽃밭이 가지런히 가꾸어져 있었다. 생기 도는 꽃밭 속에서 비치 엄브렐라[beach umbrella] 밑에 앉아 맥주로 가슴을 식히면서 기자는 상상해보았다. “이럴 때 소낙비가 한바탕 쏟아지면 얼마나 장쾌(壯快)할까?” 바로 그 순간 기자는 스스로 놀라 몸서리쳤다. 바로 이 이 일대에 전기(戰機)가 떨어지고 있는 때 소낙비 생각은

너무도 불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서부 베를린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런던에서 미리 짐작했던 것과는 판판으로 긴장된 표정을 감득(感得)하기 어려웠다.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접한 곳에 베르나우어 슈트라세[Bernauer Str; 베르나우어 가(街)]가 있고 날마다 저녁때면 이곳에서 베를린 시민들이 몰려들어 울브리히트 성벽 너머로 동 베를린을 건너보며 손수건을 흔들며 친척을 부르는 광경이 벌어진다. 8월 12일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만나던 친척, 친구들이 이젠 서로 불리도 들리지 않으리만큼 갈라져서 멀리 가물대는 조그마한 얼굴들에 향해 손짓만 할 뿐이었다.

한 할머니는 무어라고 이름을 입속으로 부르며 손수건을 흔들었다. 담 너머 저쪽에서 이쪽을 보며 물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젊은 여인이 곧이어 이쪽에 대고 손짓을 했다. 노파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딸을 보고 그러는 걸까? 손녀일까? 기자는 차마 할머니에게 물을 수 없었다.

성벽의 저쪽 바로 밑엔 공산(共産) 측 경비병들이 왔다갔다 감시한다. 철모 끝이 약간씩 보일 뿐이었다. 성벽을 사이에 두고 생이별한 베를린 시민들이 서로 손짓의 물결을 이루는 가운데 어느 청년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위에 올라서서 망원경을 펴서 담 너머 저쪽을 열심히 바라보기도 하였다. 거기엔 누가 있는가? 누이일까? 동생일까? 소리쳐 불리도 들리지 않는 저쪽 사람들이 얼굴이나마 실컷 보자는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상상해 본 기자의 마음은 괴로웠다.

양쪽 시민들이 서로 발돋움을 하고 비쉴대며 손짓을 하는 이 광장 - 여기선 공산주의가 무어고 어떻다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공산주의자들의 죄악에 대한 증인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다.



(상) 동베를린[東伯林]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지만 이렇게 한적하다
(하) 울브리히트 벽을 넘어다보는 서베를린 시민

미국을 바르게 알자

양운세(梁潤世)

<경제기획원 기획국 제1과장>



필자(筆者)



7년 만에 보는 고국은 확실히 변화했고 서울의 시민들의 모습도 분명히 달라졌다. 뿐이라, 우리는 지금 사상(史上) 처음으로 최대한의 길을 거리에다 가속도까지 가(加)하여 후진성(後進性)을 극복코자 변화해 가고 있다. 조속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속에서 무엇이 변화의 방향이며, 어떻게 하면 개개인은 호흡을 맞추어 올바른 방향의 변화에 적응하

고, 나아가서는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는 항상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귀국 2개월 만에 느끼는 가지가지 인상의 하나로서 나는 무조건 미국을 천국시(天國視)하고, 후자가 도미(渡美)라도 하면 또는 한국이 미국화라도 하는 날에는 온통 만인이 천사화(天使化) 히는 듯한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물론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교육·정치 분야 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허다함은 사실이다. 미국인들은 우리네의 가난한 처경(處境)에 비해 말할 수 없는 호사스러운 생(生)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을 하는 데는 고난이란 없는 것일까? 미국인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러한 호사스런 현실만을 영위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보고 체험한 바를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피상적인 미국이란 관념에 대응코자 붓을 들었다. 이는 또한 미국사회의 고민상(苦悶相)의 일편(一片)이기도 하다.

우선 흔히들 미국은 고대웅장(高大雄壯)한 건물로써 이루어지고 미국인들의 생활정도, 양식, 규모 등은 말할 수 없이 호화·광대한 것이라 해서 한국인들은 부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사실의 이면이란 없는 것일까?

첫째 일례를 들어 가장 큰 건물들이 나열해 있는 곳이 뉴욕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야기시키는 부작용은 가장 괴로운 삶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항상 크고 높은 건물 틈바귀 속에 사는 인간들은 저도 모르게 일종의 환경의 제압을 느끼게 된다. 인간 개체가 그렇게도 무가치하고 작게 보이는 데서 생에 대한 비판론도 나오고 심지어는 염세증(厭世症)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쉽다. 즉 인간은 자기의 환경을 제압 및 정복해나가는 데서 생의 자극을 받으며 가치를 느껴 통쾌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의 요소란 보기 드문 것이다.

온갖 미국 사회생활의 각 분야는 말할 수 없이 규모가 크다. 이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분업은 섬세·명확하게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광대한 조직체 밑에서 일하는 각 개인은 대부분이 극히 한정된 분야에서 일상 기계적인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이니 자기자체의 업적이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실상 자기노력의 가치를 발견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두둑한 월급봉투가 노력의 대가라 할 수도 있겠으나, 역시 이것만으로는 어딘가 남득이 안가고 만족이 안 간다는 것이 인간인가 한다. 그들은 일상 자기의 질적 위치가 어디 있는가 찾으려 하며, 이 위치가 희미하고 애매(曖昧)할 때 느끼는 일종의 환멸감은 배고파 허덕이는 허기증보다 낫다고 단정기는 곤란한 것이다.

미국의 물자는 풍부하다. 또 생활이 발전·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일상필수품은 각 방면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니 남에게 못지않은 삶을 영위하려면 항상 허덕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힘써서 그 사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생활수준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나가는가 하는 점은 별로 알려하지 않는 듯하다. 즉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의 향상의욕이 강한 미국인들을 설 줄 모르고 시간을 아끼다 보니 그만 불휴증(不休息)이란 그들의 체질이 되어버린 듯하다. 이것이 좀 심해지면 안절부절 못 하게 되고 신경질이 나고 불면증, 신경쇠약, 신경마비, 신경통 등의 각종 신경병을 야기 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상 이들은 불만과 비애에 찬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도시에서는 심리학자, 분석치의(分析治醫) 등 정신관계자들의 수요와 그들의 수입이 놀라울 정도임은 이러한 사회고(社會苦)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여성들과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하도 지껄여 골치가 아프다는 불평은 항상 듣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남자들 간에도 많이 보인다. 이것 역시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든가 또는 상기한 신경병적 증세를 말하는 것이다. 뿐이라. 미국의 인당 음주량이 세계제일이라 하고 있으니 이는 다만 돈이 있기에 마시는 것이라고 속단만 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좋아 마시는 술도 많지만 술 마시고 만사 걱정거리를 잊고 똑똑한 세상에서 참을 수 없는 흥분, 통쾌감, 유머 등을 취중에서 찾으려는 의식도 강한 것이다.

조용히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고 아늑하고 단란한 주위에서 자기를 찾고 명상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인들께선 보기 드문 것이다. 무엇이고 자기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크나큰 불안과 공포감을 자아내는 것이어서 아무도 없으면 하다못해 요란스레 음악이라도 틀어놓아야 마음이 가라앉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사람들이다. 심지어는 락앤롤을 틀어 놓고서야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 수 있다는 등 창생들도 있었다. 환안하자면 미국인들은 실상 누구보다도 고독하기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고독한 상태를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다. 고독이란 사랑에 굶주린 것을 말하기도 한다. 물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경우와 각도에 따라 구구(區區)해지는 것이니 실로 확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좀 애매한 관념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글의 취지를 위주로 우선 이렇게 생각하자. 사람이 아늑한 주위환경 속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를 사랑에 굶주린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인들처럼 불안에 싸이고 불평(不平)에 충만한 사람들도 보기 드물다 하겠다. 저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저렇게 잘 살며 저렇게 미끈한 가족들이 일견 행복스러워 보이는 것은 역시 우리의 판단기준이 한국인이라는 데서 오는 속단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상(日常) 듣고 있는 산업화, 공업화, 현대화 등 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인 변화를 고찰해야만이 이해가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토지와 가족이 위주로 된 봉건적인 사회에서의 삶이 최대한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서로 보호·의지하고 산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이 산업이 발달하고 공장이 번성함에 따라 도시가 확장되면 자연 인생의 기회는 도시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며, 젊은이들은 성공의 길을 찾아 부모와 고향의 울타리를 벗어나 도시까지 진출하게 된다. 개인을 위주로 한 아파트 단위의 생활이 가족 친척 생활을 대치한다.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힘껏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무엇보다 시간과 노동력이 아까워지는 것이다. 또 있는 시간과 노동력을 최대한도로 이용해도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부모와 형제, 고향의 사랑, 보호, 압제 등등 정과 규율이 혼합된 사회란 이들에게는 느리고 귀찮게 되어 있는 것이니 이를 확 벗어나 '나하나가 위주로 되는 생활을 한다. 더욱 기동력이 발달한 미국사회 같은 곳에서는 별로 개의(介意)할 것 없이 사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훨훨 옮겨나갈 수 있는 것이니 애착, 이런 등은 실상 그들의 발전향상에



↑ 뉴욕의 변화가

일대 장애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현 사회에서는 어떠한 부작용이 초래되었는가?

미국사회의 최소단위는 부부이다. 옛날같이 사회조직이 이미 부담해주던 사랑, 보호, 의존 등을 박차고 나온 이들은 독립, 독자적의식이 강하다. 하지만 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 할진대, 부모·형제·친척·고향에서의 보호 내지는 간섭을 박차고 나오는 젊은이들은 상호 배우자 간에 이 모든 것을 찾고자 한다. 일례로서 미국의 아내들은 부엌에서 밥이나 짓고 예기나 기르고 남편 치다꺼리나 하는 존재로써는 도저히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편의 동료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누나가 되는 것이니 훌륭한 미 중류사회의 남편의 소유의 전부는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일견 이상적인 듯하나 이에 따르는 아내의 책임과 노력이란 한국의 중류사회 부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이다. 흔히 여자에게 친절하고 여자를 위하는 외국인들을 동경하는 풍에 젖은 여자들을 볼 때,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책임과 노력을 똑바로 보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남에게 뒤떨어진 생활을 앓고자 또 많은 기회가 있는 관계로 많은 가정주부는 남편에 못지않은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고단한 몸을 끌고 귀가하면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내를 위하고 아끼는 남편의 태도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간의 여유와 사색의 여유를 모르고 지내는 그들의 표현방식은 단순하고도 얄은 것이 되는 것은 또한 지당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생활이 보편화되었기에 일어나는 이면상(裏面相)을 보자.

부부가 직업여성이란 것은 부부의 경제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한다. 자칫하면 웬만큼 비위에 들지 않는 남편이나 이상에 부합되지 않는 남편이라면 반항하기 쉬운 것이며, 심지어는 남편을 깔보게 되고 남편에게서 찾지 못하는 이상을 딴 곳에서 찾으려하게 되는 것이니, 일견 콧대가 세 보인드든가 여성이 지나치게 지배적 이어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심해지면 이혼도 불사한다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엔 제일 불쌍한 것이 죄 없는 자식들이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고찰해보자! 부부가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즉 어머니가 자식에게 때어 일일이 시중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자의 접촉이 규율화 되어버리는 데서 어머니의 정이 자식에게 아낌없이 침투되기는 힘들 것이다. 더욱 나아가서는 자식의 거동에 일일이 고민을 두고 지도한다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것이니 자칫하면 불량성(不良性)을 띤 행동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쥬비날 텔링꾸인썸' 소년범죄가 크게 두통거리가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이러한 미국의 현실이 빚어내는 고민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인의 독립·독자적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말했다. 또 이 의식이 강하기에 남의 자존자립주의를 존중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혹자들은 이를 극구 찬미(讚美)하여 미국가정에서는 어린이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또 독립정신을 길러주고 애들을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기른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도 이면은 있는 것이니 존경하는 부모의 확고한 지도와 따뜻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서 독립의지만 기른다는 것은 애들을 버릇없이 만들어 놓든가 심지어는 방향과 갈피를 못 잡아 고민·반발하는 현상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가면 애들이 너무나도 북아치는 바람에 신경질이 될 지경이며, 이를 참고 저녁 대접이라도 받고 오면 소화불량증에 걸리게 되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의 불량청소년 심리병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재 양성하는 몇몇 자선사업기관에서 사회사업관으로 일해 보았다. 이러한 희생자들이 나오는 원인들 중 대별(大別)해서 미국사회 가족제도가 이러한 불행한 희생자를 내는 경우가 압도적인 것임을 나는 이 얘기들의 가정방문 및 이력조사(履歷調書)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 즉 부모가 무책임하다든가 시간의 제압을 받아 손을 댈 수 없었다든가 또는 부모가 너무나도 무력·무능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서 온갖 불행은 초래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개인의 존중, 독립의 등등 좋은 습관이 자신의 책임,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병행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고민상은 거의 가혹하다 할 만하며 차라리 엄한 아버지나 엄격한 교육으로 자녀들의 생활태도 내지는 예절을 가르쳤더라면 이들의 불행은 건져질 수도 있었겠는데 하고 느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인간의 자주성을 배양하는데서 오는 또 한 편(便)을 고찰하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우리는 일상(日常) 애들을 원한다. 즉 이들은 장차 늙었을 때 이에 의지할 수 있다는 암암리의 타산(打算)에서 오는 관념이다. 기동력이 발달되고 자주성이 강한 사회 속에서 늦게까지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도 생각지 않거니와, 또 늙은 부모는 자식의 덕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연금, 사회보장제도 등이 늙은이들의 물질적 생활을 보호한다고는 하나 삶의 낙이란 좀처럼 맛보기 드물다. 재롱떠는 어린 손자들을 일상의 낙으로 삼고 잘 되어가는 아들의 운명에 기꺼이 여생을 의뢰할 수 있는 한국의 늙은이들을 물질이 풍부하고 경제력이 풍부하나, 활발한 세상에서 고요히 은퇴한 늙은이들과 견주어볼 때 과연 늙은 부모의 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게 한다. 더구나 늙은 부부 중의 한쪽이 사망하였을 때 홀로 남은 늙은 과부나 홀아비의 낙은 무엇이라. 일상생활에 얽매어 허덕이며 생활하는 자식들에 몰두되어 무슨 명절이나 생일 이외에는 별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일도 힘이 드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은 자식이 있으면서도 홀로 아파트나 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몇몇 양로원을 방문하였을 때의 나의 기분은 참으로 죽음 그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의식주가 깨끗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나

어딘가 모르게 킁킁한 죽음의 그림자가 양로원의 주위를 휘몰아 싸고 있었다. 우리와 정반대로 미국인들을 딸을 좋아한다. 물으면 장차 자식에의 의존이란 생각지도 않는 미국인들은 그래도 딸들이 늘그막에 더 잘 찾아준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의무를 강요한다는 것과 병립하여 생각하지 않는 한 의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과 의무에 있어 당당히 자기의 앞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애란 큰 것이다. 어렵다고 동정을 구한댔자 불쌍히 들 보아줄 사람도 없는 것이요 능력이 없어 판단 및 행동의 구속을 느낀댔자 대신 돌보아줄 사람도 없을뿐더러 자칫하면 이는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결과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이니 일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애들이 많아 가정에 매어 있는 한 주부의 예를 들자. 남편이 벌여다주는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주부의 책임의 하나다. 앞서 말한 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필수품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물질은 풍부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주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우선 세탁용 비누 한 장만 해도 수십 가지가 광고 선전되고 있으니 각각 그것들의 특징과 장점을 과학적으로 늘어놓는다. 이 주부는 무슨 비누를 살까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나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다. 실상 그 비누들의 차이란 그다지 심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도의 것을 노상 다각도로 신경을 써야하는 주부들은 이 책임이 두렵고 귀찮아지는 것이니 우리가 보기엔 간단하고도 사소한 문제를 예워싸고 찢찢매고 신경이 과민해지는 사람들도 허다한 것이다.

개인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된 사회의 경쟁심은 강하다. 이 경쟁에서 모두가 승리하지는 못하는 것이니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날에는 참으로 한심한 비애를 느끼게 되는 것도 미국인들이다. 하지만 자기의 무능·무력보다도 사회를 원망하고 미국인 자체를 원망하는 염세가, 불평분자들이 골목 뻘에는 가득하다는 것도 웃어버려서는 안될 교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면을 지각 예기치 못하고 부모가 친지들의 후원으로도 미한 후 자기의 무능·무력함이 통절히 느껴질 때 유학생의 심적 고민이란 큰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흔히 듣는 불미(不美)한 한국 유학생들의 뉴스는 대부분 이러한데서 오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귀국할래야 체면도 서지 않고 또한 귀국했자 뽀족한 수도 없는 것이니 허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무리들 앞에는 허영과 허탈, 자기 과장과 분식(粉飾) 등과 아울러 배타성이 강해져 제 자랑과 남의 욕을 다반사로 해나가는 것이다. 또 사회의 표면에 나타나는 인물들이란 대부분이 이러한 무리들이니 마치 전 유학생이 공부하는 아니 하고 국가 민족에게 망신이나 시키는 존재와 같은 인식을 주는 것이다. 참답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남의 눈에 띄고 화제에 오를 시간과 정성의 여유가 없음이 미국의 학생생활임을 단언함과 동시에 이런 숨은 인재들이 허다하다는 것도 알리고 싶다. 요는 노력 없는 보상이 드문 것이 미국이라면 노력과 보상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곳도 미국이란 것이다.

한국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올바른 정신으로 개척해 나가면 값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내걸고 보장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 혁명정부라면 탁월한 개인의 능력을 배양·활용함으로써 그 자리가 비교적 조속하게 그리고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한국이라고 본다. 이러한 것을 잠재적으로나마 느끼기에 한국인들은 일확천금(一攫千金)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과거 6년간의 유미(留美) 생활, 8개월간의 구주(歐州) 여행 등을 통해서 나는 한국인이기에 당한 불편과 고애(苦衷)도 없었다고는 아니 하겠으나 한편 한국인이었기에 외국인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우와 존경을 받은 경우 또한 허다하였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차후 기회가 있으면 이 점을 또 소개코자 하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천국은 없으며 또 천국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한국을 원망한다면 이는 자기혐오 및 배척의 결과밖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각 개인들이 지상천국을 이룩할 의욕과 열의만 있다면 어느곳 보다 문호가 활짝 열려 있는 곳이 우리 한국이란 것을 나의 경험이 말해준다고 단언코자 한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가득 차 있기에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해야만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나가기에 자기의 질적 가치를 인정하는데서 참다운 행복을 맛보는 천국을 각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確言)하는 바이다.

◇장군의 인사

미국의 로버트 리 장군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다. 기차는 대 만원으로 그 가운데는 많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한 늙은 부인이 올라왔는데 아무도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혹은 잠든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고도 못 본 척하였다. 이것을 본 리 장군은 조용히 일어나서 은근하게 자기 자리에 모셔다 앉혔다.

이렇게 되니 병졸들도 그냥 그것을 보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자동인형처럼 펄쩍 일어나서 일제히 “각하 아무쪼록 이곳에 앉아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장군은 “허, 이것은 놀랍군. 다리가 약간 늙은 부인에게조차 양보할 자리가 없는데 나 같은 이한테 양보할 자리가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이 말을 듣자 얼굴이 붉어진 병사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사라져 드디어 그 객차 안에는 장군과 늙은 부인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현대의 방향 ③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로 지향하고 있는가?

- ◇교육……
- ◇영화……



교 육

-우리나라의 현실을 중심으로-

왕학수(王學洙) <고대(高大) 교수>

교육은 오로지 인간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숙명적인 과업이다. 교육은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아득한 옛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에게 낙원에서 천사들과 같이 살게 하되 “생명의 나무를 두어 그 열매를 따지 말라”는 계명(戒命)을 내리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조상에 대한 최초의 엄숙한 교훈이요 계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탄(薩旦)은 그들을 꾀어 이 교훈과 계명을 거역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였다. 이것 역시 나쁜 의미에서 그릇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류역사의 최초의 발단이며 아울러 인간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 인류는 교육을 해야 할 의무와 교육을 받아야 할 운명을 지니게 되었다. 임신한 여인은 모체 속에서 자라는 태아를 위하여 자신의 몸가짐을 조심히 하며 마음씨를 정결, 공명하게 하여야 함은 옛 성현이 말한 태교(胎敎)에 잘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끊임없이 갓난아이에게 젖을 주며 자리를 마른 곳으로 갈아 놓으며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피하게 하며, 성장함에 따라 말(言語)을 가르치며, 자기 욕심, 자기 본위를 삼가고 타인에게 친절과 동정과 협조를 하도록 깨우쳐 준다.

이렇듯 교육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야 할 숙명적인 과제가 되어 있다. 아니 그 이상이다. 인간은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는다. 인간이 죽음에 다다른거나, 인생으로서 종지부를 찍게 될 때에는 내세(來世)에 가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영원하는 나머지 영생(永生)을 할 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교육을 받으며 또한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종교와 신앙의 불멸한 진리가 있다. 여하튼 인간은 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는가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교육의 의의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즉 대성대현(大聖大賢)에서 대우범부(大愚凡夫)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높고 이상이 발달된 문화문명의 수준이 높고 기술이 발달되어 그 사람의 영향이 타인에게 미칠 때에는 모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한 사람의 교육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반대로 연령이 낮고 생각하는 바가 미숙하고 문화 문명의 정도가 낮고 기술이 뒤떨어져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피교육자(被教育者)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완성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완성될 가능성 즉 가도성(可陶性)의 소유자로서 태어난 것이다. 무한한 가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며 무한한 희망과 무한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서고금의 철인·학자들이 교육에 대하여 관심과 정열을 기울였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고명한 위인·경세가·정치가들이 교육의 발전과 문화의 융흥을 위하여 교육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아테네의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배(毒杯)도 사양치 않은 소크라테스, 아케테모스의 그윽한 숲속에 아카데미아를 창설하여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하여 인재를 양성한 플라톤, 중원 땅 천리 길을 두루 다니며 3천의 제자를 교육한 공자(孔子), 왕도주의를 설파한 맹자(孟子),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확립한 나폴레옹, 문자개혁을 통하여 현대국가

를 건설한 터키의 케말 파샤, 보성전문·고려대학을 건설한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선생 등이 그 좋은 예를 하겠다.

“나에게 교육을 맡겨라. 반세기 이내에 전 세계를 바꾸어 놓으리라.”고 말한 철학자 라이프니츠를 경술한 호 인장담의 사나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비록 패전은 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불과 22년이 못되어 제 2차 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른 독일 청소년 교육을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간됨이 교육을 잘 받고 못 받음에 달려있고, 한 가정이 잘되고 못되는 것도 그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키느냐 못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국가의 흥망도 그들의 문화와 교육의 정책의 선·불선에 달려 있으며, 그 사회 그 시대가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자의 존엄성을 널리 인정하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정열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보불전쟁(普佛戰爭)에서 대패하여 절망과 기아와 부패에 헤매는 독일 국민에게 연설한 피히테는 “조국 장래의 운명은 그대들 교육자의 총명과 정열과 그리고 실천에 달려있다.”했지만 우리들의 혁명의 과업달성도 “우리 나라 교육계의 총명과 정열과 용감한 실천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 × ×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시간과 공간은 지극히 중대하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각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현실은 시공간을 현명·냉철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충분한 인식과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구출될 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식민정책의 기반에서 해방된 지 17년 정치적 무식과 부패, 경제적 무료와 궁핍은 사회적 생활의 혼탁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나아가 국민도이는 수습 못할 지경으로 부패의 극도에 달했다.

일본식민주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억제한 채 거의 원시적인 수탈(收奪)에 시종하였으니 가난한 백성이 더욱 가난해졌으며, 우민정책(愚民政策)에 따르는 국민의식수준의 저락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제나라 일들을 마치 남의 나라 일 모양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없이 마구 터져놓는 것이다.

외세에 의한 타율적인 남의 힘에 의한 8·15 해방은 자연적으로 국토의 양단과 국민의 마음의 양단 즉 좌우의 분열이 생겼으며 드디어 동족상쟁의 극치인 저 비참한 6·25의 동란을 발생케 했다. 서로 죽이고 불사르고 파괴하고 모략하고 약탈을 했다. 자주(自主)의 힘이 없는, 자각의 덕이 없는, 자존의 준비가 없이 수립된 국가는 어떠한 정책상의 뚜렷한 지표도 없이 좌왕우왕했으며, 국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생활난 때문에 방종과 자포자기 속에 방황하였다. 될 대로 되라. 망하려면 속히 망해라. 이러한 심정이 사회대중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저류였던 것이다.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하여 정신상 지주(支柱)가 될 만한 지도이념도 없었고 이 국민의 장래에 대한 생활의 희망을 지닐만한 전망도 없었다. 지도자, 애국자, 정치가, 심지어 교육가를 자처하는 인물들은 거개가 다 개인의 영달과 축재에 영일이 없었으며, 조석을 불안 속에 헤매는 국민의 심리상태는 절망과 원한으로 충만되어 있었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만이 정치지도층의 관심이고 금력을 더 할 것만이 경제 상부 층의 목표였다. 국민의 기본 인권이나 대중의 최저생활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 있을 리가 없었다. 부정과 부패는 날로 심해졌으며 억압과 폭리가 천하에 횡행하였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이 사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건전한 국민윤리와 생활 질서를 재건하자는 데에 5·16 군사혁명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 5·16 군사혁명은 4·19 학생혁명의 연장이요 종극이다. 4·19 학생혁명에서 출발해서 5·16 군사혁명으로 진전되는 이 한국의 혁명의 역사는 후략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혁신하여 꺾주림과 억울함과 뼈뿔어짐이 없는 복지민주국가(福祉民主國家)를 건설하려는 일대 국민혁명(國民革命)인 것이다. 즉 우리들 자신을 올바른 우리들의 자세(姿勢)를 도로 찾고 우리들 자신을 건설하고 튼튼히 하게 키우자는 정신 위에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터 닦음이요, 주춧돌이요, 기둥 세움이요, 지붕 이음이요, 울타리 쌓음이요, 살림살이 함이다. 우리의 땅, 우리의 돌, 우리의 재목, 우리의 기와, 우리의 장독은 다른 어느 외국의 것과도 같으며 또한 다른 특성과 특질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피에는 우리 조상들의 땀의 것과 동시에 아름다운 것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사회 제도나 정치이념으로서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인격의 절대적인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인간과 인간의 결합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라는 보편타당성(普遍妥當性)을 지니는 가치관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역사상에 전개되었거나 다른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그대로의 형식을 우리 한국 땅에 옮겨 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전통이나 한국 국민의 정신적인 기반을 무시하고 얼마나 외래 문물과 풍속 습관의 추구에만 오랜 시간과 정열을 낭비했느냐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재론할 여지가 없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우리의 정신적 제도적 전통을 자주적으로 굳게 결합시켜 한국의 특수성을 살피는 길이 나아가서는 세계문화의 질적인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요컨대 한국인과 한국인이 자기의 역사적 위치를 자각하고 그 발전방향을 찾으려 하는 절실한 노력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국민도의(國民道義)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로 보아서나, 한국인의 문화적 전통으로 보아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공산주의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강토에서 몰아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율정신(自律精神)의 함양에 따르는 자유와 책임(責任)의 한계를 밝히고 협동적 기풍을 높이며 감각주의나 지나친 분석주의적인 회의를 벗어나고 매하고도 절실한 생활 이념을 확립시키는 노력이 범국민적(汎國民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이와 같은 국민도의 재건(國民道義再建)의 지도이념의 확립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은 제도의 개편이나 정책의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활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근대적 합리정신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계획과 관리, 그리고 노동의 능력과 의욕이 범국민적으로 팽창해지지 않고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은 달성될 수가 없다. 우선 노동하기를 꺼려하는 국민으로서의 후흥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과 잘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민정신이 진작되어야 경제부흥의 희망이 달성되는 법이다.

예를 조림(造林)에 들어보자. 정부는 지금까지 10여 년을 두고 산마다 애림녹화(愛林綠化)니 입산금지(入山禁止)니 하는 표어를 크게 써서 붙여놓았다. 뿐만 아니라 식목일을 제정하여 매년 수만 그루의 묘목을 연중행사로서 심어왔다. 그런데 산림은 여전히 황폐해가는 일로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심는 나무보다 베는 나무가 많고 심은 나무를 도무지 가꾸지를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서로서로 관의 눈을 속여 가며 나무를 베어서 없애는 것이다. 전체 국민이 조림의 필요성, 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하여 나라 산 가꾸기를 제집 자식 키우기와 같은 정성과 세심한 주의가 없이는 백년 식목을 식목일을 기해서 해보았잖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후진적인 단계에서 정제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발전의 여러 가지 요소와 원인을 터주고 쓸 수 있는 모든 물자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경제계획(經濟計劃)이라는 것이 당연히 요청된다.

장기적인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각 단계에서 요청되는 주도부문(主導部門)을 선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적절한 유도(誘導)와 강력한 지원정책은 경제의 발전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능이 위로는 정부의 건전성과 고도의 능력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지만 밑으로는 국민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크게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교육계의 협조가 요청되는바 경제 정책의 수립은 물론이요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기술진용의 양성은 긴급하고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술계, 자연계의 연구와 실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특히 기계과, 전기과, 건축과, 토목과, 농업축산, 수산업, 가공업과 등을 포함한 기술진흥(技術振興) 5개년 계획에서 수급도(需給度)가 가장 높은 과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주독립을 위해서는 자본에 있어서 외국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기술에 있어서 외국에 예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거대한 경제 5개년 계획을 앞에 놓고 보니 기계과(선반, 밀링, 세타, 다듬질, 용접, 판금, 수물, 기계공구, 기계부속 등) 전기과 (약전실험, 변압기제작, 재생, 수신기제작, 육내배선, 강전 등) 건축과(바둑판, 목공, 기자, 설계도면 등) 토목과(측량, 토목, 선공, 공사 계획도작성, 공사설계, 현장관리 등) 만 하더라도 많은 기술자가 양성되어야 하겠다. 특히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은 책상 위에서 교실 안에서 입과 책과 펜만 가지고 하는 식의 낡은 방법을 지양하고 교사와 학생이 실제로 기계와 함마와 팽이를 잡고 몸소 체험(體驗)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진흥 교육이 성공한다면 경제 5개년 계획은 성공할 것이요 따라서 우리 국민의 전체소득은 증가될 것이며 기아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희망을 안고 닦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현대에 삶을 영위하는 한국의 교육자들의 고귀한 사명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 교육계의 중흥(中興)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한국민족의 중흥의 영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

- 한국영화의 현재성(現在性) -

유두연(劉斗演) <영화감독>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제9회 아세아 영화제는 한국영화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성사(盛事)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의 현재성에 허다한 문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영화제에서 한국영화는 최우수 작품을 위시하여 10개 부문의 수상을 획득하였다. 말하자면 적어도 아세아지역 내에서만은 절대적 우위성을 국제적 관점에서 보증(保證)받은 것에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의 피리어드(period, 중지부)로 점찍고 지나간 14여 년의 창랑(滄浪)한 족적을 회고하는 모멘트로 삼아야겠고 또 반면 이 사실을 하나의 기점으로 장래의 양상을 전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 ×

과거의 한국영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언 해피 데이[un happy day]’의 연속이었다. 그 요람기(搖籃期)는 더욱 참담하였다. 민족의 수난과 함께 온갖 박해 속에서 간신히 명맥만을 보유(保有)하여 왔다. 문화적 거세, 자본적 억압, 이러한 주저(呪詛, 저주)받는 환경 속에서 ‘아리랑’, ‘나그네’, ‘입자 없는 나룻배’ 등의 영화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은 그 주제나 인간담구에 있어서 오히려 더 절실하게 진실(眞實)을 더듬었고, 민족 일을 구현하였던 것이다.

영화인 자신들이 주머니의 돈을 굶어모은 영세한 자금으로 수공업에 가까운 원시적 방법으로 만든 이 작품들이 그 시대의 대중들의 가슴을 얼마나 힘차게 두들겼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뿌리게 하였던가? 그 시대의 영화에는 분명히 작품마다 뚜렷한 뱀·보온이 버티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상태가 뚜렷하게 스르륵

위에 노정(露呈)되어 있었던 것이다. 깊은 비탄(悲歎) 속에서 항거(抗拒)하고 민족의 자세가 필름 조각마다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었다.

영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하는 작자의 마음이 뚜렷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한, 과거의 한국영화는 떳떳하게 영화예술이라는 타이틀을 머리 위에 붙일 수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영화는? 솔직히 말해 나는 성큼 영화예술이라고 말하기를 주저(躊躇)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한국영화는 주제를 상실하고 있다.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작품들이 영화관에 범람하고 있다. 오락잡지의 표지보다도 유치하고 천속(賤俗)한 내용을 가진 영화들이 억면(憶面) 없이 전국의 스크린에 비쳐지고 있다. 전(前) 시대의 유물인 인정이야기를 푸념하는 멜로드라마가 아니면 무의미하게 총탄을 쏟아내는 액션드라마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정착된 세계에 정착된 채 현대적 생활의식과는 영 동떨어진 코스트 플레이(時代劇)가 연생(年生) 100여 편의 영화의 총체인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극히 소수의 영화가 현실에 입각한 주제를 내걸고 성실한 인간추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는 전체의 몇 분의 1도 못 된다.

그러면 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한국영화는 무엇 때문에 연간 100여 편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산(算)하고 있을까? 영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인 생산성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고려(考慮)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영화는 최근에 와서 분명히 산업적인 면이 중요시되어왔다.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연산(年産) 100편이라는 숫자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제2류 제작국에 속한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는 본 현상이 결코 정상적인 영화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이룩된 것은 아니다. 실로 우발적인 원인에서 생긴 기형적(畸形的) 소산인 것이다. 8·15 해방 후 혼란과 무질서를 거듭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태에서 파생된 기현상(奇現象)인 것에 틀림없다.

아무데나, 아무 나라에서 있듯이 경제의 혼란기에 나타나는 투기를 노리는 유희자금(遊休資金)이 잠정적으로 무질서하게 영화제작에 유입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증거로는 지금 국내에는 제작회사가 60여 상사(商社)나 된다. 하나의 제작상사 당 연간 15 편의 평균지수 밖에 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도 목과할 수 없는 사실은 100여 편의 영화가 타산(打算) 상으로 성산(成算)이 맞는 경우는 5분의 1도 못 된다는 점이다. 산업적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보면, 적어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거대한 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제작회사가 몇 개 있어 연간 수십 편 제작을 기획하고, 과학적 검토를 거친 면밀한 기획 밑에 실제 제작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비하면 한국의 영화산업은 아무런 발판도 없다. 지방극장이나 흥행업자들을 설득하여 각출(釀出)시킨 돈에 의거하는 자금사정도 사정(事定)이거니와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시설은 도저히 생산으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영화는 영화산업으로서도 존립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한국영화의 현재성은? 이 명제(命題)를 이제 다시 한 번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冒頭)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9회 아세아 영화제에서 얻은 영광은 어디서 초래된 것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단정하고 싶다. 수상이 된 영화인들 개인의 공로(功勞)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까지 너무도 부정적인 면만을 들추어 왔다. 한국영화의 후진성은 정년 구제(救濟)할 수 없는 것일까? 지난 15년간에 미약적인 전진을 한 것도 사실이다. 연간 10편 내외밖에 산출하지 못하던 7·8년 전에 비하면 10배로 상승하였고 기술적 면에서의 작품수준도 수공업적 프로세스를 벗어나 오토메이션[automation]화 된 시설 밑에 놀랄만한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촬영소만 하여도 안양(安養), 삼성(參星), 정릉(眞陵), 합동(合同), 동성(東星) 등 연산 100편의 숫자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태세를 마련하였고 그 외의 현상, 녹음만을 전담하는 라보토리[Laboratory] 수개 소가 설치되었다. 전용 스테이지 하나 없이 빈 창고를 임시로 빌려 해상에서 사용하던 씨치라이트를 조명기(照明機)로 삼아 제작하던 7·8년 전에 비하면 실로 천양지차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적자원도 부쩍 늘었다. 통틀어 50여 명밖에 안되던 영화인·제작자를 위시하여 뒤의 스태프·연기자들 전부 넣은 의 수가 오늘은 각 직별(職別) 단체에 등록되어있는 숫자로만도 5백여 명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영화는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해답을 내려야하지 않겠는가?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발전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점, 산업적 면에 있어서는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할 확립된 자본 위에선 오거니제이션[organization]을 말하는 것이요 예술적 면에서는 주제를 추구하는 작가정신이 어떻게 노정되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5·16 혁명 후 정부는 특히 영화 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집중(集注)하고 있다. 60여 개로 난위(亂位)된 제작상사를 16개 사로 통합시키는 지도안(指導案)을 내놓아 제작자들은 이에 응하여 우선 편의상의 통합을 하였다. 그러나 이 통합은 현재의 상태로는 형식상의 통합밖에 안 된다. 자금을 유대(紐帶)로 한 즉, 일원화된 자금 밑에서의 통합이 아니면 어디까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현재의 형식상의 통합을 지양하고 자금을 근간으로 한 명실구비(名實具備)된 통합이 이룩되었을 때 한국영화의 산업성은 우선 기초적인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제작자 자신들의 의욕보다도 영화 자신이 지닌 시장성이 그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고 금년 내년 중에는 희망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 김일성(金日成) 독재 강화와 속청

김일성은 그의 독재 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첫 단계로 국내파를 거세(去勢)시켰는데, 그것은 소련파와 연안파(延安派)와의 합작으로서 이루어졌다. 1953년 8월 김일성은 국내파를 거세하는 구실로서 6·25 패전의 책임을 국내파에 뒤집어씌우고 남로당(南勞黨) 계의 간부를 다음과 같이 숙청하였다.

박헌영(朴憲永) (내각 부수상) 사형 (1954. 12), 이승엽(李承燁)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사형 (1953. 8), 조일명(趙一明) (문화 선전성 부상(副相)) 사형 (1953. 8), 임 화(林 和) (조·소 문협[文協] 중위부위원장(中委副委員長)) 사형 (1953. 8), 박승원(朴勝源) (노동당 중앙위 연락 부부장(副部長)) 사형 (1953. 8), 이강국(李康國) (무역상(貿易相)) 사형 (1953. 8), 배 철(裴 哲) (노동당 중위연락부장) 사형 (1953. 8), 백정복(白亨福) (내무성(內務省)) 사형 (1953. 8), 맹중호(孟鍾鎬) (?) 사형 (1953. 8), 조용복(趙鏞福) (인민 검열위원회 위원) 사형 (1953. 8), 실정식(薛貞植) (인민군 최고사령부 정치국) 사형 (1953. 8), 이원조(李源朝) (노동당 선동부(煽動部) 부부장(副部長)) 15년 (1953. 8)

이상과 같이 국내파 숙청이 성공되자 소련파와 연안파가 반목하기 시작, 드디어는 그 상쟁(相爭)이 표면 화합에 이르러 스탈린 격하(格下) 운동을 계기로 수세에 놓여있던 연안파는 집단지도제(集團指導制)를 내세워 김일성 일파를 제압하려 하였다. 이 기미(氣味)를 알아 김일성은 연안파를 반당분자(反黨分子)란 낙인(烙印)을 찍어 다음 인물을 숙청하고 1인 1당 독재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김두봉(金斗奉) (최고인민회의 의장), 한 빈(韓 斌) (김일성대학 총장), 최창규(崔昌圭) (부수상), 서 휘(徐 輝) (직총위장(職總委員長)), 이필규(李弼圭) (?), 박일우(朴一禹) (중앙당 부위원장), 박의원(朴義琬) (부수상)

◇ 선전과 선동

북괴는 휴전 이후 특히 5·16 혁명 후 대한민국의 반공태세가 강화해짐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즉 6·25 이전……간첩의 대량 남파(南派)와 재한(在韓) 적색분자를 선동, 직접(直接), 파괴와 반란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통일을 가장

자유당 시대……부패부정을 열거, 정부권위 추락(墜落)을 기도
민주당 시대……자유를 역이용 국내의 좌익분자를 선동하고 무능을 들어 민심 이반을 획책
5·16 이후……혁명과업 수행에 있어 약간의 자유제한이 있음을 과장선정하며 특히 정부 비난과 반미선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경제계획에 대한 기만(欺瞞)과 왜곡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 가. 전방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의 확대
- 나. 기구(氣球)를 이용한 파괴적 전단 살포
- 다. 자유세계 간행물의 변조이용
- 라. 제일교포에 대한 세뇌공작
- 마. 간첩침투방법에 있어 조총련(朝總聯)을 중개로 남파(南派)
- 바. 휴전조항의 위반을 자유 대만에 전가(轉嫁)하는 행위
- 사. 노동착취를 합리화하기 위한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우롱선전의 강화
- 아.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기만선전
- 자. 방송망의 확대

◇ 노동력의 착취와 주민생활

6·25 남침을 앞두고 움트기 시작한 북괴의 노동력 착취는 휴전 후 북한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단일 기업체로 묶어놓고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피해를 복구하는 동시에 재(再) 남침의 바탕을 이룩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착취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천리마(千里馬)’에 의한 착취·군대식 노예노동 천리마운동은 공업, 농업, 운송, 건설, 교육, 문화, 보건 등 각 분야에서 200만 이상이 동원되고 있다. 천리마의 강요 - 천리마는 작업반으로부터의 값싼 영예승진에 그치지 않고 ‘이중천리마로 강요되고 이중천리마는 또 ‘삼중천리마로 혹사(酷使)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쏟아지는 노동경쟁운동-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천리마에 의한 착취 이외에도 직장별 직업별에 의한 부분적 노동착취방법으로 북한 전역에 걸쳐 각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6개고지 점령운동, ‘검독찬운동’, 착장 기지(基地) 운동,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등이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북괴의 선전적 경제성장물과는 대조적으로 비참한 생활환경 속에서 대가 없는 노동 시간만이 증가되고 있다. 1961년 10월 현재의 노동착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작업반 총수 = 53,890개, 천리마 총호(總號) 작업반 = 6,685개, 작업반 총인원 = 188,693명, 북한의 취업인구 = 1,610,000명, 노동 부녀자 수 = 500,000명

속담춘추(俗談春秋)



고객자(孤客子)

◇ 말 한마디로 천냥(千兩) 빛 가린다.

값 들지 않는 말 한마디 - 정말 이 말 한마디야말로 '같은 값이면'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을 쓸 일이건 만...무엇 때문에 듣기 하찮고 하기 거분한 말을 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나쁜 말씨를 써서 돈이라도 생긴다면 또 모르겠는데.

돈 생길 일도 아니고 욕이나 언어먹는 수밖에 없는데도 남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감정을 돋우게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뜻밖에도 많다. 무식해서일까? 잘나서일까? 대개는 말버릇이 그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으나 그 가운데에는 실로 타기할 이유에서 나쁜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이 무식한 사람일 경우에 곧잘 반말이나 천한 말씨를 쓰는 사람이 있다. 또 상대방의 지위가 낮다고 보았을 때 그러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다. 가령 지계꾼이나 품팔이 노동자에게는 덮어놓고 말을 놓는 사람이라든가 지위가 낮을 계급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경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 군대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멸시하기 때문에 쓰게 되는 말버릇이다. 그렇다면 무식하고 직업이 천하고 지위가 계급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蔑視)하는 사람의 사람됨, 인간성, 인간적 가치야말로 멸시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의외에도 많이 눈에 띈다. 말씨는 바로 그 사람의 교양(敎養)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사람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쪽대기 이삭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가볍기 때문이다. 옳은 지식, 참된 교양은 무게를 가진다. 설익은 지식, 거짓 교양은 그것이 양적으로 아무리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 놈의 대가리는 숙일 줄을 모른다. 당연한 이치(理致).

말 중에서도 가장 불쾌한 말씨는 상대방을 없수이 여기어 반말도 아니고 온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나서 하는 것도 아닌 해괴망측한 말을 쓰는 경우다. 이를테면 '선생'칭호는 해주기 싫고 그렇다고 '형'하기에는 그러할 처지까지는 못되고 그래서 난데없는 '미스터'라는 호칭으로 대용(代用)하는가 하면 "아십니까?" 또는 "압니까?"라는 경어를 써 주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오?"하는 식의 반말을 쓰자니 상대방이 기분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슬쩍 농조로 방언을 이용해서 "아는 기요?"(경상도) 하고는 썩웃 웃어 보이는 경우 - 이런 사람의 상판에는 정말 침을 뱉어주고 싶은 충격(衝擊)을 느낀다. 상대방이 못났든 어쨌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적어도 그만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 사람을 그만큼 없수이 여긴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깨끗하진 않을까. 그렇게 그 사람을 없수이 여기고도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말, 옳은 말, 필요한 말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었는가?

"내 맘 짚어 남의 맘 안다."는 속담이 있다. 필경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는 불리한 말, 내가 단지 직업적으로나 차림새로나 지위의 탓으로 반말을 듣고 모멸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겉으로는 모른 체 하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그러한 사람을 멸시할 것이며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니 따라서 음으로 양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돈 들지 않고 같은 값이면 무엇 때문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해서 손(損)을 보겠는가? '똑똑한 바보'라는 우리 속담은 이런 말버릇이 나쁜 친구를 가리켜 하는 말인 상 싶다. 왜냐하면 제 댐에는 제가 잘나서 그러려니 하지만 손해는 자기 가 보기 때문에.

"값 들지 않는 말 한마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좀 더 말에 조심할 일이다. 세 치의 혀가 6척의 몸을 망치는 셈이다. 총도 사람을 죽이고 칼도 사람을 죽이지만, 보다 사람을 많이 살상하는 것이 그릇된 '말'이다. 총이나 칼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경우가 총이나 칼에 비할 바 아니다. 서구인들도 "The tongue wounds more than a lance"라 하여 혀는 창보다 몸을 많이 다친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다. 말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말 많은 사람이 실언이 많고" "말 많은 사람, 손이 짧다."(Long tongues sort band)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다.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생각하면 큰 오해(誤解)다. "천냥 돈 하늘이 안다."하여 천냥이라면 막대한 돈인데

한마디의 말이 천냥 어치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의 말이 그만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꼭 청룡도나 장창만이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바늘로써 오히려 아프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는 것이다. 많은 말, 길다란 말이라도 요령을 얻지 못하면 요령 있는 한마디 말보다 오히려 가치가 없다.

천냥 빛을 한마디로 가릴 수 있는 말의 요령, 말의 무게, 그 진실성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남아일인 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

자기의 인격을 자기 스스로가 소중히 여긴다면 상대방의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말씨에 변질(變質)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 내 돈 7푼만 알고 남의 돈 100냥 모른다

누구나 가지기 쉬운 인간의 약점, 내 것만 알고 남의 것 소중한 줄 모르는 것.

가장 원만한 공동생활의 방법이 민주주의라면 "내 돈 7푼만 소중히 여기고 남의 돈이라면 100냥도 가까운 줄 모른다."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의 적일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내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고 남의 의견에는 일리(一理)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독선→독존→독재. 민주주의란 다른 사람이 가진 7푼도 내가 가진 7푼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바꿔 말하면 "내 의견 외에 의견이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요 '다른 의견'이 곧 민주주의의 기초인 것이다. 이것은 그 다른 의견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다수결 원리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군인



안수길(安壽吉) <소설가>

6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D일보에 신문소설을 연재하다가 병으로 드러눕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은 중단이 되고 보니 독자와 신문사에 대해 이렇게 미안한데가 없었다.

S병원의 내과 과장 S박사가 친우(親友)여서 내가 앓아눕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뛰어와서 그 병원 박사 와 더불어 성의를 다해 치료해 주었으나, 독자와 신문사에 대한 미안한 생각에 누워 있는 나의 마음은 칼로 에이는 듯 했다. 거기에서 괴로운 것은 수입이 끊긴 일이었다. 10명이나 되는 가족의 생계가 막연했다.

친척을 위시해, 친구들도 그렇게 자주 찾아 주지도 않았다. 원체 안정을 요하는 병이기도 했고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와 준다고, 친척이면 친척에게 걱정을 끼칠 것뿐이요 친구는 또 친구대로 그들의 가슴을 몽클하게 만드는 결과 밖에 줄 것이 없으므로 차라리 호젓하게 침상에 누워있는 편이 요양에는 이로운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나 너무도 고독해 때로는 내가 평소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이처럼 박정하게 대했던가 반성해가며 이제는 봄도 지나고 여름철에 들어선 무더운 나날을 서글픔으로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아침이었다.

그 무렵엔 뜰을 거닐 수는 있었고, 개운사(開運寺)까지의 5백 미터 내외의 산보 길을 천천히 걸어 오르내릴 수도 있으리만큼 건강이 회복되어가고 있을 때였다. 일찍 눈이 떠진 나는 그때의 오직 하나의 벗이었던 '모토로라'라디오를 틀어 놓고 고요히 아침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계십니까?" 대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아내가 얼른 대문게로 나가보고 들어와서, "독자라는 분인데, 이 근방에 이사 왔다는 거예요. 아침 산보를 가다가 문패를 보니 우리 집이어서 들렀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문패를 보고 들렀다고?"침대에 누워 마음을 가라 앉혀주는 음악에 도취되고 있던 나는 별떡 일어났다. 나도 모르게 마당에 나가니 벌써 대문 안에 들어선 사람은 내 낯새가 되어 보이고, 한 눈에 호인(好人)임이 짐작되는 모습이었다. 어깨에 타올을 걸쳐놓고 한 손에 비누갑과 치분튜브와 칫솔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운사 골짜기의 개울에 세수를 하러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었다.

"어허 안 선생. 나 Y 대령입니다. 앓으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맥이 이웃인 줄은 몰랐습니다."호탕한 웃음을 웃으면서 말소리도 걸걸하니 내 여인 손을 덥서 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의 소탈한 태도가 십년지기(十年知己)를 만난 것 같아 나는 진실로 반가웠다. 더구나 친구가 그리워 견딜 수 없는 내가 아닌가?그 무렵, 늦게 옮겨다 심은 줄장미가 처음엔 마르더니 차츰 짙어 트고, 잎이 퍼지면서, 다른 것보다 한 달 이상 뒤늦게 꽃을 피워주고 있었다. 「늦게 핀 장미」라는 수필도 쓰면서 그 늦어 핀 장미가 나의 재기(再起)를 암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몸과 마음에 함께 기운이 불어 가던 때였다. 이런 때이기도 했으므로 Y 대령의 내방(來訪)이 또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고맙습니다."를 뇌이면서 방에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는 말했다.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견을 다수의견 속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원만한 민주주의, 원숙한 민주주의일수록 소수의견이 다수의견 속에 반영되는 것이다.

가령 격언(格言)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속담은 어떨까. “돈에 인색한 사람은 정신도 인색하다”고 구두쇠는 돈에만 구두쇠가 아니고 대개는 모든 것에 인색하다. 우리 속담에 “사랑과 금전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두쇠는 사랑을 나눠 가질 줄도 모른다. 구두쇠는 대개가 재물은 확보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난뱅이다. 그래서 이 정신적 가난뱅이는 민주주의적인 인간행이 못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마음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비로소 이룩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가령 민주주의적 선진 국가, 이를테면 미국이나 영국의 부자들과 한국의 부자들의 생활양식을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의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어 가질 줄 모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부호(富豪)들 치고 사회사업이나 자선사업을 아니하는 사람이 없지만 한국의 부호들은 그 재물을 지키는 데만 귀중한 생애를 바치고 있다. 이것은 영·미의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후하다는 것으로 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저류에 민주주의적 정신이 깔려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 나라에는 구두쇠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사회와 다른 점은 우리에게서는 구두쇠라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사회인으로서 공식적인 대우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수하러 갑시다. 산보 길로 꼭 알맞은 거리일 것입니다. 차 수건을 가지고 나오시오”

나는 얼른 방에서 세수 도구를 들고 나와 그와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 길에는 그의 어린 아들 둘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와 함께 세수하러 가던 길이었던 모양이다. 총명하게 생긴 아이들이었다. 큰놈이 5학년, 작은 놈이 이학년 쯤 되었을까?

집에서 개운사 골짜기까지 가는 동안 Y대령은 쉬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속이 시원한 내용에 속이 시원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품이 과연 포(砲) 대령다웠다. 개운사 뒤의 개울은 물이 맑고 공기가 상쾌하다. 우리는 거기서 천천히 세수를 하고 그리고 반석 위에 앉아 그칠 줄 모르는 이야기를 했다. 물론 나는 듣는 편이었으나…….

며칠 휴가로 집에 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십여 집 앞인 사회부 막에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Y는 날마다 아침이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예 나갑니다.”

대문 소리를 듣자 나는 세수기구를 가지고 뛰어 나간다.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혼자인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개운사 뒷골짜기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대원암(大圓庵) 뜰로 가서 거기 있는 유명한 우물의 물을 길어 뺏속이 씻기도록 마신 경우도 있었다.

대원암 언덕바지에는 칠성암(七星庵)이 있다. 대원암도 고요한 분위기지만 칠성암은 더욱 그윽하다. 석불(石佛)이 부조(浮彫)된 암석(岩石) 밑에 약수(藥水)가 풍풍하고 솟아 나온다. 우리는 그 약수를 아침저녁 함께 먹으러 다녔다. 약수가 풍풍 솟아나듯 Y대령의 이야기도 끊임없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화제가 풍부하고 내용이 충실할까? 석불 앞엔 넓은 반석이 있다. 그 반석에 다리를 길게 뻗고 앉아 그해는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고 이승만 대통령(大總統)이 우의(牛意) 마의(馬意)까지 발동시켜 3선에 성공(?)한 때이다. 이야기는 정치, 문화, 군대 각 방에 걸쳐 무궁무진했다.

한번은 밤이었다. 역시 라디오를 통해서 심포니를 듣고 있노라니 그 절절한 ‘안선새앵’이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이젠 심포니보다 Y대령의 절절한 목소리의 나락이 더 마음을 위로해 주고 정신을 고무(鼓舞)시켜 주고 있었다.

“에에”

나는 뛰어나갔다.

“거닙시다.”

“좋지요”

밤이면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기로 하고 있는 나는, 밤공기를 마시면서 개운사 골짜기를 걸어본 일이 별로 없었다. 무슨 시적인 감회가 갑자기 가슴속에서 설렘을 깨달으면서 나는 대뜸 그와 어깨를 나란히 거닐었다. “대원암으로 갑시다.”

대원암은 그 무렵, 수리가 되지 않은 채 팽개침을 받고 있을 때였다. 열시가 지났을 때였으므로 사람의 기적이 없었다. 불빛도 없는 대원암 마루에 둘은 걸터앉았다. 건들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그 마당에 있는 보리수(菩提樹) 두 그루가 어쩌면 그렇게도 의젓하고 거룩하게 보일까?

백년풍상에도 끄떡 없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내려온 두 그루의 고목은 나에게 끝없는 의미(意味)를 암시해 주었다.

“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박고 삼시다.”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는다 하면 사회적으로도 강한 발언권을 가지지만 구미(歐美)에서는 거의 사회와 격리되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 “He that keep up his riches and lives poorly is like an ass that carries gold and eats thistles.”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자는 황금을 실어 나르는 당나귀가 말라붙은 풀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

구두쇠는 7푼을 지킬 줄을 알지만 7푼을 백냥 가치 있게 쓸 줄은 모른다. 이것은 영국의 속담을 빌려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돈을 모을 줄은 알아도 지자(知者)가 아니고서는 쓸 줄은 모른다.”(“Even food can save money, but without wise can't use.”)가 된다.

우리 속담에 “20대에 눈을 사면 50대에 굶는다.”라는 말이 있다. 젊은 사람이 돈만을 알게 되면 장래에 큰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대라면 사실 포부가 크고 돈맛을 모를 시절이다. 얼마나 인색해서 20대에 눈을 살 수 있겠는가. 심히 불쌍한 청년인 것이다. 일본의 속담에도 있다. “20에 돈을 이는 자는 바보다. 40에 돈을 모르는 자는 더욱 바보다.”라고.

동양의 성현은 모두가 중국에서 났다. 그런데도 중국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 “인심을 쓰는 자는 사체를 까마귀에 뜯어 먹고, 일각(一角; 10전)을 지닌 자는 널 속에서 호강을 한다.” 영국 모 신문기자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국민성에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꽃을 가꾸자는 것과 같다.”는 격(格)일지로 모른다.

◇장(醬) 단(甘)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말라

행동은 말(言語)을 정복한다. 행동은 믿을 수 있어도 말은 믿기가 어렵다. 언행일치(言行一致)가 가장 높은 인격의 하나임을 모르는 이 없건만 범인(凡人)으로서 기대하기 어렵다. 대개는 ‘언선사후(言先事後)’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일문(一文)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말만으로써는 덕이 못된다. 공자는 “덕은 힘을 정복한다.”고 했는데 행동이 없이는 말은 말에서 끝인 것이다.

공언히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치고 대개는 행동이 적다. 실천력이 없다는 것이다. 백만 마디를 지껄여도 한 가지 행함이 없으면 만사불성(萬事不成)이니 말만으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게으름뱅이 받고랑만 헤아린다.”는 속담과 같이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말로써 보충을 하자니 자연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부족함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다. “××가 처갓집을 자주 간다.”는 속담도 있고 “퐁 편 놈이 먼저 성낸다.”는 말도 이 범주에 속하는 속담이다. 행동적이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은 대개가 말이 적은 것은 이것을 증명한다.

“무는 개를 돌아본다.”는 속담이 있다. 짓기만 하고 물지는 않는 개가 있다. 미친 듯이 쫓아대는 개는 대개가 좀처럼 달려들지는 않는다. 재기만 하는 사람은 주먹이 약하다. 짓기만 하는 개와 같다. 영국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다. “The silent dog first bite.”라 하여 가만히 있는 개가 먼저 달려들어 문다는 것이다. 영국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A flying crow always catches something.” 하여 항상 날고 있는 까마귀는 무언가 먹을 것을 잡는다고 말하고 있다. 말에 앞서서 행동하라는 뜻이다.

“방구가 잡으면 퐁을 쏜다.”는 속담과 같이 말도 많으면 결국은 망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우언(寓言)에도 말 많은 소 장사가 쓸데없이 말이 많아 소를 못 팔았다는 얘기가 있다. “털을 붙어 힘을 찾는다.”는 속담이다. 소를 사는 사람이 소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대원암 마루에 앉아 보리수 고목을 보면서 시정(詩情)에 잠겼다.

하루는 아침이었다. 역시 세수를 개운사 뒤 골짜기에서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번엔 집을 샀습니다. 갑시다.”

Y대령은 나를 끌고 새로 샀다는 집으로 끌고 갔다. 전에 살던 사회부 주택은 두 집이 한 채에서 살았는데 시끄러워 조그만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새 집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았다. 가보니 정말 작은 집이었다. 그러나 깨끗한 집이었다. 거기서 부인과의 인사를 하고 그 부인이 지은 조반을 맛있게 대접 받았다. 병이 전염이 될까 두려워 가까이 오지도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고맙고 소탈한 태도인가? Y대령에게 나는 더욱 정이 들었다.

휴가는 끝난 모양인지, Y대령은 임지로 가고 일주일에 한번쯤 집으로 왔다. 올 때마다 나를 찾아 주었다. 그동안 나는 그가 붙여준 습관대로 그가 없는 사이에도 아침과 저녁이면 꼭 개운사 근처의 산책을 실행했다. “이제 굉장히 건강해 졌습니다.”임지에서 일주일쯤 지내다가 돌아와서 나를 찾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사치레만큼은 아닌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만큼 나의 건강은 나 자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처음엔 썩 염려했었는데 이대로라면 가을엔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Y대령이 좋은 수양법을 가르쳐 주어서…….” “허허…….”

그리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지 말고 오래 살면서 글도 쓰고 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하곤 했다. 그러던 Y대령이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글을 쓰고 학교에도 나갈 수 있고, 그랬을 무렵에는 그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속되었다는 소식이었다.

Y대령- 그는 일찍이 내가 사귄 군인들 중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이었던 잊을 수 없는 군인이다.

소 칭찬을 하니가 소 주인이 우쭐해서 “이 소는 어디에도 흠 뜯을 곳이 없습니다. 털을 훑가닥 벗겨도 흠 하나 없지요”라고 자랑을 하니가 그 말끝에 소를 사는 사람이 생각 없이 털을 한번 불어보니 마침 큰 흠이 있어서 사려던 소를 사지 않았다는 얘기가. 정말 ‘화(禍)는 입에서부터’이다.

어느 작가가 ‘말의 메커니즘’이라는 신술어(新術語)를 썼다. 허무맹랑한 것을 사실 이상의 사실인양 말로써 구성시킨다. 지능적인 사기꾼들이 곧잘 말의 메커니즘을 응용한다. 말이 달아서 구미가 당긴다. 그래서 잘 걸려든다. 너무 쉬운 말이 믿을 말이 못 된다면 너무 달삭한 말도 믿을 말은 못된다. 단 술에 잘 취하는 것과 같이 단 말에도 사람들은 잘 취한다. 지능적인 사기꾼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 말에 잘 취하기 때문이다. “약은 쓰다.” 약이 되는 말도 쓰다. 그래서 고언(苦言)이다.

“장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너무 단 말에는 우선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단 꽃감에 곰팡이 핀다.”기 때문이다.

가명(假名)을 벗고

유기영(柳起英)

“좋은 말도 한번, 칭찬도 한번.”이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춘추(俗談春秋)」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듣기 싫어질 무렵이 되었다. 그 보다는 “꼬리가 길면 밟힌다.”그래서 이번 호에서 막을 내릴까 한다.

<세계 경이(驚異) 순례>

잉카족의 수도

- 마추픽추 -

리처드 하리바튼



↑ 토인(土人) - 잉카족의 자손 - 이 라마를 데리고 잉카의 성적(城跡) 앞에서 있다(라마는 남미에 있는 낙타와 같은 동물)

내가 이제까지 들어온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진기하게 느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백년전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들이 멕시코를 방문하였을 때 아즈텍이라든가 마야족과 같은 굉장히 문화수준이 높은 종족이 살고 있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였을 무렵에는 그 최성기(最盛期)였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남미 페루에도 잉카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즈텍 국(國)에 못지않은 훌륭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그 당시 잉카족은 인구 천백만을 헤아렸으며 웅대한 안데스 산맥 서쪽 기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도시는 석조 건물로 차 있었으며 그 당시 석공의 손으로 쌓아 올린 커다란 돌 블록 몇 개가 지금도 아직 잉카족의 수도였던 쿠스코 성벽 안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돌로 다진 도로는 해안에서 산정(山頂)까지 뻗어 있고 그 사이의 깊은 협곡에는 묘하게 밧줄을 엮은 커다란 적교(吊橋)가 걸려있다. 잉카족은 각종 미술공예에 뛰어나 특히 금 채굴과

제련술(製鍊術)에 능하였다. 금은 특히 이 나라에서 풍부하게 채굴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동이나 쇠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것저것에 금을 썼다.

잉카족의 종교는 태양숭배였는데 그 때문에 종교적 건물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을 아낌없이 사용하였고 특히 사원의 벽이나 제단에는 태양신을 상징하기 위하여 황금으로 빛나 있었다. 쿠스코의 사원은 모두가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 황금은 그 황홀한 빛깔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한다. 잉카족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황금에서 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 스페인 인들은 이 같은 소문을 듣고 기필코 황금을 손에 넣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황금이야말로 소원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보가 이교도인 인디안 손에 있다는 것은 실로 천지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장군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1531년 1월 3척의 배에 165명의 기사(騎士)와 27두의 말을 싣고 파나마를 남하하여 가리야오 부근에 상륙해서 리마 근처에 이르러 실로 7만 배나 되는 잉카족을 공격하였다. 더구나 이 공격이 성공하였다는 것은 전사상(戰史上) 일대 기적으로써 코르테스의 멕시코 정복과 더불어 경탄(驚嘆)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피사로는 우선 계략을 써서 잉카국왕 아타우아루비를 생포하고 몸값으로 금은보화를 한방에 가득 차게 모으게 한 다음 1533년 8월에 국왕을 죽여 버렸다. 잉카족들은 국왕을 현인신(現人神)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이 스페인 사람 칼에 죽은 것은 신이 침입자들 앞에서 전 잉카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수도 쿠스코로의 진로는 쉽사리 열려 스페인의 기사들은

이 「속담춘추」는 자유당 시대에 모 신문지 상에 「속담만의(俗談漫義)」라는 제목 하에서 하루 2백자 원고지 3매에 만화를 넣어서 연재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교양적인 내용이 아니고 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승만 정치를 풍자하다가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고 편집자에 의해서 표현이 수정되기도 하고 아주 햇빛을 보지 못하고 휴지통 신세가 된 것도 있었다. 그 중 휴지통 신세가 된 몇 가지를 여기에 얼굴만 보여 보기로 한다.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영감님을 만나면 저녁에 감투를 쓰고 팔자를 고친다는 뜻. 뭐?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아침의 법령이 저녁이면 바뀌어지는 뜻이라고요? 그건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이 아직도 엄연히 살아 있는데. ☆열 사람이 한 놈의 도둑을 못 지키다 이 속담은 국보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10만 명이 한 놈의 도둑을 못 지키는 세상. 그것도 스타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 그것부터 훔치고 나중에는 재물을 털어간다니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암 그렇지. 모로 써도 감투만 쓰면 장맹이지요. 뭐라고, 우리나라에도 바로 쓰는 감투가 있던가요? 서울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옆길이나 밤길을 사바사바 가십시오. 무사안착(無事安着) 절대보장(絕對保障) ☆세살 때 버릇 여든까지 - 수정 불가피 - 두고 봅시다. 몇 살까지 가는가를 단정하기는 시기상조(時機尙早). ☆낮말을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새도 쥐도 못 듣는 말은 누가 듣는담.

이 길을 앞을 다투어서 돌랐는데 수도에 도착하기 전에 우선 태양신을 모시는 승원(僧院)을 습격할 것을 계획(計策) 하였다. 이 승원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청순하고 아름다운 상류 출신의 처녀 백 명이 살고 있어 일생을 태양신의 제사에 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침입자들은 이들 아름다운 승녀(僧女)들을 생포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피사로가 왔다.”는 기별을 듣고 즉시 이들 승녀들은 황급히 승원에서 몸을 피하여 쿠스코 북방에 솟아있는 안데스 산봉(山峯)을 넘어 우루방바 강 계곡으로 내려갔다. 이 협곡은 안데스 산맥의 동쪽 비탈을 타고 브라질에 연결되는 열대성 협곡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4백년 동안 이들 피난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신비 속에 쌓인 채 거의 망각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11년 우연한 사건으로 해서 이 신비스러운 수수께끼가 풀려 내가 이제까지 들어온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기묘한 이야기로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인 서기 800년 경 구라파는 아직 암흑시대 속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잉카족은 소수 민족이었지만 안데스 산맥의 브라질 쪽에 살면서 의욕적인 생활기풍으로 장대한 석조건물의 도시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도시는 우루방바 강의 6백 미터 되는 협곡에 둘러싸인 층암(層岩) 위에 세워져 6천 미터나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백설의 쿨디 에라.아스투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보이지 않았다. 세계의 도시 가운데서 이곳만큼 장관의 건물은 달리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경이의 도시가 이미 없어지고 그와 같은 건물도 벌써 과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아직 그곳에 있으며 우리들은 지금부터 그곳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 부근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 옛날 잉카의 수도를 ‘마추픽추’라고 부르고 있다. 성벽 안에는 4백여 동(棟)짜 되는 석조로 된 집이 있으며 사원이나 궁전이나 광장 같은 것도 그것으로 만들어지고 특히 대사원(大寺院)의 제단 같은 것은 백 톤이나 되는 한 장의 돌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들 돌의 조립에는 몰탈[mortar]을 일절(一切) 사용하지 않고 돌과 돌과의 사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쌓아올려서 천년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형됨이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신기한 것은 이들 많은 돌을 떠냈다고 생각되는 채석장은 그곳에서 6백 미터나 밑에 있는 협곡 바닥에 오직 한 군데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 무거운 돌을 독수리 집 같은 단애(斷崖) 꼭대기까지 어떻게 운반하였을까 하는 문제는 근대 건축가들도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것이다.

그런데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고대 잉카인들이 천사(天使) 건축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건축가들은 마법(魔法)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협곡을 가로질러 거대한 돌을 단애 정상(頂上)의 사원 벽 있는데까지 운반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이 말을 믿을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 실로 잉카인들이 원시적인 도구와 조잡한 기계만으로써 어떻게 이와 같은 건물을 세웠을까 하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잉카인들은 2세기 동안 이곳 마추픽추에 살고 있었는데 서기 1000년경에는 이곳의 식량 공급력(供給力) 이상으로 인구가 불었기 때문에 다시 여유 있는 토지를 찾아 46킬로 떨어진 안데스를 넘어 산 서쪽에 있는 고원지대인 쿠스코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잉카족들은 다방면의 예술에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문자를 사용하는 것만은 하지 않았다. 그들의 문자는 키푸라고 하며 70센티쯤 되는 여러 가지 빛깔을 한 끈에 수많은 매듭을 만들어 그 형태를 가지고 말이나 숫자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래서 잉카에는 다른 민족과 같이 회화나 상형문자로 된 기록이 거의 없어서 마추픽추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들의 전의 도시는 세인(世人)의 기억에서 망각되어갔다. 그러나 아주 망각된 것은 아니고 일신(日神)을 모시는 일부 승려들은 만약 태양신에 무슨 큰 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곳에 필요한 것을 전언으로 남겨온 것이다.

1535년 피사로가 쿠스코에 침입하였을 때 이와 같은 피난처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신봉하는 승려의 안내로 태양신에 봉사하고 있던 백 명의 꽃다운 처녀들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쿠스코의 절에서 우루방바 협곡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다시 황폐한 구도(舊都)로 빠지는 길을 따라 마추픽추에 이르러 잔혹한 침략자의 마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 사실은 피사로 뿐 아니라 쿠스코에 살던 다른 잉카인들도 알지 못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우리나라에는 하지 않는 말까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렸습니다. 세도 쥐도 못 듣는 말을 듣는 자가 있지요. 그것을 가리켜 민심이 천심. 뒤라고, 민심이 아니라 민의(民意)가 아닌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닙니다. “상수탁(上水濁) 일지어도 하수청(下水淸)하라.”의 오발(誤發). 상탁하청(上濁下淸)은 상하(上下)의 불가침 조약. ☆그대의 이웃을 사랑하라. 오! 크리스토퍼! 나의 이웃은 공산(共產) 오랑개와 일본입니다. ☆힘보다 피를 쓰라. 피보다 돈을 쓰라. 돈보다 권력을 쓰라. 아니다 덕(德)을 쓰고 정(情)을 쓰라. 힘은 늙고 피는 썩지만 덕과 정은 늙음과 썩음이 없느니라. ☆남아일인 중천금 무슨 소리! 남아일인 커피 한잔. 커피 한잔은 그래도 백환(百圓)짜리다. 남아일인 페리호(廢履乎). ☆어두운 밤에 흥두께 대낮에 작대기. 이 작대기는 부자(富者) 방망이. 술 나오라면 술이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이 나오고…… 이 작대기 많으면 모으면 신기(神技)를 발휘하여 사통오달(四通五達) 20세기의 도통자(道通者)가 된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폐가망신(廢家亡身). ☆똥파리는 똥에 모여 든다. 대통령령 제○호 다음 속담을 입 밖에 내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똥파리는 똥에 모여든다.” 부칙(附則), 본령(本令)은 공포일로부터 발효한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 그렇지만 백두산 호랑이는 무서워하답니다. 강아지고 큰 개고 닳치는 대로 마구 잡아 잡수시니까요.

그래서 성처녀(聖處女)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없어진 것은 이상한 사건이라 하여 “태양신이 그녀들을 곧바로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1911년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로서 고고학자였던 하이람 빙감 박사가 우루방바 지방의 잉카족의 유적을 탐험하였을 때 인디안 안내인의 인도로 마추픽추를 발견할 수가 있어 진상(真相)을 알게 되었다. 이때 안내인은 특히 ‘어느 옛날 고대(高臺)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금단(禁斷)의 단애(斷崖) 정상으로 박사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이 소위 천사가 세운 도시였던 것이다.

그러나 얼뜬 보기에는 이것이 천사가 세운 도시라고 볼 수는 없었다. 4세기 동안 제멋대로 자란 열대수(熱帶樹)는 모든 것을 뒤덮고 나무뿌리, 풀, 이끼 등으로 덮인 돌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들 나무나 풀을 제거하자 눈부시게 빛나던 석도(石道)나 지붕이 없어진 것을 빼놓고는 전부 옛 모습 그대로의 4백여 동(棟)의 석조건물이 재현되었다.

그리고 중앙 사원 근처에 있는 신성한 묘지에는 99개의 묘가 발견되었다. 페루인들은 이들 묘는 모두 스페인의 마수에서 벗어난 성처녀들의 묘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째서 99밖에 없을까? 그것은 맨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의 묘를 만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을 이 잉카의 비경(秘境) 마추픽추에 안내하려고 한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그만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내가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처럼 여러분도 진지한 관심과 열성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들이 탄 배는 남아메리카의 서해안을 페루의 모리엔도 항을 향해서 남하하여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4천2백 킬로나 되는 쿠스코로 향한다. 쿠스코는 오늘날 인구 3만을 헤아리는 현대도시로서 잉카족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우리들은 옛날 승려들이 스페인인들의 마수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난하였던 길을 따라 도보로 올라가야 한다. 그 길은 꼬불꼬불한 길로서 왼쪽에 사투칸타이(높이 6천2백미터) 오른쪽에 베로니카(5천백미터)의 백봉(白峰)을 바라다 보며 멀리 아마존 강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우루방바 강변의 협곡을 지나갈 무렵부터 뉴추라고 불리는 빨간꽃 칸토우타라고 하는 노란꽃(이들 꽃은 잉카의 도기(陶器) 도안(圖案)에 나타나 있다)들이 만발하여 실로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마추픽추가 가까워짐에 따라 밀림이 땅을 뒤덮고 나무뿌리에 채이고 넝쿨풀에 몸이 걸려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험한 단애 같은 곳을 기어 올라가면 수많은 나비들이 날아들며 또한 활촉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독사가 길을 질러 갈 때가 있다. 이 독사는 마추픽추 산정(山頂)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다. 바야흐로 3백 미터쯤 위쪽에 한두 채의 석조건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상은 얼마 안 남았다. 일행은 갑자기 용기가 나서 석단을 한 단 한 단 올라간다. 여기에 잉카의 건물이 있다.

바른 쪽에도 왼쪽에도 한 무더기 한 무더기 토대석(土臺石)이라든가 돌담 그리고 수많은 집들이 폐허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정돈된 형태로 산정을 향해서 늘어서 있어 햇빛에 빛나고 있다. 눈부신 미로를 지나 신성한 궁전광장을 건너질러 사원 터를 지나 다시 빙글빙글 바퀴처럼 된 돌계단을 올라가면 돌로 된 해시계가 놓여있는 정상에 이른다. 해시계가 있는 끝은 6백 미터의 단애로써 이 현기증 나는 자리에서는 적동색(赤銅色)의 태양이 저 멀리 구름 낀 빙하세계의 일각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이며 우루방바 강의 물소리가 단애 밑에서 울려온다.

황혼이 깃들이 전에 우리들은 해시계 있는 데를 떠나 장대한 가로(街路)를 정처 없이 헤매면서 마음속으로 백 명의 일생을 마친 처녀들 - 그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우리들만이 이 산정에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누구도 우리들이 있는 것을 모른다. 다만 태양신을 모시던 성처녀들의 망령(亡靈)만이 그 근처를 헤매고 있다. 그중의 어떤 사람은 젊고 어떤 사람은 중년 어떤 사람은 노인, 모든 사람이 굉장한 고독 속에서 지금껏 쿠스코의 사원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일단(一團)의 망령은 불행한 일생을 보냈을 것이다. 그녀들은 자기들의 은신처가 피사로의 군대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외부세계와의 교섭을 일절 끊고 절대로 이 높은 은신처에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름다운 성처녀들은 모름지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한 사람의 남자도 없이 쓸쓸히 그 생애를 마쳤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매스컴의 영향



김기점(金基漸)
〈공군중령 공본(空本) 공보과장〉

현대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세인(世人)이 주지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사회체제를 이룩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활동의 체계는 전체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체제와의 관계라는 것이 생기게 되기 마련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반대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어떠한 사회체제 하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또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성격도 이룩되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대중화(Mass)의 현상인 것이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이 대중화의 커다란 추진력에 결계(結繫)되어 있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현대인으로서 사회체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정치와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이란 묵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대중화의 현상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일(今日)의 사회과학에서는 유난히 대중사회라는 어구(語句)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사회는 그 대중이라는 어구의 사용방법이 대중문학이나 대중단체 등의 사례로써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실로 다양다의(多様多義)로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현대사회의 대중현상의 내용과 그 속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중현상을 이루는 사회행동의 체계가 이룩되는 사정(事情)을 고찰하려 한다.

그러면 먼저 대중현상이 경제활동의 체계로써 성립되는 것을 본다면 자본주의의 고도(高度)한 발달에 의한 대량생산, 대량분배, 대량소비가 그 전제로 되는 것이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하여 새로운 중간층(화이트 칼라)이 생기고 이에 부응하여 서비스 산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교통, 통신의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리크리에이션(Recreation), 음식과 오락의 기관이 증가하게 된다. 대중생산은 제품의 품질관리의 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규격화와 표준화를 촉진(促成)하여 품질의 균일화가 구현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우리 한국의 생산 사정으로는 지금까지는 구각(舊殼)을 탈피 못한 것이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 5개년 계획의 전망을 기대 속에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제품의 규격화와 표준화로서 각종 제조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동종의 제품이 모두 균일화된 상품이 되고 품질 면에서 보더라도 별다른 차(差)가 없어지게 되면, 대량분배에 있어서 각기 자기 회사의 제품을 타사의 그것과 별 차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 이외에 특점적(特點的)인 것으로 구매자 즉 수요자에게 어필(Appeal)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품명, 디자인, 포장 등 품질 이외의 장점을 만들 것과 대량판매의 기술인 광의(廣義)의 세일즈맨십(Salesman Ship)의 발휘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광고나 퍼블리시티(Publicity)에 국한되지 않고 판매원이나 외교원의 면접 그리고 가두전시 등 퍼스널 커뮤니케이션(Personal Communication)에 의한 판매기술도 발달하여 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자체의 기업도 대량생산과 대량분배의 원칙에 따라 발달되고 기업의 입체화로서 출현된다. 즉, 신문·라디오·TV·영화 등의 기업체는 상호 결부되고 자본 경영 인사의 교류도 생기게 되어 여기에 매스컴 기업의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라디오·TV와 같이 키 스테이션(Key Station)을 중심(中心)으로 한 전국적인 네트워크(Net Work)가 대기업의 수중에서 좌우되게끔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에 의한 제품의 대량판매에 즉응(卽應)하여 대량소비도 점차로 그 규모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대량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재의 분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활동의 범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 하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구미(歐美)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도회지의 도심이나 터미널에는 커다란 백화점포(百貨店舖)가 생기고 거기에 슈퍼마켓(Super Market) 지하상가, 후드 센터까지 꾸며져 소비활동의 장소가 지상과 지하에까지

신장(伸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교통편이 발달함에 따라 근접도시까지 구매행위를 뻗치게 되고 여행자의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도 생기게 된다. 소비활동은 또한 시간적 제한을 면하게 되어, 상점의 야간영업시간 연장이나 철야영업 등 이밖에도 많은 소비자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구나 대량소비는 구매조합이나 소비자 단체의 발달과 대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출현으로 집단소비의 형태로 변천해 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여론의 압력을 빌려 소비자의 집단적인 의지(意志에 의지(依支)된 대량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량소비는 많은 소비자를 집단적인 구매행동의 범위로 묶어버림으로써 시작되기 마련이다. 대집단의 구매활동은 또한 다수의 소집단의 구매행위가 교차복합(交錯複合)한 총체인 것이며, 이러한 소집단 구매의 경제활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겠다.

그 하나는 구매자 집단의 규모인 것이며 집단성원(集團成員)의 경제조건과 범위에는 일상생활의 교통범위와 근일치(近一致) 한다는 점과, 둘째로는 구매행위의 주도자와 동조자 관계에 있어서 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설득의 효과적 역할인 것이며, 셋째로는 위와 같은 대집단과 소집단의 구매자로서의 성원 상호간에 생기는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서 주도자의 의견에 순응하거나 주도자의 조언으로 전체의견이 조정될 때 구매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매집단 성원 상호간 개개인의 의견교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형(水平型)의 커뮤니케이션도 역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상점선택이나 상점거래도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생활상의 고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가 합입(合入)되어 전체사회 속에서의 경제의 체계를 이루는 역할에 대한 고려를 가지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구매집단이 횡적으로 연락되어 개개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점차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옮겨 감으로써, 구매자·소비자의 압력집단으로서 효과적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구매집단의 성원 간에는 연대감이 생기는 동시에 각자의 자신도 깊어지고 보다 큰 대집단 활동에도 참가하려는 새로운 의욕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사회의식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집단생활을 하는 까닭에 도리어 허영에 사로잡히는 구매나 소비를 하려는 경쟁심리가 유발되기 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잊을 수는 없다. 열거한다면, 근간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텔레비 붐'을 이루어서 자신의 경제적 환경과 조건을 고려치 않고 옆집에서 TV를 구매하니 자기도 무턱대고 산다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현대사회의 정치활동에 미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대중현상은 정치활동의 체계에서는 대중 데모크라시(Mass Democracy)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대중 데모크라시에서는 상부층의 소수자에 의한 정치의 지배에서 벗어나 모든 성인 남녀는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實際)에 있어서는 원칙을 벗어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스 데모크라시의 성립에 대하여 국가권력을 작용하여 정치에 참여하려는 일반 민중을 조종(操縱)하는 사례를 현대정치사회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팽대한 조직체로서의 관료기구, 그리고 이와 이해적 관계로서 대자본과의 결부로 정부, 여당, 자본의 3자 간 '경제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가 이룩되어 매스 데모크라시라는 명목 아래 정치참여의 평등한 권리를 가진 민중은 사실상 정치적 자유를 빼앗기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자본과 합체하는 국가권력은 민중에게 정책을 추구하여 복종을 강요하는 따위 위에서 밑으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매스컴을 이용하여 가능하다면 민중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표면상은 여론을 존중한다는 듯이 꾸며가며, 정부의 조사기관의 질문형식으로 권력자의 구미에 맞도록 여론조사가 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정치적으로 조종되는 대중이 생기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서 현금(現今)의 일본의 정치현상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구(舊) 정권하에서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권력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업체를 직접 간접으로 지배하려는 경향을 노출하고 권력 측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통제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정치적 자유의 음성적(陰性的)인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라 하겠다.

매스 데모크라시의 발달에 수반하여 민중의 개개인은 정치적으로 원자화(原子化) 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거민(選舉民)에 있어서는 선거권의 행사가 개인에게 허용된 것은 최소한의 정치행동인 것이며 투표 시에는 각 개개인이 엄격히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양심적인 행위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의 정치활동은 집단행동으로서가 아니고 도리어 고립된 개인의 사적인 행위으로써 이해되어 선거민은 자신이 각기 개개의 고립된 정치적인 원자로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곧 이것은 정치적 양심과 개개인의 사적 범위와 문제로서의 종교상의 양심과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이와 같이 선거민 자체의 투표권 행사에는 어떠한 타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치적 선전에도 움직이지 않는 '私'를 결정하는 정치적 신념은 도리어

한 해부학적 연구 Exercitatio Anatomica de Motu Cordis et Sanguinis in Animalibus)였다. 그는 헌사에서 진리는 그 근원 여하를 막론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며, 책으로부터가 아니라 해부로부터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서론과 짧막한 17장은 심장의 작용과 체내의 혈액순환 운동과의 관련을 명료히 설명하고 있다. 하아비는 급속(急速)해서 알기 힘든 심장의 운동을 두꺼비, 개구리, 뱀, 작은 물고기, 게, 작은 새우, 달팽이, 조개와 같은 냉혈동물에서와 죽어가는 온혈동물에 있어서 포착했다. 실험을 기초로 하여 하아비는 심장의 수축이 혈액을 밀어낸다는 것, 그리고 동맥을 통해 나간 혈액이 정맥을 통해서 되돌아오고 그리하여 완전한 순환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날은 명확히 된 모세관(毛細管)을 찾지 못했으므로 동맥에서 정맥으로의 피의 이동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면서도 설명하지는 못했다. 회의론자에 대한 증거로서 정량법(定量法)을 썼다. 심장이 한 시간에 약 4천 회의 고동으로 체내의 혈액의 총량보다도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내보낸다는 것을 입증했던 것이다. 즉 하루에 내보낸 혈액의 총량은 하루에 섭취되고 소화된 식물(食物)의 전량(全量)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독약의 효과에서도 순환을 부수적으로 증명하였다. 하아비는 의학에 실험적 방법 또는 실험실적 방법의 도입으로 혁명이었음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용한 점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 물론 인류의 광범위한 지식은 심장, 혈관 및 폐에 관해 생리학을 다루고 집대성하여 왔으나, 하아비의 혈액순환의 발견에 더 할만한 기본적 현상은 거의 없었다. 킬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과와 외과에 대한 하아비의 직접적인 공헌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파괴되거나 또는 병든 혈관의 치료, 고혈압이나 관상질환(冠狀疾患)의 외과적 치료, 유명한 남청아(藍靑兒) 수술 등 모든 종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영향받은 것은 일반생리학이다. 왜냐하면 순환하는 혈액에 대한 개념은 자기를 안정시키는 신체의 내적 환경에 관하여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인체조직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액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그 순환을 하아비는 위대한 통찰력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또 써 윌리엄 오슬러는 "…… 그것은 낡은 전통에 대하여 현대정신의 여명을 특징 짓는 것이다. …… 훌륭하게 이루어진 이론이나 꿈에 인류가 만족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러한 일은 '무지하다는 구실로써 쓰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처음으로 현대의 과학정신을 가진 한 사람이 실험적인 면으로부터 생리학의 대문계에 접근하였다. 그는 증거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그는 관찰에서 자연 속에서 확고한 결론을 끌어내는 기지(機智)를 가지고 있었다. 귀로 듣고, 또한 들을 뿐이었던 청자의 시대에 뒤이어, 눈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오직 보아야만 만족하였다. 그러나 드디어 손 - 일사색(一思索)하고 궁리하고 계산하는 손 - 의 시대가 왔다. 정신의 도구로써의 손은 72페이지의 수수한 소논문이 되어 이 세상에 다시 도입되었다. 우리들은 실험의학의 시초를 이 논문에 두는 것이다."라고 했다. (오병수)

개인을 정치적인 집단행동에서부터 고립화시키는 결과까지 자아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 정치의 사의 문제로서만 생각한다는 경향은 한편 권력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대중을 조종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기(特記)할 것은 관료기구와 그 배후에서 지도하는 정부, 여당은 고립화되고 원자화된 선거민 개개인을 좌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치집단이 직접적 행동으로 유인한다손 치더라도 이에 불응하여 다만, '사(私)' 개인의 정치의식에 젖어버린 사람들은 부동표(浮動票)로도 간주키 곤난(固難, 참으로 어려움)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정부나 여당으로서의 간접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공(公)이며 법(法)이며 하고 마치 전체 여론인 양 꾸며가며, 선수(選手) 측인 민중에게 정책을 내세우고 가장 공평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지지토록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협소한 정치의식으로 사로잡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정치의 다만 전문가인 정치가나 관료에게만 위임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쉬운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취급되는 정치 기사에 대해서도 정치가들의 개인에 관한 인간적인 문제 이외의 점에도 많은 관심과 주의를 소홀히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조작에 대항하는 조직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민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압력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권력을 비판하고 민중의 입장을 주장하는 정치적 선전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성(既成)의 대집단만이 권력에 대한 저항(抵抗)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적은 부인단체, 청년단체, 문화단체 등의 소집단에 의한 직접 간접의 정치활동이 쌓이고 쌓여 그 토대 위에 이룩됨으로써 비로소 대집단의 정치활동도 유효 적절히 마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에 있어 정치활동인 경우에도 경제활동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소집단의 기능이 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상호 교차작용을 통해서 통합되어, 대집단의 기능을 밑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에의 저항을 조직화하는 민중은 개개인이 분명한 정치의식을 가진 정치적 민중인 것이며 이는 곧 자각한 개인인 것이다.

대중현상은 역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중(現象)인 것이지 대중사회라는 특수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정치의 관계라는 것도 항상 유동하는 역사 속에서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적 현상인 대중화 현상은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불가분리(不可分離)의 관계에 놓여 있음은 다언(多言)을 요(要)치 않으며 또한 현대 사회체제를 특징짓고 있는 전체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은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의 체계화를 들 수 있고 보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세계를 움직인 책들>⑧

17세기 초에 있어서의 생물과학과 그 연구는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천문학의 연구만큼도 진척되어 있지 않았다. 의사나 의학교(醫學校)에 있어서는 여전히 2세기의 동방 그리스의 의학자 가렌으로부터 해부학적 이론과 생리학적 이론을 실제로 옮겨 치료하거나 가르치고 있었다. 1천년 이상이나 되는 동안 혈액의 순환과 심장의 기능에 관한 인류의 지식에는 본질적으로 더해진 것이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간장(肝臟)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심장으로 간 다음에 체내를 통과하여 정맥에 도달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심장(心臟)은 체온의 원천이고 지능의 터전이라고 믿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에라시스트라투스는 동맥은 일종의 현인할 수 없는 공기 또는 정신을 운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생각은 가렌이 수정하였는데, 동맥은 공기를 운반하지 않고 혈액을 운반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 후 몇 세기동안 의학자들은 어떤 종류의 정기(精氣)가 혈액계통과 어떠한 - 아마 심장을 활발하게 하는 일에 -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또 가렌에 의하면 간장은 혈액계통의 중심이며 소화된 식물(食物)은 간장으로 운반되어 거기에서 자연의 정기가 부가되어 혈액으로 변한다. 혈액은 밀물과 썰물 모양으로 정맥과 동

맥의 양자를 통하여 왕래한다. 심장의 한쪽으로부터 나오는 동맥혈은 다른 한쪽에서 나오는 정맥혈과 세공(細孔)을 통해서 혼합된다. 이런 이론에 혈액은 신체 어느 부분보다도 신성하다고 봄으로써 감히 재고하는 자도 없었다. 1600년에 이르러 르네상스의 여명을 타고 현대 해부학의 개조(開祖)인 안드레아스 베실리우스가 가렌이 말하는 세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심장의 이실(二室) 간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였다. 이와 거의 동시에 세르베르

윌리엄 하이버 저(著)
혈액순환의 원리
William Harvey
De Motu Cordis

스는 혈액은 폐를 통하여 순환한다는 소신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장이 펌프와 같은 기관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 파브리쿠스가 정맥에 판(瓣)이 있음을 발견했으나 혈액의 흐름을 늦추기 위해 있는 것으로 추측했을 뿐이었다. 당시 의학의 중심지 이태리의 파두아에서 파브리쿠스의 지도하에서 해부와 실험을 배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하이버는 1602년에 귀영(歸英)한 후 오랫동안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 확신을 얻고서 오랜 지론(持論)인 혈액의 순환에 관한 논문을 출판하였다. 그게 바로 1628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온 72페이지의 소책자인 「동물에 있어서의 심장(心臟)과 혈액의 운동에 관

◇관(官) 없는 장기(將棋)

서울 북촌에 사는 두 대감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장기를 두지만 그 실력이 형편없었다. 그러니 옆에서 혼수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 하루는 골방에 가서 장기를 두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였다. 그런데 두 대감과 무관한 손님이 찾아와서 청치기에다 대감을 만나겠다고 청하였으나 청치기는 “장기 혼수를 하실까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하고 거절하였다. 손님은 “나는 장기란 도무지 둘 줄 모르니 들어가도 괜찮다.”하고 골방에 들어갔다. 손님은 비록 장기는 둘 줄 모르지만 장기판을 들여다보니 한쪽 편의 궁이 없으므로 “대감. 궁이 어디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면서 여전히 장기를 두는 것이었다. “어. 저 대감이 먼저 따가서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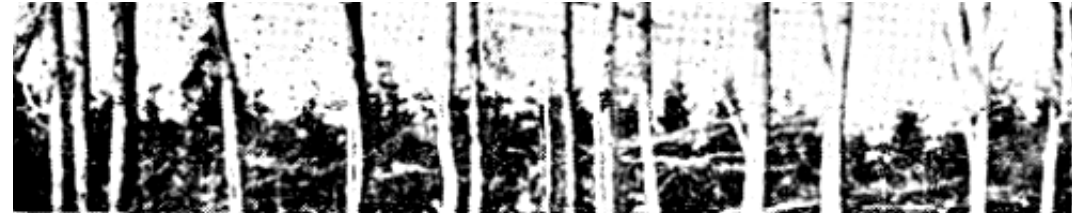
◇사망란(死亡欄)과 출생란(出生欄)

어떤 노인이 조간신문 사망란에 자기 이름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발대발한 노인은 즉시 신문사 편집국장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당신이 편집국장이요? 그래 이렇게 내가 멀쩡한데 어찌자고 사망란에 내느냐 말이요?”이 말에 당황한 편집국장은 오기(謬記)한 모양이라고 정중히 사과하였다. 그러나 노인은 더욱 화를 내면서, “내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오?”하고 떠들어댔다. 국장은 “그러면 취소하는 뜻으로 내일 조간 출생란에 선생님의 성명을 게재하면 어떻까요…….”

◇열쇠의 죄

주로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훔치는 도적이 있었다. 한번은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막 도망치려고 타고 온 자동차에 올라타려 했으나 마침 열쇠가 잠겨 있었다. 그는 은행에 돈을 훔치러 들어가면서 자기 자동차를 도둑맞을까봐 잠갔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동차의 열쇠를 찾을 여유가 없어서 옆에 있는 차에 올랐다. 그러나 그 차는 고장이었다. 그 다음 또 하나 옆에 있는 차에 올랐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올라탄 차는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표지 없는 경찰차였다. 형사는 시치미를 딱 떼고, “어디로 가지시요?” 우선 원편으로 빠지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 자동차가 경찰서로 들어간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군내(軍內) 현상(懸賞) 논문입선 <佳作(佳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들맞이

문관 김성칠(金星七)
<공군대학 학술연구부>



목 차
一. 서론
二. 자립경제성장에의 도정(道程)
 (一) 경제혁명
 (二) 농업혁명
 (三) 인구조절
三. 결론

一. 서론

경제라는 어휘가 가지는 본래의 뜻은 경국제민 즉 국사(國事)를 경론(經論)하고 백성을 구제함을 의미한다. 이 경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평성대에 있어서나 난세에 있어서나 국사지대업(國事之大業)으로 지목되어 위정자로 하여금 그 성과의 극대화가 항상 요망되어 왔었다.

그러나 옛날의 이조(李朝)시대, 일제강점 시대는 물론 8·15 해방 후 최근의 자유당, 민주당 권까지도 경국제민은커녕 도리어 학대와 방종, 부패와 부정으로 일관한 치욕의 역사만을 후세에 남겨 놓았다. 실로 신세대로부터 구세대가 불신임(不信任)을 선고받고 교체되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인제 혁명정부가 수립된 지 어언 11개월, 그간 오랜 세월을 두고 조국을 좀먹던 망국적 독소는 일소되고 제반 사회질서도 바로잡혀 조국은 위기의 직전에서 기사회생(起死回生)되었으나 그것은 혁명 초기에서 역력히 눈여겨 볼 수 있었던 외과적 수술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혁명 3단계에 돌입한 지금에는 그 성과를 측량키 어려운 경국제민의 중대과업이 암석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혁명당초 공약한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유경제제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기본과제이다.

무릇 경제적인 혁명 없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혁명은 성취할 수 없다. 과연 혁명정부에서는 새해를 맞아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40.8%의 국민총생산의 증가를 목표로 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시에 옮겨온 역사가 기록할 만한 획기적인 사실이며 이 의미에서 민족의 운명과 더불어 정부가 생명을 건 일대(一大) 사업이라고 단정 아니 할 수 없다. 구(舊) 정치인들이 위선과 기만의 방패로서 휘둘렀던 그런 따위 공약,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우리 민족도 이제야 비로소 긴 악몽에서 깨어나 내일への 비약을 기약하면서 명시된 이정표를 좇아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에의 도정은 미리 짜인 순탄(順坦)한 대로(大路)만은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개발 국가로서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비애(悲哀) 즉 생산기술 및 기업경영기술의 빈곤, 자본축적의 부족, 물적 재생산구조의 빈약, 유효수요(有效需要) 부족 등 경제적 재건을 방해하는 악조건들이 기타 여러 가지 장애(障害)와 교착되어 우리 앞에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경을 물리치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난중지난(難中之難)이며 마치 광막(曠漠)한 벌판을 한없이 걸어가는 고달픈 극기와 낙망(落望)의 기복(起伏)일 것이나, 타국이 성취한 시범적인 선례와 고무적인 그 기록을 살펴볼 때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근면과 검소 그리고 왕성한 책임감으로서

불요불굴(不撓不屈)의 노력을 경주하면 능히 우리도 빈곤을 추방하고 건전한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토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정직한 자유민주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게끔 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여기서 외국의 재건상(再建相)을 잠시 살펴보자. 1814년에는 Norway를 상실했고 다시 1864년에는 풍요로운 곡창지대마저 탈취 당함으로써 완전히 불모지와 사구(砂丘)만을 차지한 패전국 덴마크[丁抹]가 국가재건의 비원(悲願)을 달성코자 부자 2대에 궁한 사투(死鬪)로써 1920년경에는 드디어 자국을 옥토로 개간해 낸 동시 수많은 공장을 건설하여 부유한 지상의 낙원으로 재건한 경이적(驚異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덴마크 농산물의 연간수출량은 우유 405만 8천 톤, 버터 12만 톤, 치즈 5만 7천 톤, 우육(牛肉) 160만 톤, 돈육(豚肉) 70만 톤, 계란 8천여 톤 등이며 국제수지상 막대한 이득을 재래(齎來)하고 있다 한다. 덴마크뿐만 아니고 세계 2차 대전으로 황폐화되었던 패전국 일본, 서독 역시 기적적인 생업부흥을 달성하여 현재는 미국 다음가는 골지(靑指)의 부유국으로 군림하여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천과 재건은 전 국민이 바친 근면과 검소 나아가서는 정부와의 일치단결로 된 불요불굴의 노력으로써 달성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우리도 지난날 신라시대에 조상들이 이룬 찬란하였던 번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돌을 맞은 오늘날 새로운 각오와 실천 밑에서 다시 한 번 그때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二. 자립경제성장예의도정(道程)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형적인 한국경제의 구조재편을 단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혁명과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업혁명으로 구분하여 질적으로 종합구명하여 보기로 한다.

(一) 경제혁명

최근 정부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한국전역에 존재하는 8천2백 여 기업체 중 1천 백여 기업이 휴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유휴공장이 많다는 것은 곧 경기가 악화되고 유효수요가 부족해 있기 때문이지만 이토록 한국경제를 극도의 침체상태로 몰아넣은 중대한 근원으로써는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해서 부정, 부패가 자행되었던 구(舊) 정권이 물 쓰듯 한 외원(外援) 낭비에 유래한다. 6·25사변 후만 해도 22억 불이라는 방대한 경제원조가 아무런 계획성 없이 특정 경제인에게 특혜 조치되어 주로 제분공장, 건빵공장 등과 같은 당장에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경공업 부문에만 투자 사용되었고 특히 많은 실업가(實業家)들이 폭리와 투기목적으로 할당받은 귀중한 원조 불(弗)을 2중 환율(공정 환율과 시중(市中) 환율)을 이용하여 막대한 사치성 소비물자 수입에 사용해 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귀중한 외국 경제원조가 한국경제건설에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하(如何)한 방향에도 투자되지 않고 낭비되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공장들이 휴업 내지 조업(操業)을 단축시켜야 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극도의 침체로 몰아넣은 다른 또 하나의 중대한 근원으로써는 전력, 석탄 등 공업화예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 산업, 철강 기계 등 기초산업, 농업부문의 중점적인 개발 등을 무시한 극단적인 산업구성의 파행성(跛行性)에도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모직, 나일론, 합성수지가공공장 등의 설비는 외국의 그것에 비해 손색(損色)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반면 근대적인 철공업으로써는 겨우 인천대환중공업뿐이고 그 이외의 기초산업은 원시적인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외원의 낭비, 중공업과 경공업의 기형적인 발달은 드디어 한국 경제를 증병환자의 상태로 몰아넣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될 수 없다. 그 단적인 표현은 최근년(最近年)의 경제성장률이 57년의 87%를 전환점으로 하여 58년에는 70%, 59년에는 53%, 60년에는 21% 그리고 61년에는 28%로 둔화를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데에 찾아볼 수가 있다.

혁명정부가 착수한 금반(今般)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적 목표는 외원 및 국내자본의 효율적인 투자로, 이러한 기형적인 산업구조의 재편성 환언해서 산업구성의 비율의 적정화를 기하여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데 그 중요골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미 보도된 바로써 5개년 계획 목표연도인 66년에는 연산(年産) 40만 톤의 선철(銑鐵)을 산출할 수 있는 제철공장과 석유정제공장, 25만 톤의 유안(疏安)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비료공장, 6만 KW를 출력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기타 관광시설과 중요한 생산 공장을 20여 개나 완성하여 놓으리라는 ‘울산공업센터’의 건설착공은 그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생산구조의 재편성뿐만 아니라 소비구조에도 역시 재조정이 요청된다. 외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는 매년 감축되어가고 더욱이 그네들의 민간투자나 차관도 현재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소기(所期)한 경제성장을 달성시킬 투자 자본을 마련하는 데는 앞으로 점차 국내민족자본형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현재의 소비수준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축과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저 저개발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이기 때문에 투자원인이 될 저축의 증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축능력이 있는 부유층도 ‘체면소비(體面消費)’ 또는 선진국의 생활 및 소비양식을 모방한 사치스런 소비성향 즉 ‘과시효과’ 때문에 별로 저축을 못하는 실정에 있다. 말하자면 관혼상제 때문에 더욱 팽창한 농촌고리채 출비하게 늘어난 공장 아닌 도시의 화려한 고층건물 등을 들 수가 있다.

혁명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폐습(弊習)을 타파하고 근면과 검소, 절약과 저축 장려를 범국민 운동화하고 있는 한편 민간자본 축적촉진과 기업예의 건전투자 및 그의 육성발전을 원호(援護)하기 위하여 이미 세제(稅制) 개혁 및 금융기관개편,

증권거래법 실시 등을 단행한 바 있음은 매우 기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구조 및 소비구조 개편을 통한 전반적인 경제혁명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 경제혁명을 돕는 중대한 요인으로써 외국경제협력에 의한 외자(外資)의 조달과 기술계 인적 자원 확보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부연(附言)하여 둔다.

무릇 경제혁명 과도기에는 일시적이거나 경제적 재요인의 기능마비 내지 상실로써 한층 더 심한 경기의 침체를 촉진한다. 그것은 급격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강제되는 생산수준의 저하, 그에 수반하여 초래되는 과소고용(過少雇傭)이라는 형태로써 나타난다. 근간(近間) 항간에서 흔히 듣는 바로써 누구나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공장이 많다”든가 “실업자(失業者)가 무척 많아졌다.” 또는 “통화량은 늘었다고 하는데 돈이 잘 돌지가 않는다”든가 “물건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완전고용상태가 되어 노동력의 실업은 물론 자본설비의 유휴마저 해소되고, 강매력(講買力)이 왕성하여 생산이 활발해지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전술한 바도 있지만 한국경제에는 분명 한층 더 심한 경기의 침체가 도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일에의 도약을 위한 경제혁명 과도기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그 절정에 달할 때에는 투자유인(投資誘因)의 증대 → 투자에 의한 유효수요의 증대 → 비자발적 실업(失業)의 흡수 즉 고용량의 증대 → 경기침체의 해소라는 일련의 연쇄적 사상(事象)으로 인하여 불원간 경제혼란의 제반 요인을 몰리치고 명량한 경기회복 시기를 맞이하게끔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혁명정부에서는 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경제구제정책으로 도시토목사업, 국토개발사업과 같은 국가투자를 통한 고용의 증대와 한편 영농자금, 중소기업자금과 같은 자금방출에 의한 생산의 정상화를 돕는 등 빈틈없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요는 국민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인내와 극기으로써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二) 농업혁명

총 인구의 62%를 점거하고 국민총생산의 40% 이상을 농업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명실공(名實共)히 농업국이랄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때문에 경제혁명은 농업혁명을 이룬 바탕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흔히 말들을 한다. 이것을 부연(敷衍)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농업의 자세부터 살펴보자.

한국농업을 일언(一言)으로 표현한다면 무척미맥(無畜米麥) 중심의 주곡농업(主穀農業)을 위주로 하는 원시적 과소 영세농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 이 구조적 과정의 역사적 배경은 봉건적 토지소유형태로부터 근대적 토지소유형태로 전환하는 도정에서 인구 중압을 받고 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더욱이 특질을 일반화시킨 몇 가지



영

어

와

수

영

서투른 수영은 물에 빠져죽기 쉽다.
서투른 영어는……

민철웅(閔哲雄)

이 땅에서 영어열(英語熱)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의 군대가 이 땅에 진주하면서부터였다. 미군의 진주를 계기로 이 땅에 물밀 듯 들어온 서구민주주의의 물결은 옳고 그른 것을 비판할 겨를도 없이 이 땅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과목 중에는 그 매개물인 영어가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취업시험에 있어서도 영어는 필수 과목일 뿐 아니라 영어의 지식의 합·불합격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실정이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도시행세조차 힘들게까지 되었다.

오늘날 영어는 전 인구의 10분의 1인 3억이 모어(母語)로써 상용하고 또 다른 3억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기계문명의 고도의 발달로 인류의 주거처(住居處)인 지구표면이 좁아진 오늘 세계무대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싫든 간에 영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은 정력을 소비하는 나머지 다른 면에서의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정서적 혼란의 결여로 편협한 인간성이 형성된다면 학생 자신뿐 아니라 민족문화의 장래를 위해 지극히 불행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최소의 정력과 시간으로써 최대의

요인으로써는 경제적 수탈을 주목적으로 한 왜곡된 국제독점자본의 침략과 농민적 토지소유의 건전한 확립을 위한 사후관리가 결여된 8·15 직후의 미봉적인 토지개혁과 제2차 산업 발전의 후진성 그리고 농민의 희생을 주도대로 한 자유당, 민주당 정권의 비정(秕政)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결과로써 천연적으로 협소한 농지에 얽매인 농민은 더욱 위축되어 갔으며 나중(奈終)에는 방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되어 영농의욕마저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농업경영의 근대화는커녕 도리어 생산의 비합리화를 초래하여 농업생산은 영영 영리성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풍년이 들면 곡가(穀價)는 대폭 하락하여 생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 흉년이 들면 생산량의 감소로써 의례히 맥령기(麥嶺期, 보릿고개)에는 기아절량(饑饉絶糧)에 신음하여야 하는 것으로 체념하여 입도선매(立稻先賣)가 아니면 해마다 누중(累增)해가는 고리채(高利債)나 먹고 살아왔던 것이다.

혁명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의 참상을 구제함과 아울러 그의 체질개선의 바탕을 조성하기 위한 초보적 단계로써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 농산물가격 유지법의 제정 공포, 영농자금의 과감한 방출, 비료배급의 개선, 농업협동조합의 개편 육성, 농업교도사업의 강화 등 일련의 농업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한 바 있다. 이 시책은 약간의 효과를 나타내어 작년도 국민소비생활수준에 관한 한국은행조사에 의하면 도시의 소비수준이 실질상 27% 저하(低下)된 데 반하여 농촌의 그것은 11.99%나 향상하였다. 물론 해방 후 처음 맞은 대흉년의 덕분도 있었지만 여실히 농촌에는 서조(瑞兆)의 빛이 깃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글자 그대로 서조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총인구의 62%를 점거하고 있으면서도 농민은 상급(尙今) 전 국민의 식량수요량을 산출하지 못하고 연년(年年)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약 5백만 석 이상의 외곡(外穀)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으며 더욱이 농가생활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서울시민의 1개월 간 1가족 당 평균 소비량 지출이 9만8천환(圓)인데 비하여 농촌의 그것은 그의 절반도 못 되는 4만 6천환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여기에 기본적인 농촌의 체질개선이 요망되는 바이다. 그에 더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요구하는 경제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서두에서 논한 바 있지만 그 근본바탕이 될 거대한 강매력(講買力)을 포용하고 있는 농촌의 체질개선 환안해서 농업혁명은 실로 지급(至急)을 요하는 중대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업혁명 없이는 경제혁명을 이룩할 수가 없고 그와 반대로 농사혁명도 역시 경제혁명 없이는 이룩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둘은 둘이면서 하나이다.”라고 단정을 내린다.

요즘 혁명정부가 최대의 힘을 경주하여 농업혁명의 Model case로서 새마을 건설 또는 모범부락 건설에 몰두하고 있는 소이(所以)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 모범부락 건설에 있어서의 주요착안점을 살펴보면 농협 및 4H 구락부를 주동(主動)으로 하여 무축미백 중심의 주곡농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양봉, 버섯재배, 계(鷄), 토(兔), 돈(豚), 유우(乳牛), 농경용 축우(畜牛)의 사양(飼養, 사육) 등 유축화(有畜化)와 다각경영 및 농지기아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어 학습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다른 어느 책보다도 영어참고서를 많이 끼고 다니며 명·무명의 출판사가 내어놓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영어참고서는 서점의 서가를 그 어느 책보다도 넓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참고서들 중에는 저명하고 양심적인 교수의 노작(勞作)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사용하는 참고서를 실정에 적, 부적합에 상관없이 그대로 번역한 것(外國語는 우리말과 특징의 차이를 비교하며 배우는 것이 능률적이다)이 있으며 심지어는 수십 년 전 일인(日人)들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영어는 발전하여 왔고 또 발전하고 있다)까지도 서가에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어참고서의 대문짝만한 광고가 신문지면을 아니 차지하는 날이 거의 없으며 그러한 광고에는 의례히 한국교육계 원로급 학자들의 추천사가 약방문(藥方文)처럼 게재되거나 또는 그러한 추천사가 책에 붙어있음을 의미하는 큼지막한 굵은 고딕체 활자가 박혀있게 마련이며 그러한 책들의 거개가 문법을 위주로 하는 참고서들이다. 사실상 많은 영어교수들은 대부분의 영어시간을 문법을 가르치기에 충당하고 나서는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월등한 영어실력이나 길러준 듯이 만족해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어를 배웠으되 절름발이 영어를 배웠기 때문이다.

영어 뿐 아니라 무릇 모든 언어가 기술(記述)과 구술(口述)의 두 가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라틴어(羅典語)와 같이 기술어로서만 존재하는 사어(死語)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미개지역의 여러 민족이 사용하는 것 중에는 구술언어로서만 존재하는 언어도 있기는 하지만 문화민족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술과 구술의 두 가지 언어로써 구성되어 있는 것이며 또 이러한 기술과 구술의 두 가지 언어는 라이팅과 리딩 및 스피킹과 히어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라이팅과 리딩만을 가르친다는 것은 좀 생각하여 볼 일이며 하나의 언어를 학습하는 능률면에서 보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감각기관(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며 귀로 듣고 손으로 쓰는 등)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더구나 외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딱딱한 문법을 위주로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할 뿐 아니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인 것이다.

일찍이 구라파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야스퍼스도 말한 것처럼 무릇 문법은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하고 나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사실상 영어 학자가 되고자 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흔히 우리네들이 사용을 위해 배우는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인 것이며 자동사가 어땡고 타동사가 어떠하며 주어가 어땡고 보어가 어떠하다는 식으로 문법을 이론적으로 따져서 습득되는 것이

완화(緩和)하기 위한 토지확대사업 그리고 원시농업을 타파하기 위한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민생활의 합리화 등을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생산력의 증대와 농업소득의 증진을 자초(自招)해 보자는 데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농업의 구조적 특질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소지(素地)를 마련해보자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근대화를 전국적으로 보편화시키려면 그와 같은 국부적(局部的) 내지 근시안적인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점차적으로 농업의 협동화 및 농업생산의 공동화에의 이행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이다. 물론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하는 소련식 집단농장예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엄연히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도로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유농토가 이곳저곳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산재해 있고 원시적인 생산수단과 영농기술밖에 갖추지 못한 무축 영세농가로서는 힘 안들이고 농사의 교환, 분합(分合), 정리가 간단히 이루어지며 노동능률의 향상으로 다각경영도 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예시하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땅히 트랙터 혹은 경운기 등을 도입하여 기계화하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현 소유농지분포상태 및 영세적인 현 농지경영규모로써는 그 예용(例用)이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수입(仕入)가격 역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공동화가 손쉽게 해결하여 준다. 요는 근본적으로 철저한 구조상의 재편이 있어야만 농업혁명은 달성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혁명으로 찬란한 앞날이 기약될 것이다.

(三) 인구조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목표달성을 간접적으로 촉진하여주는 요소로써 근간 그 실시를 범국민 운동화하고 있는 가족계획을 무시할 수는 없다. 대저 저개발국가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무자비하리만큼 격심(激甚)히 팽창하는 인구의 가속도적 자연증가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국민소득은 불과 64불, 농가호당 평균경지면적도 0.8정보(町步)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인 반면에 인구의 자연증가만은 매년 700만 명으로써 인천만한 도시가 해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실정이며 약 20년 후에는 현재의 배인 5천만 명을 넘어다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연증가가 우심(尤甚)한 현 실정에서 고식적(姑息的)인 농지확대사업 혹은 수확둔감(收穫遁減)의 원인이 작용되는 토지생산력, 잘 되어야 1년에 몇 백 석, 몇 천석 밖에 실현이 안 될 이민계획 같은 정책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야말로 실로 형용하기조차 힘든 심한 국민식량의 부족과 국민소득의 상대적 감소 및 토지기아 등을 자초할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인구조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현재 가족계획을 범국민 운동화 하여 그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은 가상(嘉尙)할 바이나, 그 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한걸음 더 나아가 엄격하고 세밀한 법(생아제한법) 제정 실시가 요망되는 바이다. 혹자는 자연의 섭리에 수행하는 것으로 또는 성도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1929년 세계공황 후 구미 제국에서 실시한 지나친 생아 제한과 같은 종류의 것이 되어 그 출산율은 장차 극단적인 인구감소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 밑에 반대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술한 바와 같은 중대사태가 현실화함으로써 입게 될 피해의 정도와 저울질해 볼 때 그 비중은 너무나 경(輕)하다고 단정(斷定) 아니할 수 없다. 다산과 궁핍의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하고 생활을 개선하여 건전한 근대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오직 현대인은 과감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의 중앙 때문에 고민하던 인도와 일본은 벌써부터 생아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1956년부터 시작한 제1차 산아제한 5개년 계획에서 1,050만 불의 예산을 소비하고 있으며, 한편 일본에서는 1947년에 일본산아조절연맹(日本産兒調節聯盟)이 조직되고 54년에는 일본가족계획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세계최초로 정부가 산아제한법을 채택하여 연간 일화(日貨) 4,000만 엔~5,000만 엔(한화(韓貨)로 약 2억)의 국고금을 지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다.

바야흐로 산아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는 메아리 소리는 세계 도처에 번져가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이 추세는 반드시 세계인류사적 조류로 변해갈 것을 의심치 않는 바이다. 온 국민은 이 조류에서 밀려나 다시는 후진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이 고식(姑息)과 편견을 버리고 과감하게 그 실시에 앞서 나아가야만 하겠다.

아니라 하나의 습관을 불일 때 하는 것처럼 반복 연습함으로써 비로소 습득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운동에 있어서와 같다.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평영(平泳)이 어떠하고 배영(背泳)이 어떠하다는 것을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강물에 집어넣었다고 하자! 이 학생이 빠져죽지 않으리라 안심하고 돌아설 수영교사가 있을까?

초보자를 위한 수영교본만을 읽고 강물에 뛰어든 자가 있다면 웃을 것이며 더구나 그런 자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수영은 배웠는데 몸이 뜨지 않는다.”고 한탄한다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으리라.

하루속히 한국에도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언어교육시설과 보조교재가 확보되어 최고학부를 나오고도 외국인을 대하면 얼굴만을 붉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더욱이 영어는 유창하게 지껄이는데 지나치게 영어에만 시간과 정력을 기울인 나머지 그러한 유창한 영어를 매개체로 외국인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민족의 이름으로 얼굴을 붉히게 하는 경우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군인(軍人))

三. 결론

우리는 여상(如上)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역사적 의의와 기본목표 및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과 조직을 통해 그 도정(道程)을 명시하고 실시를 설득 시키려 하여도 결국 이것을 실천에 옮겨 추진해 나가야 할 주체인 국민이 이 시책을 정확하게 목적한대로 시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왕성한 도덕적 책임감에 의한 자율적인 호응을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의 묘(妙)를 기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허망한 것으로 되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에 즉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자립경제성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요체(要諦)로서 현재 국가에서는 국민재건 또는 인간개조를 먼저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건이나 개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간형이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자율적인 생활태도 내지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의에 헌신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주인다운 숭고한 자세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우리가 과거에 지녔던 망국적인 사상적 자세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한 방종과 무책임, 허장성세(虛張聲勢)와 독선, 의타심(依他心)과 비굴, 나태(懶怠), 모략, 협잡, 행패, 낭비 등을 모조리 일소해버림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

현재 지적지간(咫尺之間)에서 오직 조국의 경제 질서 파괴는 물론 조국의 독립마저 유린하려고 날뛰는 북한 공산독재의 광란, 나아가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몇십년 앞서가는 선진문명국가들의 고답적(高踏的)인 자세를 상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재건의 임무는 중차대하고 지급을 요하는 것이다. 즉 남이 잠잘 때 일어나 일을 하여야 하고 남이 걸어가면 뛰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함이 없이 하루 속히 철저한 자기비판과 개과천선으로 '인간개조'를 단행하고, 경제적 국가재건의 시발점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최선을 다하여 밀고 가야만 하겠다.

속고건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번 제1차만으로써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2차, 제3차 계획 즉 한국경제가 자립할 수 있고 나아가서 공산침략을 물리치고 국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더욱 완성된 인간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랜 성상(星霜), 세월, 햇수(日數)을 지나는 동안 권태와 역정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국민각자는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내지 않도록 전우로서의 신뢰와 격려로 서로 도와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굳게 뭉쳐 나아가야 한다.

특히 혁명대열에 앞장서서 그 대열을 이끌고 왔던 군인은 앞으로도 이 혁명대열을 계속해서 오직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끌어 나아가야만 한다. 모름지기 모든 군인은 국민이 신뢰하여 따라갈 수 있는, 환인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혁명대열에 참가하게끔 할 수 있는 지도력을 겸비한 참다운 군인의 자세를 항상 보지(保持)하도록 철저한 인간개조가 역시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과거에 흔히 그러했듯이 국민과 부하를 확대·멸시하고 무차별 호령하는 상전적(上典的) 태도, 상관에게 아무·추중하는 노예적 근성,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자세 행사는 이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몸을 사생(死生) 간에 두어 외적의 침략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승의 신념으로 훈련과 전투력 강화, 책임완수와 근기확립, 예의엄수와 일치단결, 청백한 품성도야와 물자의 애용, 국민일치 자유우방과의 우의돈독 등 군인으로서의 길을 철저히 명심 이행해 나아가야만 하는 동시에 군문을 떠나 일반 사회에 복귀했을 때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 및 문화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적함양까지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인간개조는 스스로 이루어지며 능률한 참다운 군인의 자세가 비로소 확립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경국제민은 명실공이 완전히 실현된다.

(끝)

◇ 시체의 밀사(密使)

제2차 세계대전이 무르익어가던 1943년 4월 말 미·영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의 사막에서 힘을 다하여 밀고 들어갈 때 스페인 해안에서 영국 육전대 소령의 시체가 표착하였다. 그 이름은 윌리엄 마이틴. 독일 첩보기관이 이것을 조사한 결과 런던의 영국 최고사령부로부터 아프리카 전선의 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연합군은 머지않아 시실리에 공격을 개시하겠지만, 이것은 적을 기만하려는 양동작전(陽動作戰)으로써 미·영의 주력부대는 회랍에 대하여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 문서를 보게 된 히틀러와 그의 막료들은 세밀히 검토한 결과 틀림없는 진짜로 판단하고 남쪽 프랑스의 수비를 맡고 있는 제1 기갑사단을 위시해서 독일군의 주력이 구라파의 산과 들을 횡당하여 회랍으로 급행하였다.

이것을 본 미·영 연합군의 주력은 시실리를 공격하여 이탈리아 본토 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육전대 소령이라는 정체는 런던의 병원에서 폐렴으로 죽은 청년이다.

이것을 밀사처럼 꾸며놓은 영 해군 첩보장교 몬타규니 소령이 지난번 「허수아비 남자」라는 책을 내어 처음으로 진상을 밝힌 것이다.

오밤중에 시체의 밀사를 잠수함에서 해변으로 띄웠던 것이다. 물론 윌리엄 마이틴이라는 것은 허위명이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항공기의 조종석에 앉았다. 앞좌석의 조종사는 적탄에 맞아 부상을 입고 기절했으며 항공기는 기수(機首)를 중공(中共)으로 향한 채 적지상공을 전 속도로 날고 있는 것이다.

By Maj. Joseph Patrick Rene Tremblay, M. C.

북한 정탐비행

1951년 7월 1일의 한반도의 일기는 쾌청하였으며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택기지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나와 함께 비행기에 오를 조종사는 미국 텍사스 주 출신의 공군대위였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복좌(復座)의 T-6, 허버드 정찰기였으며 비무장의 동기(同機)는 몇 개의 연막 로켓과 함께 보조연료탱크를 달고 있었다.

그 날 우리의 비행 목적은 캐나다 육군의 보병 연락장교였던 나의 공중정찰실습을 하는 것이었다. 그날까지 나는 미군 조종사들과 함께 5일 간의 지상과정을 끝마치고 전선을 비행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윌트는 나를 뒷좌석에 앉도록 했다. 윌트는 백여 회 이상을 출격할 하늘의 용사였다. 몸집이 크고 건장하며 호남형의 윌트는 야구모를 쓰고 있었고 내가 상상하던 전형적인 텍사스 인이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오르기 30분 전에 인사를 나누었지만 어느새 서로 윌트와 팻트라고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친숙해져서 그와는 어디라도 함께 날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그 전에도 수송기를 타고 낙하산 강하를 한 적은 있었지만 항공기 조종석에 앉아보는 처음이었다. 조종석에 틀어박힌 나의 앞은 휘황한 계기판이 가로막고 두 다리 사이에는 끈을 시켜면 고무로 씌운, 빗자루대 같은 것이 솟아 있었으며 윌트는 그것을 이중(二重) 조종간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윌트가 조종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에 나는 잘 듣는 척했으나 사실은 설명을 한쪽 귀로는 들으면서 다른 쪽으로 흘려버렸으며 앉아서 불의에 무엇이든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나는 목에 망원경을 걸치고 지도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으며 레몬주스가 든 물통을 가지고 있었다.

나와 윌트의 조종석은 6피트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는 다만 윌트가 쓰고 있는 야구모와 그의 붉은 목달미가 보일 뿐이었다. 나는 윌트가 지휘탑과 연락하는 것을 내부 통화장치를 통해 들었으며 몇 분후 우리는 1,000피트의 고도에서 전선을 향하여 북으로 날고 있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한국이 지형은 다르지만 나의 고향인 캐나다의 퀘벡처럼 평화스럽게 보였다. 앞은 산들이 남북으로 뻗었으며 그 사이로 UN군의 주보급로들이 있었다. 서쪽으로는 끝없는 황해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있었으며 주보급로를 따라 전선을 향하여

비행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는 듯했다.

한 시간 가량 비행했을 때 윗트가 바른 손을 들어 밑을 가리켰다. “저것이 서울이고 김포비행장일세.”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파괴된 한국의 수도 서울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서울 이북에서부터는 지형이 차츰 험해졌고 포격의 흔적이 사방에 보였다. 얼마 후 우리 밑에는 입진강이 보였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아군과 공산군이 대적하고 있었으며 인기척 없는 적지에는 움직이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

윗트가 멀리 북쪽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펫트! 저기서 무엇들을 하나 가보세.”라고 말하는 그의 음성은 마치 자기 고향인 텍사스의 산이나 가리키듯이 침착했다.

그 당시 나는 10년이나 군대생활을 하였었지만 그때처럼 기관의 폭음으로 내숨을 알리면서 대낮에 적진에 뛰어드는 어처구니없는 전투를 하여 보기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알맞은 사격목표였다. 나는 우리의 비행기를 노리는 총구가 몇 개나 될까 하고 상상하여 보았다.

이러한 잡념은 앞에 앉은 텍사스 친구 때문에 나는 곧 잊고 말았다. 우리는 산등성이들 위를 마치 굽주린 독수리처럼 휩쓸었으며 그러는 동안에도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목표들을 윗트는 용케도 살살이 발견했다. 윗트는 마이크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나는 필요한 사항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 나갔다.

실전기(實戰記)

그것은 상당히 흥미 있는 일이었으며 차차 나는 초인간 같은 감이 들기까지 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지.”하고 윗트가 말했을 때는 돌아가기가 서운할 정도였다. 바로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심한 충격을 받았다. 번쩍 하고는 굉장한 폭음과 함께 우리와 급속 파편이 튀었다. 순항하던 비행기는 그 순간부터 미친 말 뛰듯 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나는 윗트의 머리가 뒤로 제쳐지고 팔이 조종석 양쪽으로 늘어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밑에서부터 보조연료탱크의 바로 옆을 뚫고 기체에 들어온 50밀리 기관포 탄이 전방 좌석 바로 뒤에서 폭발하며 기체(機體)에 치명적인 파손을 입혔던 것이다.

비행기가 급방 조각이 날 것만 같아서 나는 “윗트! 괜찮아? 알아 들었어? 뛰어 내릴까?” 하며 마구 물었다. 애타게 얼마동안 조바심 했을 때 윗트가 “펫트 비행기를 조종하여 보게.”하며 힘없이 뇌까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아찔했다.

나는 겁도 났으려니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나는 조종이라고는 조종간을 앞으로 당기면 비행기가 상승하고 밀어제끼면 하강한다는 것 밖에 몰랐다. 그러나 더 이상 생각할 틈도 없었다. 산봉우리가 눈앞에 닥쳐왔던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는 덮어놓고 조종간을 잡아 앞으로 당겼다.

우리는 태풍을 만난 고래처럼 위로 솟구쳤다. 비행기가 마구 흔들리기는 했지만 여하튼 이제는 지상에서 상당히 올라갔다.

이번에는 조종간을 앞으로 약간 당기자 어찌된 셈인지 바른쪽 날개가 올라가고 왼쪽날개가 내려갔으며 나는 비행기가 뒤집히는 줄만 알았다. 당황한 나는 조종간을 다시 제자리로 당기며 “윗트, 정신 차려!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며 소리쳤다. 윗트는 여전히 꿈쩍 않는다. 그러자 나는 나의 발밑을 흐르는 피를 보고는 더욱 당황했다. 윗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다 몸이 오싹해졌다.

그러나 나는 다행히도 차츰차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조종간이 전후로만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도 조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조종간을 우측으로 누히면 우측 날개가 내려가고 좌측으로 누히면 좌측날개가 내려갔다.

얼마 후 우리는 다시 수평비행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넘실거리는 바다가 좌측에 있었으며 우리는 중공을 향하여 직선으로 날고 있었던 것이다.

비행기를 어떻게 선회시키나? 계기판을 보면 도움이 되려나 생각하고 나는 고개를 돌려 보았다. 계기판은 산산조각이 났고 계기는 하나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밑을 내려다보니 두 개의 페달이 오르간의 그것처럼 나란히 있었다. 시험 삼아 왼쪽 페달을 밟으니까 비행기가 급작스럽게 스키딩을 했다. 얼마동안 애쓴 끝에 비행기를 다시 수평으로 하고는 수평선을 둘러보았다. 착각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잠시 동안의 스키딩으로서 비행기가 중공으로 행하던 기수를 약간 돌린 듯하기도 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또 한번 스키딩을 하고는 비행기를 다시 수평으로 했다. 그러자 나는 나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실제로 비행기는 약간 반시계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던 것이다. 조종간을 왼쪽으로 제껴서 비행기를 기롭게 조작하는 것을 알았던들 급방 선회를 할 수 있었으련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수를 돌리는데 무려 15분이나 걸렸다. 스키딩과 원상복구를 수없이 되풀이하여 드디어는 기수를 중공과 반대방향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윗트, 이거 봐!”하고 부르고는 “우리는 남쪽으로 날고 있어.”하고 소리 쳤다.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고 꿈쩍하지 않았으며 나는 다시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적지 깊숙이 날고 있었으며 언제 또 포격 당할지 몰랐다. 윗트는 살았을까? 그가 만약 죽었다면 아군 진지에 닿는 대로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윗트가 죽었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꿈쩍않고 늘어졌던 윗트의 왼팔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목을 아래위로 흔들었다. “말할 수 없어? 어때? 말 좀 해봐.”하고 나는 소리쳤다. 어째서 대답을 아니 했을까? 그때

<공군 장병에 드리는 편지>

하늘을 누비는 오빠들께



유민이(劉敏伊) (숙명여대 국문과생)

숨털구름이 펼쳐진 하늘로 여덟 대의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열하는 8월의 태양을 꿰뚫으며 나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통쾌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비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캐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검은 눈망울을 수없이 굴러가며 하늘을 쳐다보는 걸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검은 눈망울을 수없이 굴러가며 하늘을 쳐다보는 걸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아직도 비행사의 꿈을 간직하고 있지만 비행기술과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꿈만 꾸는 지금은 비행사는 나오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푸른 유니폼에 멋진 몸매를 한 분들을 뵈을 때마다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하늘에의 동경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쉰—또 네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치솟고 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비행기가 하늘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더운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늘을 나는 용사들이여!

나는 우리 비행기가 적 포탄에 피격되었던 당시의 나의 놀란 행동으로 인하여 내부 통화 장치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

윗트가 맞은 두발의 탄환 중 하나가 그의 척추를 마비시키고 또 하나는 위를 관통하여 윗트가 심한 출혈을 한 것도 물론 몰랐던 것이다. 그 당시의 윗트로서는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노릇이었던 것이다.

나는 왜 그가 바른손으로나마 신호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는 조종간을 다시 조작할 수 없을까? 때때로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나도 모르게 조작되기도 했으며 내가 조종간에서 손을 떼어도 얼마동안 비행기는 그대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조종간에서 손을 떼기가 무섭게 비행기가 곧장 바다로 돌진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럴 때면 윗트가 주기적으로 무의식의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동안 악몽 같은 순간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입진강이 눈 안에 전개되었으며 이제는 적어도 적지에 추락하지는 않게 되었던 것이다.

전선을 지나가면서 나는 이제 평택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평택을 찾아가면 무엇한담?

출혈과 충격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윗트가 기적이라도 생겨서 착륙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속도조차도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는 나로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물론 동체착륙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동체에 연료가 가득 차있는 보조연료 탱크를 달고 몇 개의 로켓까지 장착한 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날며 그대로 동체착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윗트가 머리를 움직이고 손을 들어 왼쪽으로 등글게 젖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기수를 돌리는 것일까? 평택까지는 아직도 백여 리나 남았는데 왼편으로 기수를 돌리라는 것일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약간 일으키고 밖을 내다보았다.

밖을 내다본 나는 우리 밑에 펼쳐져 있는 서울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 옆에는 김포 비행장도 보였다. 그때까지 나는 김포 비행장이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곧 항공기가 스키딩을 하도록 조작하여 힘에 겨운 선회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엔진소리가 이상해졌음을 느꼈고 이어서 윗트가 조종간을 조작하고 있음을 알았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것을 느끼며 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바로 몇 마일 앞의 넓직한 콘크리트 활주로가 촛살같이 눈앞으로 닥아들었다.

“괜찮아?”하고 나는 소리쳤다. “연료탱크와 로켓은 어찌됐어?” 윗트가 나의 이러한 말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미 연료탱크와 로켓을 떨어뜨려 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땅위를 낮게 촛살같이 날고 있었다. 그때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긴장하고 있었으며 언제 어떻게 땅에

당신의 조국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착한 이웃들에게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당신들을 향하여 뜨거운 기도를 언제까지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을 아끼는 소녀들이 당신을 위해서 수줍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씩씩한 얼굴과 건강한 체구로 해서 마음 놓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높고 푸른 하늘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저 하늘을 생명처럼, 당신의 애인같이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젊음이 하늘 위에 있고 정열과 낭만이 그곳에서 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뒤에 있는 우리들 역시 당신들 못지않게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신과 또 우리들의 피어린 노력 위에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늘의 용사들이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들의 훌륭한 기술과 지성과 교양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군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 ○
 우리나라를 다녀가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하늘을 얼마나 갖고 싶어합니까.
 푸른빛을 잃지 않는 하늘 위에 당신이 사랑하는 비행기로 당신의 비행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늙름한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겨레의 가슴엔 기쁨이 충만합니다.
 당신들의 비행운(飛行雲) 뒤에는 언제나 당신들을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땅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또 다시 윗트의 머리가 쳐졌다. 그는 다시 정신을 잃는 것일까. 처음 피격되었을 때처럼 되고 말았
 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윗트가 다시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 다시 비행기를 상승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윗트가 여전히 조작하고 있으려니 믿으면서 그대로 있을까?
 나는 조종간을 다시 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비행기는 땅에 닿았다. 역시 윗트는 비행기를 조작하고 있었
 으며 비행기를 활주로 중간에 대었던 것이다. 다시 땅에 돌아오게 된 즐거움을 하느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제대로 활주를 계속했으나 윗트의 두발은 마비가 되어 러더와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없었으며 비행기는 활주로를 쏘살같이 벗어나서 거친 들판을 돌덩이처럼 내달았고 얼마 후 바위가 돌에 걸
 리면서 부러져 구름같은 먼지를 피우며 동체가 땅위를 미끄러진 후 이윽고 멎었다.
 엔진에서는 구름 같은 연기가 오르고 순식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날개 위로 몸을 뺐다. 윗트를 끄집
 어내면서 그의 바지가 피에 젖어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두 팔을 그의 겨드랑이에 낀 채로 함께 날개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곳에서 윗트를 끌고 몇 야드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나의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옆
 에 늘어졌던 나의 귀에 “마실 것 좀 줘!”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실 것! 그 당시 얼빠져 있던 나의 머리에는 레몬주스를 담은 물통 생각이 났다. 나는 비행기에 다시 뛰어
 가서 물통과 망원경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와 윗트의 목을 주스로서 막 적셔 주었을 때 소방
 차가 도착하였고 동시에 비행기에 불이 붙었다.
 내가 만약 이 글을 1951년에 썼던들 이글은 하나의 비극으로써 끝맺어졌을 것이다. 나는 소속연대에 돌아갔
 을 때 윗트가 척골부상으로 인하여 캘리포니아 기지병원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 들었으며 그 후 10년간
 죽었으려니 생각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글을 쓰기 위해 그의 출생지인 텍사스주의 람파사스 마을의 읍사
 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죽다니요? 천만에요 그는 살아있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되기는 했지만 그는 결혼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딸도 둘이나 되지요. 람파사스의 사람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백여 회의 전투출격 용사는 결코 50마리 기관포탄 몇발 정도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
 았다. 나는 존경하노라!
 (라이더스 다이제스트 6월 호에서 - 민철웅)



으하! 시원하다



뭐? 김일성 요놈!



올드미스는 아니에요!



날씨도 좋은데 한잠 자고 가자

미사일

인생 안내

아만만잡

이상호



문(問) 취침 전에 점호만 있는 날엔 꼭 자리에 오
좀을 싸요?
답(答) 휴가 가서 어릴 때 쓰던 기저귀를 가져다
차고 자도록 하시오



문(問) 사진만 보고 약혼을 한 후 만나보니 한쪽
다리가 좀 짧아요?
답(答) 결혼 후 같이 외출하자고 조르지 않을 테니
오히려 마음 편할 것입니다.



문(問) 이발소에서 면도를 할 때 여자가 해주면
마음이 이상하셔요?
답(答) 당신이 남자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문(問) 아침밥을 먹고 점심시간만 되면 배가 또
고파져요?
답(答) 어머니 젖을 떨어질 때 밥을 먹는 나쁜(?)
습관 때문이요

알기 쉬운 <회화>·<음악>·<영화> 감상법

…… 제 3회 ……

회 화

송병돈(宋秉敦) <서울대 미대교수>



(자화상-세잔)

오늘에 있어서 현대회화의 위치는 상당한 가치와 우위의 평가를 보내고 있다. 현대회화라고 하면 20세기 이후의 모든 조류(潮流)의 사색과 행동을 같이하는 회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 세기 전의 미술은 미술이 아니었던가 라는 것은 아니다. 예술적 미의 근본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표현의 이념과 형식이 달랐고 생활의 체취와 행동이 현실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현대 회화의 성격이다. 그래서 요즘 그림이라는 것은 예전 꺼와 다를 이치(理致)이다. 요즘 생겨 나오는 그림을 소위 현대회화라고 하는데 현대인이 현대회화를 감상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현대인의 긍지일 것이다.

현대회화로서의 실마리를 풀어 준 것이 세잔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발견하고 주장하는 골자를 재언(再言)하면 화면을 꾸며 나아갈 때에는 즉 회화의 요소라는 것 구성(構成)·색채(色彩)·필촉(筆觸)·조화(調和) 등 이것들이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이것들 자체를 잘 살리고 못 살리는 데에 성과의 여하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것들 중에서 공간을 구성할 때에 물체의 양감(量感)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촉에서 어떻게 하면 그 리듬을 운치 있게 멋을 부릴 것인가 이 필촉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회화의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안정된 지반 위에 열매를 맺은 원숙한 예술이 통일을 이루고 질서가 잡힌 중심으로 집결해서 형식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대하여 모던 아트는 재래의 전통을 타파하고 시각구조의 분해 형식 붕괴의 길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 특징은 예민한 감각성과 조형적 구성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시적인 환상이라는 것도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게 되어 왔다. 그리고 선(線)·면(面)·색채(色彩)는 그것들 자신으로써의 중요한 담당을 해서 단편적인 환상과 상념이나 기억 같은 것도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 가지고 나아온다. 여기에서 20세기가 지니고 있는 복잡한 인간감동의 표백(表白)이 있고 사회적 배경에 통하는 미묘한 정신불안과 회의와 부정의 혼연한 표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회화의 창시자 세잔은 현대의 여러 유풀을 낳게 한 근원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그의 근본적인 화론 “자연은 원통(圓筒)·구(球)·원추(圓錐)로 환원

해서 그린다"라고 하는 관찰방법이라든지 "자연은 표면보다도 자연의 심오한 곳에서 예술성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자연의 대상을 기본적인 형태로 집약해서 화면에다가 새로운 순수회화성을 구축해 나아가는 태도를 밝히고 따라서 공기의 원근감을 색조의 변화에서 오는 뉘앙스로 표현함으로써 여기에 추종하는 인상파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젊은 세대의 화가들은 세잔의 화업(畫業)의 새로운 의의를 점차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잔의 화업이 진실로 현대회화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입체파라는 운동이 일어난 그 뒤의 일이었다고 입체주의는 물론 세잔의 화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긴 것은 확실한 것이다. 이리하여 그 뒤를 잇달아서 몇몇 가지 유파라든지 또는 가장 현실의 세계성을 띄우고 있는 추상회화는 여기에서 암시를 받았고 근원을 두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뒤따라 일어난 입체주의 '큐비즘'이라는 것의 발전에 대해서는 대개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제1기는 세잔의 영향을 직접 받아가지고 나아간 초기 큐비즘의 시대인데 이 시기에는 순전히 회화의 기하학적인 단순화를 지향하여 세잔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는 구와 원통과 원추형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직선의 대담한 도입으로 화면의 구성을 해서 주로 대상의 요약적 표현으로 이끌고 나아갔다. 이러한 것이 당시 청년화가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준 것은 이때의 전례를 이룩하였던 기성적이면서 형식과 내용이 침체하고 거기에다가 야수주의라는 격렬(激烈)한 주장주의(主義)와 그 무절제한 일탈에 대한 반동과 비판이 그들을 끌기하게 하여 새롭다고 하는 주지적 경향으로 유도한 것인데 처음에는 오히려 세잔이즘의 이름 아래에서 포괄적인 회림과 구성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상) 수목(水浴)……세잔
(하) 풍경(風景)……고흐

큐비즘의 제2기는 차차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되어서 1909년부터 평론가들은 이때를 사변적(思辨的) 큐비즘 혹은 과학적 큐비즘의 시대라고 불렀다. 이러한 이름을 붙이고는 다음에 오는 제3기의 사실적 큐비즘과 대칭되는 말인데 이 시기에는 큐비즘은 극히 사변적 논리적인 경향을 더듬어서 회화의 직감적 내지 시각적 특징을 거지반은 극한까지 억제해 버리는 운동을 보여 주었다. 먼저 시각적인 표현을 어떻게 억제 했었나 요약해서 말하면 화가가 원근법에 따라서 물체를 투시적으로 표현하여 왔던 것을 반대하면서 즉 시각의 인상으로서 망막에 비추어지는 물체의 영상(映像)은 실제의 진실한 자태를 전하여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상 위에 놓여 있는 하나의 컵의 주둥이를 예로 들어 생각할 때에 이것이 실재는 완전한 원형인 것이지 화가가 이것을 투시적으로 보고서 타원형(橢圓形)으로 그린다는 것은 대단한 허구가 아니냐 라는 설이다. 이에 따라서 큐비즘은 회화의 공간적 시간적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혁을 보여 주었으며 큐비즘의 기본적인 골격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기운을 만들어 놓았다.

이 시기의 움직임의 성격은 큐비즘 양식의 현저한 특징의 또 하나는 화면의 철저적인 평면화 다시 말하면 거리감의 말살인 것이다. 이것은 원근법과의 절연으로 하여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지 않게 된 결과인데 공간의 깊이나 원근은 자연히 불필요하게 되고 지금까지 거리의 표현에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공기와 광선과 명암 등의 요소가 어느 것

이 시기의 움직임을 성격지은 큐비즘 양식의 현저한 특징의 또 하나는 화면의 철저적인 평면화 다시 말하면 거리감의 말살인 것이다. 이것은 원근법과의 절연으로 하여 대상을 시각적으로 보지 않게 된 결과인데 공간의 깊이나 원근은 자연히 불필요하게 되고 지금까지 거리의 표현에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공기와 광선과 명암 등의 요소가 어느 것

이나 그 의의를 상실하여 모두가 화면상에서 그 자태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혁신은 시간적인 관계의 변화에서 말하는 물체의 동시동존(同時同存)으로 표현한다는 것 다음에는 표현의 기초를 시각에서 촉각으로 전향시킨다는 새로운 주장도 하였던 것이다.

후기 인상파와 잇달아 나온 입체파 큐비즘이 그러할 무렵에 세잔과 가장 대조적인 입장에서 현대회화에로 길을 열어 놓은 위대한 화가의 한 사람으로서 반 고흐가 있다. 세잔의 조용하고도 당당한 예술과는 엄청나게 동떨어진 동적인, 분방하고 정열적인 회화의 하나의 극치가 고흐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예리하고 깊은 지적인 인간이었던 고흐의 작품에는 그 색채에 있어서나 선에 있어서나 정열적인 터치 필촉은 화면을 감상하는 사람을 황홀케 하는 투철하고 맑으며 그 구도나 화면의 골격이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으로 꼭 짚이게 그렸다는 것이다. 고전파의 심오하고 침정(沈靜)한 예술에 비할 때에 고흐의 작품은 그 날카롭고 강렬한 신경 그것이었다.

그는 항상 모진 정열을 다하여 자유로운 이상향을 찾으려는 데에 거대한 몸부림을 한 흔적이 화면의 선의 필촉을 보아서 대강 짐작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몸부림이라는 술어는 현금(現今)의 추상회화의 이상과 해설을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이다. 짧은 생애의 최후에 이르러서 폭발한 그의 정열은 화면에서 불타는 화염의 색채와 선으로 되어서 용솨솨했다.

세잔의 예술의 주조(主調)가 깊숙한 안정에 있었다고 말한다면 고흐의 회화는 그것을 거창한 유행이 넘쳤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여 고흐의 정열적인 색채와 필촉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진실과 엄격한 미의 결정체와 구성이다. 전기(前記)한 세잔과 고흐의 회화의 요소가 그 후 모든 유파를 거쳐서 현대회화에 끼친 영향은 큰 것이다. 입체주의가 역시 그러하였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해와 감상하기 곤란하다는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특히 추상회화에 쉬운 회화감상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먼저 말한 바와 같이 그저 보고 친하여지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였는데 구태여 이론을 한다면 후기인상주의의 세잔과 고흐 이외의 여러 작가의 주장을 비롯하여 입체주의에서 주장하였던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현대에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여러 유파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것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감상이 쉽게 되는 것이다. 지면관계로 추상회화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로 말할 수는 없고 이것도 시대의 조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시간은 흘러서 이것도 이미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조형예술의 형태는 앞으로 어떠한 자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평 화

김규동(金奎東) <영화평론가>

※ 영화도 땅위에 사는 사람이 만든다. 다만 불리기를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 뿐…….

A. 할리우드 적(的) 미인영화

영화에 있어서의 네오리얼리즘은 사실상 리얼리즘의 메스로 본 스토리의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여기 비쳐 주던 따뜻한 빛을

미 악

이성삼(李成三) <음악평론가>

기초 악식(樂式)(Fundamental form)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악식(樂式)일 것이다. 악식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악곡이 꾸며진 형식을 뜻하는 것이다. 이 악식에 관해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더구나 제한된 지면으로써는 설명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대략 기본적인 몇 가지만 추려서 악식이 어떻게 되는 것만을 적어보기로 한다. 기초적인 악식은 음악형식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한 개의 독립된 형식이다. 그밖에도 응용형식(Applied for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독립된 악곡을 몇 개 모아서 만든 형식이다. 이 응용형식이야말로 악곡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며 수준이 높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것은 소나타(Sonata)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동기(Motive動機)

음악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적은 독립된 단위가 동기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동기가 모여서 작은 마디(小節)가 성립된다. 말하자면 4소절의 길이인데 이것을 앞 작은악절이라 부른다.

피리어드(Period段落)

피리어드는 8소절로 된 악곡인데 큰악절을 말한다. 여기에 그 위(位)로 16소절로 된 악절은 2개의 피리어드로 되어있다. 악곡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악구(樂句)를 테마(Thema 主題)라고 한다.

그런데 때로 악곡의 처음에 전주(前奏)

아부가 있을 때는 테마가 그 다음에 나타난다. 테마는 보통 제1테마와 제2테마 등 2개가 있다. 이 두 테마의 성격은 대조적이며 앞과 뒤의 관계를 자아내는 것이다.

노래형식(Lied form 가요형식(歌謠形式))

흔히 민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래형식은 동기라고 부르는 멜로디의 단위가 엮어져 이루어진다. 노래 형식에는 다음 4개의 종류가 있다.

一. 1부 형식(A-A')

이 곡은 8소절로 된 한 개의 곡인데 제일 간단한 형식이다. 이 형식은 서로 문답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二. 2부 형식(A-A'-B-A')

이 형식은 2개의 대소절로 된 곡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양은 AABA'라든가 AABB' 혹은 A(aa) B(Ba) 등으로 되어 있다.

三. 3부 형식(A-B-A)

3부 형식이란 작은 소절 혹은 대소절 3개로 구성된 악곡이다. 또는 작은 곡 중에는 중간의 악절이 완전 중지(終止)를 하지 않고서 ABA의 형식을 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은 24마디로 된 것도 있다.

四. 복3부 형식 A(aba)-B(cdc)-A(aba)

이 형식은 응용형식의 하나로써 3부형식의 복잡한 것이다. 전체가 3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부분이 한 개의 큰악절이 아니며 수개(數個)의 대악절로 되어 있다.

五. 론도 형식 (A-B-A-C-A-B-A)

돌아간다는 회전형식인 이 형식은 무도의 노래 '론도 Rondo'에서 생긴 기악적(器樂的)인 형식이다. 같은 테마가 몇 번이고 반복하는 동안에 변화가 있는 에피소드 삽입부가 끼인 형식이다. 또한 복3부분 형식의 여러 개가 합쳐진 곡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그 주제는 세 번 나타나 그 사이에 서로 다른 에피소드가 2개나 넣어진다. 그러므로 그 모양은 ABACABA라는 형식에 지어진 것이다. 여기서 에피소드는 2개의 주요부(主要部)의 사이에 둔 자연스런 형식의 삽입부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C는 에피소드라고 할 것이다.

六. 소나타 형식

이 Sonata 형식은 악곡 중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형식인 바 일종의 규모가 큰 3부 형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3부 형식이 발전 변화한 것으로써 ABA는 제각기 제시부(提示部)와 발전부(發展部), 재현부(再現部)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것은 보통 Sonata의 제 1악장에 사용하는 형식이다.

A(주제 제시부)B(발전부)A(주제 재현부)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테마는 제 1, 제 2 테마로써 구성되어 있다.

七. 환상곡 형식(Phantastische form)

환상곡(幻想曲) 형식은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지 않고서 자유스런 형식에



↑ 육체의 악마

주 그만두는 타협의 경향을 드디어 나타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는 「애정(哀情)의 쌀」이나 「황야의 포옹」으로써 이름을 떨쳤던 「주짓빠 산티스」는 마침내 그와 같은 작품 경향을 버리고 영화사와 타협하여 「연애시대」와 같은 오락 작품을 만들고 말았다. 「데 산티스」는 「황야의 포옹」에서는 농장의 개척단을 크게 등장시켜 지구와의 투쟁을 그렸다. 「애정(哀情)의 쌀」에서는 수전지대의 부인 노동자들을 취급했다.

그러나 그가 「연애시대」에서 취급한 농촌의 생애는 아주 다르다. 농민의 낱아빠진 관습으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릴 돈이 없는 가난한 여인들이 마을을 빠져나감으로써 이 사랑의 행각이 교회에서 식을 올리게까지 되는 과정을 희극미에 넘치게 묘사(描破)하기는 했으나 이 희극미라는 것이 그 안에 담은 내용에 이르러서 허탈할 것 없는 해피엔드로 막을 내린다는 것은 종래에 없는 네오리얼리즘의 타협이라 하겠다.

농민들의 노동이나 경제생활이나 타산이나 생활양식 같은 내용새와 맞은 어느 정도

의해 작곡하여 풍부한 환상을 지닌 곡이다.

八. 국민 형식의 악전(樂典) 소나타(Sonata)

앞서 소나타 형식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거니와 소나타와 소나타 형식은 다르다.

소나타는 기악곡 중에 주로 독주곡으로 지어진 형식이다. 소나타 형식은 대개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소나타의 제1악장에는 소나타 형식을 쓰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2개의 테마를 가진 형식인데 대(大) 바하의 아들 엠마누엘 바하의 노력에 의해 지어졌으며 하이든이 나타나 이를 완성시켰다. 하이든은 이를 4악장으로 확립시켜 현악을 위하여 쓴 교향곡을 만들었다.

또한 현악 4중주와 피아노 3중주곡 등을 작곡하여 실내악곡을 지었다.

소나타(Sonata)

제1악장 빠른 악장 소나타 형식, 제2악장 느린 악장 자유스런 3부 형식, 제3악장 미뉴엣 혹은 스키타로쎬 겹 3부(Trio)형식, 제4악장 프레스토 론도(Rondo) 형식

위에서 말한 악곡 이외에도 자재로운 곡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을 추려서 설명한다.

콘체르토(Concerto 협주곡(協奏曲))

흔히 바이올린 콘체르토 피아노 콘체르토 이렇게 말하는데 이곡은 하나 혹은 둘 셋의 독주악기와 관현악을 위해 작곡한 악곡인데 독주자의 연주기교를 나타내기 위해 작곡되어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는 소나타 형식인데 3악장으로 된 것이 많다.

그런데 소나타 형식이 재현부의 앞에서는 코다 결미(結尾)의 앞에서 테마에 기초를 둔 자유스런 기교적인 독주자만이 연주하는 카덴자(Cadenza)가 있다.

이것은 옛날에는 독주자 자신이 자유롭게 작곡하여 연주했는데 후에는 작곡자가 겸하여 이를 작곡한다.

교향시(Symphonic poem 교향시)

이 곡은 표제음악의 중요한 종류의 하나인데 교향곡 또는 시적인 내용을 교향관현악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 교향시는 19세기의 낭만과 음악 이후에 생긴 음악이다.

모음곡(Swite 조곡(組曲))

이 곡은 한 개의 독립된 몇 가지의 곡을 모아 놓은 곡이다. 그런데 이 모음곡은 여러 악장의 기악형식으로써 고전 모음곡과 근대 모음곡 등 두 개의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고전조곡은 몇 개의 무곡(舞曲)을 같은 조(調)에 통일시켜 모아 놓은 것이고 근대조곡은 자유스런 형식에다 엄격한 규칙이 없다.

보통 표제악으로 작곡되어 있으며 특수한 것은 무용 모음곡, 무도 모음곡 등이 있다.

무곡(Dance Music)

이 곡은 춤을 위해 지어진 악곡인데 오늘에 와서는 반드시 무도만을 위해서 지어진 곡은 아니다.

나와 있기는 하나 작품이 노리는 폴롯트는 전연 벗어나 있다.

물론 「데 싸티스」는 네오리얼리스트 중에서도 옛날부터 일종의 멜로드라마 파였다.

「황야의 포옹」에서나 「애정(哀情)의 쌀」에서나 간에 그는 갱 영화나 활극적인 연극에서의 효과에 몹시 머리를 쓴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가리켜 「데 시이카」나 「롯데리니」와 같은 의미에서 네오리얼리스트라고 부를 수는 없다.

특히 그의 「연애시대」라는 작품에 있어서는 마리아 부라디를 의식적으로 팔아먹자는 수작이 드러나고 있어 거기에는 스타 시스템에 굴복한 이태리 영화의 손 든 자취가 역력히 엿보인다.

비평가들은 말하기를 이태리의 농민 속에는 마리아 부라디나 마스트로안니와 같은 스마트한 미남 미녀가 아마 적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전형적인 농민 타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네오리얼리즘 시대의 이태리 영화라고 한다면 다른 타입의 더 훗 내용새 나는 배우를 썼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지가 이미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가령 「하녀(河女)」같은 작품에도 네오리얼리즘파 스타 시스템과의 기묘한 결합인 것이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사상 최대의 작전」(노르망디 상륙작전) ↑

가보테(Gavotte)

이것은 17세기의 프랑스의 무곡인데 보통 박자이다. 이것은 박자의 상박(上拍)부터 시작하게 된다.

사라반드(Saraband)

스페인의 옛 춤곡인데 5전 박자의 속도가 느린 슬픈 무곡이다.

지그(Gigue)

이 곡은 3/8 박자 혹은 6/8박자의 옛 춤곡인데 고전적 조곡의 마지막 악장에 쓰인다.

독일에서는 바이올린을 가이게(Geige)라고 부르는데 이 악기로 연주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서 이 곡의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탱고(Tango)

탱고는 본시 스페인에서 시작하였다는 2박자의 춤인데 하바네라와 같은 계통의 음악이다. 이 곡이 남아메리카 식민지의 여러 나라에 두루 퍼졌던 바 알젠틴탱고가 하나의 큰 스타일을 만들었다.

포로네즈(Polonaise)

16세기에 폴랜드의 궁정의 의식과 행렬 때에 사용하여 발전한 민속적인 무곡이다. 3/4박자인데 좀 느린 속도이다. 쇼팽은 이를 예술적 인형 식으로 발전시켰다.

폴카(Polka)

1830년 경에 보헤미아(오늘의 체코) 지방에서 발달하여 급속도로 전 유럽에 퍼진 2박자의 무도곡이다.

여기에는 빠른 것과 느린 것, 그리고 아즈르카의 리듬을 가진 형태 등 3가지로 크게 나뉜다. 모두 3부분 형식이 보통이다.



블레로(Bolero)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인데 1780년 경 무용가 세레소라는 이가 시작했다고 한다. 3/4박자의 카스타 넷토의 반주가 붙은 무곡이다. 이를 연주용으로 작곡한 이로서 라벨(Ravel, 1875~1946)이 있다.

마주르카(Mazurka)

폴란드의 농민의 춤과 노래이던 것이 16세기에 이르러 무곡이 되었다. 3/4박자 혹은 3/8박자의 곡인데 템포가 좀 빠르며 활기를 띤 곡이다. 그런데 포로레즈는 귀족적인 무곡인데 반하여 마주르카는 농민의 춤이며 그 멜로디나 리듬은 단순하며 소박한 맛이 있다.

쇼팽은 51곡의 예술적인 마주르카의 피아노곡을 작곡하였는데 그것은 도회지(都會地)적인 기분에 차 있으며 살롱 풍이라 할 것이다. 이 곡의 속도는 보통인데 제1박의 부점 리듬과 제3박의 악센트가 있다. 그런데 이 춤은 본래 손뼉을 치고 뛰면서 하는 무곡이다.

미뉴에트(Menuett)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한 3/4박자의 무곡이다. 고전과 음악에서는 독립된 곡이며 또는 한 악장으로 되어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소절의 반복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부가 Trio의 3부분 형식인데 하이든은 이를 교향곡에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악곡과 이론이 많이 있지만 지면관계로 이만 그친다.

여기서는 농촌이 아니라 미꾸라지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는 부인 노동자가 주역(主役)을 맡아보고 있다. 그 공장 안에서 여인네들이 고기 기름에 묻혀서 일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코에 그 내음새가 풍겨 올 정도로 잘 그려져 있다.

그러나 주역의 소피아 로렌은 언제나 어느 장면에서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녀가 마지막에 개천에서 갈대를 베는 장면도 결코 생활에 쫓겨 땀을 빼며 희망 없이 허덕이는 노동주부로서가 아니라 시나리오 라이터나 감독이나 카메라맨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녀의 멋들어진 육체를 관객에게 노출시켜 가는 데 눈을 모으고 있다.

긴 장화(長靴)를 신고 멋들어진 수건을 머리에 휘감게 하여 그녀의 분장에 많은 관객의 눈을 끌도록 함에 전력을 기울였다.

아무리 격심한 가난이나 노동이라 해도 좀처럼 그녀를 늙게 하고 밟게 하지는 못하는 분장(扮裝) - 「하녀」에 나오는 소피아 로렌은 언제나 헐리웃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자처럼 후레쉬하고 아름다워서 남자의 마음을 끌고 있다.

「수전지대(水田地帶)」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 작품도 「애정의 쌀」과 마찬가지로 북 이태리의 미작지대(米作地帶)의 품팔이 노동을 그리고 있지만 그 노리는 곳은 주로 에르자 마르티네리의 매력을 팔아먹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화는 한때의 네오리얼리즘만 없었더라면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 묘사에 있어 배경이나 환경 을 아울러 그려 넣는 기법은 도저히 착상도 못 얻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네오리얼리즘은 심지어 멜로 드라마 필름에까지도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심이라고 일컬을 만한 「수전지대」의 사회적 테마에 관해서는 슬며시 키를 돌려 빼어 단아든 채로 작품 세계의 도어를 잠겨진 채로라는 것이 아마도 통폐인가 한다.

이들테면 「아메리카」영화의 경우와도 같이 멜로드라마와 성(性)을 팔아 버리려는데 플롯트를 꺾어 기울여 버리고 있다. 여우(女優)에게 풍부한 앞가슴이나 아름다운 다리를 노출케 하기 위해서 누드 사진적인 포즈를 취하게 하는 선전부의 상투 수단을 아메리카에서는 치즈 과자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필자는 「하녀(河女)」와 같은 작품을 볼 때마다 그러한 치즈 과자, 다시 말하면 네오리얼리즘은 치즈 과자 속에 아직도 그 입김을 뿜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B. 스타 타입에 대하여

한 스타가 얼마 연기를 하지 않아도 화면에 나타나자 관객들에게 어떤 인상과 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 타입이 시사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 타입의 급이 액터(actor)들의 분장이나 기타의 기술로써 속여 넘길 수가 있지만 영화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액터라는 것은 그 타입에 따라 스크린에서 할 배역이 대개 좌우 되어 결정케 되는 것은 거의 상식이다. 예를 들면 애드워드 G 로빈슨은 흉악한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부터 언제나 갱 영화에만 출연하였다. 그러나 그는 매우 연기를 잘 하므로 그러한 타입만으로써의 배우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고 선량한 사람이나 역사상에 이름 높은 위인으로써 분장하고 나와도 어김없이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십년을 하루 같이 악한 역만 도맡아 하는 배우도 결코 적지 않은 수에 오르고 있다.

또한 신진 여우 속에는 연기력은 별개로 하고 다만 어디라 없이 무게가 있어 보이는 타입이 인정되어 팔리기 시작한 로렌 바콜과 같은 스타가 있고 꼭 비천한 하류 계급의 아가씨다운 친근감을 자아내는 타입으로써 인기를 끈 준 에리슨과도 같은 여우도 우리나라 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거운 느낌을 주는 여우가 가냘픈 아가씨의 달콤한 느낌을 잃지 않는 아가씨 역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무리가 생겨나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류계급 아가씨 타입의 여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호의 미망인의 역을 맡게 되면 잘 해낼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스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입이다. 그러나 이 타입에만 머리를 쓰고 믿고 있다면 말아볼 배역의 범위가 좁아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무슨 역이든지 손쉽게 해치울 수 있는 연기에 도달하여 있잖으면 안 된다. 여기에 배우가 명심해야 할 지점(地點)이 있다.

잉그리트 버그만은 헐리웃에 오기 전에 이미 스웨덴 영화계의 스타로서 이름이 있었던 까닭으로 풍부한 연기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메리카로 옮겨온 뒤의 작품은 처음부터 한 작품에 출연할 때마다 다른 성질의 배역을 떠맡아 했던 것이다. 대개 최초의 하나의 타입으로써 인상과 인기를 얻으면 흔히 그것이 그 스타의 생명이 되어 당분간은 거의 비슷비슷한 배역을 맡아 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하다.

이것은 돈벌이 때문에 눈이 어두운 제작회사의 책임만은 아니다. 우리가 영화를 감상할 때 그 스타의 타입을 규정해 보는 것은 영화에 대한 안식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C. 스토리와 감독과 영화

말할 것도 없이 영화감독은 영화를 필름 위에 나타내고 그려넣는 직접적인 일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스토리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표현해내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호칭이다. 영어로는 디렉터(Director)라는 것이 이 감독이다.

스토리는 극적(劇的)으로 짜여져야 하고 각색된 각본(Scenario) 아메리카에서는(Screen play)는 촬영의 토대가 된다. 이 각본에서 다시 촬영될 장면으로 살살이 나누어지고 하나하나의 표현 대상(이미지)에 대한 카메라의 각도와 위치 같은 것을 명백하게 잡아놓고 인물의 움직임 발견하여 정한 촬영 대분 적 콘티뉴티(Continuity 또는 Shooting Script)가 만들어진다. 촬영 대본은 스크린에 그려지는 영화를 그대로 글자로 적어 놓는 원고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대본을 한손에 들고 감독은 촬영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문을 지휘하고 제각기의 장면을 찍어서 하나의 줄거리에 알맞고 효과적인 이야기로써 엮는다.

배우의 연기에 대한 지도, 썸의 취급, 광선의 사용, 이 밖의 모든 효과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촬영자와 기타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명령한다. 이러자니 엄밀한 의미에서 감독은 화면 구성에 대한 회화적(繪畫的)인 감정이나 그 기법을 알아야 하고 음악에 대한 귀가 있어야 하고 또 시적(詩的)인 에모션의 세계에 대해서도 문맹이어서는 안 될 일이다.

콘티뉴티(대본)를 한 손에 들고 대본 그대로 만든다고 하나 감독은 자기의 연출개성(演出個性)에 아무래도 좌우되기 마련인 것이며 그 대본을 뜯어 고쳐서 쓰기도 하는 것

이므로 결국 그의 의지에 따라서 화면이 처리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개 영화가 처음 정한 대로의 스토리가 그대로 영화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 수가 허다하다. 스토리가 각본의 모양을 갖추기까지는 특히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마련이니 그렇게 되면 처음 생각했던 착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되는 수가 종종 있다.

처음의 스토리에서는 젊은이였던 주인공이 각본에서는 늙은이로 바뀌어지고 남성이었던 인물이 여성으로 바뀌어지는 수도 흔히 있다. 말하자면 스토리는 각본을 꾸미기 위한 계기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써 힌트가 되면 그만이라는 정도가 고작인 것 같다.

유명한 소설을 영화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설의 줄거리를 눈으로 보여주자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이므로 전연 그 소설과는 판관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도 사실이고 소위 내리쓴 각본, 즉 영화를 위해서 처음부터 각본으로 쓴 그 속의 스토리에 있어서도 변경은 채택되는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이런 과정을 밟아 이루어진 것이 콘티뉴티이다.

그러나 이 촬영 대본마저 다시 감독의 손에서 지워지고 또 첨부되어 재수정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무성영화(無聲映畫) 시대에는 대본도 없이 그냥 현장, 현장

영화 용어 해설

구도(構圖) = (Composition) 영화의 화면에 있어서 구도라고 불리는 것은 한 쇼트의 화면의 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한계 안에서는 다른 조형예술(造形藝術), 예를 들면 회화와 같은 미학적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영화의 본질에서 말한다면 쇼트의 구도는 그것이 편집되는 영화의 목적에 종속하는 것이다.

한 쇼트 자신의 화면구성은 독자적인 목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쇼트의 화면은 영화전체의 목적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설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조형미만 추구하는 화면이란 있을 수 없다.

의 인스피레이션에 따라 짙은 때도 있기는 하다, 오늘날에 와서도 「전화(戰火)의 저쪽」이나 「무방비 도시」를 만든 로베르트 뢰트제리니 같은 사람은 대본을 안 쓰는 것으로 떠들썩하고 말썽이 되는 수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돈 낸 사람이 그만 의심스러워서 뢰트제리니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말썽일 테지만…….

조오 파스타나크라고 하는 제작자가 있다. 이 사람의 영화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부드러운 분위기의 것이 많다. 디어나 다아빈의 「천사의 동산」이나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상연된 바 있는 「오케스트라의 소녀」나 마가레트 오브라이언의 「백만인의 음악」같은 것이 조오 파스타나크가 만든 작품들이다. 이와 같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화 전체의 흐름에 있어 어디가 서로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파스타나크의 경우는 언제든지 그의 취미에 어울리는 헨리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독을 보게 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만 스쳐본다면 어느 영화도 헨리 코스타라고 하는 같은 감독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같은 부드러운 기분이 넘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지만 사실은 파스타나크와 코스타의 공감에서 빚어지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이것은 일례에 지나지 않지만 프로듀서 속에는 서부활극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규모적인 영화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 범죄를 주제로 삼은 작품만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희극만 기획하는 사람도 있다.

아서 프리이드 라고 하는 프로듀서는 원체 무대 음악극의 가곡작자로서 유명했던 관계로 영화 음악에만 열중해서 만드는 경향을 나타내어 이름이 높다. 프리이드가 만든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입되어 호평을 받은 것으로써 「파리의 아메리카인」이 있고 이밖에 「밴드 왜건」과 같은 작품이 그가 또한 만든 것으로써 유명하다.

드არი 샐리라는 프로듀서는 적은 돈으로 또한 평판이 자자하고 스탠리 크레이어라는 제작자는 「첵피온」과 같은 작품을 위시로 이른바 문제작만을 기획하는 것으로써 이미 이름을 떨쳐내려 왔다. 그가 만든 유명한 작품 「케인호의 반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연된 바 있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제작자들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염두에 두지도 못할 것이었다.

(끝)



도양(渡洋) 항공시대 내도(來到)

<항공 발달사> ⑤

항공
역사

K 나이트

1918년 대전(大戰) 종결과 더불어 미국항공은 특이한 전환을 하였다. 승리에 공헌하고 새로운 항공시대 도래에 활약한 많은 조종사들이 군용선(軍用船) 편으로 돌아왔다. 이들 청년들의 대부분은 귀국하자마자 군복을 벗고 그들이 새로 습득한 비범한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직도 새로운 항공 시대가 얼마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

비행기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증명되었으나 일반 시민들은 이것이 평화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승리와 더불어 정부는 공군 부대를 바로 평시(平時) 규모로 축소할 것을 결정하고 육해군은 정원제 때문에 조종사를 소수인 밖에는 수용할 여지가 없었다. 다수의 정규 특히 시대에 뒤늦은 기병부대의 육군 장교들은 비행기 부문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비행부대로 전향해 가는 사람이 많았다. 일생은 군무에 바치고 있는 몸으로서 그들의 신분이나 계급을 유지함에 어떠한 이동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다른 군무에서 전동(轉動)해 온 이들 장교들은 그들의 비행 교관이었던 소수의 대전 시 조종사들보다 훨씬 상위의 계급을 차지하였다. 이들 실전경험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 20년간의 군 항공정책이 맡겨지게 된 것이다.

육해군을 합하여 이제는 보유기 1만대를 넘고 다시 증산(增産) 태세의 전시 생산방법이 채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引渡)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비행기가 생산되었다. 정부소유기 가운데서 연습기의 공급과잉이 일어나 주로 카티스제니 기가 잉여분으로써 일반에게 경매(競賣)되었다. 전시중의 조종사였던 사람들은 다시금 하늘에의 강렬한 향수를(嚮愁)를 느끼고 또한 평화롭고 여유 있는 비행을 맛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으며 혹은 전후생활에 불안정을 느낀 사람들은 이 경매 비행기를 사들였다. 그러나 그것이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불안정한 것임을 얼마 후에 깨달았지만 시골의 무봉목장(無棚牧場)에서 떠서 여객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도시에서는 날개 위를 걸어다니다든지 낙하산 하강 등 꼭에 사업을 하는 비행사도 있었다.

항공기 제조업자들도 아주 일변(一變)하여 새로운 사태에 서게 되었다. 시장이 좁아졌을 뿐 아니라 전에 해결을 보지 못하였던 많은 설계상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었다. 그들이 비행기에 관해서 미개척의 많은 가능성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 치고 우선 속도를 비롯해서 항속거리, 고도, 안전성 등을 증대하도록 자꾸자꾸 개량하여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항공군무는 아직도 시험적인 선도자의 단계였다. 1919년 2월 토마스 모스 육군 추격기는 시속 164마일의 속도로 미국 신기록을 수립하여 4월 말에는 F-5L형 기를 조종한 해군 조종사가 20시간 19분의 체공(滯空) 세계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9월까지에는 로란드 루후스가 카티스 와스푸 기로 고도기록을 34,900피트까지 올렸다.

항공우편을 나르는 시도도 각지에서 일어났다. 자기가 설계한 수송기로 윌리엄 보잉은 밴쿠버에서 시애틀까지 최초의 미국·캐나다 간의 수송으로써 제1종 우편 60대를 공수(空輸)하였고 미국 우정성(郵政省)은 1919년 5월 15일에 시카고와 크리브랜드 사이에 항공우편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대륙횡단 항공우편업무는 1920년 말에 겨우 개시되었던 것이다. 항공 우편의 수송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시중의 비행사는 겨우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비행사가 되는 것을 단념하고 다른 직업을 찾았다. 옛디 린켄박카 대위는 자동차 제조를 시작하였으며 다른 사람도 항공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일자리를 찾아 갔다.

대양횡단(大洋橫斷)의 개막

해군은 비행정(飛行艇)에 친근감을 가지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1917년 말에는 대서양 횡단비행을 할 수 있는 4발 비행정을 제작하여 해상수송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잠수함을 구축(驅逐)할 목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생각하였다.



미(美)공군의 아버지 미첼장군



1919년 5월 16일 뉴욕의 로커웨이 비치에서 이륙한 NC-1호 비행기. (출처: 미국항공우주박물관)

이 비행정은 완성이 늦어서 본래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으나 해군성은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서양 횡단의 시험비행을 결정하였다.

거의 같은 때 「런던 데일리 메일」지(紙)는 미국 본토에서 영국까지 최초의 무착륙비행에 대하여 만들었던 상금 제도를 다시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4조로 구성된 영국인들은 벌써 비공식으로 뉴펀들랜드 도(島) 세인트존스에 모여서 이 황량한 암산(岩山) 투성인 해안선에서 이륙에 가장 적당한 지점에서 숙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다대(多大)한 위험을 수반할 뿐 아니라 주로 인기를 끌기 위한 이와 같은 기도(企圖)에 참가하려는 의사는 전혀 갖지 않고 있었으며 본격적인 준비를 개시하여 대서양횡단을 결정하려고 하였다. 즉 68척의 구축함이 대서양을 50마일 간격으로 초계(哨戒)에 당고 5척의 전함이 횡단비행용으로 제작된 NC형 비행정 3대(NC-1, NC-3 및 NC-4)에 무선으로 천기예보(天氣豫報)를 보내기 좋은 위치에 배치되었다.

존 타워즈 해군중령 지도하에 각 기마다 6명의 탑승원을 태우고 1919년 5월 16일 뉴욕의 로커웨이 비치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10일 후에 이들 3대는 비행정이기 때문에 육상 활주로는 불필요하여 뉴펀들랜드의 트레파시 만에서 바다 쪽으로 띄웠다.

단번에 영국까지 비행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였다. 먼저 아조레스 군도까지 날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중계(中繼)한 다음 마지막 비행으로 잉글랜드의 프리마스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다. 폭풍우 몰아치는 암야(暗夜)를 그대로 고도 천 피트를 유지하면서 비행하고 있던 3대는 얼마 후에 상호 연락이 끊어졌는데 약 15분 후에 굉장한 악천후와 싸우던 NC4호기는 아조레스의 군도의 홀타 만에 착수(着水)하였다. 요기(僚機)인 나머지 두 대는 불운하게도 NC1호기는 대파하여 해상에 불시착하여 탑승원들은 화물선에 구조되고 한편 타워즈 소령의 NC3호기도 파손되어 홀타 앞바다 격랑 속에 불시착하여 폭풍우의 바다와 싸우면서 50시간이나 걸려 아조레스 군도 폰타 텔가다 만에 겨우 다다랐다.

그런 가운데 영국인으로 구성된 참가조의 하나인 하리 호키와 마켄지 그리브의 일단(一團)은 술비를 갖추자마자 미국인 패들을 이기려고 뉴펀들랜드 도에서 스페인 제 육상기로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얼마 안가서 소식이 끊어지고 행방불명이 전해졌으나 5월 26일에 비로소 화란선(和蘭船) 메리 호로부터 엔진 고장으로 추락된 비행기 파편을 타고 표류중인 두 사람을 구조하였다고 알려졌다.

무시무시한 대서양 악천후에 시달렸지만 이 해 여름의 횡단비행 시도에서는 인명의 손실은 없었다. 미국 해군이나 영국은 비행기를 잃었지만 조종사들은 무사하였다. 미국 해군기 3대 중 유일의 생활기였던 NC4호기는 악천후 때문에 지연된 끝에 리스본으로 날아 이어서 5월 30일 3,936 마일의 비행을 끝내고 프리마스에 도착하였다. 현대 수준에서 볼 때는 이 기록은 빈약한 것이지만 대양횡단비행을 수행한 최초의 비행정이었다.

전에 왕립비행단에 복무한 바 있는 두 사람의 영국인 즉 존 울코크 대위와 영국군에 복무하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방기(放棄)한 아더 휘트슨 브라운 중위는 고심 끝에 뷔카스 뷔머 폭격기에다 완전한 준비를 갖춘 개조 형으로 세인트존스를 출발하였다. 북대서양의 전형적인 천후(天候)와 16시간이나 싸우면서 아일랜드에 다다라 육상착륙장을 발견하고 가까스로 착륙 하였다. 그런데 착륙한 곳은 습지대였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무사하였지만 기체는 대파되었다. 이 두 사람의 비행사는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 비행하여 데일리 메일지의 상금 1만 파운드의 수상자가 되었다.

이 해에는 이밖에 대서양횡단비행을 기도한 사람은 없었는데 1920년 1월에 뉴욕의 유명한 요리점 라파이에트 및 브레보트의 주인으로 프랑스 사람인 레이먼 울티는 뉴욕과 파리 사이의 무착륙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25,000불의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상금제공도 그 당시로서는 그따위 비행계획은 미친 수작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거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당시 제작되고 있던 비행기의 항속거리를 고려에 넣고 또한 설계 중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더라도 전년(前年)의 참가자가 경험한 대서양의 무서운 천후 상태를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상금은 장래에 보다 더 장비가 훌륭한 모험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무렵 다른 사건이나 일반의 주의를 끌고 있었다. 전후 미국에 돌아온 버리 미첼 대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번 전쟁의 결과 모든 전쟁이 영원히 끝났다고 믿고 있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 특히 가공할 항공병기와 그 방어대책의 중요성을 일반 사람들이 망각하려고 하고 있던 것에 상당히 상심하였다. 그는 육군참모본부 안에서까지도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을 강화하려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강력히 항공계 이외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당시 의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예산삭감 동향에 수응(酬應)해서 완전히 세력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미첼 대위가 해상의 여하(如何)한 전함도 공중에서 격침할 수 있다고 언명함으로써 해군에 도전장을 제시하여 항공 전력의 위력을 과시하였을 때 드디어 정점에 이르렀다. 이 결정적인 논쟁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해군에서 사격훈련용으로 침몰시킬 예정이었던 구(舊) 독일 해군의 구축함, 순양함, 전함 각 1척 가운데 그 어느 것을 폭격기 표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다시 공군을 육해군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대등한 조직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육해군의 군인들을 격노케 하였는데 이 논쟁에 언제나 기쁨노릇을 하던 신문이 그의 지론을 지지하였다. 해군은 그의 완강하고도 지나친 행위를 끌려주기 위하여 드디어 폭격기시험에 동의하였다.

수주(數週) 간에 걸친 폭격 훈련 끝에 1921년 7월 31일 미첼이 손수 지휘하는 신 마틴형 기를 포함한 비행기 편대는 버지니아 주 랑그레이 필드의 기지에서 표적함이 정박(碇泊)하고 있는 75마일 해상을 향해서 날아갔다. 최초로 공격을 받은 독일 구축함은 19분 만에 격파되어 물속으로 침몰되었다. 수일 후 순양함 프랑크홀터는 별침의 경폭격(輕爆擊)에 의한 집중공격에는 어떻게 견디어 냈으나 뒤에 6백 파운드 폭탄 14발의 직격탄을 맞고 대파하여 35분 만에 침몰하였다. 31일에는 주트랜드 해전에서 영국 함대의 맹렬한 포격에도 견디어낸 22,800 톤의 전함 오스트크리스랜드 호의 거체(巨體)도 2천 파운드 폭탄 6발로 함체가 폭파되어 얼마 후에 침몰되어 버렸던 것이다. 갑판에 직격탄을 받지 않았는데도 격파된 것은 공중공격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이것은 20년 후에 일본 공군의 공격으로 격침된 영국해군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와 레파루스 호의 비극의 전조이기도 했다.

미첼은 그의 주장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극히 명쾌하게 증명하였던 것인데 공군력을 근대화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여 국방군을 육해공의 3군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많은 고참(古參) 현역장교의 반감을 자아낼 뿐이었다.

한번 자기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면 미첼은 어떠한 반대에도 굴할 사람이 아니며 확실히 자기의 불리를 알면서도 그 신념을 꺾지 아니하였다. 1925년 그는 진주만 내에 정박하고 있는 함대는 공중공격의 절호의 목표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많은 예언은 드디어 현실로 된 것이다. 너무나 세계 비판을 계속 하였기 때문에 육해군의 고급 장성들은 그에 대하여 군율불복종의 죄목으로 군법의회에 넘겨 드디어 유죄판결을 내렸다.

1926년에 '비행하는 장군'의 아명을 가진 미첼은 육군을 퇴역하였는데 그 후에도 모든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 그의 의견을 일반 대중에게 침투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와 같은 신념을 1936년 2월에 죽을때까지 굽히지 않고 관철해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길러낸 조종사들은 비행을 계속하였고 또한 항공기의 의의(意義)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첼의 의지를 실현하기에 진력하였다. 1920년 쇼터 시레이다는 38,180피트의 고도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샌트 K 스트레트 대위가 지휘하는 4기 편대는 뉴욕과 알래스카의 노무 간을 험상곳은 극지(極地)의 천후와 싸우면서 도중의 빈약한 비행장 설비도 문제 삼지 않고 왕복비행에 성공하였다. 또한 미첼 자신은 카터스 기로 시속 222.9 마일의 속도를 내어 세계속도기록을 만들었다. 그 후 1923년에 알휘도 윌리엄스가 만든 시속 266.6 마일의 기록이 있다.

1924년에 이르러 육군항공대는 세계일주비행을 감행할 준비를 끝내고 이 비행을 목표로 도널드 더글러스는 이제까지와 같은 차륜(車輪) 사용의 강착장치(降着裝置) 이외에 플로트(浮船)를 달 수 있도록 한 대형 복엽기(複葉機)를 수대(數臺) 제작하고 있었다. 3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산타 모니카로부터의 출발을 앞두고 몇 번이고 계획이 검토되고 있었는데 이 비행을 위해서 22개국이나 되는 나라의 상공통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드디어 서쪽으로 도는 일주비행이 개시되어 마틴 소령이 탄 시에틀 호는 눈보라 속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알래스카에서 산복(山腹)에 격돌하고 말았다. 그와 그의 동료 두 사람은 다행하게도 무사하였으나 기체는 대파되어 버렸다. 다른 3대는 로웰 스미스와 레스리 아놀드가 조종하는 시카고 호, 레이 웨이드와 헨리 오구넨이 조종하는 보스톤 호, 에릭 넬슨과 존 하딩이 탑승한 뉴 오르레안 호였다. 3대가 다 일본에 안착하여 그 후 남태평양을 남하해서 인도에 도달하였다. 그곳에서 수상착륙장치를 차륜과 교환하기 위하여 체류하였는데 그때 AP통신사의 린튼 웰스 기사는 몰래 이 세계일주기에 숨어 타고 인도, 페르시아, 터키를 거쳐 빈, 파리, 런던으로 비행을 계속하였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및 래브라도 도(島)를 경유하여 북대서양을 고국을 향해 비행하는 도중 보스톤 호는 해상에 불시착하여 침몰되었으나, 탑승원인 웨이드와 오구넨은 구축함에 구조되었다. 다른 2대는 미국 본토에서 신 보스톤 호와 더불어 각 도시를 하늘로부터 방문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 세계일주 비행은 항공사상 보급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3대는 1924년 9월 28일 출발지인 산타모니카에 귀착(歸着)하여 세계 일주를 끝냈다. 이러한 성공까지에 한해 여름을 다 소비하고 2대의 희생은 났으며 몇 번이나 엔진의 교환을 필요로 하였으나 육군의 비행사들은 이와 같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함을 입증한 셈이다. 그 후에도 보다 새로운 설계의 비행기가 만들어져 1926년에서 1927년에 걸쳐 발동기를 많이 적재하는 다발기(多發機)의 시대가 찾아왔다. (계속)

경제적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원리 세미나-

김낙봉

혹자는 말하기를 민주주의 사회나 아니냐의 구별을 단적으로 말할 때 그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제법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폭론(暴論)이 아닐 수 없으며 잘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자나 그 동조자(同調者)들이 즐겨 쓰는 언설인 것 같다. 이와 같은 허구적 언설에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나라의 경제조직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것은 전혀 제2의적(第二義的)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래도 좋은 지엽말절(枝葉末節)의 문제인 것이다. 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아닌가는 한마디로 그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 자유권이 확보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 사회의 다수가 자본주의 제도를 싫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바라다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단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서 머물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기본적 자유권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우리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가 자유사회로서 유지되기 위한 절대 요건은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적 자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서언(序言)으로 한마디 하거나와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대립은 공산주의자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사회와 비 자유사회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관용과 불관용과의 사이에, 인간주의와 비인간(혹은 인간 이하)주의와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또는 반 사회주의 국으로 볼 수 있는 영국과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과의 상호 신뢰의 관계가 그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와의 상위(相違)도 정치이지 결코 경제는 아니다. 양자가 다 산업의 국유화(國有化)를 요구한다. 서로 틀린 점은 사회민주주의자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자유의 수단으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반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 따위는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다. 전자(前者)에 있어서는 수단(정치적 자유)이 절대이지만 후자(後者)에 있어서는 목적(산업의 공유화(公有化))이 절대여서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폭력혁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단을 시인(是認)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자라 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는 어느 점으로 보나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목적보다는 수단이 절대적이며 그리고 수단 가운데 항상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소론(所論)에서도 명백한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궁극에 있어서 국민의 다수가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한 것이 경제적 자유이며 경제적 평등이라고 생각한 것이 경제적 평등인 것이다. 그것들은 정치적 자유의 수단을 통해서 규정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국, 미국 등 선진민주주의의 국가에 있어서 무엇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되었으며 무엇이 경제적 평등이라고 생각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는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의 개념은 실은 극히 애매하며 경제적 평등의 개념에 이르러서는 더욱 애매하다. 따라서 여기서 논술하는 것도 어딘지 막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현저한 것은 자유와 평등이 오랫동안 반대개념처럼 생각되어 왔다는 것이다. 먼저 이점부터 말하고자 한다.

근세사(近世史) 상 양심의 자유 의식이 비로소 강해진 16·7세기에는 사람들은 아직도 중세적 봉건적 유제(遺制)라고도 할 계급적 특권, 독점, 제한적 규칙, 전제군주의 전단적(專斷的) 지배 같은 중압(重壓)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유는 먼저 이와 같은 중압에서의 해방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제적 자유의 중심점도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또는 단체의 간섭이나 통제의 배제(排除)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견해는 드디어 자유방임설(自由放任說)으로써 발전한 것이다. 이 설에 의해서 변화된 개개의 경제적 자유는 사적 기업의 자유, 무역의 자유, 시장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 또는 상업선택의 자유, 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자유, 고용의 자유 등 소위 자본주의적 자유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의 해방에 의해서 인간의 지적(知的), 발명적 능력이 자극되어 그 결과로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생산방법의 혁명이 일어나 여기에 이어서 자본주의는 고도의 발전을 보였다. 자본의 집중, 자본가에 의한 산업의 독점, 빈부의 커다란 현격(懸隔) 따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자본이 일반 민중의 생활이나 정치를 지배하는 전형적 부르주아 사회가 출현하였다. 이같은 사회에서는 자유방임설 밑에서 주장된 개개의 자유는 설령(設令) 법률상 권리로써 확보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가령 계약의 자유는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만 그 의의를 갖는 것인데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에 있어서는 고용 조건에 이유를 달거나 이것을 선택하든지 하는 여유 없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가의 일방적 지령으로 되어버렸던 것이니 이와 같이 계약의 자유는 노동자에게 있어 자유라고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방임주의적 무책임한 자유에 대항해서 19세기에 새로이 생활의 물적(物的) 조건의 평등화를 요구하는 경제적 평등의 주장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경제적 자유의 개념에도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게 되었다. 경제적 평등의 주장에는 그 내용에 있어서 폭이 넓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다. 사회주의자들은 흔히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사유재산제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사유제(私有制) 특히 생산수단의 사유제가 있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 소득을 얻거나 노동에 비례되지 않는 과대한 소득을 얻는 착취의 부정의(不正義)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착취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토지, 광산, 공장 같은 주요한 생산 수단에 한해서 사유제도를 철폐하고 이것을 공유화(公有化) 함과 동시에 일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일반 산업을 보다 엄중하게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 자유의 수단에 의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이다.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의 주장이 영국에서는 한때 노동자층의 지지를 얻어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바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산업경영(產業經營)의 관료주의 화와 생산능률의 저하 경향은 면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국인은 상업의 증진적(增進的) 통제는 믿어도 산업의 국유화에는 전혀 신용을 두고 있지 않은 모양이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들이 사적 기업의 자유의 이익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각 인이 다 자기가 가장 욕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업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소이(所以)이며 따라서 사회 전체도 그것으로써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른바 착취라는 것은 산업의 통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의 승인, 과세(課稅), 그 밖에 보통 입법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자유로이 억제·배제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경제적 평등에 점차로 접근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우리들이 우선 첫째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는 그 구성원의 다수가 진정 희망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부정이거나 착취거나 이것을 배제할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산업 공유화의 형식 가운데는 사회정의(社會正義)를 보장할 하등의 실질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겨난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경제적 평등이란 반드시 모든 사람에 대한 재산이나 수입의 동일을 의미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명목상으로는 지상명령(至上命令)이라고 해서 생겨난 소련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조차 사람마다의 임금의 수입차는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것보다는 굉장히 크다고 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또한 민주주의 이론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이 목적가치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전제 밑에 수단가치의 상위(相違)를 아주 몰각(沒却)해서 완전히 동일한 보수(報酬)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도덕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적 조건에의 최소한도의 요구권(要求權)을 갖는다고는 해석될 수 있다. 사실 선진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해석되어 온 것이다.

앞에서 말한 최소한도의 요구권이라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문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도의 안정생활을 위한 평등의 권리다. 이것을 사회적 입장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회는 일할 의지 있는 모든 사람의 일자리를 보장함과 더불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휴양과 문화시설을 향유(享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노동시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위생적 노동조건, 안정된 고용조건 밑에서 안정되고 합리적인 생활임금을 연대보장(連帶保障)하는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생활임금이란 단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적당한 휴양(休養)이나 문화시설을 향수(享受)하는 데 족할 뿐 아니라 실업(失業), 질병, 그 밖에 사고나 노년기에 대한 보험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요망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생산력이나 자원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생활조건이나 생활 정도도 틀리다. 또한 같은

한 사회에 있어서도 산업에 따라서 부담능력이 틀리다. 그러므로 적정(適正)한 표준적 생활 임금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그밖에 최저의 표준적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나아가서 질병 및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창설하여 사회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써 일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며, 사회적 이익임과 동시에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되어 온 것이다. 경제적 평등이란 오늘날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이와 같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노동조건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좋은 생활조건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노동자 자신의 노력과 발안(發案)에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노동자가 강력한 자본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자본가나 고용주인 공공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을 추출(抽出)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에 대해서도 단결권(團結權),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그 밖의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데에 노동자의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들 말한다. 사적 기업의 자유와 더불어 오늘날 이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도 주요한 경제적 자유의 하나로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자는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은 결과로써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조직되어 조직노동자는 다른 금융가나 산업가의 단체와 같이 거대한 독점적 이익집단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생산에 종사하고 더욱이 파업권(罷業權)이라는 강압적인 특수무기를 독점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압력집단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파업권은 그 본질에 있어서 폭력적 강압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으로써만 본다면 민주주의의 윤리적 사상이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적 폭력(금전으로 사람의 생활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것은 폭력으로써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별로 틀리지 않다.)이 존재할 수 있는 한 윤리적으로는 이것에 대항하는 부득이한 수단으로써만 시인(是認)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하게 조직화되고 사회화된 오늘날의 경제제도 하에서는 만약 이 파업권이 남용된다면 지목된 자본가보다도 오히려 죄 없는 일반 소비자 대중을 괴롭히는 결과가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말은 ‘자본주의 횡포’에 있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소비자(이용자) 일반대중은 그 성질상 조직화되기가 가장 곤란하다. 그들은 기업가나 조직노동자와 같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또한 지킬 만한 하등의 직접적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거기다 소비자적 이익은 전 국민적 이익인 것이다. 이거야말로 참된 의미의 공공복지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한 소비자적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수 이익집단이 압력단체로서 강대화하면 강대화 할수록 소비자적 일반이익은 그만큼 많이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의 중점도 벌써 산업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의 배제라든가 자본으로부터의 노동의 해방이라는 단체를 지나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일체의 독점적 압력단체의 비민주화, 과도(過度)의 강대화, 그 권리의 남용 등을 억제하여 그들의 강압에서 소비자적 일반이익을 옹호하는 것에 두기 시작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의 확보에는 공공적(公共的) 이익의 대표자로서의 국가권력의 간섭에 의존할 밖에는 도리가 없다. 오늘날 미국에서도 실업(失業), 노동 및 농업 등 거대한 이익(利益群)이 압력단체로서 조직되어 강대해짐에 따라 국민은 대통령이나 그 정부를 더욱더욱 일반적 이익의 수호자(守護者)로서 신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종 특수이익에 맞싸워 사회의 결함과 그 일반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증대된 권한을 입법조치로써 부여하고 있다. 조직된 특수 이익의 강대화는 즉 이러한 특수 이익에 대항해서 이길 만한 정부권력자 자신의 강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임무는 공공복지에 적종(適從)하도록 상쟁(相爭)하는 특수이익 상호간의 활동이나 이익을 조정(調整) 지배하는데 있다고 생각되어 온 것이다.

앞에서 정치적 자유는 이기적인 이익 추구로써가 아니고 이성(理性)의 지배에 복종함으로써만 확보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적 자유나 평등에 있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여러 특수이익단체가 공공복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이러한 파괴적 이기주의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특수이익단체의 경제적 자유도 이것을 필연적으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경영이 기계의 조종이나 그 밖에 건전한 노동에 의존하며, 노동이 기술·자본의 흡수 및 조직 등에 관해서 건전한 경영에 의존하고 농업이 노자(勞資)의 변영에 의존하는 것을 저마다 인식하고 모두가 소비자적 이익을 존중하며 서로가 도리의 지배에 복종하는 자유롭고 너그러운 정신으로써 협조한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적 자유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든간에 그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보다 잘 확보될 것이다.

공산주의와 제국주의 -공산주의 원리 세미나-

이동현(李東賢)

공산주의의 충실한 실천자 레닌은 그의 저서 「제국주의론(帝國主義論)」에서 자본주의국가는 원료의 공급원과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 자본주의 국가는 그 식민지를 사이에 두고 상쟁(相爭)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드디어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모두가 멸망한다고 하면서 공산사회의 불가피한 도래를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의 저서가 세상에 나온 지 반세기가 가까워 오는 오늘날 이 분석은 과연 얼마만큼 정당한 것이었는가?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달하면 스스로 묘혈(墓穴)을 판다는 공산주의 이론과는 반대로 자본주의는 그 경제기구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번영을 거듭해 왔다. 통상조건이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한 식민지 때문에 상쟁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업과 협력에 의해 경제력을 증진시켰고, 자본가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야기된다는 잉여생산물 판매시장에 대한 걱정도 이후 생산고에 따르는 임금의 상승과 구매력 증가가 현실적인 경제 정황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한 국가의 부력(富力)이 반드시 타 국가의 그것을 탈취·약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북미 합중국의 비약적 발전과 전후 서독의 기적으로 그 이론적 오류를 지적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역사적 현실은 오히려 그가 예견한 바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공산주의국가야말로 제국주의의 충실한 실천자임을 증명하고 말았다. 소련 하나만 놓고 보자. 소위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를 말끝마다 매도(罵倒)하는 그들은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위성국가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경제를 파탄케 하고 자기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해 오고 있다.

북한과 중공에서 폴란드, 동독에 이르는 전 공산권에 파견되는 소위 경제사절단은 그들이 내세우는 통상의 증진과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경제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원료, 기계, 기술을 착취하기 위하여 분주한 것이다.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는 기계, 연료, 광물자원을 빼앗겼고 폴란드는 석탄과 식량, 그리고 중공,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식량을 강탈당했다.

정치적으로 소련은 주권(主權)을 운운하며 각 위성국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진정한 주권국가는 공산권내에 아직 나타난 일이 없는 것이다. 소련이 요구하는 경제적 착취를 거부하거나 소련의 정치적 제스처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또는 비 공산 국가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언제나 소련으로부터 반동적이나 반혁명적이니 하여 비판을 받고 강제노동수용소로 가거나 처형을 당해야 한다. 제수가 좋아야 추방으로 겨우 생명만을 부지할 수 있다.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소련과 중공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몇 가지만 나열해보자.

1.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틱 3국의 강제병합.
2. 북부 핀란드 및 카텔리아 반도의 탈취.
3. 2차 대전 후 폴란드, 동독 및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 제국의 공산권 편입.
4. 일본으로부터 치시마[千島; 쿠릴 열도] 열도, 화태[樺太; 사할린]의 남반부 탈취.
5. 소련의 배후 조종에 의한 북한 공산군의 대규모 남침.
6. 헝가리 의거의 강제 진압.
7. 월남동란에 대한 무장지원.
8. 쿠바의 무력원조 및 최근 중·인 국경 분쟁 등등.

이루 매거(枚擧, 낱낱이 들어 말함)할 수 없다.

그러나 소련이 이와 같이 역사의 반동적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중전에 광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제국주의 국가들인 자유국가들은 해마다 옛 식민지 국민들에게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참되고 잘살 수 있는 모든 정신적·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월남공화국, 인도네시아, 버마, 인도, 파키스탄 등의 아세아국가들은 이미 독립국가로서의 지보를 확보하고 전전(戰前)에는 불과 하나 둘을 헤아리던 아프리카에는 지금 20개국의 독립국이 이미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이 전후(戰後) 7억에 달하는 인민을 제국주의적 수법으로 노예화하는 동안 자유세계의 국가들은 7억의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준 것이다.

맑스와 레닌의 이론을 신봉하는 나라나 개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오늘날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제국주의 식민주의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사적 현실에 의한 실증이요 결코 현학적 논리의 유희에 의한 기만이 아니다.

공산주의야말로 인간의 모든 간지(奸智)를 다해 평화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는 침략을 자행하는 제국주의의 화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분자(高分子) 화합물(化合物) 시대

이종진(李鍾珍) <서울대 문리대 교수>

一. 천연 고분자 화합물

흔히 현대를 과학 시대, 기계 시대, 오토메이션 시대, 원자력 시대, 우주 시대, 항생물질 시대, 고분자 화합물 시대라고 부른다. 이 중에서 우선 고분자 화합물이란 무엇인가를 다루어보기로 하자.

고분자 화합물이란 문자 그대로 엠포이어 스테이크 빌딩 모양으로 높은 화합물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대단히 무거운 화합물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이건 미생물(微生物)이건 아메바건 간에 모든 생물은 양분(養分)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여기서 양분이란 주로 전분(澱粉), 지방(脂肪), 단백질(蛋白質)이다. 이것을 소위 3대 영양소라고 하며 이 중에서 전분과 단백질은 분자량이 무거운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식물, 동물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효소(酵素)의 기기묘묘(奇奇妙妙)한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잎의 푸른 색소인 엽록소(葉綠素)가 그 공장이다. 이 공장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일광(日光)이다. 공기 속의 탄산(炭酸)가스 특히 극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잎이 흡수하고 흙 속에 있는 물을 뿌리가 빨아 올려서 이것을 원료로 하여 당분(糖分)도 만들고 전분도 만든다. 필요하면 식물을 지탱하는 구성 재료인 셀룰로오스, 지방, 단백질도 만든다. 이러한 엽록소의 기능을 탄소동용화(炭素同用化) 작용이라고 한다. 소는 다시 식물 그 자신인 풀 또는 식물이 만든 콩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제공할 고기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지능을 짜내어도 아직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공장의 기밀(機密)을 전부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식물의 기밀을 알아내고야 말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만든 화학공장에서 오늘은 쌀 내일은 보리 식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30년 후가 될는지 40년 후가 될는지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그때의 공경을 그려보면 논이 있던 곳에 공장이 즐비하게 서게 되고 여기저기에 하늘 높이 솟은 이상한 모양의 굴뚝같은 관(管)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지하수도 계속해서 펌프로 빨아 올려질 것이다. 이 공장의 원료가 되는 것이다. 합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지원으로는 전기를 쓰게 되든지 또는 식물처럼 일광을 쓰게 될 것이다. 또 동물의 흉내를 내어 고기 만드는 공장도 서게 될 것이며 공장은 물론 오토메이션화 되어 사람도 별로 많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최신식 공장에서는 합성된 쌀, 밀, 고기 그리고 종전(從前)에 자연에는 없었던 새로운 풍미를 가진 식품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목축에 사용되던 농토와 산림은 골프장, 운동경기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소일(消日)하느냐가 문제로 될 것이다. 너무 장래의 꿈을 그려 보았잖아 현실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이제 인간이 이미 완성해 놓은 고분자 화합물 구경(求景)을 떠나기로 하자.

二. 인공(人工) 고분자 화합물

인간은 물과 탄산가스라는 간단한 물질로부터 출발해서 동식물처럼 전분, 단백질, 셀룰로오스 같은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전분과 단백질을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셀룰로오스는 솜과 뽕짚과 목재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 사람은 이것을 가공하여 옷감으로 쓰고 목재와 뽕짚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고분자 화합물로 지은 집에서 고분자 화합물을 입고 고분자 화합물을 먹으면서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자연에 도전하여 위대한 현대과학의 힘을 가지고도 진다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한 결과 의주(衣住)의 원료인 고분자 화합물을 탄산가스와 물 이외의 것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여 쓰고 있다. 이것이 푸라틱스와 합성섬유이다. 우리나라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PVC(염화(鹽化)비닐 수지(樹脂)) 공장도 고분자 화합물 제조공장이다. 이것의 원료의 하나는 소금물이며 이것에 전기를 통하여 분해하여 염소(鹽素)와 수소를 만들고 이것으로 다시 염산(鹽酸)을 만든다. 또 하나의 원료는 석탄과 석회이며 이것을 전기로(電氣爐)에 넣어서 카이바이트를 만들고 여기에서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이것과 위에서 이미 만든 염산을 작용시켜 염화비닐단량체를 만들고 이것을 중합(重合, 연결시키는 것)시켜서 염화비닐 수지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석회석도 나고 석탄도 나고 소금도 나니 전부 국산원료로써 PVC 생산이 가능한 셈이다. PVC로 전선, 산(酸)과 알칼리에 이길 수 있는 화학공장용 파이프, 철관(鐵管) 파이프보다 수명이 3배나 된다는 수도(水道)비닐파이프, 농업용 비닐필름, 타일 같은 비닐 건축자재, 피혁 대용 비닐, 가구용 비닐 등 기타 칫솔, 비누갑과 같은 일상품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플라스틱 재료를 틀에 넣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약 20개소의 성형공장에서 쓰는 원료수입대로 3백만 불의 외화가

매년 소비되고 있다. 이 중에서 PVC로 충당할 수 있는 것만을 수입 안한다면 약 140만 불의 외화가 절약된다.

三. 인공 고분자 화합물의 이점

하여튼 이렇게 만든 인공 고분자 화합물인 합성고무 플라스틱 합성섬유는 고무와 같은 탄성 밀가루 반죽과 같은 마음대로 성형할 수 있는 가소성(可塑性)을 뽑을 수 있는 방사능(紡糸能),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성막능(成膜能), 아교와 같은 접착성, 또는 기계적 강도, 신성(伸性) 등을 위시하여 유리와 같은 투명성, 내수성(耐水性), 내약품성(內藥品性), 전기절연성(電氣絶緣性) 등을 생각할 때 우리 생활에 얼마나 뿌리 깊게 이용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 거리를 걸어가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실례지만 관찰해보기로 하자. 우선 그 백옥 같은 몸을 감싸고 있는 흰 블라우스는 나일론이라고 하는 합성섬유이다. 또 줄진 스커트는 대쿠론이라는 합성섬유 즉 고분자 화합물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핸드백이 가죽보다 더 멋있게 보이는데 살그머니 관찰해보니 소위 비닐레자라는 플라스틱 제품이다. 양말은 말할 것도 없이 나일론 양말이고 구두, 구두창 역시 비닐계의 플라스틱이다. 또 무엇이 몸에 붙어있는가 보았더니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이 안경테도 플라스틱이라는 고분자 화합물로 되어 있다. 결국 따지고 보니 고분자 화합물 미인이 되고 말았다. 전부 외국산이냐고 천만에. 전부가 국산 품이며 원료만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번 5개년 경제계획으로 염화비닐 수지공장이 건립되면 원료도 순 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천연(天然)에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인공적으로 합성 못하는 대신에 천연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쓰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 예로는 인공합성 고무는 천연고무보다 더 질겨서 심지어 2차대전 이후에는 중전에 철로 만들어진 탱크의 무한궤도(無限軌道)에도 쓰이고 있다.

四. 플라스틱

인공 고분자 화합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플라스틱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웨브스터 사전(辭典)에는 “점토(粘土) 또는 석고(石膏)와 같이 성형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점토나 석고는 플라스틱이 아니므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천연물 중에는 플라스틱과 조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 있다. 이런 것으로는 인도의 락크 충(虫)에서 채취하는 세락크 암바로진 같은 천연수지가 있고 또 광물성으로 핏치같은 것이 있다. 이런 물질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금일(今日)은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 공업이 발달되어 열과 압력을 써서 마음대로 여러 가지 것을 합성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목적에 따라서 성형하여 여러 가지 성질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열을 플라스틱에 작용시키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것으로 플라스틱 분야는 2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열가소성(熱可塑性) 플라스틱이며 열을 가하면 언제나 연해지고 원하는 형태로 성형할 수 있고 그대로 냉각하면 성형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굳어버린다. 굳은 것을 다시 가열하면 또 다시 연해지는 것이며 가소성을 다시 나타내며 몇 번이고 되풀이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열경화성(熱硬化性) 플라스틱인데 이것은 목재에 열을 가하여 연하게 하여 성형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로이지만 이때 화학변화가 일어나서 성질이 아주 변하는 점이 다르다.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원자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기다란 분자간에 상호결합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경화한 후에는 다시 가열하여도 용융(溶融)치 않으며 영원히 가소성인 상태는 재현치 않는다. 따라서 상당한 고온도를 가하지 않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열가소성인 수지로 만든 빗, 비누갑 등은 가열에 의하여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으나 열경화성인 요소수지(尿素樹脂)로 만든 우산대 공기 같은 것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열가소성 수지로 만든 것은 부뚜막 같이 뜨거운 데 놓지 않아야 하며 열로 모양이 우글쭇글하게 된다.

1900년 경 베크라이트 씨는 소독약으로 쓰고 있는 두 가지 화합물 즉 포름알데히드 수용액(水溶液)인 포르말린과 석탄산(石炭酸)을 촉매(觸媒)와 섞어 반응시켜 1분자의 물을 빼내서 화합케 하였다. 이 화합물은 기다란 사슬 모양의 분자로 형성되어 있으며 열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페놀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주요한 용도는 분쇄해서 성형용 분말로써 가공업자에게 판매된다. 이러한 분말은 원료이며 성형가공 공장에서 원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제강철(製鋼鐵) 공업과도 흡사하다. 즉 일부의 재료업자가 재료를 만들고 이것을 다른 공장에 공급(供給)하여 공작해서 기계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성형공정에 있어서 분말은 열과 압력의 작용으로 끈적끈적한 액체로 되는데 이것을 압입(壓入)하여 성형한다. 여기서 최후단계의 반응으로 수지가 된 것을 가열해서 부서지지 않는 물체가 되게 된다. 이렇게 만든 수지제품은 장식 또는 보조 재료로써 실내 바닥 타일, 메라민 계의 화장품을 위시하여 열절연체(熱絶緣體), 방음재, 시트, 강화플라스틱 판, 블라인드 등에 이용되며 석탄산이나 요소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한 베니야판도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생산되고 있고 초산비닐계 또는 아크릴계 실내도료도 이미 수입되고 있다.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것으로 폴리스틸렌의 빗, 초산섬유소의 비누갑, 칫솔, 우산대, 전기소켓, 레코드판, 폴리에틸렌의 보자기, 주머니 등이 있다. 자동차 차체나 보트 선체를 폴리에스테르로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깨끗하고 튼튼하다. 무겁고 깨어지기 쉬운 유리 대신에 가볍고 질긴 메타크릴수지로 유리창은 물론이고 안경알, 렌즈까지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디오 소리에 잠이 깨고 고분자 화합물의 합성섬유로 된 옷을 입고 고분자 화합물로 된 타일에서 생활하는 시대다.

생활경제 A·B·C
-소비이론을 중심으로-

최호진(崔虎鎭) <경박(經博)>

III.

다음에는 공급가격의 법칙과 결합생산비를 보기로 하자. 먼저 공급가격의 법칙을 보기 위하여 ① 생산비가 변하지 않는 경우, ② 생산비가 줄어드는 경우, ③ 생산비가 늘어가는 경우의 셋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①의 경우는 생산량의 다과에는 관계없이 한 단위의 생산비가 일정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가격이 생산비에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에 생산비보다 가격이 비싸면 생산이 활발하게 되어 공급이 느는 결과 가격은 떨어져서 생산비에 일치하며 이와 반대로 생산비에 비하여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은 침체되어 공급이 주는 결과 가격은 올라가 마침내 생산비와 같아지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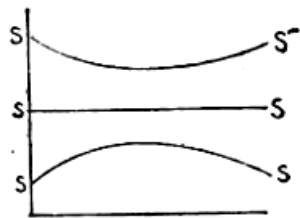
이 경우에는 가격이 생산비와 같게 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 있어서는 오랫동안을 두고 본다면 가격이 생산비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왜 그러나 하면 기계가 발달됨에 따라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생산비와 가격 사이에 어긋이 생기게 된다. 다만 자유경쟁 아래에 있어서는 공업생산물만이 생산비와 같게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②의 경우는 생산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한 단위의 생산비가 점점 줄어져 가는 경우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재화의 가격이 그 최저의 생산비와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는 특히 공업생산물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공업생산물의 생산이 늘어간다는 사실은 대체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면 생산을 대규모로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고 따라서 한 단위에 대한 생산비는 줄어드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임금(賃金) 등과 같은 유동자본에 대한 고정자본(기계 등)의 구성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생산비가 오랫동안을 두고 가격에 비하여 월등하게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나 하면 발달된 기계를 채용하여 실사 초과이윤(超過利潤)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기계는 얼마 안 가서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때문이다. ③의 경우는 생산비가 각 기업자에게 있어서 같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화의 가격이 최고생산비와 같아지려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재화의 가격에 비하여 최고생산비가 비싸지면 생산은 침체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가격이 올라서 감소된 공급량에 있어서의 최고생산비에 일치된다. 반대로 최고생산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생산은 활발하여지고 공급은 증가한다. 그 결과 가격은 떨어지고 이리하여 증가된 공급량에 있어서의 최고 생산비에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농업생산물의 형(型)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한 단위의 생산비를 늘림으로써 농산물의 수량도 느는 까닭이다.

이상에서 ②를 공업생산물의 형, ③을 농업생산물의 형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엄밀하게 구별할 것은 못된다. 왜 그러나하면 공급곡선(가격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공급량을 나타내는 곡선)의 체감, 체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량이 어느 범위에 있어서는 체감의 경향이 있으며 다른 생산량의 범위에서는 체증의 경향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상 ①②③ 세 개의 형은 생산량과 공급가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공급가격의 법칙'이라 한다. ①②③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S S'는 생산비가 불변인 때, S S''는 생산비가 체감할 때, S S'''는 생산비가 체증할 때, 공급곡선에 이와 같은 세 개의 형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첫째의 원인은 생산을 대규모로 하면 이익이 생기는 점이다. 이익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곡선의 형식을 결정된다. 둘째 가격변동이 그 산업전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유리하냐 하는 문제는 또 공급곡선의 형식을 결정한다. 마샬(A. Marshall, 1842~1924)에 의하면 전자는 내부적 경제에서 오는 원인이며 후자는 외부적 경제에서 오는 원인이라고 한다.

공급곡선을 이상과 같이 해석함은 장기의 결과를 한 시점에서 표시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생산설비가 생산량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생산설비는 이것이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상 ①②③ 세 개의 형은 생산량과 공급 가격과의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서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생산량과 공급가격과의 관계를 단기간으로 본다면 생산설비는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인 것으로 된다. 만일에 생산설비를 고정적인 것으로 한다면 생산설비는 일정한 생산량을 내는데 있어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 점을 넘는 생산량은 단위생산비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생산비 체증의 법칙이 작용된다. 생산비 불변·체감·체증의 법칙은 이를 수확불변·체감·체증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다만 생산량의 변동에 따르는 생산비의 변동에 중점을 두어서 보는 경우에만 생산비 불변·체감·체증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다음에는 결합생산비(結合生産費)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공급의 분석에 있어서 결합생산비가 문제되는 까닭은 결합공급이 고려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이다. 꼭 같은 생산과정에서 종류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의 상품이 생산되거나 혹은 여러 방면의 용도에 쓰이는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에 이를 결합생산물이라고 한다. 결합생산물에 있어서 각종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부분의 전체에 대하여 생산비가 지출되는 경우에 이 각종의 상품 또는 부분은 결합생산비를 가졌다고 한다. 전자에 속하는 예로는 가스회사에서 가스, 콕스, 콜타알 등의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또 같은 기차·기선에다가 동시에 여러 상품을 수송하는 경우, 같은 광산에서 여러 가지의 광석을 채굴해 내는 경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가 우유, 우피, 뿔, 우황 등을 내며 보리가 곡식과 맥고를 내며 목화나무가 목화와 면실을 내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면 이 결합 생산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결합생산비를 그 전체에서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 요소에서 알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 방법은 결합생산비를 쪼개는 수밖에 없다. 소 먹이는 사람이 소 전체에 대하여 결합생산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우유, 우피, 내장 등에 따로따로 가격이 먹힌다. 즉 결합생산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가격이 먹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결합생산비는 분할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첫째, 같은 생산과정에서 각종의 상품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스 및 콜타알이 수요되는 형편에 따라서 공급이 결정된다. 그리하여 이들 상품의 가격을 합제한 것이 결합생산비와 같은 경우에는 결합생산물의 분할이 얻어진다. 둘째, 동일 생산물이 그 용도를 달리하는 각종의 부분상품을 내는 경우, 예를 들면 소가 수요되는 형편에 따라서 소의 공급은 결정된다. 즉 소의 가격을 결합생산비와 같이 하여 놓는다. 그러면 결합생산비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우피의 수요 여하에 따라서 우피의 가격을 우선 정한다. 앞서 정하여 놓은 소 전체의 가격에서 우피의 가격을 빼낸 잔액을 우유의 가격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비를 분할한다.

그리고 결합생산물에 있어서는 어느 한편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한편의 가격은 떨어진다. 가령 가스가 많이 수요되면 그 가격은 오로지만 만일 코옥스의 수요에 변동이 없으면 그 가격은 떨어진다. 그 까닭은 가스가 많이 수요된다고 하여 그 생산량을 늘리니까 동시에 코옥스의 생산량도 많아지는 까닭이다. 이와 반대로 가스의 수요가 줄어들면 동시에 코옥스의 공급도 줄게 된다. 그리하여 가스의 가격은 떨어지나 코옥스의 가격은 올라간다. 이상의 예는 한편의 공급증가가 동시에 다른 한편의 공급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의 상품에 대한 예다. 그렇지 않고 한편의 공급증가가 다른 한편의 공급을 감소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편의 가격이 다 같이 오른다.

다음에는 상품의 수량과 생산비와의 관계에 관련되는 몇 개의 법칙을 보자. 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데 따라서 평균 비용이 체증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비용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에 대하여 상품의 수량이 증가하는데 따라서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비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비라는 것은 어느 상품을 생산하는데 개개의 기업가가 필요로 하는 비용 즉 사경제적(私經濟的)인 비용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 즉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 중 최악의 생산조건에 있어서의 비용 즉 최고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평균적 생산조건에 있어서의 비용 즉 사회의 농산물의 대다수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생산조건의 우열은 자연적인 원인에 기인하며 따라서 그 생산비는 평균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공업생산에 있어서의 그것은 주로 인위적인 원인에 좌우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생산비는 평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에는 전설(前說)이, 공업생산에는 후설(後說)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하 간에 가격의 기준인 생산비보다 적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부문은 평균 이윤 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에는 비용체증의 경향이 있고 공업생산에는 비용 체감의 경향이 있다고 한다. 비용 체감의 법칙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대량 생산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일명 '절약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생산요소를 대규모로 결합을 하면 상품 한 단위의 코스트는 절약이 되며 따라서 생산은 대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이 가능한 것으로 되자면 노동 대신에 기계가 낡은 기계 대신에 우수한 기계가 나오며 기업이 큰 규모로 되는 데 달렸다.

(이하 다음 호에 계속)

× × ×
× × ×

52 IMPORTANT MURDERS

by Roy Carroll



조용한 살인

로이 카로올
유기영(柳起英) 역



그는 살인을 하였다. 그는 누구를
위하여 살인을 하였는가? 아니
그는 과연 마땅히 살인죄에 대한
처형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 소설의 작자는 이것을 독자에게 물어본다. (역자)

I

바이트 카리스타는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랫배가 약간 떨리는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의 자리는 50명가량의 거의 한가운데였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은 누구를 보아도 모두가 자기와 같은 민간인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의 표정이 자기와 다를바 없이 불안스럽다. 그래서 카리스타는 이 사람들도 모두 자기와 같이 간단한 종이조각 한 장으로 소집당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 종이조각에는 지극히 간단하게 용건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과, 사태가 긴박하다는 것과, 인선(人選)은 주도하고 신중을 기했다는 것…….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불안을 더할 뿐이다.

어떤 명령이 내려질 것인가? 여기는 워싱턴.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5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워싱턴을 방문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던 곳이다. 돌연 전화가 걸려 와서 그 조용한 로터리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나가보니 그 남자는 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는 살며시 내미는 것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간단한 종이조각의 소집장이다. 아내인 로라에게는 이틀간 여행할 용건이 생겼다고 속이고 떠났겠다……. 그리고는 지금 워싱턴까지 오기는 했으나 지금 있는 곳이 어디며 앞으로 어디를 가는지는 전연 오리무중이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시간 쯤 기다리면서도 한사람도 얘기를 거는 사람이 없다. 카리스타는 담배를 태울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담배조차도 아무도 피우는 사람이 없다. 바로 나란히 앉은 옆의 사람에게 얘기를 거는 사람도 없다. 얘기를 해봐야 이렇다 할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카리스타는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열한 시가 가깝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 집이 있는 곳은 열시겠구나.”

아이들은 침대에 들어갔을 것이다. 로라는 뜨개질을 할 것이다. 아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야, 나를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금의 나처럼 불에 튀기는 것만 같은 이 같은 불안에 쌓여있지 않는 것 많은 틀림없다.

그 로터리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보이던 남자의 말이 생각났다.

“부인에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볼티모어 시에 강연에 관한 타협할 일이 있어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온다고.”

그렇잖아도 카리스타는 강연에 관한 용무로 볼티모어에 갈 예정이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냐고 물어볼 생각을 잊어버렸다. 그만큼 그는 놀랐던 것이다. 이것은 그 뒤에 알았는데 그 남자는 바트, 카리스타에 관해서 거의 모르는 것이 없었다. 카리스타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일까지도 이 남자는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는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다.

로라를 속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로라는 역까지 전송을 나왔다. 그는 남편이 볼티모어 행 열차에 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카리스타는 그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워싱턴에 왔던 것이다. 역에서 그를 영접한 것은 그 로터리에서 만난 남자와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카리스타는 그 남자의 차에 올라 눈을 가리고 한 시간 가량 달려서 지금 있는 이 방에 와있는 것이다.

밖에서 사람들이 떠들썩하다. 그러더니 도어가 열리고 수 명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카리스타는 앞에 앉은 사람들 머리 사이로 내다보았다. 들어온 사람들은 6명. 나란히 정면의 벽을 등지고 일렬로 선다. 그리고는 이 쪽을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본 카리스타는 깜짝 놀랐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있겠는가? 그 분은 틀림없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진을 찍히는 얼굴이었다. 어김없이 그 얼굴이다. 신문에 뉴스, 영화에 그리고 텔레비전에…….

누구인가가 그 분을 소개했다. 소개할 필요도 없다.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아는 분이다. “여러분 방금 올라오신 분은 대통령 각하이십니다.” 바트 카리스타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몰랐다. 기립하여 부동의 자세를 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박수를 쳐야 하는지 또는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 되는 것인지……. 중대한 용건이라는 것은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일인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통령은 곧 단상에 올라 모여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취향이 그럴 듯한 그레이 색 옷에 세하얀 와이셔츠, 넥타이는 화려한 편이고 희끔희끔한 흰머리가 뒤로 넘겨진 엄숙한 얼굴, 그 표정만 가지고도 놀랄만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입을 아직 떼기도 전인데.

어떠한 사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나이를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 선거 때에도 나는 이 분에게 한 표를 던지지 않았던가. 오늘처럼 긴박한 사태가 되어서는 백퍼센트, 그를 위해서 일 해야겠다. 카리스타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여러분.” 하고 대통령은 입을 열었다. “나는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면식이 있지 않습니다. 미는, 오늘 저녁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나 자신이 직접, 많은 인사(人士)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선정했으므로…….”

낮은 음성이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꼭 들어야 하겠다는 긴장에 의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대통령의 엄숙한 말소리가 계속되었다. “이것은 국가의 극비에 속하는 기밀인 고로 타인을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은 목하 중대한 난국에 서있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나 공격을 받을 위험성은 긴박해있는 것입니다. 그 적이 어느 나라인가는 세상 본인의 입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이상 질문이나 토론은 생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본인의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믿어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공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예상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몇 가지 형태가 동시에 병합되어 개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의 정적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공격일 것입니다. 해, 륙 양면으로부터의 장거리 탄도탄 공격이 그것이었지요. 본토 및 해외의 기지가 군사적 공격과 사보타주의 목표로 대상될 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군사적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점, 그것은 의당 정부가 생각하고 조치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병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부가 만전의 태세를 갖추어져 있으므로 여러분께는 조금도 걱정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현대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 보다 더 위험한 공격,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절대한 협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리스타의 면밀한 두뇌는 급속도로 회전하였다.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을 잘못 선정했 것이 아닌가? 나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이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확실한 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위험에 당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리의 기우가 결코 기우로써만 그치지 않는다는 증거를 우리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인이 말씀드리는 사실을 들으신다면 여러분께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실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내에 적의 세력에 충성을 맹세한 위험분자는 대략 1만 5천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름은 빠짐없이 우리 기밀 서류에 들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행동도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들 무리들은 그 위에 소수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들에 의해서 괴뢰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것이며 외적이 침공을 개시함과 동시에 우리 현 정부와 교체할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 평화를 원한다는 그 가정부의 미명 아래 국민을 선동하고 국내의 통일을 파괴하며 군내의 사기를 위축시킬 것을 획책할 것입니다. 전시의 우울한 공기 속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책략은 심히 효과적일 것이며 아메리카 국민들 가운데 적어도 수백만의 지지를 얻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무리에 속하는 52명의……”

뭣? 52명!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수가 아닌가! 내가 그 무리와 관련이 있던 말인가? 카리스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으로부터 질문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 무리들의 이름이 조사되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정부는 즉각 체포하지 않는가? 1만 5천을 체포하기가 곤란하다면 52명의 지도자를 체포하기는 어렵지 않겠지. 왜 FBI를 동원하지 않는가?…… 이상의 질문,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실현은 곤란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은 목하 가능한 한 정세를 전쟁에까지 끌어들이지 않을 방침 즉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공연히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을 체포하자면 의당 그 체포 이유를 공표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모욕의 뜻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적국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전쟁 단계로 유발할 위험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둘째로의 이유는 약간 복잡합니다. 우리들의 사법(司法) 활동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야만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감이나 매우 번잡한 수속이 필요하며 따라서 활동은 완만성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고 비밀리에 체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체포의 단행이 폭로된다면 일시에 국내가 소란해지고 공황 상태가 발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나라는 적의 좋은 침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야 하겠습니까. 신속하고도 비밀리에……. 즉각, 이 52명의 반역자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언가 전율적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카리스타는 이마와 손에 땀이 배었다. 카리스타는 아직도 이 같은 문제에 어째서 자기가 불려 나왔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

“이 52명을 말살하면 1만 5천의 반역자는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심중팔구는 이로써 선전포고의 위기를 모면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침략자는 국내의 연락의 두절됨으로써 반역자들을 일단 의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협력 없이는 침략자는 개전할 용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52명을 말살함으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은 높은 것입니다.”

땀이 흘러서 눈에 들어간다.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지경이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마구 뒹군다.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에 있어서 행정, 사법 양 기관의 최고위에 있는 자입니다. 이 입장을 자각한 위에 여러분께 대해서 감히 법률을 파괴할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본인만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요망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이 같은 법률의 파괴는 피하고자 하나 차제에 한해서 여러분께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암살자가 되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이 잔혹한 심정으로 이 살인의 범행을 감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각을 다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시기를 물릴 수는 없는 긴박한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카리스타는 가슴 속에서 광인처럼 웃어대었다. 15년 이전에는 한국전쟁 전선에서 살인을 하였다. 잔인한 필요성에 쫓겨서 살인 행위에 종사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문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아닌가……. 왜 나 같은 학자를 선택했단 말인가?…… 문학, 대통령은 문학이 무엇인가를 전연 모른단 말인가? 오오 주여 주여……. 대통령의 말은 계속되었다.

“이 중대한 사명에 여러분이 선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임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째,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충성심을 가지셨다는 점, 여러분의 애국심은 우리들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모두가 한국 전장에서 여러 가지 빛나는 영예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여러분 전원은 이미 살인의 경험을 가지므로써 기백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용기와 애국심과 평화정신에 의해서 이 살인이 확실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그리고 또 용이하게…….”

카리스타는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려 귀를 기울였다. 곧 이어진 대통령의 다음 말이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I

위싱턴을 떠나 15분, 비행기 위에서 바트 카리스타는 매우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스투어디스는 친절하게 비행사와 의논하여 임시 착륙해서 의사에게 보여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러나 카리스타는 거절했다. 지급히 집에 돌아가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승객 가운데서도 껍이나 친절한 남자가 있었다. 처음 그는 친절한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또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에게 소집장을 가져왔던 그 공무원이었다. 카리스타는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그 남자는 모른 채 하라고 눈짓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카리스타는 택시를 주위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에는 로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로라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다.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카리스타는 비행기는 내게 맞지 않아 하면서 볼티모어에 갔던 용건에 관해서는 얼버무리고 말했다.

이 날 하오에는 어느 때처럼 교실에 나가서 이력저력 강의를 마쳤다. 무엇을 강의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머릿속에는 살인의 계획이 자꾸만 떠올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판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살인의 자신이 없는가보다. 자식이 그만 어디로 도망을 가렸으면 하고 생각했다.

다섯 시가 되어서 그는 슬그머니 교정(校庭)에 나가 보았다. 마침 벤치가 비어있었기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았다. 그가 담당할 ‘말살해 버려야 할 반역자’는 물론 같은 대학의 교수였다. 교수는 모두가 변인(變人)의 집합이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 해가 질 무렵은 제법 쓸쓸하다. 그런데도 벤치에서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는 인종들이다. 어둡침침한 전등불을 원망하지도 않고 정신없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카리스타도 책을 펴 들고 있다. 그러나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살해 버려야 할’ 그 남자가 이맘때 쭉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카리스타는 이전에 여러 번 보아왔다. 그러나 까 그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면 오늘도 이 교정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벌써 퇴교해 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은, 그렇다 혹은 그가 이미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자취를 감춰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누군가? 바로 그 자로구나. 아아 그 자는 도망을 가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카리스타는 절망적인 충격을 느꼈다. 무언가 괴상한 별레가 등줄기를 타고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름을 느꼈다.

기형적으로 배를 숙 내민 그 사나이는 어제와 다름없이 검은 코트의 깃을 세우고 두툼한 가죽 가방을 끼고 있었다. 숙 내민 배에 거의 등글다 싶은 가방을 낀 그 사나이는 산에서 내려오는 꿈을 연상케 한다. 전신을 검은 옷으로 둘러감은 그는 마치 곰처럼 이쪽으로 걸어온다. 그는 물리학 교수 주이코프 아만.

카리스타는 그가 자기를 보기 전에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대로 앉았으면 그와 시선이 마주치고 만다. 그것조차 카리스타는 괴로웠다. 발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대로 앉아서 꿈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이코프 아만 - 어딘가 구라과의 대학에서 왔다던가. 쭉그러진 윗트 모자, 색이 날아간 것 같은 재색 눈썹, 밑으로 뻗은 수염, 도수가 높은 티 없는 안경, 어디로 보나 외국인 차림을 그대로 가지는 보기에는 지극히 순진스러운 사나이다.

아만이 가까이 왔다. 뚱뚱한 늙은이다. 조금도 경계하는 눈치는 없다. 이정도 같으면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공연히 내가 먼저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나치면서 아만은 고개를 끄덕하고 지나갔다. 아직 인사는 없지만 같은 교수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카리스타가 답례를 하기도 전에 벌써 지나가고 말았다.

죽인다면 이때다. 카리스타의 머릿속에 전광처럼 번쩍했다. 운동장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곤 없었고 이미 어둡사리가 끼어들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죽여버리고 도망치자. 깔고 눌러 목을 졸라대면 껍 소리 못하고 지옥으로 직행이다.

그러나 카리스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보다 강한 본능이 나를 구해준 것이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마터면 큰 일을 저리를 뻘했다. 운동장 같은 곳은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곳이다. 자기 방위의 본능.

그러나 그는 만족하는 것이 있었다. 이로써 살인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회다. 기회만 만들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카리스타는 천천히 일어섰다. 문명이라는 비단 옷에 두루 말린 자기 자신의 야성(野性)에 그는 소름을 느끼면서…….

아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다섯 시 20분. 아주 어두워졌다. 책을 옆에 끼고 반마일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식사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떠들어 댔다.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는 언제나 방심상태였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은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이다. 데이비드는 올해 열 살, 다이나는 열두 살, 이 두 소년과 소녀는 제각기 풋볼 이야기며 학예회 얘기를 한꺼번에 털어 내놓는 바람에 어머니 로라는 번갈아 상대를 해주면서도 걱정스레 남편의 얼굴을 살피고 있다.

식사가 끝나자 아이들은 부엌으로 나갔다. 로라는 정면으로 남편의 고민을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오늘 밤 어디 가보지 않겠어요?” “외출?” “구경이라도 가고 파요.”

로라는 거짓말을 했다.

(차호(次號)에서 끝)



<창작>

파란 창과 아이의 행복

김요섭(金耀燮)

밤이 깊도록 글을 쓰다가 피곤하면 나는 곧잘 베레 모자를 눌러 쓰고 산책을 나선다. 글을 쓰노라고 무거워진 머리를 찬바람에 쏘이기 위해서이다. 나의 밤의 산책 코스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다. 버스 종점에서 언덕을 넘어 산 쪽으로 뻗어 있는 길이다. 언덕에 올라서면 서울의 불빛들이 멀리 내려다보인다.

반대쪽인 산 밑을 바라보면 새로 세운 4층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아파트에는 많은 창이 있다. 그 많은 창에는 모두 불빛들이 어려 있었다. 멀리서서 창마다 비친 불빛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행복을 보듯 마음이 흐뭇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창 하나만이 캄캄하게 불빛이 없다. 그 모든 창에 행복한 불빛들이 켜져 있는데 혼자서 불빛이 없는 창은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나는 늘 불빛 없는 창을 바라보다가 그 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불빛 없는 창에 대해서 느낀 궁금증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나의 생각을 소설과 같이 이야기를 꾸미게 하였다.

밤이 깊은 다음, 언덕에서 아파트의 불빛 없는 창을 보면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은 이제는 나의 조그마한 취미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그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밤이 새도록 써야 할 글이 있었다. 어느 때보다 더 밤이 깊었다. 자정도 넘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찬바람을 쐬어야만 쓰던 글이 더 풀려나갈 것 같다.

나는 집에서 나왔다. 언덕을 향해서 걸었다. 언덕에 올라서니 캄캄한 하늘과 산을 뒤로하고 아파트가 우뚝 서있었다. 창마다 불빛들은 모두 꺼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창 하나가 뻗하게 밝혀져 있었다.

바로 다른 창에 모두 불이 밝혀져 있을 때 홀로 불빛이 없는 창이었다. 그 창이

이번에는 다른 창들이 꺼진 이때에 혼자서 켜져 있었다.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나는 그 창에 대해서 더욱 궁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냥 언덕에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나의 걸음은 저절로 아파트를 향하여 걷게 되었다. 고요한 밤길이었다. 길가의 풀벌레소리만 들렸다. 나는 슬렁슬렁 혼자 켜진 아파트의 창을 바라보며 걷게 되었다. 아파트 밑에까지 왔을 때 뻗하게 비치던 창이 파란 빛으로 변하였다. 이튿날 밤, 일을 하다가 머리를 쉬고 있으려니까 파란 창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다른 때는 좀 더 걸어 나가서 합승을 하고 성안으로 들어가기가 일쑤였으나 나는 이상하게 버스를 타고 싶은 생각이 더러 났었다. 가끔 버스를 타기는 하였으나 요즘 와서는 별로 타지 않았다. 버스 종점에는 대개는 낮익은 사람들이 서있다. 그러나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 보는 키가 훌쩍하게 큰 사람이 서 있었다. 곁에는 빨간 모자를 쓴 여자 아이가 서 있었다. 여섯 살 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는 손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한손에 받들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 되어 이곳 종점에는 다른 사람이라곤 별로 없었다. 나와 그 두 사람과 세 사람뿐이었다. 저절로 우리들의 눈짓은 마주치고 말았다. 그때 나는 이상한 일을 보았다.

빨간 모자의 아이가 바이올린 케이스로 그의 아버지 같이 보이는 사람의 옆구리를 쿡쿡 밀어댔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빨간 모자의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빨간 모자의 아이는 몇 번 그 맑은 눈을 깜빡거리려 보았으나 무슨 눈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키가 큰 사람과 빨간 모자의 아이는 약속이나 한 듯 내 앞에서 돌아서 버렸다. 키가 큰 사람은 허리를 굽혔다. 빨간 모자의 아이는 발돋움까지 하면서 키가 큰 사람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어라고 속삭였다. 다시 돌아선 빨간 모자의 아이는 나를 보면서 빵긋 웃었다. 빨간 모자아이한테서 귓속말을 들은 키 큰 사람은 나를 유심스레 보고 있었다.

버스가 왔다. 버스 속은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하였다. 손님이라곤 우리들 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자리에 앉았을 뿐이다. 내가 앉은 맞은편에 일부러 빨간 모자의 아이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가슴에 안고 앉는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빨간 모자의 아이와 같이 올라탄 키 큰 사람도 나와 마주앉게 되었다.

꿈쩍 못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빨간 모자의 아이는 다시 생긋 웃더니 머리를 꾸벅 하고 서는 인사를 하였다. 덩달아 그 곁의 사람도 가볍게 목례를 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서로 아는 척하였으나 사실 서로 모르고 있는 사이라 나는 한참 망설이고 있는데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섰다. 노인이 후우후우 숨을 쉬면서 올라탔다. 나는 내 자리를 내어주고 저절로 금방 모르는 채 인사한 빨간 모자아이의 앞에 가서 섰다. 서로 아무 말도 안하고 설 수가 없었다. 그러자니 일부러 차창 밖 풍경만 훑어지게 내다볼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빨간 모자의 아이가 나를 부르면서 일어섰다. “제 자리에 앉으세요.”하고 자기 자리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그 곁에 앉았던 사람도 일어서서, “아니아니 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 자리를 권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면서 사양을 하였다. 이때 또 차가 정류장에 머물면서 꽃을 바꾸니에 가득 담은 꽃장사가 올라탔다.

“아 저봐 따리아!” 빨간 모자의 아이가 나를 보고 외쳤다. 그 목소리는 나도 그 꽃을 따달라는 눈치 같았다. 나는 대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소설의 이름이 「따리아」인데 지금 꽃장수가 들고 있는 꽃도 따리아였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앉은 아이가 나를 아는 척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연재소설이 나오기 전에 내 사진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용기를 내었다. 나는 방긋이 웃으며 물었다.

“어디까지 가지?”

생긋 웃기만 하고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집이 어디지?” 곁에 앉았던 사람은 슬며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안은 그 아이의 얼굴은 이상하게 흥당무가 되었다.

나는 물어서는 안될 것을 몰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일론 이야기를 들려야 했다.

“너 바이올린을 배우니?”

“아뇨.”

그때서야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말을 더 했다.
 “이건 아버지의 바이올린인데 빼앗아 가요.” “아니 이 애가!”
 곁에 앉았던 키가 훌쩍한 사람은 당황해하면서 말하였다. 그때서야 나는 알았다. 이 아이하고 그 사람은 아버지하고 딸 사이라는 것을 눈치 챘다.
 “선생님 글을 쓰시죠?” “네!” 나는 대답하였다.
 “선생님의 사진을 보아서 잘 압니다.” “네 뭐.”
 이번에는 내가 좀 어색한 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가 멎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 저절로 나에게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아니 선생님은 여기서 내리십니까?” “네.”
 “그럼 저도 같이 내리겠습니다.”하면서 그 사람은 황망히 차에서 나를 따라 내렸다. 물론 그 곁의 아이도 아버지를 따라서 내렸다.
 “선생님 좀 얘기할 수 없을까요?”
 나는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얘기일까. 내가 좀 어색한 얼굴을 저으니까, “저 나는 바로 그 언덕 넘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머리에는 얼른 아파트의 파란 창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그 파란창 안에는 소설보다 더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짐작한 어느 날 밤의 기억을 또 생각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다방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린애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그냥 가슴에 안고 힘에 겨워하면서 들고 있었다. 다방에 들어가 앉은 우리들은 한참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우선 아파트의 파란창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지요.” 나는 이 말에 놀랐다. 빨간 모자의 아이와 아버지는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좀 놀라는 기색을 아이는 또 알아채 버렸다.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데리고 가지요. 아버지는 나보다 이 바이올린이 더 소중한건가요.” 아이는 불안스레 머리의 빨간 모자를 벗으며 말하였다. 빨간 모자의 아이의 아버지는 미안한 듯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방 벽에 그린 그림을 쳐다보았다. 나의 마음은 바짝 탕기었다. 사실 짐작한 것과 같이 파란 불빛의 유리창 속에는 내가 상상 못할 이야기가 있으리라던 생각이 맞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제가 누군 줄 짐작하시죠?”
 빨간 모자의 아이는 “벌써 아까 버스를 탈 때 다 알았는데 뭐.” 자랑스레 대답하였다.
 “그럼 하나 물겠는데 아버지의 바이올린은 왜 데리고 가지? 아버지는 그냥 아파트에 두고” 나도 빨간 모자의 아이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언제나 같이 있지 않을걸 뭐.” 이때서야 대강 짐작이 다 갔다. 빨간 모자의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따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헤어져 사는지를 모를 일이었다. 아마 이것은 빨간 모자의 아이도 어려서 모를 일일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아이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빨간 모자의 아이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 틈바귀에서 어린 아이만이 쓸쓸한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마음에 안 되었다.
 “그럼 이 다음에 다시 만날까요?” 내가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 우리가 다방에 마주 앉아서 그리 얼마 되지 않은 때였으니까 빨간 모자의 아이와 그의 아버지는 좀 당황하였다.
 “어디 바쁘십니까?”
 “네!”나는 바쁘지 않으면서 바쁘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도 좋습니다.”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언제.”
 “오늘 저녁으로 하지요. 저녁 먹고 선생님의 아파트로 찾아가 뵙지요. 선생님께 실례가 안 된다면.”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그럼 약속을 합시다. 몇 시예요.”
 “저녁을 먹고서 저 산책을 그쪽으로 나갑니다. 아홉시에서 열시?”
 언덕에 올라섰다. 4층 아파트가 창마다 불빛을 밝히고 어둠속에 서 있었다. 늘 혼자 켜져 있지 않던 창도 오늘밤은 켜져 있었다. 쓸쓸한 아이가 사는 집 창은 불을 켜도 밝아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나의 생각은 새로운 얘기가 마음속에서 풀려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오늘 아침 아파트의 몇 호라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가까이 가니까 파란창으로 변하는 그 집을 서슴지 않고 노크하였다.

논단
 XXXXX

문제론(問題論)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대위 김병로 <행정관실>



여기서는 문제를 Problem으로 새겨서 그 중 난제(難題)라는 해석을 택하고 논한다.
 무릇 인간은 이 세상에 낙지(落地)하는 순간부터 문제에 부닥쳐야 하고 의식(意識), 무의식 간에 이의 해결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숙명에 있다. 의식이 없는 유아 때는 본능에 의한 울부짖음으로 아픔과 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장성함에 따라서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성장함에 비례해서 문제의 범위는 확대되고 복잡의 도(度)도 더해진다. 처음엔 대(對) 부모와의 관계로 출발하여서 대인, 대사회, 대국가 더 나아가서 대우주 관계에로까지 문제의 범위는 확대되는 것이며, 복잡의 도나 심각의 도도 개인의 생명을 사경(死境)으로 이끄는 지경까지 함입(陷入)될 수 있다는 사실에 외면할 수가 없다.
 물론 사람의 천성이나 처지에 따라서 개인이 부닥치게 되는 문제의 유형(類別)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겠지만, 누구나 문제와 전혀 유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문제해결을 위한 몸부림이 곧 나날의 우리의 생태라고 봐서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깊은 수면(睡眠)으로 까마득히 잊었던가 싶던 어제까지의 문제가 아침에 기침(起寢)하여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사이에 다시금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오늘날로

4월에 오는 비는 와도 그 마음 꽃술처럼 화알짝 피는 까닭을 알았으랴. 사랑을 듬뿍 쏟아 피가 뛰노는 그 날, 나는 외로운 고도(孤島) 석산(石山)에서 풀 한포기라도 심고 싶었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 벼랑 위에서도 벽찬 환성을 지르며 몰려오는 나불나불의 태산에 멎든 심장을 씻어내어 한뼉기 탐스러운 꽃을 피우고 싶었다.
 속국의 긴긴 세월에 흘러간 슬픔과 분노와 기막힌 치욕과, 들이 되어 끝내 그래서 안 될 사람끼리 삶과 죽음을 사냥하는 총차루 앞에서 두견화 피맺힌 사록(詞錄)을 읽어야만 했던 동란(動亂)을.
 그래서 회진된 내 하늘과 산하에 한 마리 비둘기라도 날려 보내고 싶었다.
 사랑아
 그리고 애석한 이 심사(心思)사.

의 문제가 합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육박(肉薄)해 오게 마련이다. 우리는 삶건 죽건 오늘 하루도 이 문제와 대결해서 싸워야 하며 또 이겨야 한다. 그러나 문제와 싸워서 이긴다는 일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다.
 본론에서는 인생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취급치는 못하고 범위를 축소해서 우리 군인들이 군무(軍務)를 수행하는 도상(途上)에 부닥치게 되는 여러 종류의 문제를 나열해 보고 다음은 그 해결방안을 허용된 지면의 범위 내에서 논해 보기로 한다.

一. 문제의 종류

1. 업무직식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
2. 부주의로 야기되는 문제.
3. 태만으로 인한 문제.
4. 설마 하는 방심에서의 문제.
5. 부지(不知) 중에 일어나는 문제.
6. 남(상관, 동료, 부하)에 의한 문제.
7. 무능으로 인한 문제.
8. 가정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9. 사육에 인한 문제.
10. 감정에 인한 문제.
11. 이변(異變)에 기인된 문제.
12. 성격으로 인한 문제.
13. 질병에서 오는 문제.
14. 이성(異性) 때문에 오는 문제.
15. 기타

시(詩) **하나를 위한 탄원(嘆願) <조국에>**

김경영(金景永) (701세대)

술피 바람 일렁이는 그 산자락 험벗고 굶주린 북쪽 내 형제가 보내는 애끓는 호소가 품겨 있겠다.
우레
하늘이 아니라도 잔잔스런 가랑비 가락가락 마다 자유의 메아리는 산 넘어 가고 돌아온 솔개미 날개폭
깃털에 사무친 살인귀.
다문 입술 웃어주질 않는 저 굳어버린 벽(壁)을 허물고 쏟아지는 햇살.
그리워
그리워
달려오는 사람들 사람들
저 날개 치는 날개 치는 곤충의 보람찬 생애가 한없이 좋아.
조수와 기수는 활주로 끝에서 기폭을 날리어 과일렀을 또 하늘에 띄워 보는 석연한 동공에 아롱지는
그날
가슴 벽찬 이 환희가
4월에 오는 비는 와도 그 마음 꽃술처럼 활짝 피는 까닭을 알았으라.
사랑아
진정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일을 위해 작열하는 이 순간을 알았으라.
내 끓는 핏속에서 불꽃보다 힘찬 정열을
하늘 끝 그리운 천국에 라일락 꽃잎을 뿌리고 활개치는 활개치는 비둘기 날개 위 무한한 시공을 알았
으라.
고독한 내 성벽 이기가 길어간들 허물지 않는 영위(永濶)를 알았으라.
저문 해 외어곰 울고간 여울에 승어떼들 일렁이는 자랑을
나무 한 그루 먹이풀 한 포기라도 의식할 수 있는 내 부드러운 흙에 뿌리박아 내가
서기를
강한 근육을 이룬 산맥을
그래서 바다끝 요원한 지평선 일점까지도
나를 위해 나불치는 까닭을
꽃맹아리 맺어논 꽃나무 나무꽃 마다 푸른 잎 너풀거리는 힘찬 의욕을 알았으라.
사랑아
죽도록 사랑해도 부족한 사랑 앞에서 슬픔을 깨물고
그 하나만을 위한 기다림에 나는 외로운 고도 석산에 풀 한포기라도 심고 싶었다.
한떨기 탐스러운 꽃을 피우고 싶었다.

이상 열다섯 종류로 구분해서 나열해 봤지만 물론 이것으로 완벽을 기한 것은 못된다. 얼마든지 더 세분되
겠지만 개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여하(如何)히 해결하느냐의 우견(愚見)을
그것도 지면 관계상 줄거리만 추려서 약술기로 한다.

二. 문제의 해결방안

1. 문제의 포로가 되지 말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문제와 자기(理性)는 어디까지나 개별로 분리되어 존재하되, 자기가 우위에서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 있어야지 문제와 동격으로 엉키어서 이성을 잃거나 문제에게 자기를 요리하라고 맡겨
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속담에 범에게 잡혀가도 정신만은 똑똑히 차리라는 말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문제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참경(慘境)을 빚더라도 결코 나를 문제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2. 해결의 방향이 일정한 표적(標的)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이것은 문제해결의 주체인 자기가 늘 굳은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과녁을 모르고 활을 쏠 수가 없듯
이 일정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확실히 허망(虛妄)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자아
를 가져야 하고 그것이 문제해결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3.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데까지만 하면 된다.

사람은 특히 젊은 사람은 자기를 인간 이상의 무엇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런 관념은 문제해결의 장벽이 된다.

완전무결을 바라는 나머지 그 문제를 능력 있는데까지 끌고 가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拋棄)하는 경우가 많
다. 완전무결은 신에게만 기대된다. 인간은 언제나 부족과 허물 속에 살게 마련이기 때문에 부족 속에서 허
물 속에서 자기의 Best를 다하면 그만인 것이다. 진인사(盡人事)하고 대천명(待天命)하는 이상의 것을 바라는
확실히 감정의 사치요 실망의 전제(前提)이다.

4. 자기의 능력은 남이 속속들이 지실(知悉)하고 있다고 인정하라.

인간은 항용(恒用) 자아를 확대경에 비쳐서 외부에 표현하려 든다.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항
구성을 결(缺)한다. 더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마당에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주저하고 남의 눈을 피하려든다면
결단코 실패로 귀착한다. 자기는 자기보다도 남이 더 잘 평가하게 마련이고 또 그것은 보편타당성을 지닌다.
자기만이 유아독존 격으로 버틸 때 남은 비웃고 상대조차 않는 법이다. 못났어도, 무식해도 병신(病身)이라도
자기대로의 자기를 주장해 두는 것이 언제나 마음 편하고 문제해결도 용이하다.

5. 인간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완전하거나 고정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우리는 항용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겁부터 먹게 되는데 이것은 벌써 문제에게 주눅이 잡히는 징조(徵兆)이
다. 매사가 그렇지만 남에게 주눅이 잡혀서 협상한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가 되고 만다. 문제와의 관계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네가 도대체 뭐냐 격으로 진지(眞摯)하게 결단하면 이외(以外)로 할하게 녀다운 시킬 때가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고정되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견지에서 차근차근히 캐
고 들면 아무것도 아닌, 즉 문제로 형성될 만한 내용도 없는 것이 흔히 있다.

지면이 다 되었으므로 더 자세한 것은 뒤로 미루고 오늘 이만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문제에 부닥치고 의식, 무의식 간에 이 문제와 싸우노라 몸부림치다가 죽게끔 숙명지워졌다는 엄
연한 사실에 외면하지 말고 과감히 문제와 결단해서 페어플레이로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얻도록 해야할 것
이다. 오늘도 우리들 군인 앞에는 술한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듯 대기하고 있다. 겁 내지 말
고 과감히 대결해야 할 것이다.

수상(隨想)

××××

재건초(再建草)

일병(一兵) 김길조 <제4 항통대(航通隊)>

한발[牟魁, 가뭄]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우리 부대에서도 오늘 눈에 물을 대는 작업
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하늘도 뜻을 알았는지 점심때부터는 빗방울이 푹푹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에 없이 하
늘엔 먹구름이 짙 펴쳐지고 일과 끝 나팔이 울릴 무렵부터는 바짝 마른 대지에 주룩주룩 단비가 내린다. 사
역(使役)이라면 술선해서 나아가는 K 병장, 오늘 역시 사역을 나갔다가 흠뻑 비를 맞고 돌아왔다. 낡은 작업
복에선 물방울이 푹푹 떨어지고 얼굴엔 송실송실 구슬이 맺혔다. 문을 열자마자
“헤이 아로운!” 나의 애칭(愛稱)을 부르며, 손가락들을 세워 입술에 갖다 대며 하는 말이다.

한 달에 열갑 나오는 ‘화랑(花郎)’이 골초인 그에게 한 달은커녕 열흘이 못 간다. 담배를 자주 피우는 탓도 있
지만 아직 담배가 갑채 있으면 절반도 타기 전에 버리는 그에게서라.

오늘 들에 나갔다가 담배를 못 피웠다고 수다를 떨며 내 서랍을 뒤진다. 이내 풍초를 피워 물고는 “야외 나
가니 참 좋더라. 들엔 노랗게 보리가 익고 산엔 녹음이 푹푹 떨어지나 하면? 계곡에선 어느새 소쩍새가 울고
안 있나…….” 독특한 경상도 발음의 정경묘사(情景描寫)는 매력 있게 나를 고향으로 유혹(誘惑)했다.

외출이래야 기껏, 오십 환짜리 동시상영에 죽하던 난, 오늘 사역 못 간간 게 적이 아쉽다. 내 고향들에서도
옛날과 다름없이 지금쯤 하여 햇보리 점심 상추쌈에 진종일 등짐 질 걸…….

“야! 내좁 주라잉?” K 병장의 목소리가 신나게 고향 산천을 그리는 나를 깨워준다.

내게 담배가 아직 남아 있는 건 많이 못 피워서 뿐만은 아니다. 넓직한 사무실 청소를 도맡은 나는 아침마
다 재떨이를 비운다. 다배 배급이 나온 며칠까지는 의례 재떨이마다 반도 못 피운 풍초가 가득하다. 난 이걸
깨끗이 모아 봉지에 넣어 ‘재건초(再建草)’라 써두었다. 지난 토요일 오후였다. 담배가 피고 싶다고 재떨이를
뒤지는 K 병장께 나는 예의 봉지를 꺼내 보았다.

“게 머꼬? 재건초?” 입맛을 다시면 풍초를 찾던 그는 봉지를 뺏어 들고 환성을 울리며 돌아간다. 흡사(恰似)
과자봉지를 안은 어린애처럼……. 오늘도 재건초 생각이 나서 혼났다는 것이다. 나는 순간, 이때다 싶어 독의
만면(得意滿面)해서 “있을 때 아껴 피웠으면 오늘 같은 곤란은 안 받을 게 아녜요? 조금만 있음 절반도 안 피
우고 버리더니……. 이 속에 K 병장님 담배가 반은 넘을걸요?……” 선배인 그를 나는 낮을 붉히며 충고했다.

혹자, 내 애길 들은 사람이 있다면 “자식 제제하게…….”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군대 와서 배운 게 이 ‘절
제’라는 표어다. 사람들은 있을 때 마구 쓰고 없을 때 절절맨다. 언젠가는 봉투를 또 쏘려고 뒤집었더니, 이
건 벌써 선수를 친 것이었다. 미지의 선수자(先手者)에게 나는 미소를 보내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핍생활(耐乏生活)을 외쳐 왔던가? 지금 우리는 화랑 담배 한 가치를 아낄 수 있는 경제제건의
선두에 서 있지 않은가? 은혜처럼 비는 아직도 주룩주룩 내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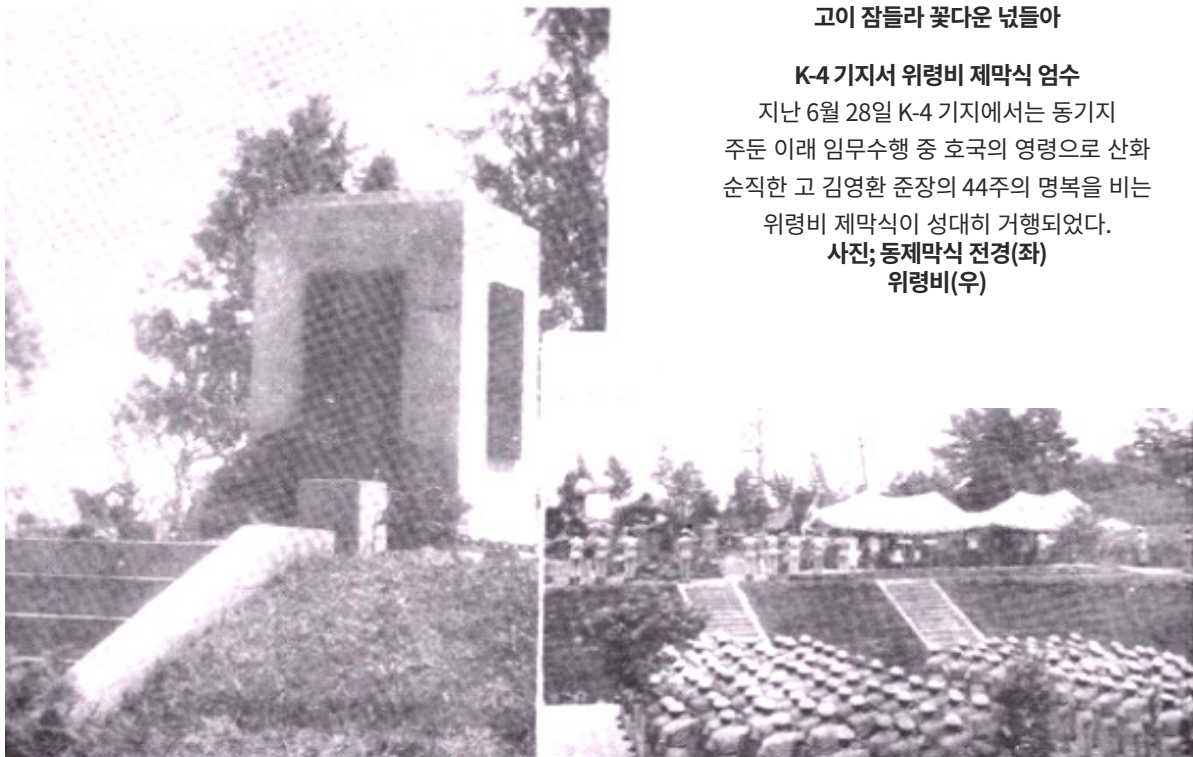
**혁명정신 이어받아
안일무사 일소하자**



비행안전에 또 금자탑(金字塔)
10전비(戰飛)서 당당 만 시간을 돌파

지난 7월 5일 제 10 전투비행단에서는 동단 장병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만 시간 무사고 비행에 대한 참모총장 비행안전상 수여식이 거행되어 우리 공군의 우수한 정비술과 조종기술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사진은 동 안전상패 수여식 광경과 개인표창 광경>



고이 잠들라 꽃다운 녀들아

K-4 기지서 위령비 제막식 엄수

지난 6월 28일 K-4 기지에서는 동기지 주둔 이래 임무수행 중 호국의 영령으로 산화 순직한 고 김영환 준장의 44주의 명복을 비는 위령비 제막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동제막식 전경(좌)
위령비(우)



물길이 열린다

목타는 농촌을 돕기 위한 양수작업, 수로개척 작업 등이 전 부대에 걸쳐 실시되었다. 땀에 젖은 삽질 따라 물길이 열리고 깊숙이 묻힌 파이프를 통해 물줄기가 쏟아질 때마다 넘치는 재건에의 의지는 더욱 굳어가기만 했다.
<사진·K-2기지 횡단 군민합동 수로개척 작업 광경>



미사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